

선교사 멤버케어

켈리 오도넬 편집

최형근 · 송복진 · 엄은정 · 이순임 · 조은혜 공역



기독교문서선교회

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By

Kelly O Donnell

Translated by

Hyung-Keun Choi · Bok-Jin Song · Eun-Jung Um

Soon-Im Lee · Eun-Hey Cho

Copyright © 2002 edited by Kelly O Donnell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under the title

as *Doing Member Care Well*

Translated by permission of WEF, an imprint of William Carey Library,

P.O. Box 40129 Pasadena, CA 9114 (818)798-0819

All rights reserved.

Korean Edition

Copyright © 2004 by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Seoul, Korea

Foreword

Caynuni rejsisishunqui llapan yachacojnicuna cashgayquita, sichu charanquiman cuyapanacuyniquita juc jucninhuan.

به همین همه خواهند فهمید که شاگرد من هستید اگر محبت یکدیگر را داشته باشید.

Si vous vous aimez les uns les autres, alors tous sauront que vous êtes mes disciples.

Kama mkipendana hivyo, watu wote watafahamu ya kuwa ninyi ni wanafunzi wangu.

你们如果彼此相爱，世人就会认出你们是我的门徒了。

Eğer birbirinize sevginiz olursa, benim şakirtlerim olduğunuzu bütün insanlar bununla bilecekler.

நீங்கள் ஒருவரினொருவர் அன்பின் விவரம் இருந்தால், அந்த ஒரு நீங்கள் என் தீர்மானம் அறிவார்கள். எல்லாருக்கும் அந்த உண்மையை உணர்வார்கள்.

En esto conocerán todos que sois mis discípulos, si os tenéis amor los unos a los otros.

Podle toho všichni poznají, že jste moji učedníci, budete-li mít lásku jedni k druhým.

አንትሙ-ኒ፣ ተፋቀሩ፣ በበዩናቲክሙ ። ወበዘንቀ፣ ያለምረክሙ፣ ባሉ፣ ከሙ፣ ለርናለዩ፣ አንትሙ፣ ለምክሙ፣ ተፋቀርኩሙ፣ በበዩናቲክሙ ።

Dengan hal ini sekalian orang akan mengetahui bahwa kamu murid-muridku, jaitu djikalau kamu menaruh kasih sama sendiri.

ἐν τούτῳ γνώσονται πάντες ὅτι ἐμοὶ μαθηταὶ ἐστε, ἐὰν ἀγάπην ἔχητε ἐν ἀλλήλοις.

In hoc cognoscent omnes quia discipuli mei estis, si dilectionem habueritis ad invicem.

Alla skall förstå att ni är mina lärjungar, om ni visar varandra kärlek.

بِهَذَا يَعْرِفُ الْجَمِيعُ أَنْكُمْ تَلَامِيذِي إِنْ كَانَ لَكُمْ حُبٌّ بَعْضًا لِبَعْضٍ

Le so aithnichidh na h-uile dhaoinne gur sibh mo dheisciobail-sa, ma bhios gràdh agaibh féin d'a chéile.

По тому узнают все, что вы Мои ученики, если будете иметь любовь между собою.

Ngalokho bonke bayakukwazi ukuthi ningabafundi bami, uma nithandana.

Si nou youn rinmin lòt, lè sa-a tout moun va konnè sè disip mouin nou yé.

의 원조와 국제 건강관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우 상관적인 내용들을 많이 발견 할 것이다. 물론, 종교적 신앙과 실천은 사람들의 삶에 의미와 방향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영성이 종종 해외 경험의 결과로 도전되며 강화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종종 인간의 고난과 정신적 외상 (traumatic events) 충격적 외상 사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복잡한 존재론적 질문들로 갈등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문제들에 접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스텝들-현지 스텝과 외국 스텝-의 복지와 삶의 질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큰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거나 비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의 자료들을 대할 때 이러한 관점들을 견지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지난 10년 이상 선교 인적자원에 대한 케어의 많은 발전들을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전 세계 여러 지역과 국가에서 멤버케어를 위해 협력 해왔다. 거기에는 멤버케어에 관한 다양한 이메일 네트워크와 웹 사이트, 그리고 협의회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신생 파송국들은 멤버케어에 점점 더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집중하는 멤버케어 문서들과 기관들은 이 분야의 형성과 확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전반적인 결과는 희생과 고통의 실재를 포용하는 한편, 스텝들을 돌보며 후원적인 케어와 양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균형 잡힌, 훈련된 접근이 되어 왔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멤버케어에 대한 이해와 자원 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기관들과 지역들이 아직도 있다. 또한 나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선교적 노력으로부터 가장 소홀히 여겨져 왔던 그룹과 지역 가운데서 사역하는 선교 인력들을 대신하여 후원 자원에 초점을 두는, 보다 통합적 노력에 대한 절실한 필요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야를 가진 책이 결코 한 사람에 의해 저술되거나 편집될 수는 없다. 이 분야는 너무 광범위하며, 전문적 케어의 영역들은 너무 깊다. 따라서 이 책에는 자신들의 전문 영역 내의 주제들에 관해 저술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60명 이상의 저자들이 포함되었다. 나는 이 책에서 그들의 글을 포함하여 그들 가운데 여러 명과 함께 사역 한다는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

각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의 글은 한 명으로부터 세 명에 이르는 동료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시각을 포함하여 많은 시각들이 그 글들을 조망하고,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멤버케어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현 상태를 살펴보고 보고했다. 50개의 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확산되는 운동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시할 수 있게 한다. 나는 여러분을 멤버케어의 광대한 분야를 탐구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 인력들을 잘 보살피는지를 조망하도록 초청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후원과 기도로 도와 준 르 루셔(Le Rucher)의 스텝들에게 감사한다. 나는 특히 르 루셔의 책임자인 에릭 스프루익(Erik Spruyt)과 Jeltje Spruyt의 격려와 르네 슈델(Reneë Schudel), 베르니끄(Véronique), Gueârdard, Jan Pauw, Ida Kouassi의 행정적 도움, Henny Pauw, Michele O'Donnell, Daniel Brill, 그리고 Denise Brill의 여러 글들의 검토를 통한 도움에 감사드리고 싶다. 또한 나는 우리의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분들, 특히 캘리포니아 웨스트레이크 빌리지의 갈보리 커뮤니티 교회와 코네티컷 운케스빌의 갈보리 크리스천 헬로우십의 친구들은 지난 15년간 우리를 후원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 선교위원회의 빌 테일러(Bill Taylor)와 조나단 루이스(Jonathan Lewis)에게 감사드린다. 언어의 귀재인 영국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의 스티브 필링거(Steve Pillinger)와 스위스 세계교회협의회(WCC)의 도서관 자료들은 머리말(foreword)에 나온 요한복음 13장 35절을(여러 나라의 언어로-역자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에릭 홀로웨이(Eric Holloway), 도나 딜(Dona Diehl), 그리고 수잔 피터슨(Susan Peterson)은 책 겉표지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각 장의 첫 페이지에 포함된 1장의 주요 도형을 만들고 재구성하는데 참여했다. 부가하여 수잔 피터슨은 정교하고도 유능한 방법으로 편집하고 책 전체를 구성했다. 또한 다양한 지역 멤버케어 협력의 일부인 나의 동료들, 특히 WEA의 글로벌 멤버케어 태스크 포스(대책 위원회, Task Force)에서 일하는 데이브 폴락(Dave Pollock), WEA 멤버케어 아시아 태스크 포스에서 일하는 폴리 찬

(Polly Chan), WEA 멤버케어 유럽 그룹에서 일하는 해리 호프만(Harry Hoffmann), 코미밤(COMIBAM) 목회 케어 그룹에서 일하는 마르시아 토스테스(Marcia Tostes), 그리고 아프리카의 복음주의협의회 멤버케어 트랙에서 일하는 나오미 파모누어(Naomi Famonure)에게 감사드린다. 이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이 방대한 분량의 책의 내용들을 수집하고 편집하는 동안 나와 더불어 신실하게 인내한 내 가족들에게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우리 딸들인 에린과 애슐링, 그리고 내 아내인 미셸은 이 책이 나오기까지 기꺼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양보해 주었다. 어린 양이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근거이시다. 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그의 동역자가 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2002년 2월
스위스 제네바
켈리 오도넬

한국어판 서문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국의 기독교 사역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은 마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칭찬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처럼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인내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날로 더해가는 사람들입니다(살후 1).

우즈베키스탄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아픈 진리가 차라리 달콤한 거짓말보다 낫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선교 공동체는 이 속담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마음이 아파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 이 속담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들이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속담이 주는 의미를 세계 선교공동체가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없애고 선교지에서 건강하게 머무를 수 있는 현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 장애물 중에는 질병, 팀 내의 갈등, 언어 문제, 문화 충

격, 성적 유혹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희망과는 달리 슬프고 부서진 상태로 귀국합니다.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훌륭한 연구결과는 12,000여명의 사역자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되돌아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면 피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귀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즉 멤버케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멤버케어는 안락한 생활을 선교사들에게 제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멤버케어는 주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회복하고 경건성을 유지하며 일을 더 잘하도록 개발하는 것에 멤버케어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들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좀 더 잘 견디고 강건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동료 사역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우리가 다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서로 돕는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쉬운 명어를 메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당면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마 11:28-30).

바울 사도가 말한 이기기 위해서 자기 연마를 하는 것과 이기기 위해서 쉬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고전 9:24-27; 마 11:25-30). 이러한 관점에서 멤버케어를 볼 때, 일련의 자기 연마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이고 성경적인 관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신선하게 유지하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과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파송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과 파송 받은 사람들끼리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입니다. 타문화권 사역을 하는 동안 나는 내 자신이 더 좋은 훈련과 지원, 곧 멤버케어를 받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 젊었고 열심이 있었던 19살이었습니다. 제가 멕시코 남부 사막지대의 부족집단에게 사역하는 단기 사역 팀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기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는 착잡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선교 단체의 사역적인 상황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측했던 대로 저는 깨끗하지 못한 물로 인해 배탈이 났습니다. 스페인어 계통의 다른 부족 언어를 사용하였기에 언어사용에 있어서 혼돈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옷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였기 때문에 항상 피곤을 느꼈습니다.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난한 지역이었기에 배가 고팠습니다. 제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선교사역을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한 열정이 식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볼 때, 제가 경험했던 갈등들은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이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서가 한국어로 출판된데 대해서 매우 격려를 받았습니다. 2002년 영어로 이 책이 출판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수천 권이 보급되었습니다. 이 책은 편집에서 배포와 적용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그룹이 함께 한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서는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멤버케어에 대하여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이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지원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읽어나가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인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등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 가운데서 이 책을 읽으면서 숙고하고 제기된 질문들에 응답하며 동료들과 토의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경적인 멤버케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국의 사역자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4년 6월
켈리 오도넬

역자 서문

5년 전,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한국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질문들 가운데는 선교사가 훈련기관에서 피드백을 받은 경험 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자주 받았으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 예상치 않은 바는 아니었지만,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없다’ 라고 대답했으며, 심지어 피드백이 무엇인지 묻는 응답자도 있었다(지금 생각해 보면, 파송기관에 대한 선교사의 시니컬한 반응으로 여겨진다). 사실, 이 질문 내용들이 논문이 목적하는 주요 주제는 아니었으므로 당시에 세밀히 다루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한국교회의 선교사 관리와 돌봄의 현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선교역사상 한국교회는 신생 선교사 파송국에 속하지만, 현재 1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함으로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양적인 성장이 곧 한국교회 선교의 질적인 성장이라 평가될 수는 없다. 오히려 부정적 측면에서 이러한 급속한 한국교회 선교의 성장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인적자원의 가치와 가능성을 족히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에 대한 적절하고도 전략적인 투자를 도외시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선교현장에 몸담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불필요한 희생을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역자는 선교현장에서 정신적, 영적 “공황”을 토로하는 한국의 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만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모국으로부터의 특별한 후원이나 도움 없이 멀리 타국에서 “버티기”

식의 고독한 투쟁을 홀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갈등들은 그들이 한국에 돌아온다고 해도 크게 바뀌지 않으며, 때로는 머무를 처소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한국교회가 선교의 눈부신 업적에 대해 갖는 자부심은 선교사들의 승리하는 삶과 선교현장의 감격, 그들을 향한 모국교회의 합리적인 배려와 후원에 대한 선교사들의 진정한 감사가 어우러질 때야만 비로소 진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차세대 선교사들에 대한 선발, 선별, 훈련, 파송, 본국사역, 노후문제, 그리고 MK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에 직면하고 있는 이 때에, 한국선교에 대한 자성과 반성의 움직임들이 보다 고무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 나라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현장 사역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본서는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에게 큰 도전이 되며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리라 믿는다. 나아가 이 책은 편집자인 켈리 오도넬이 서문에서 촉구하고 있는 조직적, 세계적, 상호협력적인 선교사 멤버케어의 거시모델에 한국교회가 응답할 수 있도록 활력소를 제공하리라 믿는다.

본서의 번역을 위해 5명의 번역자들이 참여했다. 본서에는 여러 국적과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60명 이상의 저자들의 글이 담겨 있으므로 비록 멤버케어를 주제로 하여 글이 쓰였다고 해도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글의 일관성보다는 다양한 글의 형식과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사고와 사상이 채색되어 있다. 따라서 역자들은 이러한 색채들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용어의 통일과 흐름에 역점을 두고자 노력했으나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는 바이다.

번역에 있어서 역자들의 가장 많은 주의를 요구되었던 “Member Care”는 ‘care’가 갖는 다양한 의미상의 변화로 인해 영어발음 그대로 ‘멤버케어’로 사용했다. 여기에서 ‘케어’는 돌봄, 관리, 슈퍼비전, 관심, 배려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멤버’는 선교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들을 지칭한다. ‘멤버케어’에 대한 개념 설명은 켈리 오도넬이 서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본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먼저, 켈리 오도넬의 서문을 참고

하기 바란다. 오도넬은 서문에서 책의 내용과 구성을 짜임새 있게 개괄하고 있으며, 본서가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다. 제2부 지역적 이슈와 통찰에서 다루어진 아시아 지역에 관한 글들은 아시아인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이슈들을 다채롭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본서가 한국 독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이라 여겨진다. 무엇보다 제1장과 제3부에 제시된 멤버케어의 최상의 실천모델(A Best Practice Model of Member Care)은 한국교회 선교의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 훌륭한 안내지침을 제공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선교의 순례자들에 대한 인격적인 돌봄과 양육의 장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역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위치한 선교사 멤버케어 센터인 Heartstream Resources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훈련 중 특히 기억에 남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사 멤버케어는 더 이상 선교사들의 “생존”(survival)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nurturing & growing)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선교는 선교사들에 대해 아직까지는 “생존”을 요구하는 입장이라 갈 길이 멀게 느껴지지만, 오늘도 겸손히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신실한 교회와 주의 종들의 헌신 속에서 이 소중한 과업을 꾸준히 진보하며 성취될 것이라 믿는다.

2004년 7월

서울신학대학교 연구실에서

최형근, 엄은정

목 차

머리말 · 3
 서문 · 5
 한국어판 서문 · 9
 역자 서문 · 13
 서론: 세상 끝까지, 시대의 끝까지 · 23

제1부 멤버케어의 상황

제1장 멤버케어의 세계화 추세: 최상의 실천을 위한 멤버케어 모델 · 45
 / 켈리 오도넬(Kelly O' Donnell)
 제2장 멤버케어의 흐름과 케어 제공자의 개발 · 63
 / 데이빗 폴락(David Pollock)
 제3장 2천년의 기독교: 오늘의 변화와 내일への 도전 · 81
 / 토드 존슨(Todd M. Johnson)
 제4장 인도주의에 대한 일련의 관점 · 89
 / 존 암스투쯔(John L. Amstutz)
 제5장 신앙의 증거자들을 추모하며 · 97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hn Paul II)

제2부 지역적 이슈와 통찰

아시아

- 제6장 아시아 선교사들을 위한 도전과 케어 • 105
/ 그라시아 위아다(Gracia Wiarda)
- 제7장 선교사 자녀 교육과 케어: 아시아의 교훈 • 131
/ 폴리 첸(Poly Chan)

남아시아

- 제8장 인도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케어: 암흑의 장애물과 신적 기회 • 163
/ K. 라젠드란(K. K. Rajendran)
- 제9장 남아시아의 아시아 선교사들을 위한 현장 케어 • 183
/ 아키 림(Ah Kie Lim)

아프리카

- 제10장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케어 • 199
/ 나오미 파모누어(Naomi Famonure)
- 제11장 북아프리카에서의 멤버케어: 사막에서의 삶 • 223
/ 안케 티썩(Anke Tissingh)
- 제12장 서부 아프리카 이동 멤버케어 팀: 우리의 여행과 방향 • 237
/ 달린 제롬(Darlene Jerome)
- 제13장 남아공의 멤버케어 발전 • 255
/ 마리나 프린스(Marina Prins), 브람 빌렘스(Braam Willems)
- 제14장 투마이니(Tumaini) 상담 센터: 동 아프리카에서의 10년 • 271
/ 로저 브라운(Roger K. Brown), 셸리 브라운(Shirley M. Brown)

라틴아메리카

- 제15장 라틴 아메리카 선교의 목회적 케어에 대한 각성 • 289
/ 크리스토퍼 쇼(Christopher Shaw)
- 제16장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목회적 케어: 파송교회를 위한 제안들 • 305
/ 파블로 카릴로 루나(Pablo Carrillo Luna)
- 제17장 브라질 선교사역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 • 315
/ 마르시아 토스테스(Marcia Tostes)
- 제18장 좋은 것을 취하는 것: 감정적인 디브리핑을 위한 짧은 경험 • 329
/ 에슬리 카르발호(Esly Carvalho)

이집트

- 제19장 지혜로운 중동사역: 압제하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사역 • 337
/ 나지 아비-하셈(Naji Abi-Hashem), 아니키 콤파니엔(Anneke Companjen)
- 제20장 적색 지대(Red Zones)에서의 멤버케어: 중동에서의 실례들 • 367
/ 레이몬드 히크스(Raymond Hicks)

제3부 멤버케어의 제공과 개발

주님의케어

- 제21장 예수 그리스도: 멤버케어의 핵심 • 395
/ 데이빗 휴제트(David Huggett), 조이스 휴제트(Joyce Huggett)
- 제22장 주님 안에서 기쁨과 희생 • 421
/ 아지스 페난도(Ajith Fernando)

자기/상호케어

- 제23장 거인, 여우, 늑대, 그리고 파리: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돕기 • 447
/ 켈리 오도넬(Kelly O'Donnell), 미셸 루이스 오도넬(Michele Lewis O'Donnell)

제24장 선교지에서의 성적 순결 • 467

/ 켄 윌리엄스(Ken Williams)

제25장 케어 제공자의 생존 전쟁: 개인의 책임 • 481

/ 파울라 오키프(Paula O'Keefe)

피송자케어

제26장 최상의 실천 지침 • 503

/ Global Connections, UK/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

제27장 기독교 인도주의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케어와 지원 • 519

/ 존 화셋(John Fawcett)

제28장 체제 혹은 귀환을 위한 행정지침 • 541

/ 로라 매 가드너(Laura Mae Gardner)

제29장 선교사의 헌신에 대한 재고 • 553

/ 케스 도노반(Kath Donovan), 루스 마이어스(Ruth Myers)

제30장 사역과 휴식: 선교사의 삶을 위한 12가지 도구 • 575

/ 켈리 오도넬(Kelly O'Donnell), 미셸 루이스 오도넬(Michelle Lewis O'Donnell)

전문가 케어

제31장 그들 세계의 방문자 • 603

/ 카렌 카(Karen Carr)

■ 목회적/영적 케어

제32장 목회적 권면: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일곱 서신 • 617

/ 로레아 린퀴스트(Lareau Lindquist)

제33장 개인의 영성 평가: 선교 인력을 위한 사역에 대한 반성 • 633

/ 애니 하그래브(Annie Hargrave)

■ 신체적/의학적 케어

제34장 선교사들의 건강한 출발과 건강의 유지 • 649

/ 마이클 존스(Michael E. Jones), 케네스 갬블(Kenneth Gamble)

제35장 사고 예방을 위한 건강 및 안전 지침 • 677

/ InterHealth People In Aid

■ 훈련/경력 케어

제36장 선교인력을 위한 경력개발 • 687

/ 고든 존스(Gordon Jones), 로즈마리 존스(Rosemary Jones)

제37장 멤버케어를 위한 아시아 상담자 훈련 • 701

/ 론 놀(Ron Noll), 바바라 로너트 놀(Barbara Rohnert-Noll)

■ 팀 구축/대인관계

제38장 탄력성 있는 팀 구축: CACTUS • 727

/ 켈리 오도넬(Kelly O'Donnell)

제39장 다문화적 선교 팀의 가능성과 위험 • 743

/ 데이빗 그린리(David Greenlee), 조용중(Yong Joong Cho),
아브라함 두레어(Abraham Thulare)

■ 가족/MK

제40장 선교사 가족에 대한 멤버케어: 군대로부터의 적용 • 759

/ 한스 리처드(Hans V. Ritschard)

제41장 난항 속의 국외 이주 여성들에 대한 지원 • 779

/ 아네미 그로스하우저(Annemie Grosshauser)

■ 재정/지원병참

제42장 멤버케어를 위한 자세와 부서 • 811

/ 브루스 스완슨(Bruce Swanson)

제43장 개척하는 모험: 적대 지역을 위한 책임적 전략지원 • 829
/ 스티브 홀러웨이(Steve Holloway), 키티 홀러웨이(Kitty Holloway)

■ 위기/우발사고

제44장 위기와 정기 디브리핑을 위한 안내지침 • 847
/ 데비 로벨 허커(Debbie Lovell Hawker)

제45장 선교사역에서의 인권 옹호 • 883
/ 윌프레드 왕(Wilfred Wong)

■ 상담/심리학적

제46장 선교현지 상담: 알곡 걸러내기 • 903
/ 레오나드 J. 서어니 2세(Leonard J. Cemey II), 데이빗 S. 스미스(David S. Smith)

제47장 디브리핑과 종족 화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 923
/ 에릭 스프루이트(Erik Spruyt), 리아논 로이드(Rhiannon Lloyd), 르네 슈델(Rene Schudel)

■ 네트워크 케어

제48장 멤버케어 연합의 개발 • 947
/ 켈리 오도넬(Kelly O'Donnell)

제49장 글로벌 멤버케어 자료 목록 • 969
/ 해리 호프만(Harry Hoffmann), 켈리 오도넬(Kelly O'Donnell)

제50장 멤버케어 탐방: 국제적 멤버케어 관련 문헌 • 1037
/ 켈리 오도넬(Kelly O'Donnell)

서론

세상 끝까지, 시대의 끝까지

켈리 오도넬 *

훌륭한 멤버케어는 훌륭한 선교사역을 하게 한다. 본 서론은 어떻게 멤버케어가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핵심 전략과 성경적 책임이 되는지 조망해 준다. 본서에 대한 개관 외에, 서론에서는 멤버케어를 정의하고, 멤버케어의 역사적 관점들을 제시하며, 선교사 중도탈락(missionary attrition)을 재고하며,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 친밀한 관계, 협력, 희생, 선교 공동체 밖의 부가적 자원들을 끌어들이는 것들은 전 세계 선교 인력들을 후원하기 위한 핵심이 된다.

“나 는 병과 가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자녀의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넘쳐흐르며 내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그것을 내게 말해 주기를 원하는지 나는 더 이상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남편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오늘날의 선교사역, 특히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버려진 사람들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다. 북인도의 불모지인 갈등이 만연한 지역의 이슬람교도들과 힌두교도들이 그러한 예이다. 혹은, 북서 중국의 황량한 국경 지역의 소외된 이슬람교/물할론적 위구르족(Uighur) 혹은 이라크, 이란, 터키 사이에서 위기 일발의 줄타기 곡예를 하며 근근이 자신들의 삶을



연명해 나가는 쿠르드족(Kurdish) 난민들, 혹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종교적, 정치적 체제가 1,200년 이상 기독교 선교를 금지해 온 북아프리카의 볼모지에서 선교사들은 복음이 필요한 지들을 섬기기 위해 땅 끝까지 가고자 헌신한 사람들이다. 또한, 멤버케어 사역자들은 이 세대가 끝나기까지 선교가 지속되는 한 그들의 사역들을 후원하고자 헌신한 사람들이다.

나는 스캇 펙(Scott Peck)의 저서, 『여행하지 않은 길』(*The Road less Traveled*, 1978)의 매혹적인 서문을 바꾸어 표현하여, “삶은 참으로 힘겹다”고 믿곤 했다. 15년간의 해외 사역과 인간 존재의 어두운 측면들을 관찰한 이후, 나는 이러한 말들이 많은 것들을 통틀어 표현하는 것이라 깨닫는다. 역사적 실재가 위대하면 할수록, “삶은 종종 상처 깊은 것이다”라는 금언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수십 개의 “전쟁들”, 4천만에서 5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난민들, 그리고 매년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들로 죽어가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어린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족히 증명한다.

물론, 삶과 선교사역이 항상 모진 것만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좋은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안전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도전은 지구촌의 불쾌한 양상들을 부정하고 경시하려는 우리 자신들의 경향들에 반하는 것이다. 빈곤, 전쟁, 영적 속박의 어두운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수많은 인류: 텔레비전 수상기, 신문, 잡지, 상담소, 혹은 우리의 간혀진 인식 속에 머물지 않는, 재난에 시달리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실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인정해야만 한다.

아내와 나는 심리학자로서 민감하고도 상황적인 방식으로 복음의 소망을 나누는 한편, 열정과 숙련된 기술로 인간의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 언어적 국경을 넘어선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그들을 후원하는 특권을 누려왔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많은 훌륭한 선교사들과 멤버케어 동역자들을 만났으며, 많은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며 서로에게 배웠다. 이러한 배움—도전적 선교 상황 속에서의 생존과 건강, 성장에 관한 다문화적, 통합적 배움은 본서의 여러 장들에 서술되어 있다.

1. 본서의 개관

본서는 여러 선교단체들과 멤버케어 사역자들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멤버케어 사역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글들과 최신의 정보를 편집한 것이다. “행함”(doing)은 멤버케어의 두 핵심 과정인 제공(*providing*)과 개발(*developing*) 자원에서 파생되어진 개념으로서 저자가 사용하는 프로벨로핑(*proveloping*)을 실제적으로 의미한다. 신생 파송국들(Newer Sending Countries)과 기존 파송국들(Older Sending Countries)을 대표하는 60명 이상의 저자들이 본서에 기여했다. 특별히 나는 신생 파송국들의 자료를 포함시키고, 그들의 문제들을 개관하는 일련의 방법으로서 그리고 멤버케어에 대한 접근들로서 본서를 사용하고자 했다.

본서는 50장과 3부로 구성되어 있다.

- **멤버케어의 상황**—멤버케어를 위한 본서의 주요 모델에 관한 글, 멤버케어의 흐름, 선교사역에 대한 개관, 고난/순교에 관한 관점들(5개 장).
- **지역적 이슈와 통찰**—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랍권의 선교 인력에 관한 글들(15개 장).
- **멤버케어의 제공과 개발**—본서의 멤버케어 모델인 주님의 케어(Master care), 자기/상호 케어(self/mutual care), 파송자 케어(sender care), 전문가 케어(specialist care), 네트워크 케어(network care)에 따라 5개 부문으로 범주화된 글들(30개 장).

많은 장들이 멤버케어가 개발되고 실천되는 방법을 반영하는 내용에 있어서 중복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장들의 경우 본서에서 한 개 이상의 부문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아네미 그로스하우저(Annemie Grosshauser)의 41장, “난항 속의 국외 이주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주제는 독신/기혼 여성에 대한 문제들과 영적 전쟁, 상담, 아시아 사역을 다룬다. 따라서 이 글은 가족/MK, 목회적/영적, 상담/심리적, 그리고 아시아에 관한 부분들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장들의 마지막에는 다섯 개의 “토의 주제”가 제시된다. 이것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글에 대해 응답하고 적용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준다. 자신의 상황에 가장 상관성있는 글들을 선택하여 동료들과 함께 읽고 토의할

것을 독자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다.

본서는 *Honourably Wounded*(Foyle, 2001), *Helping Missionaries Grow*(O'Donnell & O'Donnell, 1988), *Missionary Care*(O'Donnell, 1992c), *Too Valuable to Lose*(Taylor, 1997), *Raising Resilient MKs*(Bowers, 1998)를 포함하여 이전에 출판된 여러 책들에 근거하여 편집되었다. 또한 본서는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October 1995),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1983, 1987, 1993, 1999), *Indian Journal of Missiology*(October 1998)와 같은 멤버케어를 다루는, 다양한 특별 간행물에 근거하여 편집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이 학위논문/연구논문, 저널/선교회의에서 발표된 많은 글들에 부가될 때, 그것은 부상하는 선교 분야를 의미 있게 발전시켜 온 지식의 실체를 형성한다(전 세계의 멤버케어 서적에 관한 설명이 부연된 목록은 50장을 참조하라).

비록 이러한 자료들이 대부분의 기존 선교사 파송국의 저자들로부터 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신생 파송국 가운데 자료들(대부분이 소논문들)의 지속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본서는 신생 파송국과 기존 파송국의 저자들이 쓴 새로운 글들 뿐 아니라, 그 지역 수준에서 입수할 수 있는 신생 파송국 저자들의 글을 포함하고 있다. 본서의 목표는 포괄적인 개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유용한 멤버케어의 관점과 실천들의 선별적인 표본을 제시하는 것이다. 내가 확신하기에 그 결과는 최신 정보와 실제적인 적용들로 가득 찬, 참으로 국제적인 작업으로 여러 다른 단체들과 국가들의 선교 인력들에게 상관성을 갖는다. 전체적으로, 본서는 점차로 성장하고 있는 멤버케어 분야에 얽혀있는 많은 국면과 형세들을 반영한다.

신생 파송국과 기존 파송국, 인력개발 분야, 그리고 가톨릭과 동방교회 저자들의 다른 훌륭한 글들이 보다 많이 할애 되었더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앞으로는 서적과 온라인으로 된 국제적 멤버케어 저널을 통해 이러한 관심사들과 여러 글들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멤버케어의 분야는 광범위하며, 많은 실천가들이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소식과 생각들을 정기적으로 나누기 위한 어떤 새로운 포럼들이 요구된다.

1) 본서의 특징

본서의 발전에 있어서 신생 파송국과 국제적인 강조점 이외에, 나는 멤버케어의 어떤 단일 전문영역에 대한 개념들에 집중하지 않았다. 의학적 케어, 병참지원, 인력관리, 목회적 양육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은 본질적인 역할을 갖는다. 그러므로 본서는 의도적으로 목사, 인력개발 전문가, 교회 지도자, 의사, 심리학자 그리고 선교사 자신들을 포함한 다양한 멤버케어 동역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많은 저자들은 그들의 관심 주제들을 나눌 뿐 아니라, 선교 인력과 현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나누며 개인적인 공감을 더한다.

본서의 또 다른 특징은 국제적 멤버케어 영역과 같은 어떤 유익한 운동일 지라도 그것은 침체될 수 있으며 또한 “제도화” 될 수 있다는 나 자신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과정을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는 오랫동안 복음주의 선교 공동체의 멤버케어에 대한 새로운 목소리나 참신한 정보들을 통합시킬 필요를 인식해 왔다. 따라서 나는 본서를 준비하면서 멤버케어의 일반적 범주에 아래의 몇몇 다른 새로운 분야들을 추진하며, 새로운 영역을 착수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우고자 진정으로 심의를 기울였다.

- 국제 보건 공동체와 인도주의 구호 영역의 비정부기구.
- 선교 인력은 물론 멤버케어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에 관련된 영적 전쟁.
- 선교사의 사역 대상인 자국민/현지인에 대한 멤버케어의 필요성.
- 군대 내의 인력 프로그램의 응용.
-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옹호.
- 정신적 외상 치료와 우발사고 관리방안.
- 인력자원 개발 분야의 정보.
- 무엇보다, 미전도 종족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를 포함하여 교회의 희생적 헌신으로 2000년간 형성된 선교의 값어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본서를 특징짓는 한 결정적인 특징은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고 사려되는 부분을 책의 뒷부분에 둔 점이다! 그것은 본서의 제3부에 수록된 30개의 글들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 케어에 대한 5개영역에 대한 모델이다. 이 모델

은 1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되며, 각 장의 첫면에 재현된다. 또한 이 모델은 본서의 표지 앞면에 예술적으로 묘사된다(여러 다른 거시 문화의 일반 모티브에 새겨진). 나는 이 모델이 *교차-개념적 도구(trans-conceptual tool)*: 멤버케어 철학과 멤버케어 프로그램들을 넘어 상관적인) 뿐 아니라, 참으로 *교차-문화적 도구(trans-cultural tool)*: 조직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상관적인)의 근사치를 반영한다고 확신한다. 이 모델은 특수한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상세한 기술뿐 아니라(능력과 함께, 인격과 긍휼을 포함하여), 멤버케어의 폭(본서에서 논의되는 멤버케어의 5개영역)을 반영한다. 지난 2년 간 이 모델은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 동역자들에 의해 재검토되고 조정되었다. 또한 이 모델은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2001년 1, 4월)에 두 번에 걸쳐 소개 되었다. 이 모델이 교차-문화적이고 교차-개념적인 열망을 충족하고 있는가? 의심의 여지없이, 이 모델은 더욱 상황화된 모습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본서에는 핵심적으로 얽혀 있는 여러 특징들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는 신생 파송국과 기존 파송국의 경험을 나누기 위한 국제적 토론장, 매우 다양한 멤버케어 실천가들로부터 모아진 지혜, 우리와 함께 심정을 나누는 저자들의 신선한 감각들, 오늘날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실재들을 고려하는 멤버케어의 새로운 영역에의 시기적절한 모험, 여러 환경에 적용 가능한 포괄적인 모델이 포함된다. 본서의 글들은 어떻게 멤버케어 영역이 교차학문적으로, 국제적으로, 선교의 불가결한 시너로서 성장하고 있는지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2. 멤버케어에 대한 배경적 관점

실제적으로 멤버케어의 발전은 “서로 사랑하라”(요 13:34-35), “서로의 짐을 지라”(갈 6:2)와 같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서로”라는 유사한 많은 구절들인 성경적 교훈에 그 기원을 둔다(Jones & Jones, 1995, pp. 160-162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멤버케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점은 타문화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멤버케어 접근들을 발

전시키기 위한 보다 조직화된 시도라는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멤버케어를 정의한다:

멤버케어는 선교인력의 양육과 발전을 위한 선교 기관과 교회, 선교단체에 의한 지속적 자원 투자이다. 멤버케어는 선교와 관련된 모든 인력들(선교사, 지원 스텝, 자녀, 가족)에 초점을 두며, 따라서 선발에서 은퇴에 이르기까지 선교사의 삶의 전 과정을 다룬다.

멤버케어는 선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파송 교회, 선교 단체, 동료 사역자, 멤버케어 전문가-의 책임이다. “멤버”(member)라는 단어는 소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멤버케어는 한 집단(예를 들어, 특수한 상황 안에서 파송 단체 혹은 동료들)에 속한 자들 사이의 돌봄을 위한 상호 책임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내포한다.

또 다른 멤버케어의 핵심 원천은 선교사들이 현지인들과 함께 형성하는 상호후원의 관계이다. 그 원천이 무엇이든지, 그 목표는 경건한 인격과 내적 강건함, 선교 인력들의 효과적 사역을 돕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멤버케어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개인들 안에 잠재해 있는 내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 개인들은 고통/희생의 실재들과 개인의 성장/성취를 위한 일반적인 목표들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선교 단체의 차원에서는, “성취/과제”를 향한 단체의 강조점들과 “후원/멤버케어”를 향한 스텝들의 필요들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개인의 배경과 선교단체의 신조 유형-“일을 행하는 기존 방식”-사이의 불일치에서 초래된다.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타문화 적응과 같은 보다 일상적이거나 예측되는 스트레스 요인들로부터 기인한다. 상이한 문화/환경은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후원 역할이나 과중한 업무와 고립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 대한 자급/인내의 필요성 같은 멤버케어의 다른 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다음의 간략한 예들은 멤버케어 영역의 중요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 다국적 팀의 팀 목표의 차이, 의사결정 선호, 예배형식의 갈등 해결을 위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팀 구축 모임.
- 상담, 의료 평가, 현지인과 외국인 선교사 상담 제공을 위해 인도에 세워진 초교파 기관의 선교사 보건 팀.
-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 가족들에게 현지 영접을 제공할 것과 최소한 현지인 두 가정들과 후원 관계의 지지적 친분을 형성하도록 고무하는 것.
-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센터에 며칠간의 성경교육과 격려사역을 위해 두 명의 신망 있는 목사를 초청하는 것.
- 북 아프리카의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두 선교사 부부가 헌신의 일부로서 기도와 상호후원을 위해 정기 모임을 갖는 것.
- 상담, 세미나, 자문을 통한 선교 기관의 연례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 내에 멤버케어 사역자 팀을 조직하는 것.
- 중동의 전쟁지역 외부의 안전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독교 구호단체 “사역자들”을 위해 비형식적인 수련회를 제공하는 것.
- 싱가포르, 브라질, 나이지리아와 같은 신생 파송 국가의 현지 교회 선교부가 비자 발급, 자녀 교육, 의료보험, 여행 일정을 돕는 일을 포함하여, 선교사들을 위한 병참지원을 발전시키고 있음에 따라 그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

1) 개인적 관점들

내가 멤버케어에 참여하게 된 결정적 시점은 매년 11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열리는 정신건강 선교 회의였다. 이 회의는 지난 30년을 넘게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의 오아시스가 되어왔다. 인디애나주 국립공원 내에 있는 이 아름다운 숙소에서 선교사와 교회/선교 지도자, 대학원생, 멤버케어 사역자들과 더불어,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트워킹, 훈련, 상호후원을 위해 함께 모인다. 이 대회는 멤버케어 사역에 대한 비전에 수없이 많은 불을 점화했으며, 미국 내에 멤버케어 분야를 위한 현실적인 재집결지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수년에 걸쳐, 많은 이들이 세계의 다른 장소에서 이와 유사한 모임을 희망해 왔는데, 실제로 그것은 현실화 되고 있다!

내가 가장 깊게 감동을 받은 것은 1990년 회의에서였다. 그 해 회의의 주제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중재 모델들을 다루었는데, 거기서 발표된 글들은 탁월한 것들이었다. 놀랍게도, 그 회의가 끝나갈 즈음, 나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마지막 발표가 끝날 무렵, 나는 동요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토론하고 있었던 방법들과 모델들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단순히 그 회의에서 뿐 아니라 전 멤버케어 공동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돌연히, 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 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우리는 개인적, 가족적, 기관적 멤버케어 접근방식을 넘어서 멤버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보다 조직적 세계적, 상호협력적인 접근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멤버케어를 위한 거시 모델(macro-model)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회의 이후에, 나는 이 거시 모델에 관한—어떻게 멤버케어를 세계적으로 한층 개발할지—나의 생각을 기술해 나가기 시작했다. 1992년 여름, 나는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O’Donnell, 1992a)와 *Missionary Care*(O’Donnell, 1992b)에서 나의 생각을 글에 담아 출판했다. 나는 그 글의 제목을 “선교에 있어서 멤버케어를 위한 의제”(An Agenda for Member Care in Missions)라고 붙였다. 다음은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췌한 것들이다(O’Donnell, 1992b, pp. 296, 297). 이 원리들은 계속하여 나에게 심오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교에 있어서 “제공하고 개발하는” 멤버케어(proveloping member care)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왔다.

-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멤버케어에 대한 여세는 가장 큰 활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파를 위해서는 일련의 방향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복음화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선교사들에게 멤버케어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통로를 연결하는 것이다.”
- “이 분야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회적 회의가 갖는 책임도 아니며, 멤버케어 주제들이 언급되는 정기적 모임의 책무도 아니다. 상호 협의, 협력적인 노력, 인내, 그리고 상호의존이 그 지도 원리가 되어야 한다.”
- “멤버케어는 오늘날의 선교적 사고와 실재들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선교 세력은 급속히 팽창되고 있으며, 특히 2/3세계 선교사들에 대해 분명 그러하다. 이러한 팽창은 적절하고, 포괄적인 멤버케어 프로그램과 사역을 개발시킴으로 전 세계 선교 공동체 내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 “마지막으로, 지금은 전 세계 멤버케어 사역자들의 다양한 자원들을 능동적으로 집약해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 또한 이러한 전략적 사역을 위하여 많은 인력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고 동원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은 부름 받은 지도자들이 주님의 지시에 응답하여 앞으로 나아가 이 분야를 움직이도록 도와야 할 때이다.”

이러한 비전적인 설명은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며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다. 협력적인 시도들이 있었으며,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다. 사실, 본서는 약 10년 전에 내가 다루었던 협력적인 노력들, 포괄적인 프로그램들, 동원, 리더십을 향한 상위의 열망들을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멤버케어의 발전에 대한 보다 훌륭한 시대적 감각을 원한다면, 선교사의 중도탈락에 대해 테일러(Bill Taylor, 1997)가 편집한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Too Valuable to Lose*)의 22장은 물론, 본서의 48장을 참조하라.

3. 평화로운 출발? 아니면 분열된 출발? 선교사 중도탈락에 대한 재고

본서의 50여 장들을 시작하기 위한 서문으로서,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Too Valuable to Lose*)에 근거하여 세계복음주의협회(WEF-현재 World Evangelical Alliance, 세계복음주의연맹으로 명칭이 개정됨-역자주)의 선교사 중도탈락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본서는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의 당연한 연장서이며, 이 두 책은 함께 선교사의 문화적응과 멤버케어 전략에 대한 최상의 국제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1) 중도탈락의 3P

기본적으로, WEA의 연구는 조사된 453개의 선교 단체들의 중도탈락률

이 매년 5.1%라는 사실을 밝혔다. 정상적 은퇴와 다른 선교단체로의 가능한 이동과 같은 사항들을 배제할 때, 최저 수치는 3.1%로, “바람직하지 않은” 중도탈락률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도탈락은 조기의(*premature*), 예방 가능한(*preventable*), 그리고 아마도 영구적(*permanent*)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기억하도록 그것을 3%의 3P로 생각하라.

실제로, 이것은 약 425,000명에 달하는 전 세계 선교사들(가톨릭과 개신교를 망라하여) 가운데 12,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매년 선교사직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Barrett & Johnson, 2001). 또한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중도탈락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급을 미치는데, 본국과 현지 공동체의 수천 명의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추가 결과들

그렇다면 왜 선교사들이 선교현장을 떠나는가? WEA의 연구에 따른 주요 원인들을 차례대로 언급하자면, 정상적 은퇴(9.4%), 직업 전환, 건강문제, 자녀문제, 불충분한 본국 후원, 동료와의 문제, 개인적 관심사, 선교 단체와의 불화, 헌신의 부족, 소명감의 결여(4.1%)이다. 이 연구 조사 내용들은 실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선교 지도자들과 같은 선교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한 선교사 그룹들 사이에 주목할 만한 비교 사항들이 발견되었다.

■ 신생 선교사 파송국(한국, 브라질, 나이지리아)의 선교사들은 기존 선교사 파송국의 선교사들(영국, 미국, 호주)보다 “예방 가능한” 중도탈락의 위험성이 약간 더 나타났다.

■ 신생 파송국과 기존 파송국간의 전반적인 연간 중도탈락 원인들은 매우 상이했다. 신생 파송국에 있어서, 상위에 위치한 이유들은 본국의 후원 부족(8.1%), 소명감의 결여(8.0%), 부적절한 헌신(7.3%), 선교단체와의 불화(6.1%), 동료 선교사들과의 문제(5.7%), 건강문제(5.1%)로 보고 되었다. 기존 파송국에 있어서는 상위에 위치한 이유들이 정상적 은퇴(13.2%), 자녀문제(10.1%), 직업 전환(8.9%), 건강문제(8.4%), 동료 선교사들과의 문제(6.0%), 개인적 관심(5.2%)이었다.

■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오래된 선교 단체일수록 예방 가능한 중도탈락률이 보다 낮았다.

■ 자신의 문화권에서 사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타문화권에서 사역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상대하여 거의 같은 비율의 예방 가능한 중도탈락률을 보였다.

■ 미개척지/교회개척을 하는 사역자들은 구호와 개발 환경의 사역자들보다 더 낮은 예방 가능한 중도탈락 비율을 보였다.

계속하여,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교사가 명확한 소명감을 갖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다음으로는 가족의 지원, 강한 영성, 문화 적응, 우호적 관계, 목회적 돌봄, 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졌다. 흥미롭게도, 목회적 돌봄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현장 사역자들에게 일어나는 “정규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이것은 목회적 방문이나 선교지 파송 전 훈련(pre-field training)(이것들 역시 매우 중요하다)보다 더 높게 순위 되었다.

3) 제안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결과들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겠는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접경 지점”을 의미하며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과 본서에 대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선교사역을 하는 우리로서는 장기간에 걸쳐 선교인력들을 유지시키고 양육하기 위해 더욱 포괄적이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접근으로 우리자신을 헌신해야만 한다. 이것은 선교인력을 위해 시간과 재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멤버케어 접근, 멤버케어 개발에 대한 상호 협의, 선교인력들을 위한/그들에 의한 삶의 질을 재고함에 있어서 진지한 숙고를 요청한다.

누가 이러한 모든 돌봄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감당할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 지도자들이다.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나아가 준비시킬 수 있는 인력 개발 전문가들, 선교현장 책임자들, 목회자들, 전략 수립가들, 타문화 훈련가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끝으로, 상호 격려를 통하여 효과적인 멤버케어 프로그램을 위해 중심적인 축을 제

공하는 여러분과 나와 같은 동역자들과 동료들이다.

본서의 자료와 함께, WEA의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파송 그룹들이 선교인력들을 후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소명의식을 명확히 하고 그 안에서 성장한다.
- 선교지 파송 전 선발과 훈련을 통하여 실제적인 준비를 한다.
- 선교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격려하고 촉진한다.
- 후원 동료들과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다.
-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적, 발달적 필요를 돌본다.
- 대인관계, 갈등 해결, 사역 관련 기술들을 향상시킨다.
- 장기사역을 위한 재정을 확보한다.
- 책임자들과 동료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한다.
- 사역의 기회와 경력 개발 가능성들을 이해한다.
- 언어/문화 학습을 우선시한다.
- 훌륭한 선교사역의 수행을 위해 선교사들로 하여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자/멘토들과 관계를 갖게 한다.
- 선교사의 삶의 과정에 유용한 멤버케어 자원들을 수용한다.
- 선교사들의 보람된 선교사역 은퇴를 위한 퇴직 인터뷰/후속조치를 취한다.

역사적으로 선교사 중도탈락은 사탄의 흑암을 뚫고 지나가기 위해 교회가 지불해야 했던 희생의 일부분이었다. 전쟁터의 사람들은 연약하며 불가결하게 상처를 입는다. 또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파송 기관으로서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선교사 중도탈락을 고려해 보자. 선교사 중도탈락이 예방 가능하든지 가능하지 않든지, 원하는 것이든지 원치 않는 것이든지, 미전도 종족 선교사역 주위에서 맴도는 영구적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도 선교사 중도탈락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중도탈락에 대한 백신이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상위의 문제들과 의견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토의하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된다. 동료들과 함께 WEA의 연구와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의 몇 개의 장들을 검토해 보라. 본서의 여러 장들을 잘 탐독한다면 유익함을

언을 것이다. 여러 자료들을 적용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을 때까지 계속하여 탐독하고 논의해 보라.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중도탈락을 예방하는데 당신이 소유한 최상의 도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4. 미래의 방향: PACTS

인간의 역사에는 목적이 존재하며, 그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세대를 향한 결말이 존재하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족속과 언어의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다(계 5:9-10). 선교적 과업을 후원하는 섬김의 사역으로서의 멤버케어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훌륭한 멤버케어를 발전시키는 것은 일련의 과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 파송단체들이 수년에 걸쳐 이룬 것을 신생 파송 단체들에게서 단 몇 년 안에 발전시킬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그물을 짜는”(knit the net) 수고를 요한다. 그것은 케어 사역자들의 네트, 개념적 네트, 조직적인 멤버케어의 문화적 네트, 커뮤니케이션 네트, 중앙/핵심 네트, 협의 네트이다!

이러한 세계적 멤버케어의 네트가 발전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의도적인 그리고 성령의 주도적인 방향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PACTS의 5개 방향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동역하며, 멤버케어를 보다 “제공하고 개발”(provelop) 하도록 도울 것이다. PACTS는 서로간의 협력적인 과제들을 추구해 나가며 동료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개척(Pioneering). 이제는 거품 선교와 몇몇 멤버케어(그다지 멤버케어가 필요하지 않는 지역들-역사주)에서 벗어나야 할 때인가? 실로 그러하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멤버케어 자원이 미흡한 지역에 가야 한다. 복음화가 가장 적게 이루어진 무리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우선시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폭을 넓혀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인도 혹은 아프리카에 초교파 단체 멤버케어 팀을 세우는 일을 돕는다. 이는 확실히 도전적인 일이지만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혹은, 문화적으로 민감한 멤버케어

사역자들을 10/40 창문 지역에서 사역하는 여러 초교파기관들과 협력하도록 연결하는 일은 어떠한가? 이러한 예들은 12, 14, 41장을 참조하라.

연합(Affiliations). 상호 프로젝트, 상호 후원, 상호 협의를 위한 멤버케어 사역자들을 소집하라. 목적을 갖고 연합하라! 케어사역자들의 지역 혹은 조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또한 전문가들은 개인적, 전문적 지원-여행/열대 의학 전문의, 인사 책임자, 위기 상담가 등을 위해 연합할 수 있다. 여러 다른 기관들이나 봉사 단체들의 일원으로 구성된 단기 팀을 형성하라.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선교 임원들을 따르도록 권면하라. 덧붙여, 이후의 사역을 기획할 방법들을 논의하도록 선교 임원들, 혹은 멤버케어 사역자들로 구성된 전략 협의회를 소집하며 이에 참여하라. 이러한 모임들은 소규모적이며 비형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거나, 보다 대규모적이며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직까지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선시 하라. 아프리카가 그 첫째가는 예이다. 마지막으로, 13장과 48장에 설명된 여러 단체들과 유사한 형태의 국가적 혹은 지역적 멤버케어 대책 위원회를 당신의 단체나 혹은 초교파기관 내에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라.

지속적 성장/케어(Continuing Growth/Care). 멤버케어는 교류학문의 영역으로서, 새로운 발전에 뒤지지 않으며 개인의 기술들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노력을 요구한다. 독서, 세미나 참여, 향상을 위한 시간을 우선시하라(50장에 제시된 자료들을 보라). 성장하라! 시대의 동향에 뒤떨어지지 말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련의 방법으로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심리학회(International Union of Psychological Science)와 같은 여러 세속적 산하 단체들과 연계성을 갖는 것은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Pawlik & Ydewalle, 1996을 참조하라). 선교인력 관리와 후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세계보건에 관련된, “비신앙적” 단체와 “신앙적” 단체 간에 연계성을 구축하며 가교를 형성하라.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회의 참여, 저널 구독, 임원들을 위해 인도주의적 구호 단체들이 제공하는 동료 후원 네트워크와 심리사회적 후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검토를 들 수 있을 것이다(27장과 35장을 참조하라). 우리는 복음주의 공동체만의 유일한 상호관계로 국제단체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멤버케어는 소진시키는 직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상호책임을 유지하며, 자신의 분량을

지키며, 정서적으로 “재충전”하는 방법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우리가 가르친 바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훈련(Training). 선교대회의 워크숍과 같은 것들을 통해 선교사들과 멤버케어 사역자들에게 자원을 공급하라. 당신의 기술과 당신의 삶을 나누라 (살전 2:8)! 주요 선교대회에 멤버케어에 관한 책자들을 마련하라. 아프리카와 인도의 성경학교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사 훈련원을 포함하는 주요 대학원/신학대학원에 멤버케어 과정, 세미나, 분과를 지도하라. 동료 상담, 결혼생활의 향상, 가정의 삶, 팀 구축, 영적 전쟁, 위기 중재에 대한 훈련은 특히 중요하다(그 예로 15, 16, 37장을 참조하라). 더 나아가, 신생 파송국과 기존 파송국의 선교인력들로 하여금 멤버케어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제공하라(예, 세계 여러 곳에서 제공되는 대인관계훈련, “Sharpening Your Interpersonal Skills” 과정에의 참여). 또한 문화적으로 상관적인 멤버케어 프로그램들의 개발을 지원하라. 선교사 훈련을 목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상담 과정을 제공하는 예수 전도단과 OM 선교회, 혹은 지도력 개발에 대한 다양한 현장 중심의 과정들을 제공하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의 Operation Impact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 프로젝트(Special Project). 전략적 요구와 공통적 관심사들에 근거하여 단기 프로젝트와 장기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라. 멤버케어의 빈틈을 공략하라! 현재 마무리 되고 있는 몇몇 프로젝트들은 글로벌 멤버케어 웹사이트(www.membercare.org)는 물론, 멤버케어 조직의 글로벌 기반을 유지하고 경신하는 것을 포함하며; 선교지 사역자들을 위해 격려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Trans World Radio의 “멤버케어 라디오”와 같은 단체들에 대한 후원, 연합 리서치/논문 연구; 필요한 지역(예, 태국, 키프러스, 인도, 아프리카)에 멤버케어 조직망/단체들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적게는 “손상”되고,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곳의 프로젝트는 연합하여 추구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최상의 예로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기사건 디브리핑, 상담, 화해 세미나 등의 후원을 마련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20, 25, 43, 47장을 참조하라). 간략히 말하자면, 그것은 사전에 행동하며, 운행을 중도에 바꾸지 말며, 미전도 종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추구하며, 전략적인, 실행 가능한, 현장에 관련된 프로젝트

를 위한 일에 시간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5. 결론

훌륭한 멤버케어는 훌륭한 선교를 하게 만든다. 그것은 선교사들을 강건하게 하며,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실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사람들을 제자화 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고난을 참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 멤버케어는 개척적이고, 실천적이며, 철저히 인격적인 사역이다. 멤버케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것은 황금률(the Great Commandment)과 지상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과 더불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the Abrahamic Covenant)을 성취하는 직접적이고도 전략적인 방법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 특히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일이다.

톨킨(Tolkein, 1965, p. 325)은 이에 대해 잘 언급하고 있다: “금으로 된 모든 것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방황하는 자들이 모두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강한 노인은 시들지 않는다. 깊은 뿌리는 서리를 맞지 않는다.”

선교와 멤버케어의 세계에서 가장 정선된 어떤 종들은 알려지지도, 전문적으로 필히 훈련을 받은 것도, 선교대회의 주 강사로 초대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견고한 금과 같다—그들은 무대의 조명 밖에서 내적으로, 은밀하게 빛을 발한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적 부름을 실천하며 하나님에게 깊은 뿌리를 내린 불굴의 사람들이다. 멤버케어의 주요 실천기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멤버케어의 책무를 떠맡고 있기는 하지만, 그 중요성만큼이나 멤버케어 전문가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거리의 보통 사람들” —현장의 선교사—과 같은 동등한 위치를 의미한다. 여기에 멤버케어의 중추와 미래: 선교사들 사이에, 그리고 선교사들과 현지인들 간의 상호후원과 영적 양육이 달려 있다. 멤버케어 사역자들은 근본적으로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금에 빛을 더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바친 희생의 본을 따르도록 은혜를 베푸시길 간구한다. 또한 우리는 선교사들의 가장 거룩한 사역 가운데 그들을 후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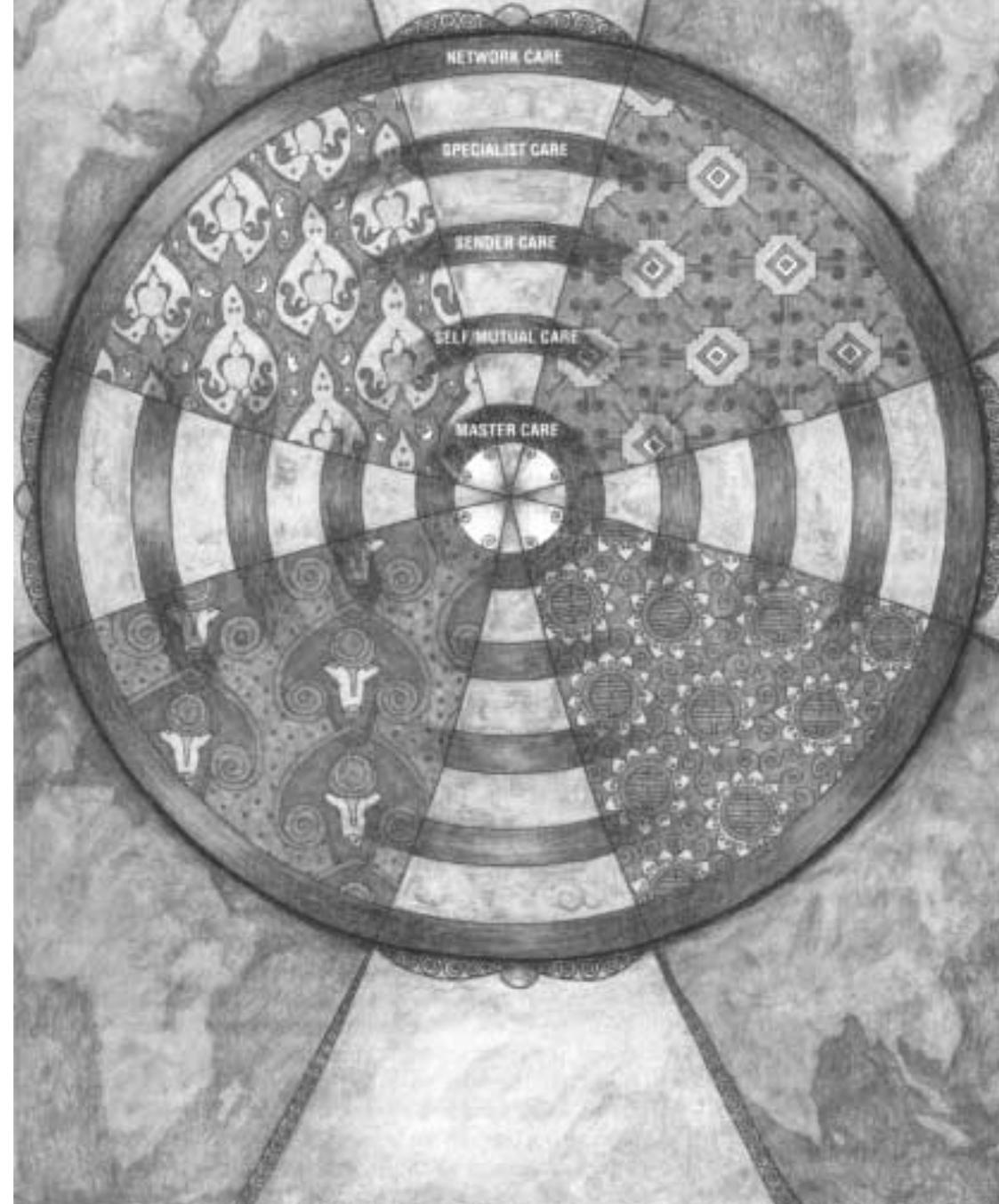
고, 세상 끝까지 그리고 이 세대의 끝까지 그들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한다.

† 참고 문헌 †

- Barrett, D., & Johnson, T.(2001). Status of global miss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25, 24-25.
- Bowers, J.(Ed.).(1998). *Raising resilient MKs*. Colorado Springs, CO: ACSI.
- Foyle, M.(2001). *Honourably wounded: Stress for Christian workers*. London, UK: Monarch Books.
- Indian Missiology Association,(1998, October). *Indian Journal of Missiology*. Special issue on "Care of the Missionary Family."
-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1955, October). Special issue on "Member Care."
- Jones, G., & Jones, R.(1955). *Teamwork*. London, UK: Scripture Union.
-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1983, 1987, 1994, 1997). Special issues on "Mental Health and Missions."
- Neely, A.(1995). *Christian mission: A case study approach*. Maryknoll, NY: Orbis Books.
- O' Donnell, K.(1992a). An agenda for member care in frontier mis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9, 95-100.
- _____. (1992b). An agenda for member care in missions. In K. O' Donnell(Ed.),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pp. 286-298).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_____. (Ed.). (1992c).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_____. (2001a). Touring the terrain: An international sampler of member care literature.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37, 18-29.
- _____. (2001b). Going global: A member care model for best practice.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37, 212-222.
- O' Donnell, K., & O' Donnell, M.(Eds.). (1988). *Helping missionaries g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Pawlik, K., & Ydewalle, G.(1996). Psychology and the global commons: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1, 488-495.
- Peck, S.(1978). *The road less traveled*. New York, NY: Simon & Schuster.
- Taylor, W.(Ed.). (1997). *Too valuable to lose: Exploring the causes and cures of missionary attrition*.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Tolkein, J.(1965). *The fellowship of the ring*. New York: NY: Ballantine Books.

* 이 서론의 여러 부분들은 "Member Care in Missions: Global perspectives and Future Directions"(*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997, vol. 25, pp. 143-154)와 "Will We Depart in Peace or Pieces?"(*International YWAMer*, October, 1998, p. 18)에서 수정 보완된 것이다. 사용허가를 받음.

제 1 부 멤버케어의 상황



선교사 멤버케어

제 1 장

멤버케어의 세계화 추세: 최상의 실천을 위한 멤버케어 모델

멤버케어는 국제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5년에 걸쳐(1997-2001) 선교사 케어에 관한 초교파적 선교기관 협의회가 인도와 파키스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헝가리,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뉴질랜드, 미국, 페루, 브라질에서 열렸다. 특별히, 이러한 협의회에서 신생 선교사 파송국에서 출현한 멤버케어 사역자들과 문화적으로 상관적인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지켜보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메일 포럼과 웹 사이트, 문서자료, 초교파 선교기관 대책위원회, 그리고 선교대회는 전 세계의 멤버케어의

* 켈리 오도넬(Kelly O' Donnell)은 유럽에 본부를 둔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과 국제공홀사역(Mercy Ministries International)에서 사역하고 있는 심리학자이다. 그는 데이빗 폴락(Dave Pollock)과 함께 세계복음주의



켈리 오도넬 *

멤버케어의 이해와 실천을 위해 이용자에게 친근한 타문화적 틀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여러 국가와 단체의 문화에 상관적인 최상의 핵심적 실천원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는 이 분야의 유력한 연구를 통합하며 멤버케어에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실천모델을 구별하기 위해 전 세계의 25명의 평론가들에게 요청하여 이에 대한 질문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안내를 위한 격자(grid)와 격려를 위한 안내"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들로 하여금 의사소통을 하게 하며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멤버케어 사역의 장은 실로 성숙되고 있다. 그것은 선교사 모집에서 은퇴에 이르기까지 선교 인력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교차학문(interdisciplinary)과 국제적 봉사의 사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1. 최상의 실천과 멤버케어

이 글에서 우리는 선교사의 삶에 필요한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을 새롭게 조망할 것이다. 그것이 목적하는 바는 여러 선교 단체와 국가의 선교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인, “최상의 실천”(best practice)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여기서 제시되는 개념들은 이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유된, 실제적 경험에 근거한다. 비록 이 글이 그 성격상 개념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적용 가능한 자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상의 실천”은 많은 봉사 단체들에 의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또한 이와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선의의 실천”(good practice)이다. 이 용어는 요원들의 관리와 후원에 대한 규정된 원칙들과 실행기준을 언급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여러 단체에 의해 형성되고, 채택되며, 시행되고, 검토된 공적 진술들이다. 각 단체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원칙들을 승인하며 책임을 갖는다. 그 단체들은 더 나아가 그들의 상황과 신조에 따라 이 원칙들을 조정

연맹 선교위원회(World Evangelical Alliance's Missions Commission) 산하의 멤버케어 태스크 포스(Member Care Task Force, MemCa)의 공동대표이다. 켈리는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Biola University)의 로즈미드 상담대학원(Rosemead School of Psychology)에서 임상심리학과 신학을 수학했다. 그의 전문분야는 인력 개발, 멤버케어 관계 구축, 팀 구축, 위기 처리이다. 그는 그의 아내 미셸과 함께, *Helping Missionaries Grow*(1988), *Missionary Care*(1992)와 더불어 멤버케어 분야의 여러 글들을 출판했다. 켈리 오도넬 부부는 슬하에 두 딸, 에린(12)과 애슐링(8)을 두었다.

Email: 102172.170@comuserve.com.

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지침들”은 각 원칙이 실행 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표준으로서 명시화된다.

이에 대한 한 예로서, People In Aid(1997, pp. 9, 10, 23)의 *최상의 실천 규약*(Code of Best Practice)의 7개 원칙 중 2개 원칙을 고려해 보자.

원칙 1: 우리 기관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기관의 효율성과 성공에 필수적이다... 인적자원 문제는 전략적 계획의 필수 요소이다(수석 행정대표 혹은 대표는 조항에 문서화된 공적인 위임을 한다: 기관은 관리자들로 하여금 요원들의 후원, 훈련, 개발 요구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원들을 분배한다)...

원칙 7: 인력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합한 조치들을 취한다. 우리는 구호 및 개발 단체들이 인력에 대해 종종 복잡하며 위험한 조건 가운데 막중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프로그램 계획안들은 특정한 나라나 혹은 지역의 안전 및 건강의 위험에 대한 문서 평가서를 포함시킨다. 선교단체는 사역과 연관된 상해, 사고, 재난들에 대한 기록들을 유지하며, 이러한 기록들은 현지 인력들에 대한 장래 위험을 평가하고 줄이는데 사용한다).

최상의 실천 그 자체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선봉에 서게 되었는데, 그들 중의 하나는 박애주의 구호 공동체이다. 그것은 비정부 기구들이 구호 사역을 제공하며, 상호간에 연계를 가지며, 긴장과 위험한 상황에 처한 요원들을 돌봄에 따라, 이에 대한 그들의 사역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약지침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데서 출현했다(Leader, 1999; McConnan, 2000). 또한 최상의 실천은 리서치와 전문가들의 합의에 근거하여, 보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침이 요구되었던 국내 및 국제적 보건 공동체 내에서 일어났다(Beutler, 2000). 이에 대한 일례로는 뉴질랜드 국립 보건 위원회의 불안장애 진단 및 치료 지침(*Guidelines for Assessing and treating Anxiety Disorders*, 1998)을 들 수 있다. 다른 예로는 미국 정신치료 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 질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실행 지침(*Practice Guidelines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1997)을 들 수 있다.

비록 케어의 질에 관한 기본적인 강조점들은 때로는 복음주의 선교 사고와 실천의 일부가 되어왔으나, 최상의 실천은 복음주의 선교 진영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용어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모든 선교 인력들에 대한 사전 돌봄의 제공에 대한 강조(예, Gardner, 1987)와 멤버케어 실천을 위한 윤리적 지침들의 발전 필요성(예, Hall & Barber, 1996; O'Donnell & O'Donnell, 1992)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새롭고도 매우 유용한 것은, 성문화된 원칙들과 평가 기준(주요 지침)의 형식 내에서, 파송 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며 책임을 진다는 인력 케어의 특정한 의무들에 대해 공식적인 진술을 강조하는 것이다. 내 개인적 소견으로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멤버케어 최상의 실천이 기여한 최대의 공헌이다.

선교에 있어서 최상의 실천에 대한 한 예는 글로벌 선교를 위한 캐나다 복음주의 협회 태스크 포스(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 Task Force for Global Mission)와 틴데일 타문화 사역 센터(Tyndale Intercultural Ministry Centre, 26장 참조)의 후원으로 토론토에서 열린 원탁회의 2000(the 2000 Roundtable Discussion)에서 출현한 최상의 실천 문서이다(15개의 원칙들과 여러 주요 지침들로 구성됨). 또 다른 좋은 예는 영국 복음주의 선교를 위한 주요 협의회인 글로벌 커넥션(Global Connections)에

의해 1977년에 개발된 단기선교 최상의 실천 규약(Code of Best Practice in Short-Term Mission)이다. 이 조항은 영국의 여러 선교단체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단체의 가맹은 조항의 부응에 있어서 현재의 성취를 나타내기 보다는 그 원칙들을 성취하려는 기관의 열망을 나타낸다. 표 1은 현장 관리와 목회적 케어를 포함하는 조항의 3번째 항목에서 따온 것이다(26장 참조).

나는 최상의 실천이 “최상의 실천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제시된 사랑의 돌봄에 근거한다고 본다(O'Donnell, 1999a). 우리와 함께 하는 주님의 관계 모델(model of relationship)은 우리와 타인에 대한 상호관계와 우리가 멤버케어를 위해 발전시키는 최상의 실천 원리들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도표 1을 참조하라).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중앙의 두 영역들은 우리에게 규범적인 것이며, 신약성경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와의 많은 만남을 반영한다. 우리를 향한 그의 끊임없는 사랑에 가운데 예수께서는 때로는 온유와 강함, 둘 다를 보이셨다. 아래 도표의 양쪽 끝은 “최악의 실천”을 나타내며, 그의 백성과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와 선교사들과의 관계에 나타나서는 안 될 것들이다. 즉, 그것은 그들을 과잉보호하며, 그들에게 충분한 도전을 주지 않으며(나약하게 함), 또는 그들의 결핍과 약함을 꾸짖는(비난함) 것들이다. 따라서 멤버케어는 도전을 가하는 것만큼 위로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채찍과 더불어 많은 포용(문화적으로 적합한 형태)과 훈계, 그리고 많은 인정(affirmation)을 포함한다(살전 5: 11, 14).

표 1

현장 관리와 목회적 케어 원칙 *

- 명확한 과제 목표와 목적,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제공된다.
- 권위, 감독, 의사소통, 의무, 책임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갖는다. 의사소통과 보고는 정기적으로 한다.
- 목회적 케어와 후원 체계가 확립된다. 파송 교회, 파송 단체, 현지 단체/현지 교회와 팀 책임자/직무 감독자/방침 관리자/목회 감독자/멘토에 대한 각각의 의무들은 모든 분야에 대해 명확히 제시된다.
- 개인적, 영적 발전의 기회들이 제공된다.
- 참가자들에게 행동 및 관계 지침이 주어진다.
- 위 항목들에 대한 참조와 함께, 이러한 사안들의 성취를 위해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들이 탐구된다.
- 건강관리, 보험, 의료 사고, 안전 및 철수, 스트레스 관리와 갈등 해결, 부정행위, 훈련, 불만을 포괄하는 조처들이 적절히 확립되며, 의사소통되고 실행된다.

* Global Connections, 1997.

도표 1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최상의 실천을 위한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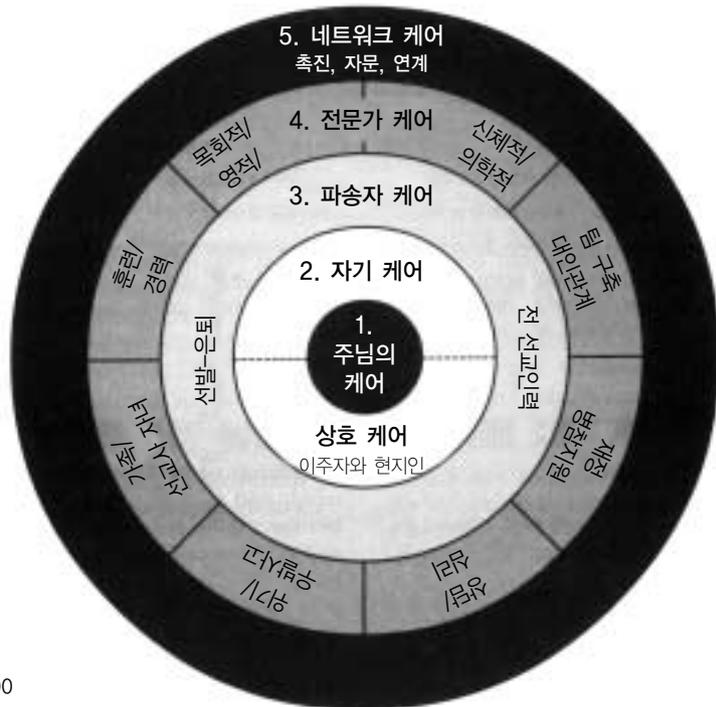
최상의 실천가로서 그리스도

나약한 자	위로자	도전자	비난자
회유자	화명을 주는 자	권유자	체벌자
(최악의 실천)	(최상의 실천)	(최상의 실천)	(최악의 실천)

2. 멤버케어 모델에 대한 개관

기본적인 멤버케어 모델은 마조리 포일(Marjory Foyle)로부터 초기 도움을 받아, 나와 데이브 폴락(Dave Pollock)에 의해 개발되었다. 모델은 상호 유입과 영향이 가능한 5개의 투과성 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도표 2 참조). 모델의 핵심에는 주님의 케어(master care)와 자기/상호 케어(self/mutual care)라는 두 개의 기초적 원이 존재한다. 이 원들은 파송자 케어(sender care)라 명명되는 중앙 연결 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다시 전문가 케어(specialist care)와 네트워크 케어(network care)라는 두 바깥 원들에 둘러싸여 있다. 멤버케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들은 다른 원들에 의해 제공된 케어를 촉진한다.

도표 2
멤버케어의 최상의 실천 모델



각각의 원들은 스텝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요청되는 전반적인 “케어의 흐름”(flow of care)과 관련된 최상의 실천 원리를 요약한다(Pollock, 1997): 그리스도의 흐름, 공동체의 흐름, 현신의 흐름, 케어 제공자의 흐름, 관계의 흐름. 케어의 흐름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 의해 시작되며, 그것은 항상 양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러므로 지지적 케어(supportive care)는 선교 인력들의 삶 안으로 유입되며, 따라서 효과적인 사역과 케어가 그들의 삶 밖으로 넘쳐 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케어의 흐름은 선교적 삶 속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케어와 “특성들”의 차이로 인해 필요하게 된다!

이 모델은 파송교회의 목사, 동료간의 상호 케어 같은 멤버케어의 출처(source)와 의료 및 디브리핑 케어 같은 멤버케어 유형(type)을 포함한다. 개인과 선교 단체, 봉사 단체, 지역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련의 도구로서 이 모델을 고려하라. 이 모델은 적절한 케어와 선교 인력의 발전을 위해 기준을 세우도록 돕는 융통성을 갖춘 체제이다. 이 모델을 “안내를 위한 격자와 격려를 위한 안내”로서 사용하라. 다음은 5개의 최상의 실천 원리들과 더불어 이 모델에 대한 개관을 설명한 것이다.

1) 제1원: 주님의 케어(Master Care)

주님으로부터의 케어와 주님을 위한 케어 - 멤버케어의 “핵심”

- 주님으로부터 -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경주하게 하며,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히 12:1-2; 4:9-11) 영적 훈련(예, 기도, 예배)과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경작되는 주님과 그의 소중한 자녀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
- 주님을 위한 -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헌신적으로 그를 섬기며, 우리가 그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아는데서 시작되는 갱신과 목적(골 3:23-24).

(1) 최상의 실천 원리 1: 그리스도의 흐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복지와 사역의 효율성을 위한 기본이 된다. 멤버케어 자원들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주님 안에서 다

른 이들을 격려하도록 돕는다. 우리가 그를 섬기며/기다릴 때, 그는 우리를 섬기시며/기다리심을 약속하신다(눅 12:35-40; 17:5-10). 선교적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인내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때로는 필요하다고는 할지라도, 규범적인 것은 아니다(딤후 4:16-18).

2) 제2원: 자기/상호 케어

자신으로부터의 케어와 이주민과 본국, 현지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로부터의 케어-멤버케어의 “중추”

- 자기 케어-자신의 복지를 현명하게 공급하기 위한 개인의 책임.
- 이주민, 본국, 현지 공동체-동료들과 가족들로부터 주고받는 후원과 격려, 수정, 책임(신약성경에서 “서로”에 대한 구절들을 찾아보라-이에 대한 목록은 Jones & Jones, 1995에 나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문화에 접하게 하며,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며, 적응하며/성장하도록 돕는, 의도적으로 현지인들과 구축하는 상호 후원적 관계들(Larson, 1992).

(1) 최상의 실천 원리 2: 공동체의 흐름

자기 케어는 건강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 자기 인식과 자신의 필요를 살피는 것, 개인 발달에 대한 책임,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성숙함을 나타내는 표시들이다. 마찬가지로, 가족과 동료들과의 질적인 관계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생산성을 위해 필요하다. 관계는 수고를 필요로 하며, 항상 즉각적으로 가능한 것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쉽게 발전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인력들은 본국 문화와 현지 문화의 사람들과 밀접하고 신뢰할 만한 우정을 형성/유지해야 한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동료들은 장기근속에 필요한 “연속적인 케어”(continuum of care)의 핵심 부분을 형성하는데, 그것은 동료들에 의해 제공되는 비형식적 케어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는 보다 형식적 케어를 포함한다.

3) 제3원: 파송자 케어

선교사 모집에서 은퇴까지 모든 선교 인력들을 위한 파송 그룹(교회와 선교단체)의 케어-멤버케어의 “버팀목”

- 총 선교 인력-교회 개척자와 훈련가, 현장의 행정가와 같은 “일차 사역 제공자”(primary service providers)와 함께 자녀와 가족, 본국의 인력들을 포함한다.
- 선교사 선발에서 은퇴까지-인생의 전 기간과 주요 전환기를 통괄하여 파송 교회/선교 단체에 의해 조정되는 구체화된 지지적 케어를 포함한다:
 - 선교지 파송 전(Pre-field)-모집, 선발/후보생, 임명, 훈련
 - 선교현장(Field)-첫 임기, 추가 임기, 임무/위치/단체의 변경
 - 재입국(Reentry)-휴가, 본국 임무, 이후의 선교지 귀환
 - 선교지 파송 후(Post-field)-사역 종료, 은퇴

(1) 최상의 실천 원리 3: 헌신의 흐름

한 단체의 인력은 그 단체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 파송 단체들(교회와 선교 단체)은 선교사의 전 인생 주기에 걸쳐, 그들의 인력을 함께 후원하고 개발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파송 단체들은 재정을 포함한, 그들 자신과 자원을 인력 케어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책임을 드러낸다. 파송 단체들은 단체의 발전과 외부 자원과의 연계, 인력개발 프로그램의 효율적 행정을 포함한, 포괄적이며 문화적으로 상관적이며 유지 가능한 멤버케어 접근을 얻고자 희망한다. 따라서 멤버케어는 단체의 현실성에 기초하며 역으로 단체의 현실성은 멤버케어에 기초한다. 또한, 파송 단체들은 멤버케어에 관련된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평가할 때 스태프들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4) 제4원: 전문가 케어

전문적, 개인적, 실제적인 전문가들의 케어-멤버케어의 “구비자”(equipper)

- 전문가들-선교사들은 특수한 소명을 갖으며,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종종 탄력성을 유지하며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특

수한 봉사를 요구한다(딤후 4:5).

■ 8개 전문가 케어 영역-이것들은 다음의 항목들로 이해되며 상기될 수 있다: 케어(CCare)를 위한(FFor) 실제적(PPractical) 도구(TTools). 이러한 분야들과 구체적 예들은 다음과 같다:

- 목회적/영적(Pastoral/spiritual) (수련회, 경건생활)
- 신체적/의학적(Physical/medical) (의학적 소견, 영양)
- 훈련/직업(Training/career) (계속 교육, 직업 배치)
- 팀 빌딩/대인관계(Team building/interpersonal) (단체의 역동성, 갈등 해결)
- 가족/선교사 자녀(Family/MK) (MK 교육 사양, 결혼 후원 그룹)
- 재정/병참지원(Financial/logistical) (은퇴, 의료보험)
- 위기/우발사고(Crisis/contingency) (디브리핑, 철수 계획)
- 상담/심리학적(Counseling/psychological) (평가, 간단한 심리치료)

(1) 최상의 실천 원리 4: 케어 제공자의 흐름

일반적으로 파송 단체들에 관련하여 전문가 케어는 적합한 자격이 구비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능력 내에서 사역하고 그들의 기여를 최대화 하며, 그들의 장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은 전문적인 윤리적 한계 내에서, 상황들에 도전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익숙하고/편안한 안전지대를 넘어, “신축성”(stretches)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일은 문화적으로 상관적인 방법으로 인격을 함양하고(덕/경건), 능력을 개발하며(타문화/전문적 기술), 공흠을 갖게 하는(사랑/관계) “투자”(investments)이다. 그 목표는 단순한 케어가 아니라 역량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선교 인력들로 하여금 타인을 위한 희생과 섬김을 위해 필요한 탄력성과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전문가의 일은 집합적으로 예방, 개발, 후원, 회복이라는 네 가지 차원의 케어를 포함한다. 이 네 요소는 효과적인 멤버케어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며, 스태프들이 상호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케어를 보완한다.

5) 제5원: 네트워크 케어

전략적, 후원적 자원들의 제공과 개발을 돕기 위한 국제적 멤버케어 네트워크의 케어-멤버케어의 “촉진자들”

■ 네트워크-촉매자, 자문인, 자원 연계자, 사역 제공자들로서 봉사함으로써 멤버케어를 촉진하는 상호 연관된 동료들과 단체들의 성장 조직체.

■ 자원-네트워크는 여러 형태의 자원들을 촉진하며 제공하기 위해 다른 네 개의 원들과 다른 지리적 영역들에 영입될 수 있는 유동체와 같다.

- 파송 단체-특수 멤버케어 사역 서비스/교회/기관 인력.
- 멤버케어 협력체-멤버케어 유럽/멤버케어 아시아와 같은 국내적, 지역적, 또는 특별 대책 위원회(48장과 O'Donnell, 1999b 참조).
- 협의회/회의-이에 대한 예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에 있는 국내 멤버케어 협의회들과 미국에 있는 목회자 선교사회의(the Pastor to Missionaries Conference)와 정신건강과 선교회의(the Mental Health and Missions Conference), 유럽 멤버케어 협의회(the European Member Care Consultations)들이 포함된다.

• 서비스 단체-『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Too Valuable to Lose, Taylor, 1997)에서 갱신된 멤버케어 단체 목록, 49장을 참조하라.

• 워크숍/과정-대인관계 기술, 위기 대응, 목회적 케어 등.

• 이메일 포럼/웹 사이트-유럽과 아시아 멤버케어 이메일 포럼과 멤버케어를 위한 세계복음주의연맹 웹 사이트(www.membercare.org).

• 시설/멤버케어의 중추들-미국의 Link Care와 Heartstreams; 유럽의 Le Rucher, Bawtry Hall, InterHealth; 태국 치앙마이와 싱가포르 등에 소재하는 케어 네트워크들.

• 기타 자원들.

(1) 최상의 실천 원리 5: 관계의 흐름

멤버케어 제공자들은 관계를 맺고 함께 동역하며, 행사와 개발에 관한 정보를 경신하며, 멤버케어 사역에서 얻어진 통합된 정보를 공유한다. 그들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닌, 필요 영역에 중요한 자원들을 연계하기 위해 능

동적으로 “네트를 짜는”(knitting a net)일에 참여된다. 협력과 밀접한 사역 관계는 멤버케어 사역자와 사역 단체, 파송 선교 단체, 지역 멤버케어 연합체들 사이에서 요구된다. 이메일과 회의, 협동 프로젝트를 통한 여러 지역의 멤버케어 사역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교류는 특히 중요하다.

3. 적용

최상의 실천 모델은 두 개의 주된 이유에 있어서 상관성을 갖는다. 첫째, 이 모델은 자기 케어의 역할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타인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핵심 개념에 있어서 성경적이다. 둘째, 이 모델은 많은 나라와 단체들의 경계를 넘어서 문화적, 개념적으로 충분히 적용 가능한 일반 모델이다.

서로 다른 파송 단체들은 이 모델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강조할 것이나, 각 원들은 중요하게 고려된다. 우리가 어떻게 멤버케어를 “행하는가”를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예를 들면, 도표 2의 제3원을 대표하는 파송 단체는 다른 네 원들의 자원들과 요원들을 연결하는데 중요한 중개 역할을 한다. 다른 단체들은 제2원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 케어와 상호 케어 간의 서로 다른 혼합을 강조한다. 어떤 이들은 보다 개개인의 복지를 위한 개인의 책임을 선택하며, 다른 이들은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한다. 많은 파송 단체들의 경우, 자기 케어와 상호 케어 간에는 많은 요소들이 중복되므로 이 둘을 같은 원 안에 위치한다.

상호 케어의 중요성은 반복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후원과 우호적 관계들은 적용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것으로서, 연구조사에서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상호 케어는 두 개의 날을 가진 검과 같을 수 있다. 상호 케어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은 풍성한 유익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상호 케어가 불충분하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특히, 케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는 문화들에서—그것은 관계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다. 덧붙여, 국제적 상황에서의 상호 케어는 미묘한 면을 갖는데, 특별히 개인/가족이 덜 지배적인 문화에 속할 경우 그러하다. 예를 들면, 언어

의 한계(특히, 현장의 주 언어가 개인에게는 제2 혹은 제3 언어가 되는 곳으로 인해, 그리고 문화적 차이(특히, 개방성과 솔직함 우세한 곳에서 개인이 조화와 존경에 대한 가치를 우선할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로 인해 관심과 필요를 나누는 일을 주저할 수 있다.

아마도 멤버케어 접근들 간에 내재된 가장 큰 불일치는 다양한 전문적 자원들에 대한 사용과 강조에 있을 것이다(제4원). 이것들은 지극히 서구적인 것으로서, 과다한 호사물이거나, 단순히 한 상황에서 발전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신생 파송 국가들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이유로 의료보험과 MK 교육선택, 은퇴 계획을 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되어 왔다. 또한, 선교 현장의 주민들이 하루를 살기에도 힘든 경우, 연금 계획 같은 개념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아마도 보다 적합하며 유용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상관적이거나 가능하지 않은 자원의 총체보다는, 케어를 위한 특정 기준이 제공되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나은 용어는 “최상의” 실천보다는 오히려 “기본적”(basic) 실천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훈련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 케어 제공자들은 공적인 학문적 연구/입증보다는 현장 사역경험에 있어서 보다 자질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전문가들이 문화와 선교 경험을 더불어 갖는다면, 그들이 “본국”에서 받는 전문성에 대한 존경과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 보다 나은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다.

1) 멤버케어 개발을 위한 도전

멤버케어의 주 도전은 장기적으로 선교 인력들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적절하고도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일이다(O’Donnell, 1997). 공통의 실천과제는 다른 단체들과 멤버케어 자원들을 창의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며, 성장하고 있는 국제적 케어 제공자들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선교지 파송 전 훈련을 통한 조력과 위기 케어, 열대지역 의료 자문, 선교사 자녀 교육의 필요성들이 이에 대한 예들이 된다.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고립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뿐 아니라, 특별히 신생 파송국과 제

한된 기금이나 경험을 가진 소규모 파송 단체 소속 선교사들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기관이 홀로 모든 멤버케어를 제공하는 일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 선교 단체의 최대의 실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케어의 전체적인 흐름에는 최소한 몇몇 결함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예측해야만 한다.

또 다른 도전은 선교사의 중도탈락이 예상되는 시기에 선교회에 새로운 자리를 찾거나 혹은 선교지를 떠나는 것을 분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장기간의 사역이 항상 바람직한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은 복음주의 선교 세계보다 더 광활한 것이다!

또 다른 도전적인 일은, 멤버케어의 필요들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책임과 더불어 특정한 파송교회와 기관들에게 멤버케어의 필요성을 고무시키는 일이다. 불행하게도, 멤버케어가 무시되고 잘못 이해되는 많은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대하여, 나는 이 멤버케어 모델이 멤버케어 문제들을 평가하며 다루도록 돕는 한 틀로서 사용되며, 선교요원들의 탄력성을 촉진시키는 확고하며 유동적인 모델이 되길 바란다. 이 모델의 다섯 개의 원들과 5개 최상의 실천 원리들은 더 나은 케어를 위한 “안내와 격자”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도표 3은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서 멤버케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들을 제시한다.

또 다른 도움은 멤버케어 참여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한 예로서, 멤버케어 사역자들과 파송 단체, 국내선교협의회, 지역/협력 단체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네 개의 최상의 실천에 대한 “점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O'Donnell, 1991).

- **수용성(acceptability).** 멤버케어 자원들은 얼마나 가용/가능한가? 실질적인 필요들은 상관적인 방법으로 충족되고 있는가?
- **구축(building).** 어떤 범위 내에서 멤버케어를 주어진 환경 가운데 구축하고 있는가? 유지가능하며 포괄적인 자원, 상호 후원과 영적 활력의 정신을 형성하고 있는가?
- **협력(cooperation).** 어떤 방법으로 멤버케어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가? 자원을 공유하고, 최신의 정보를 교환하며,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가?

도표 3
멤버케어 발전을 위한 전략과 환경

멤버케어 전략

- 작성/리서치
- 필요/자원 평가
- 자원에 관한 회의
- 훈련 제공
- 협의회 소집
- 이메일 포럼 참여
- 사역 팀 구성
- 사역 단체 구성
- 자원 센터 구축
- “세속적” 자원들과의 연계

멤버케어 환경

교회/기관, 초교파 기관, 국가, 지역, 세계

- **우선순위(priorities).** 어떤 범위 내에서 안내 원칙과 멤버케어를 위한 우선순위를—최상의 실천문, 명확한 초점, 위기에 처한 단체, 지정된 예산—규명하는가?

4. 결론

삶은 항상 우리의 최상의 실천 모델들에 따라 작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케어의 흐름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최상의 노력들은 단지 어느 한도까지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멤버케어 모델이나 접근을 초월하시는 주권적인 분이시라는 것이다. 역사 안에서 그의 목적들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과 질서를 기대하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들을 앞선다(렘 45:1-5). 이것은 선교사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경우이며, 선교사역은 역사적으로 어려움과 실망과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점철되어 왔다.

일반적인 삶의 갈등과 긴장에 상관없이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의 삶에 상

관없이, 주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기쁨과 고통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기쁨은 인생의 도전과 고통에 의해 정제되고 그것들로부터 종종 흘러나온다.

멤버케어는 선교사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드시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전략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들은 미전도 종족들을 위한 축복의 핵심 원천들이다. 또한 멤버케어는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구체화시키므로 중요하다. 그러한 사랑은 선교전략의 모퉁이 돌이 된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5. 토의 주제

1. 당신의 파송 단체의 멤버케어 접근은 이 글에 제시된 모델과 어떻게 유사하며 어떻게 다른가?
2. 당신의 환경과 단체, 혹은 지역의 선교 요원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갈등을 몇 가지 나열하라.
3. 당신의 환경에서 멤버케어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행할 수 있는 것을 규명하라. 예를 들어, 멤버케어 접근을 검토하고, 최상의 실천 원칙들과 주요 지침들을 구성/적용하며, 추가 전문가 자원을 개발하며, 추가 자료들을 읽고/토의하라.
4. 어떤 면에서 당신의 기술/재능과 관심/선호들이 제시된 모델과 일치하는가? 당신은 어떻게 멤버케어에 기여하고 있는가?
5. 모델의 어느 부분이 자국과 단체의 문화를 초월하여 가장 상관성 있게 간주되는가?

† 참고문헌 †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77). Practice guidelines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 1-64.
- Beutler, L. (2000). David and Goliath: When empirical and clinical standards of practice meet. *American Psychologist*, 55, 997-1007.
- Gardener, L. (1987). Proactive care of missionary personnel.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5, 308-314.
- Global Connections. (1997). *Code of best practice in short-term mission*. London: Author.
- Hall, M., & Barber, B. (1996). The therapist in missions contests: Avoiding dual role conflic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4, 212-219.
- Jones, G., & Jones, R. (1995). *Teamwork*. London, UK: Scripture Union.
- Larson, D. (1992). Closing space: De-alienation in missionary orientatio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20, 513-523.
- Leader, N. (1999, March). Codes of conduct: who needs them? *Relief and Rehabilitation Network Newsletter* (pp.1-4). London, UK: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 McConnan, I. (2000). *The sphere project: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disaster response*. Oxford, UK: Oxfam Publishing.
- National Health Committee, New Zealand. (1998). *Guidelines for assessing and treating anxiety disorders*. Wellington, New Zealand: Author.
- O'Donnell, K. (1991). An agenda for member care in frontier mis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9, 107-112.
- _____. (1997). Member care in missions: Global perspective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143-154.
- _____. (1999a). *Developing best practice guideline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European Member Care Consultation, June 10-13,

1999, Le Rimlishof, France.

_____. (1999b). Developing member care affiliations: Personal reflections and community psychology contribution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7, 119-129.

O' Donnell, K., & O' Donnell, M. (1992). Ethical concerns in providing member care services. In K. O' Donnell (Ed.),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p. 260-268).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People in Aid. (1997). *Code of best practice in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aid personnel*. London, UK: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Pollock, D. (1997, October). Developing a flow of care. *Interact*, pp.1-6

Taylor W. (Ed.). (1997). *Too valuable to lose: Exploring the causes and cures of missionary attrition*.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이 글은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2001, vol.37, pp. 212-222), P. O. Box 794, Wheaton, IL 60189, USA에 첫 기재된 글의 개정본이다. 저자의 허락을 받음.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이 글을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 글을 검토해 준 다른 지역과 단체에 속한 25명의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멤버케어 모델의 도식을 위해 도움을 준 EMIS의 도나 디엘에게 감사한다.

제 2 장

멤버케어의 흐름과 케어 제공자의 개발

두 주제(themes)는 그 말씀 안에 집중된다.
우리는 그 두 주제를 실천해야만 한다.
그때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황금률(The Great Commandment)과 지상 대 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은 분리될 수 없다. 지상 대위임령은 황금률 없이 성취될 수 없다. 황금률에 대한 순종은 지상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동기, 메시지, 방법론이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 데이빗 폴락(David Pollock)은 타문화적으로 이동하는 가족들과 제3세계 자녀들을 후원하며 돌보기 위해 헌신된 단체인 Interaction의 대표이다. 그는 그의 아내 베티 루와 함께 케냐의 Africa Inland Missions의 선교사였다. 그들



데이빗 폴락 *

이 글은 선교인력들을 대표하여 멤버케어의 안정된 흐름을 개발시킬 필요성을 고찰한다. 이러한 멤버케어의 본질은 “사랑의 흐름”(flow of love)으로서 가장 잘 이해된다. 이러한 사랑은 훌륭한 프로그램과 유능한 실천가, 선교 인력 간의 상호 후원, 선교사의 삶 전반에 필요한 유효한 자원들에 침투된다. 우리의 사랑과 일치는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보여준다.

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동기부여의 힘은 우리를 향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지상 대위임령의 성취는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고려될 수 없다(고후 5:14). 그러나 지상 대위임령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노력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타난 예수의 명령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전략(요 13:35)이라는 것을 믿는데 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의 상황 가운데 나타난다. 우리가 요한복음 13-17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3년간의 제자도의 여정 가운데 예수께서 그의 친구들을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실로 짧은 가르침이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예고하는 그 과정을 통해 제자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demonstration)하고 있다. 이 사건은 그가 무엇을 행할 것이며, 제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의 성령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보호받으며 그들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의 선포(proclamation)로 이어진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의 그의 여정의 본질을 개관하시면서 기원(supplication)으로 의식을 마친다: “그들은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들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이며, 당신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니이다”(요 17).

예수께서 기도하신 이 연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에게 화해 시키셨다”는 진리와 함께 이 세상을 대면한다. 이 연합은 황금

률에 대한 순종의 산물이며, 황금률의 성취는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준다. 그분의 본성에 대한 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도래 이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의 한 장면을 본다. 이 진술에서, 전도가 선포로서 표현된 것은 아무데도 없으나, 마지막 구절은,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진술한다. 분명히,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기능적 사랑의 증명은 선포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된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서로에 대한 관계 속에서, 이 신자들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들어오셨으며 그가 누구이신지 투영하기 위해 그들을 변화시키셨다는 것과 그 외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 안에—평범한 존재인 그들 안에—일어났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 외쳤다. 이러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17장 21절을 성취했다.

서신서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보다 나타내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을 한다. 이 증명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아래 강건해 지며, 격려하며, 양육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한 몸의 다른 지체들로서 언급된다(롬 12; 고전 12; 엡 4). 이러한 증명을 통해, 선포는 자연스럽게 출현하며 경계하는 세계에 의미를 부여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언급하면서(요 17장의 예수의 기도에 어긋나는) 그 해결책은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는 말씀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의 융합임을 분명히 밝힌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의 사랑에 대한 설명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건 강한 공동체의 돌봄과 후원 안에서 어떻게 그 자체가 역사하는지, 이에 대해 뚜렷하게 상상하기가 어렵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6-40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문제로 그것은 지상대위임령을 성취하는 그의 전략의 중심에 있다.

은 네 자녀와 다섯 명의 증손을 두고 있다. 그들은 초기 사역으로 Youth for Christ에서의 사역과 7년간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였다. 데이빗 폴락은 그가 교수로 섬기고 있는 뉴욕의 휴튼 대학에서 타문화 연구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사역해 왔다. 그는 또한 WEA Missions Commission Member Care Task Force의 공동 코디네이터이며 공동으로 저술한 *The Third Culture Kid Experience: Growing Up Among Worlds*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Email: 75662.2070@compuserve.com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주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선교 계획안에 그 자신을 아래의 것들 안에 계시하셨다.

- 창조(롬 1:19-20)
- 양심(롬 2:12-15)
- 계명(롬 2:17-20)
- 그리스도(롬 3:21-5:21; 히 1:1-4)
- 그리스도인(롬 6:1-16:27; 히 13:20-21)

게시에 대한 마지막 방법을 고려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사랑을 통하여 그의 본성을 계시하시고자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것은 행위적인 증명이지 단순히 구술적인 선포가 아니다. 지상대위임령을 성취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아마도 황금률을 성취하는데 집중하지 못한 우리의 실패에 관련된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 42-47절에 나타난 공동체의 단순성은 종종 너무 기초적인 듯 보이며, 이 세상과 그 요구들은 너무나 복잡해 보여서 이 모델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겨진다. 그것은 심지어 1세기의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로마 교회들의 지도자들에게 일어났던 점차로 증가하고 있던 공동체 생활의 복잡성이었다. 디모데, 디도, 빌레몬을 향한 권면과 교훈은 어떻게 자신을 가장 잘 실천하며 교회들을 관리하는가에 대한 권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원리와 동기는 동일하다. 권고는 예수님의 단순하고 명확한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돌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정체성과 활동을 선포한다.

교회는 몸-공동체-이지 사업이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건강한 삶의 실현에 대한 서신서의 가르침은 풍부하며 분명하다. 르완다,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서방의 “기독교” 국가들은 물론)과 같이 “복음화된” 국가들에서 범행된 잔학 행위들은 지상 대위임령이 속칭 교회라 불리는 지부를 세우며 그것을 교회의 통제로 삼는 것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지상 대위임령은, 우리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그리고 제자를 삼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 황금률은 우리가 가르쳐야 하며, 제자화 시키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방법의 본질이다.

사도행전 2장 42-47절의 모델과 바나바의 삶, 서신서의 “서로”에 대한 구절,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글에 반영된 관계들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통찰을 허락한다. 그 같은 동일한 사랑의 요청은 우리 자신의 복잡성과 변화무쌍한 도전이 제기되는 21세기 교회에 주어진 의무이다. 이것이 바로 왜 하나님께서 복음의 글로벌 선포자들로 부르신 자들을 위해 우리가 멤버케어의 흐름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멤버케어는 참으로 사랑의 구체화이다. 멤버케어의 흐름은 실제적으로 사랑의 흐름이다. 그것은 단순히 탈락의 기류를 저지하는 조정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인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인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다.

국제적 비즈니스 세계에서 타문화적 이동 인력들에 대한 “인적자원 관련 이슈들”을 배려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리서치 연구원인 그랜트 발론과 엔서(Grant-Vallone & Ensher, 2000)에 따르면, 미국인의 조기 귀환은 해외과제의 10-20%이내에서 발생한다. 어떤 통계들은 4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인용한다. 회사에 추가되는 재정적 손실은 십만 달러에서 오십만 달러에 달한다. 추가로, 직원들의 20%는 본국송환 이후 3년 내로 회사를 떠난다. 높은 탈락률의 원인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할 수 없는 직업 부부인 경우와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 문제 그리고 본국의 연로한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다. 어떤 이유들은 본국에서 멀리 떨어짐으로 승진에서 탈락되었다는 생각과 국제적인 임무를 통해 배운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인사 책임자들로부터 대체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다 난해하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재정적인 손실은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 책임자는 이렇게 반성한다. “직원들을 해외로 파송한 지난 30년 동안, 나는 언제나 재정적인 손실을 인식하였지만, 나는 그것을 국제적인 사업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퇴를 하며 나는 자문해 봅니다. ‘우리가 충분히 돌보지 못해 깨어진 가정들과 파괴된 사람들에 대한 인생의 대가는 과연 무엇인가?’”

선교 공동체에서, 인력 관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의 성취이며 친교에 대한 지당한 표현이다. 물론, 그것은 단순히 재정적 손실을 보호하거나 투자를 보장하는 것 그 이상이다. 그와 같은 케어는 일종의 행사가 아니며, 또

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교사 삶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의도적, 계획적, 지속적인 흐름이다.

1. 멤버케어의 흐름과 케어 제공자

멤버케어의 흐름은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와 예비 선교사들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동일 지역 공동체인든지 아니면 선교 기관이든지 간에, 그 흐름은 파송 기관과의 관계로 이동된다. 이상적인 측면에서, 지역 교회는 개인과 가족을 성장시켜 왔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가시적 케어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해 온 것이다. 기본적인 영적, 개인적 성장은 공동체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물론, 멘토들을 통해서 양성되어 왔다. 이제 다양한 멤버케어 제공자들을 요청하며 선교사와 그 가족의 인생 주기에 있어서-모집으로부터 사역 은퇴/종결에 이르기까지-단계별로 이동하는, 새로운 수준의 의도적 멤버케어가 출현하고 있다.

1) 단계 1: 모집

“소명”은 통속적인 선전물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 우리는 현실 세계의 필요를 드러내며 때로는 사람들과 대면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떠남에 대한 결정은 “주님, 당신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개인적 질문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께 소명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파송할 것(막 3:14)이라는 것을 인지시킨다. 각자에게 지상 대위임령에 대한 역할이 주어지지만, 모두가 같은 역할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예루살렘”으로, 어떤 이는 “변방으로” 보내진다. 어떤 이는 그들의 문화속으로, 다른 이는 다른 문화로 보내진다. 각 개인은 주님께 사명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본적인 소명은 먼저 주 예수와 함께 이루어지며(고전 1:9), 그 후 그 교제의 자리에서 출발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효율적인 모집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은 “선교사 모집 광고의 정직성”이다. 필요와 보상에 대해서는 물론, 예상되는 금전비용이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한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이 망루를 짓기 전에 그 값을 계산할 것을 지시한다. 이것은 큰 비용 때문에 망루를 짓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값을 계산함으로 좌절과 파괴적인 충격을 피한다는 것을 뜻한다. 거기에는 많은 질문들과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가야 하는가? 혹은 도움이 필요한 연로한 부모는 있지 않은가? 제한된 시설, 또는 잠재적으로 불확실하며 위험한 환경으로 필히 이동해야 하는가? 부부가 함께 동의하였는가? 두 사람 모두에게 소명감이 있는가? 성장한 자녀들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지시를 인식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임무의 내용은 무엇인가? 신입 선교사들이 이 분야에 재능이 있는가? 그들은 준비되었는가? 전 가족이 소명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독신자들에 대한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독신생활이 분명 그 나라를 위한 것인가? 고려될 사항은 아주 많다.

선교사 후보들에 대한 이러한 적절한 질문은 바람직한 출발을 위해 중요한 열쇠가 된다. 평가자들은 대개 필요한 모든 질문사항들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평가자들에게는 적절한 질문을 위하여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험 많은 사람들의 지도가 필요하다. 동시에, 후보자들은 파송 기관에 적절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을 허락하며 나아가 그것을 격려하고 질의응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장시간의 효율적 대화를 위해 적절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선교 기관에 대한 정확한 현재 상황과 후보생, 임무, 사역 환경에 대해 후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광고의 정직성”에 대한 모든 부분이 된다. 파송자들은 후보자들과 함께 이후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교여정의 많은 부분이 보는 것이 아닌,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모집자/동원자, 목사, 동료들은 이시기에 주된 케어 제공자들이 된다.

2) 단계 2: 선발

모집과 선발을 실행할 때 “의뢰인”이 누구인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두 과정의 첫 단계에서, 파송기관은 필요한 임무 목적을 실행할 인력들을 구하므로 파송기관이 일차 의뢰인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후보생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주체로서 확고히 할 것을 요청한다.

파송 기관은 임무를 수행할 최상의 후보자들을 찾아야 한다. 후보생들이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들은 시간과 경험에 따라 성장하고 배울 것이라는 사실을 기관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선교 기관은 미래의 섬김의 대상들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자체 기관과 그 기관의 팀들을 위해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때로는 자격이 갖추지지 않으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최선의 사랑의 응답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물론, 예비 후보생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의 표현에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후보생들에게 어두운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GP”는 그러므로 해외로 가서 “선포하라”(Go Preach)는 것과는 반대의 의미로, 본국에 남아 “경작하라”(Go Plow)는 것을 뜻하게 된다. 선발 제외는 후보생들이 공식적인 발표를 시행하기 전에, 직장에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또는 집을 처분하기 전에, 가능한 한 일찍 이루어져야 한다. “탈락” 혹은 “보류”에 관련된 대부분의 경우, 개인에게 그들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이 권유되어야 한다.

예비 후보생들과 유망 인력들에 대해서는, 또한 “선별”(Screening)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있게 된다. 이 시점에서, 일차적인 의뢰인이 되는 사람은 후보생이다. 선별은 각 개인(그리고 전 가족)을 현명하게 지시하고 배치하기 위해, 또한 타국에서와 귀환 시 그들의 전 생애 경험을 통해 적합한 관리와 후원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에 관한 최대한의 많은 것들을 발견하도록 구상된다. 진료 기록은 가족 내력, 심리 평가 그리고 사회적, 타문화적 능력을 포함함으로써, 가능한 필요들을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장점과 약점에 대한 종합적이며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이러한 검사 영역들을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적 문제들은 심리적 이유에 근거할 수 있으며, 가족의 역동성을 포함한 사회적 배경은 타문화 적응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전문인 케어 제공자들—의사, 정신 건강 전문가, 인사위원—의 역량 있는 평가는 멤버케어 흐름의 초기 단계에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3) 단계 3: 준비와 사전 오리엔테이션

적절한 교육과 훈련은 명백히 중요한 사항들이다. 전문가적인 능력은 교육과 실제적 경력의 두 관점에서 세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교육은 환경과 수단 그리고 구체적 임무 등, 새로운 요구들에 대한 개인의 수용력을 필요로 하는, 새롭고 낯선 환경에 누군가를 파송할 경우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 만약 한 개인이 자신의 “본토”(home)에서 정통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그의 역량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자국 문화 내에서의 사역 경험의 결여는 다른 문화에서의 실패의 예표가 된다.

해외로 떠나기 전 영성개발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바다 위를 비행하는 동안 대개 아무런 영적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국의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이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에 큰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 “선교사”란 호칭이나 새로운 지역도 필요한 영적 성숙을 산출하지는 않는다. 준비과정은 전 생애의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른 한편, 아무리 잘 조율된 것이라 할지라도, 취항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측면들이 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pre-departure orientation)은 파송 기관들에 따라 기간과 강사 및 인적자원으로 초빙된 사람들과 심지어 그 내용에 있어서 각기 다르다. 불행하게도, 어떤 기관들은 오리엔테이션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필요성을 무시한 채, 오리엔테이션의 주제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그 재량을 맡긴다. 결과적으로, 선교 인식과 준비 그리고 해외사역의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에 위험한 허점이 있을 수 있다. 부적절한 기대는 이주자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어떤 경우에는 실패를 초래한다.

적절하게 개발된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몇 가지 객관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그것은 “올바른 출발”(leaving right)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올바른 출발은 올바른 입국과, 개인이 원래의 장소로 귀환할 경우 바른 재입국 과정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 둘째, 오리엔테이션 경험은 현실적이며 긍정적인 기대들을 발전시키고 규명하는 일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 오리엔테이션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개인의 역할과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마련하며, 바람직한 적응과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은

개인의 관점을 알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신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훌륭한 의사결정은 훌륭한 준비에 근거한다. 이 시기의 중추적인 케어 제공자들로는 타문화 훈련가와 계절 선교사 그리고 신입 선교사들을 보다 더 준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4) 단계 4: 출발

선교지 파송 전(pre-field)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은 적절한 작별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선교사들을 위임하는 일은 절차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가 되지만, 종종 보다 덜 형식적인 출발은 참으로 중요한 일면이 된다. “RAFT”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할 수 있는 한, 미해결된 갈등에 대한 화해(Reconciliation)는 이동(transition)이 맺목의 첫 부분이 된다. 다음은 확인(Affirmation)으로, 떠나는 자들과 남는 자들 모두를 위한 것으로,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함이다. 가족과 친구, 신자들의 공동체에서의 작별(Farewells)은 다른 시기에 그리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들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것들은 맺목의 세 번째 부분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목적지에 대해 생각(Thinking)하는 연습이 있다. 현실적이며 긍정적인 기대들을 발전시키는 것은 실망감을 줄여주며 탄력성을 높여 준다. 이 시기에 친구들과 가족은 특히 중요한 케어 제공자들이 된다.

5) 단계 5: 도착

아마도 도착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건전하며 순행적인 멘토들을 얻는 것이다. 멘토는 케어 제공자의 중요한 유형의 사람으로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무엇보다 먼저, 멘토들은 신입 선교사들에게 문화를 소개한다. 그들은 요청되는 질문들과 필요한 질문들에 답변을 준다. 그들은 의견을 제안하며, 잘못된 것을 수정하며, 타국인이라는 쉽지 않은 경험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안내 지침을 제공한다. 멘토의 두 번째 과제는 신입 선교사들에게 공동체를 소개하는 것이다. 때때로, 이것은 멘토가 가진 명성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

어진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을 열어 줄 수 있다. 반면, 멘토는 능동적으로 신입 선교사를 소개해야 한다.

몇 시간/며칠 내에 이루어지는 일차적 필요를 위한 모임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마련한다. 체류자들에게, 적당하게 편안히 자고, 먹고, 쉴 수 있는 공간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기본 지식과 안내들은 그 다음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그것은 개인과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건강관리와 안전에 관한 정보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된다. 훌륭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러한 영역들에 정보와 도움을 마련한다.

몇 일간의 시간이 지나면, 일정과 사역내용, 문화 실습, 멘토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문제들이 신입 선교사들에게 의미 있게 시작된다.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며 사전 오리엔테이션의 내용들을 상관성 있게 상기시켜 주는 기본 오리엔테이션은 신입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러한 초기 적응시기 동안 인내할 수 있게 한다.

6) 단계 6: 선교현장의 삶

이 단계는 선교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케어의 흐름을 내포한다.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위한 후원 체계는 개인과 시간에 따른 유용성과 중요성에 의해 달라진다. 현지인들과 더불어 팀의 일원들과 형성된 질적인 관계는 중요한 후원의 출처가 된다. 동료들과 현지인들은 상호 케어를 위한 벽돌이 된다.

무정부 상태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적 외상 경험에 대한 위기 케어는 점차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 카렌 카와 달린 제롬(Karen Carr & Darlene Jerome)은 다른 동료들과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의 아비장에(12장 참고) 이동 멤버케어 팀(Mobile Member Care Team)을 시작했다. 희망하기는 이 팀이 심각한 위기를 맞은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신속한 반응으로 행할 수 있는 많은 지역/센터들 중에 으뜸가는 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덧붙여, 그러한 센터들은 상담 서비스는 물론, 위기 대응과 대인관계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종종 위기 상황은 그리스도의 지체

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 대해 후원하도록 그들의 능력과 관심을 촉진시킨다. 후원적인 기독교 공동체와 전문적인 케어 제공자들의 참여는 멤버케어 흐름에 효율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멤버케어 흐름의 또 다른 측면은 단체가 어떻게 현지 인력을 관리하는가이다.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상실한 체제(system)는 공동체라기보다는 회사와 유사하게 행동할 수 있다. 단체는 비인격적이 되어가며, 심지어 “책임”을 맡은 사람들조차 미흡한 결정들과 “체제”에서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 비난하게 된다. 선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모든 계층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시선과 대우가 어떠한지 그 근거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케어의 흐름은, 목적을 가진 멤버케어 프로그램에 의해 지지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개인 대 개인의 사려와 관심에 근거한다.

특별히 내 마음에 절실하고도 중요하게 다가오는 문제는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복지이다. 선교목표의 달성이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알면서 행해질 수는 없다. 이런 일들은 여전히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 베드로의 자기중심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마 19:27-30, 복음을 위해 가족을 버렸으니 내가 무엇을 얻겠나이까?) 그가 일찍이 언급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강한 훈계와 경고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마 18:1-14, 이 소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케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러므로 파송단체들은 선교회 가족의 모든 일원들을 돌보는 일에 우선시해야 한다. MK(선교사 자녀) 케어 제공자들은(예를 들자면, 교육 자문인 교사, 기숙사 사감, 재입국 담당자) 오늘날 선교에서 점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본국의 교회들과 선교 기관들은 선교 인력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거기에는 모든 관련된 기대들-교회에 대한 기관의 기대, 기관에 대한 교회의 기대, 교회/기관에 대한 선교사의 기대,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교회/기관의 기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삼중적 대화와 교회 지도부의 선교사 방문, 위기 상황에서의 파송 단체의 후원, 진실한 흥미와 관심의 정기적인 표현들은 선교 인력들의 건강에 뚜렷하게 기여한다.

국제적 선교 공동체에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들은 적절한 케어의 흐름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전문의학과 심리학, 위기 개입, 목회적 케어, 팀 구축, 갈등 처리, 교육, 훈련, 재정 후원, 선교기관 분야에 걸친 경력 개발을 통해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케어제공자들의 흐름이 필요하다. 지역 교회들의 선교 전문인들은 물론, 선교 인력 및 인력 자원 책임자들은 이러한 전문인들과(그리고 역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의 선교 인력들과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후원되며, 장려되고, 이용되는 그와 같은 전문인 단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케어의 유용성을 분명히 하며, 한 기관이 자체적으로 전문화된 후원 인력들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각 기관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7) 단계 7: “귀국”을 위한 준비

많은 사람들의 경우, “모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이 된다. 또한, 그러한 첫 변화는 충격으로 찾아온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는 바람직한 것이며 필요한 것이다. “RAFT”를 통한 옳은 떠남의 동일한 과정이 옳은 귀환을 위해서 필요하다. 선교인력들에게는 지원이 필요하며 때로는 화해하기 위해 그리고 화해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확인받기 위해, 사람들, 장소들, 애완동물들, 그리고 소유물들에 대한 작별을 행하기 위해, 재입국과 재 적응을 위한 현실적인 기대들과 전략들을 사전에 고려하기 위해 조언이 필요하다. 자료와 세미나, 출국 인터뷰, 동료 상담은 모든 연령층들의 선교인력들이 바르게 떠나고/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RAFT를 구축하는 일은 “본국”을 출발하는 것만큼이나 해외 사역을 떠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

본국송환에 해당되는 또 다른 부분은 해외 체류자들을 영접하는 이들에 대한 준비가 포함된다. 닐 파이로러(Neal Pirolo, 2000)는 그의 저서, *재입국 팀(The Reentry Team)*에서 건전한 선교사 재입국을 위한 옳은 관점들과 옳은 계획들을 형성하는 기초로서 안디옥 교회를 그 모델로 삼는다. 선교사들의 귀환을 위한 참여와 계획은 “본국 팀”에 대한 기대를 향상시킨다. 깜짝 환영은 때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귀환 선교사들에게 재입국 과정과 후

원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 실제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입국 시 누구를 만날 것인지, 처음에 어느 곳에 머무를 것인지, 교통편, 자녀들의 학교, 즉시 사용할 생활비, 그리고 다른 필요한 생활의 문제들을 위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선교사들이 알 필요가 있다. 정해진 “규정들”이 수행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8) 단계 8: 재입국

준비 이전 단계와 함께, 재입국 케어(휴가, 사역의 종결, 혹은 은퇴를 위해)는 선교기관, 일차 후원 교회(들), 그리고 가족이 참여하는 팀의 노력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선교 기관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들을 규명하고 그 과정을 종합하는데 있어서 “지도”(coach)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선교 기관과 교회 사이에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은 보다 수월해진다.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선교사들의 전 사역기간 동안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 몇몇 가족들로 구성된 “본국 팀”을 조직하기도 했다. 이러한 팀들은 재입국 과정에 포함되는 선교 기관, 교회 공동체, 선교사 가족, 후원의 핵심 출처인 선교사와 연결된다. 그러한 능동적인 헌신은 오해를 감소시키며, 중요한 사안들이 무시되며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한다.

멘토들은 재입국 후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어른과 젊은이에 상관없이 가장 건전하고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위한 멘토로 초빙되어야 한다. 멘토들의 역할은 귀환 선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응답하며, 안내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들은 또한 귀환 선교사들을 새로운 사람들에게(때로는 새로운 교회나 공동체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소개하며 그들의 필요를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있어서 선교사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들은 귀환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서서 변호인들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들의 임무는 귀환 선교사들이 가능한 깊고도 신속하게 그들 자신을 재정립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멘토들이 유일한 케어 제공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케어 팀을 위한 주된 접촉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transition) 또는 재입국 세미나들은 종종 후원의 주요 출처가 된다.

그러한 세미나들은 내용과 과정에 있어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재입국 경험을 듣는 점에 있어서 유용하다. 귀환 선교사들은 대개 그들 자신에 대해 “정상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며 재입국 과정에 대해 보다 인내하며 여유를 갖게 된다.

재입국 시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디브리핑이 유용하다. 첫 번째 유형은 운영상 디브리핑(*operational debriefing*)으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역에 관련된 경험들과 선교사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한다. 두 번째 유형은 정서적 디브리핑(*emotional debriefing*)으로, 그것은 선교사들의 감정과 개인적인 경험들을 탐구한다. 이 디브리핑은 선교사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의 사역을 탐구하도록 보다 사적으로 이루어진다. 자녀들과 가족들은 이러한 유형의 디브리핑으로 유익함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이 두 유형의 디브리핑은 선교사와 파송단체들이 선교사의 경험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구상되어야 한다. 디브리핑은 방어나 공격이 나타나지 않고 좋았던 경험과 좋지 않았던 경험, 둘 다를 듣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갖는 목표는 후원과 치료,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들을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디브리핑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관련된 사람들에게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운영상 디브리핑의 경우, 그들은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어떤 케어 제공자들이 디브리핑을 받는가? 디브리핑의 유형에 따라, 상담가, 교회의 선교부 대표, 신앙 있는/숙련된 동료, 목사 또는 인사 책임자들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9) 단계 9: 지속적인 후원

선교 공동체에는 반드시 전문화되며 지속적인 후원을 하는 최소한 세 종류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초보자”(beginners), “완성자”(finishers) 그리고 “상처 입은 자”(injured)이다.

초보자: 제 삼의 문화의 아이들(TCKs)은 청년기에 현저한 변동을 경험한다. 해외에서의 삶에서 자국에서의 삶으로, 고등학교 교육에서 대학이나 직

장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부모와 떨어지는 것들이다. 이 때 그들은 “초보자들”로 간주될 수 있다. 변동에 관한 세미나들, 인터넷 네트워크, 출판, 재결합, 가족과 “고국” 방문, 지도/상담 후원은 모두 중요하다.

다시 한번, 건전하고 유용한 멘토들은 재입국뿐만 아니라 이러한 TCK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잠재력을 인식하기 위해, 청년 MK들은 그들의 TCK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며 적합한 발달과 지도력을 갖추 수 있도록 그들을 코치로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멘토들은 운전면허 취득과 구직, 중고차 매입, 부모의 도움 없이 처음으로 등록 및 보험가입과 같은 매우 세속적인 필요에 도움을 줌으로서 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완성자: 지속적 케어의 두 번째 영역은 완성자들을 위한 것이다. 은퇴 선교사들이나 특정한 임무의 종결로 인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선교사로서의 경력을 마친 사람들은 소모품이 아니다. 너무도 흔히, 복음 때문에 의식적으로 경제적 수단을 희생해 온 사람들은 퇴직을 위한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대책으로(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인해 그들의 마지막 시기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너무도 종종, 교회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후원을 계속할 책임을 거절한다.

그러나 재정문제를 넘어서 거기에는 계속되는 확연한 문제가 있다. 선교사들은 돌아오거나 은퇴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해외 사역 이후 앞으로 남은 생애가 길다. 아마 그들은 건강하고 맑은 정신과 아직 왕국사업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귀환 선교사들이나 은퇴자들이 합리적인 참여 수준에서 그들 자신들을 재투자하도록 돕는 일은 후원 과정의 일부가 된다.

은퇴 후원은 선교 기관과 교회, 그리고 양 기관의 격려와 후원을 통해 은퇴하기 오래 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재정 계획, 은퇴 주택, 유용한 은퇴 후 활동,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너무 늦은 때에 이를 때까지 종종 너무나 무시된다. 다시 한번, 선교 기관과 교회는 기대와 준비에 대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나누어야 한다.

상처 입은 자: 지속적인 케어의 세 번째의 영역은 육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또는 영적으로든지 상처 입은 자들을 포함한다. 바나나는 마가

요한이라는 상처 입은 사도를 돌보기 위해 바울과의 가치 있고 긍정적인 오랜 관계에서 결별한다. 후에, 궁극적으로는 바울에게 “유익이 됨”으로 회복되었다(행 15:36이후; 딤후 4:11). 초대교회에서의 이러한 케어 모델은 교훈적이다. 개인의 성장은 시간을 요한다. 약하고 상처 입은 이를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왕국 사역에는 결과들이 따르며, 종종 거기에는 의미심장한 상처들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 과정을 통해 선교 인력들이 일어서도록 도우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세우며,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능동적인 선교 인력들에게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2. 요약

멤버케어의 흐름은 오직 케어 제공자들의 흐름과 함께 가능하게 된다. 그들 자신들과 자국민/현지인들과의 상호 후원적인 관계와 더불어, 그리고 선교사들은 장기사역을 위해 요구되는 케어의 주된 부분이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필요한 전부는 아니다. 의학과 정신건강, 교육, 위기 및 갈등처리, 목회적 케어, 재정 등의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인력/인력자원 책임자들과 교회를 본부로 하는 선교지도부는 반드시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며 융합해야 한다. 훈련은 타문화적으로 기동력 있는 선교 인구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사람들의 기술을 연마시켜야 한다.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는 노력을 조정하고 케어 훈련을 수분시키며 이러한 서비스들의 유효성과 가능성을 전달하기 위해 요청된다. 그러한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발전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파송국들과 기존 파생국들 안에, 그리고 그 양국들 사이에서 발견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40년간의 선교사역을 통해, 나는 멤버케어가 본질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께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명백한 표현이라는 것을 확신해 왔다. 멤버케어는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관계와 그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확인으로 나타나는 산물이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디라는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며,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되신 그리스도이시다. 선교 인력들을 후원하고자 함께 협력하는 케어 제공자들의 흐름은 예수께서 기도하신 연합하는 세상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이다. 케어의 흐름을 제공하는 것은, 황금률과 지상 대위임령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는 선교 기관, 파송교회, 후원 가족, 헌신된 케어 제공자들의 노력의 결정체이다.

3. 토의 주제

1. “황금률과 지상 대위임령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2. 신생 파송국과 기존 파송국들에 대한 케어의 흐름이 달라져야 하는 몇 가지 방법을 나열하라.
3. 신생 파송국과 기존 파송국들에 대한 케어 제공자들의 흐름이 달라져야 하는 몇 가지 방법을 나열하라.
4. 케어의 흐름의 각 단계를 조정하고/감독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5. 선교사들이 그들의 선교기관, 파송교회, 현지 지도부, 타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을 향해 가져야 하는 케어에 대한 적합한 기대들은 무엇인가?

† 참고 문헌 †

Grant-Vallone, E., & Ensher, E. (2000). An examination of work and personal life conflict, organizational support, and employee health among international expatri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5, 261-278.

Pirolo, N. (2000). *The reentry team*. San Diego, CA: Emmaus Road International.

* 이 장은 *Interact*(1997, October, pp. 1-6)에 처음 기재된 글의개정본이다. 사용허락을 받음.



제 3 장

2천년의 기독교:

오늘의 변화와 내일への 도전

토드 존슨 *

교회는 지상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노력에 있어서 어떻게 그 책무를 감당해 왔는가? 여기 몇 가지 역사적 관점들과 현재의 실상들, 그리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미래의 동향들이 있다. 우리가 선교 공동체를 대신하여 멤버케어를 제공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이러한 광범위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20세기의 끝에서, 세계 인구의 33%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고 있다. 100년 전 “기독교 세기”의 낙관적인 조망과는 반대로, 이 수치는 실질적으로 1900년 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 실질적으로 과거 100년 동안 회심자들을 얻는데 아무런 진보를 이루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20세기의 세계 기독교 운동이 미친 급격한 변화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1900년에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80%가 백인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유럽과 북미인들이

* 토드 존슨(Todd M. Johnson)은 1978년 이래 예수 전도단(YWAM) 소속 선교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태국의 캄보디아 난민들을 위한 구호 사역, 샌프란시스코의 도시사역, 과테말라의 농촌전도, 구소련에서의 언어연구를 포함하여 30

었다. 오늘날 그 비율은 단지 45%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 인구통계의 중요성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나타난다. 앞으로 25년 내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 백인의 비율은 계속하여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1900년에는 단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갱신 운동에 참여했다. A. D. 2000년까지 5억 이상의 혹은 전 그리스도인의 25%가 갱신 운동의 참여자들이었다. 20세기 갱신운동의 첫 번째 물결인 오순절 운동은 225개 국가에서 750개 교단들과 6천 5백만 명의 신자로 성장했다. 후에 두 번째 물결인 은사주의 갱신운동은 1억 7천 5백만 명의 신자들과 더불어 235개 국가에서 6,500교단을 넘는 세력으로 주요 개신교파 교회들을 강타했다. 마지막으로 제3의 물결 혹은 신 은사주의 운동은 교파주의의 붕괴를 강조하며, 2억 9천 5백만 명이 넘는 신자들로 225개 국가에서 18,800개가 넘는 네트워크로 퍼져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산재해 있다. 이 세 가지 갱신운동의 물결들은 20세기 기독교의 급격한 변화를 특징짓는다.

셋째, 모든 주요 기독교 전통을 견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임령에 헌신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전 세계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명은 지상 대위임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수는 1900년에 7천 8백만에서 2000년에 6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성장해왔다. 그 결과, 수백 개의 새로운 선교 단체들이 조직되었고,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로 나갔다. 많은 전통적 파송 단체들이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때에 1900년에는 선교에 있어서 거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했던 독립 교회들이 현재는 새로운 선교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있다. 거의 전적으로 예기치 않았던 사역자들의 급증이 비기독교 세계에서 부상 되었다—수천 개의 새로운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해외와 본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여 개국을 여행하며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 왔다. 1983년 이래 그는 특별히 미전도 종족들에 초점을 두는 YWAM의 장기 교회개척 사역부의 선교에 참여해 왔다. 1989년 그는 전적으로 선교 연구 조사자로 현재의 사역을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시에 위치한 World Evangelization Research Center(WERC)의 책임자로 있다.

Email: ToddMJohnson@sprynet.com.

넷째,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20세기 초의 라디오의 발명을 시작으로, 오늘날의 인공위성 네트워크의 진보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들의 복음 전도의 노력을 촉진시켰다. 1900년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매년 여섯 배로 복음을 듣도록 지구상에 충분히 전도를 했다고 평가된다. 2000년까지 그 수치는 155배로 치솟았다—즉, 일년 내내 격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시된 것이다.

1. 사회적 경향과 복음의 영향

주목할 것은, 이러한 극적인 변화들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는 기독교 선교의 근본적인 목표를 성취하지는 못했다. 사무엘 즈웨머(Samuel Zwemer)의 주요 연구는 1910년 에딘버러 선교회의에 의해 위탁되었고 다음 해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비점령 선교지(The Unoccupied Mission Fields of Africa and Asia)*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즈웨머는 교회의 비복음화된 사람들을 접촉하려는 끝나지 않은 과제와 기회들을 명확하게 개괄했다. 그는 자신의 책 표지에 “10/40 창문”의 초판을 극구 칭찬했다. 이러한 외침은 대부분 무시되었다. 이와 유사한 명쾌한 외침들이 20세기 전반에 걸쳐 나타났는데, 현재 10/40 창문으로 잘 알려진 개념은 1990년대의 범세계적인 공동 노력들로 말미암아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반에도 수천 개의 언어와 종족 집단에 속한 16억의 인구가 아직까지도 문화적으로 상관적인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족함은 대부분 20세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간 지역에서 나타난다. 파송된 10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9명은 기독교 복음에 이미 접촉했던 사람들과 어떤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이 기독교화된 지역의 사역을 위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오늘날 새로운 독립 선교사들과, 크게는 비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의 90% 이상이 기독교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과 비 그리스도인들 간의 접촉 부재는 세계의 엄청난 사회

문제들로 비춰진다. 20세기는 두 번의 세계 대전을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주요 분쟁과 갈등을 기록한 가장 피로 물들여진 세기들 가운데 한 세기였다. 이러한 갈등들은 주로 공식적으로 4천만 명의 추방된 사람들(내적, 외적 망명)의 원인이 된다. 이 사람들의 1/3이 환경재해로 말미암은 난민들인데, 매년 300,000명이 환경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한다. 주로 여성, 아동, 노인들인 8억의 인구가 고질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매년 천 오백만 명이 영양실조와 연관된 질병으로 사망한다. 매년 2백만 명의 아동이 예방 가능한 질병들에 대한 면역 부재로 사망한다. 거의 600,000명의 아동들이 매년 AIDS 바이러스에 새롭게 감염된다. 전 세계의 HIV 바이러스 보유자들이 4천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22억의 인구가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 도시 빈민들은 14억으로 증가했다(전 도시인구의 절반). 12억의 아동들이 세계 여러 도시의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 천만 명의 아동들이 매춘을 강요받고 있으며, 2억의 아동들이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통계와 더불어 유사한 통계들이 실제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고 있는 위험한 실재들이다.

또 다른 예상할 수 없었던 경향은 20세기에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에게 보였던 엄청난 저항이었다. 20세기 초 공산주의의 출현은 이러한 역동성의 전반적인 면들을 제공했다. 70년 이상 공산주의 지배하의 그리스도인들은 집중적인 박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뿐 아니라, 수백만이 그들의 복음 증거의 결과로 생명을 잃었다—기독교 순교자에 대한 표준 정의. 20세기 후반 공산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혹자는 현재 순교와 박해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 공산주의 세계 밖에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정부들은 세속주의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사실 20세기는 전 인류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상 가장 유혈이 낭자한 세기였다. 20세기 이전의 모든 세기들보다 한 세기 100년 동안 더욱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로서 생명을 잃었다. 현재 매년 16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

2. 21세기의 도전

21세기의 새로운 선교 세력들이 직면하는 도전들은 무수하게 많다. A. D. 2000년의 세계는 1900년대의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계몽주의 프로젝트의 세속적 지도자들에 의해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과신은 공산주의의 몰락과 과학 분야에서 신앙의 전반적인 상실과 필연적 진보에 대한 아이디어의 상실에 의해 완전히 꺾이게 되었다. 주로 이러한 패러다임을 차용했던 기독교 신학자들과 선교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비록 어떤 이들은 더욱 강력한 “현대적”(modern) 접근을 옹호하기조차 한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은 20세기 전략들에 대한 과신을 바로잡는 것으로서 변화하는 시대를 조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이들은 21세기의 출발점으로 조용히 접근하는 20세기 선교의 경향과 풍조를 조망하고 있다. 첫째, 인상적인 슬로건을 내건 대규모 대회를 소집하는 경향인데, 그러한 대회의 슬로건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항상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따라서 교회 연합을 위한 20세기의 희망은 분열과 협력의 부재로 나타나게 되었다. 수백 개의 새로운 단체들이 일어났으며, 각 단체들은 독립적으로 진술된 계획들을 갖고 있다. 셋째, 전방위 개척 선교를 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제자화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의 유효성에 대해 증가하고 있는 불안감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르완다가 이에 대한 최상의 예이다. 그 결과, 이미 60% 혹은 그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며, 이미 현재 선교사가 중심적으로 배치된 141개국에서 보다 많은 선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단기 선교는 현재 선교사역에 있어서 추진 세력이다. 비록 단기 선교적인 동향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현장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교회 개척을 단기간에 마치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를 추구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다섯째, 비록 복음의 상황화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부상하는 단기 선교적 경향은 여전히 해외 선교 사역의 중추인 언어와 문화학습에 대한 중요성의 간과를 예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선교의 긍정적인 발전들은 새로운 세기에도 적절하게 사용될 것이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종류의 동반자 협력

(partnership)의 형성이었다. 첫째, 우리는 서구와 비서구 선교 간의 점증하는 협력을 본다. 이러한 협력에는 많은 잘못된 출발점들이 있었으나, 선교비의 사용과 인력과 재정 통제의 공유에 대한 유용한 교훈을 얻어왔다. 둘째, 선교단체들 간의 전략적인 동반자 협력은 특히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다. 예를 들면, 성경번역 단체는 교회개척 사역과 라디오를 통한 사역과 밀접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반자 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방위 선교전략의 주요한 발전을 대표한다.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전략 코디네이터의 부상이다. 새로운 선교사의 한 부류로서 이러한 선교사들은 특정한 종족 집단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일일이 열거하기 위해 한 특정한 종족집단으로부터 멀리 물러선다. 따라서 그들은 10개 정도의 최상의 전략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의 성취를 위하여 특수화된 선교단체들을 옹호한다(미디어 사역과 같은).

아마도 20세기 개척선교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발전은 세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의 예상하지 못한 출현이었다.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중국의 지하 교회나 아프리카 독립교회들의 놀라운 성장과 유사한 수백만의 힌두교인, 이슬람교도, 불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적인 충성을 보여 왔으나, 기독교와 합류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개별적인 신자들로서 그리고 운동으로서 그들의 성장과 발전은 당연하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종류의 급진적인 상황화가 함축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에게 대부분 달려있는 것이다. 사신으로서 그들의 역할은 어떻게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들과 상호 작용하는가를 예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그들은 현재 복음의 저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있어서 상황화된 전략들을 개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발전들은 21세기 선교사들이 아마도 그들의 20세기 선각자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오늘날 선교사들은 네트워크로 둘러싸인 주변 환경 가운데서 정보의 홍수에 직면해 있다. 다양한 접근들을 갖고 있는 여러 나라의 여러 선교단체들, 현저하게 문명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계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문화적, 종족적, 종교적 민감성에 대해 점증하는 필요, 거의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

운 형태의 기독교의 출현, 그리고 수많은 다른 새로운 요소들. 21세기에는 선교사들이 보다 더욱 잘 준비될 필요와 잘 보살핌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직 이러한 바탕 위에서 세계 교회들이 지상 대위임령의 기본적인 요구-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 모든 종족들에 대한 효과적인 침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3. 토의 주제

1. A. D. 2000의 기독교 세계가 1900년대의 기독교 세계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2.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복음화 시키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설명은 무엇인가?
3. 세계의 사회적 문제들이 멤버케어에 대한 강조를 포함하여 어떻게 기독교 선교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가?
4. 21세기 선교를 위해 몇 가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5. 어떤 긍정적인 발전들이 21세기 선교와 효과적인 멤버케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이 글에 나오는 모든 통계자료들은 Barrett, D., Kurian, G., & Johnson, T.(2001)에 수록되어 있다.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A comparative survey of churches and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2nd ed.). 연간 전 세계 통계에 대한 요약된 도표들은 www.gem-werc.org를 참조하라.

제 4 장

인도주의에 대한 일련의 관점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40). 사실 이 구절보다는 다른 몇 개의 성경구절들이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들에 의해 보다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 성경구절이 교도소 사역이나 굶주린 사람들과 헐벗은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인용되든지, 이 성경구절은 자선 단체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 이 성경구절은 사회의 불우한 자들을 위한 인도주의 사역의 분명한 성경적 근거와 배경을 제공한다.

* 존 암스투쯔(John L. Amstutz)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후레즈노 시에 있는 Valley Christian Center의 부목사이며, Foursquare 선교회의 자문위원이다. 그는 선교사와 목사, 선교학 교수, 선교사 훈련가로 섬겨 왔다. 그는



존 암스투쯔 *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누구를
지칭했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회의 선교-그리고
멤버케어-접근에 대한
중대한 면을
내포하고 있다.

1. 빈궁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이해

성경은 빈궁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다(눅 4:18). 예수께서는 삶의 필요들이 결여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 따라서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눅 12:33)고 가르치셨다. 그는 유대인들의 구제는 기도와 금식의 실천의 차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 확인하셨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인종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우리의 의무를 명확하게 밝히셨다(눅 10:25-37).

이러한 교훈에 따라,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보장 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사 25:4)이라 묘사된 구약성경의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 1975, p. 41)는 “...만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성경적 증거가 있다”고 분명한 결론을 내린다.

2.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이해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이 전적으로 박애주의를 뜻하는가? 아마도 우리는 비유에서 발견되는 감람산 강화(the Olivet Discourse)의 상황에 비추어, 예수께서 가르치시려 의도했던 바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24장 4-35절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파괴될 때와 주님의 오심과 마지막 날에 나타날 징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요

약하고 있다(24:3). 그의 오심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며, 예수님 자신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36절 이하). 이러한 경고의 의미와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셨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비유로서 마태복음의 감람산 강화의 결론을 맺는다.

간략히 말하자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근거를 지적한다. 예수께서 인자로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는 세상의 열방들(ethne)을 두 그룹으로 나누실 것이다. 이 분리의 근거는 “지극히 작은 나의 형제들”에 대한 그들의 응답에 기초할 것이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먹였고, 마시게 했으며, 영접했고, 돌보아 주었고,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 한편 염소들은 이러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두 경우에 양이나 염소들은 그들이 언제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치 아니하더이까?”(37, 44절) 물었다. 따라서 “지극히 작은 나의 형제들”의 정체는 심판의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주석가들 대다수는 “지극히 작은 나의 형제들”이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한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주석은 타스커(R. V. G. Tasker, 1997, p. 238)의 주석이다: “지상에서 예수의 삶 가운데 나타난 신적 공훈과 무한한 사랑으로, 인자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속한 듯, 그들의 슬픔과 고뇌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참된 뜻에서 고통 받는 인간들에 대해 형제로서 언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서, 현대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들이 그들의 활동에 있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사용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검토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인도주의가 이 비유가 나타내는 요점인가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6-5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그의 가족)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명백히 말씀하신다. 이와 대비되는 누가복음 8장 2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묘사한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인가?

*Emphasis Magazine, Foursquare World Advance, Pneum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에 수많은 선교의 글들을 발표했다.

Email: jlamstutz@earthlink.net.

그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의 제자들이며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요 8:31). 이러한 그의 제자들과의 친밀한 동일시는 마태복음 10장 40-42절에 명백하게 제시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그 때문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때문에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이탤릭체는 첨부된 것임).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예수님 자신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응답과 동일한 것이 된다. 이러한 실재가 바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 9:1-5)라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물으셨던 예수의 물음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대한 사울의 핍박은 실로 예수 자신에 대한 핍박이 아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에 대한 핍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형제들”이라는 말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라면, 양과 염소의 비유의 요점은 더욱 명확하게 강조된다. 감람산 강화의 전반부에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ethne)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마 24:14)라고 말씀하셨다. 명백하게도,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한 열방에 대한 전 세계적인 증거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열방에 대한 심판의 근거는 그 제자들에 대한 응답,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들의 응답에 달려 있다. 긍정적인 응답은 양을 가리키며 부정적인 응답은 염소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 세계적인 증거를 수반하는 것은 박해로 나타날 것이며, 예수님 자신 역시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마 24:9) 될 것이라 말씀 하셨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왕국 복음의 우주적인 선포는, 어떤 사람들은 핍박받는 신자들/제자들에 대해 호의를 보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면에서, 그 선포에 대해 보편적인 긍정과 부정적 응답이 수반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을 집으로 인도하며, 병든 자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감옥에 갇힌 자들까지도 돌아볼

것이다. 다른 이들은 이와는 정 반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메신저들에 대한 응답은 전도자의 메시지와 그들을 파송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다.

“지극히 작은 예수의 형제들”에 대한 거부는 실제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거부이다. “언제 우리가 당신에게 이러한 일을 했습니까?” 양과 염소, 두 집단에 명백하게 제기된 질문은 예수와의 동일시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놀라움의 요소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대우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제자들과 동일시되었던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한 대우에 있었던 것이다.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인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박애주의나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도주의 또한 아니었다. 문제는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한 무의식적인 호의이거나 또는 이에 대한 결핍이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박애주의를 가르쳐 주지만, 중요한 요지가 이에 담겨 있다.

3. 비유의 함의들에 대한 이해

이러한 비유가 갖는 함축적인 의미들은 중요하다. 먼저, 비유는 복음의 보편적 선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선교”는 교회 행사들의 부가물이 아니다. 선교는 본질적인 것이다. 전 세계적인 복음증거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주적 증거는 박해를 초래할 것이다.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딤후 3:1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적대는 단순히 중동이나 아시아의 신자들이 겪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기에 “열방에 의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특히 그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환대와 호의를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히 13:3).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 사도바울은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10)고 권면한다.

모든 민족(*ethne*)에게 복음의 우주적 선포와 그 선포로 수반되는 반대와 핍박을 명백하고도 온전하게 주장하기 위해 이 예리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바르게 이해할 때가 아닌가? 또한 열방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의도적인 인도주의-멤버케어-의 본질적인 필요를 명백하고도 온전하게 주장하기 위해 이 예리한 비유를 바르게 이해할 때가 아닌가?

일련의 목적으로서 인도주의는 특정한 목적을 지니는데, 그것은 “네가 지극히 작은 나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행한 것은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이다. 새 천년을 향하며, 교회가 최후의 전방위 선교에 더욱 더 집중하며 많은 이들이 위협과 저항의 지역에 처해 있을 때, 이 명료한 비유에 대한 적절한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4. 토의 주제

1. 당신은 “지극히 작은 이 형제들”의 정체성에 대한 저자의 이해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나,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창 12:3)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했던 방식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지은 것을 보여주는 실례를 성경에서 찾아보라. 이에 대한 오늘날의 예들을 들어보라.
3. 선교사역과 멤버케어를 위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저자의 이해에 나타나는 함의들은 무엇인가?
4. 그리스도의 메신저들에 대해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메신저와 메시지, 현지 문화 혹은 다른 요소들에 그 문제가 있는가?
5. 핍박받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 참고문헌 †

- Snyder, H. (1975). *The problem of wineskin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Tasker, R. (1977).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MI: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이 글은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1992, vol. 9, pp. 131-132)에 처음 실렸다. 사용 허락을 받음.



제 5 장

신앙의 증거자들을 추모하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는 이 말씀과 함께 그의 죽음을 통한 영광을 예언하십니다. 우리는 방금 복음의 환호 가운데 이 도전적인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20세기의 신앙의 증거자들”을 추모하는 오늘 밤, 이 특별한 자리에 힘 있게 다시 올려 퍼집니다.

* 요한 바오로 2세(John Paul II-Karol Wojtyla)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다. 그의 경건성과 그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종교적 자유에의 헌신으로 그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본 강론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2000년 5월 7일,
20세기에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추모하는
특별 예규메니칼 집회에서
선포한 것이다.
이 강론은 수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해 목숨을 버린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특별 기념미사로
선포되었다.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으신 밑알이십니다. 그리고 수 세기를 걸쳐 그의 제자들은 “모든 민족과 인종, 언어”로부터 사도들과 신앙의 고백자, 성녀와 순교자, 복음의 담대한 선포자, 그 나라의 은밀한 중들로 수 없이 많은 무리를 이루며 십자가에 달리신 왕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1. 기독교 수난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된 친애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여! 우리 모두가 함께 20세기 신앙의 증거자들을 추모하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포용을 전하게 된 것을 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방교회 대표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칼 기관과 다른 정통 자매 교회들의 대표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성공회와 서구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에큐메니칼 기관의 대표자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형제적 참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의미 있는 희년 축하를 위해 콜로세움에 모인 이 저녁, 우리의 모임은 우리 모두에게 감격의 원천이 됩니다. 고대 로마의 유산과 파괴는 첫 세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고난과 핍박을 결연하게 인내했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유산들은 “*sanguis martyrum semen christianorum*” – 순교자들의 피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다 – 라고 말했던 터툴리안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순교자들의 경험과 신앙의 증거들은 초대 교회의 특징일 뿐 아니라, 교회 역사의 모든 시대를 특징짓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아마도 초대 기독교 시대 그 이상으로 엄청난 고난을 통해 신앙의 증거를 견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세기를 거치며 피 흘림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모든 대륙에서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은 옛 박해와 새로운 박해들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미움과 배척을 받았고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대 기독교 전통에 속한 많은 나라들은 한 때 복음에 대한 충성으로 그 곳에서 많은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피흘림으로 지킨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금세기에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의 공동 유산이 되

었습니다.

내가 속한 세대는 전쟁의 공포, 강제 수용소,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의 조국에서는 성직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형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다카우(Dachau)에서만 3,000명 정도의 성직자들이 강제 수용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다른 교파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유럽 여러 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러한 희생을 목격했던 내 자신이 고통과 시련의 증인입니다. 나의 성직은, 그 시작부터, 내가 속한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위대한 희생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과 그 이후 몇 년 간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20세기 초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진리로 감동받은 신앙과 행동으로 박해와 폭력,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의 찬란한 증거들을 진지하게 추앙하는 마음으로 숙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그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이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기억되어야 하며, 그들의 삶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름들은 순교에 치욕을 주려 했던 핍박자들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또한 다른 이름들은 처형자들에 의해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중 많은 이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년 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Great Jubilee)의 새로운 순교자 위원회(the New Martyrs Commission)에서 마련한 기억회상에의 초대(invitation not to forget)에 나타난 수많은 반응들에서 나타납니다.

위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행 15:26) 모든 이들, 심지어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들의 증거에 대한 교회의 기억을 수집하며 경신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922년에 순교한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정교회 대주교 벤자민은 처형 전날에 “시대는 변화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같은 신념으로 루터교 목사인 폴 슈나이더는 부켄발트 감옥의 간수들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 대표자들의 참석은 오늘 이 희년 2000

년 축하 의식에 특별한 중요성과 설득력을 부여해 줍니다. 신앙의 영웅적 증거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것을 보여줍니다. 20세기에, 거의 모든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은 고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가오는 시대의 희망의 표징으로 삼으며 박해를 인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사와 존경을 돌리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은 20세기 기독교 인류의 광대한 파노라마로서, 즉 피를 흘리기까지 지켜온 “팔복의 복음”의 파노라마로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 5:11-12). 모욕과 박해를 받으나 결코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지난 세기 수없이 많은 신앙의 증거자들에 대해 얼마나 적합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증오가 전 생애를 파괴하며, 그 논리로는 출구가 없는 듯 보이는 곳에서, 그들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는 끔찍한 압제의 체제하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극도의 궁핍 가운데서, 괴로운 노정을 통과하며, 추위와 배고픔에 노출되며, 고문을 당하고,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겪으며,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소리 높여 선포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들에 대한 몇 가지 충격적인 간증을 들을 것입니다.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의 거짓 신들의 이단 종교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으며, 공산주의와 나치주의와 같은 국가나 혹은 인종의 우상숭배로 희생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긋난 사고방식을 거부함으로써, 종족이나 부족 간의 전쟁 속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동족과 함께 남고자 선택한 목자와 같이 죽음의 길로 향했습니다. 모든 대륙마다 그리고 20세기 전 세계를 거쳐, 주어진 사명을 배반하기보다는 죽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피 흘림으로 성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형제들과 자매들, 특히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드러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그들의 존엄성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요 12:25). 얼마 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세상이 삶의 최상의 기준으로 자기 사랑을 하며 경멸과 거부를 행하고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그들의 간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의 증거자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행복, 그들의 생존을 복음에 대한 충성 그 이상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호하게 악에 대항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속에는 믿음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빛났던 것입니다.

2. 귀중한 유산

경애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 불굴의 증인들의 귀중한 유산들은 모든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에 의해 공유될 전통이며 자산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열의 원인들보다 더 강력하게 말해 주는 유산입니다. 순교자들의 에큐메니즘과 신앙의 증인들은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확고한 것입니다.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연합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 있는 십자가의 유산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새천년을 향하여 나갈 때 그들을 넉넉하게 하며 지탱해 주는 유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산을 자랑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어떤 파당적 정신이나 박해자들에 대한 어떤 복수의 열망 때문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증인들에 대한 신실함으로, 우리 자신들은 용서하며 이를 행해야 합니다.

한 세기와 새 천년이 시작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에게 항상 생생하게 남기를 원합니다. 실로, 그것이 더욱 더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억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달되게 합시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심오한 기독교적 갱신이 꽃피도록 합시다! 그러

한 기억들이 새 천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보고가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온전한 친교를 가져오는 누룩이 되게 합시다!

나는 감격에 가득 찬 심정으로 이러한 희망을 표현합니다. 교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둘러싼 증인의 무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주께 기도합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3. 토의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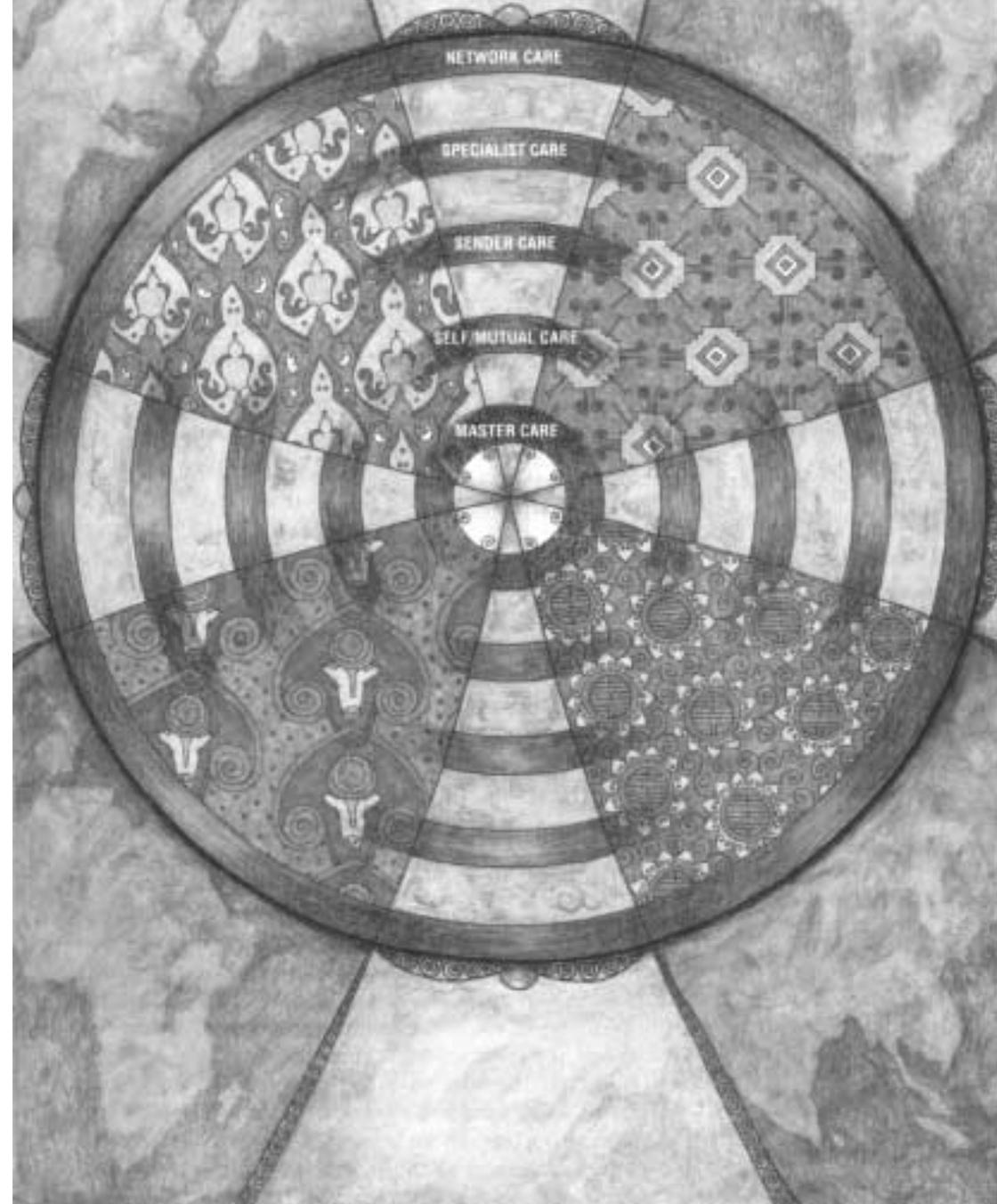
1.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세계의 주요 지역들은 어느 곳인가?
2. 교회의 역사는 순교자들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순교자들은 누구이며, 왜 그러한가?
3. 멤버케어 사역자들이 박해 받는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4. 어떤 면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박해는 저항되어야 하는가?
5. 주님께서 박해와 순교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 본 강론은 공개된 것이며 박해와 순교의 주제로 쓰인 장문의 보고서의 일부이다.

메모: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종교의 자유 회의(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s Religious Liberty Conference)는 전 세계 종교의 자유와 박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를 원한다면 대표에게 연락하라: MarkAlbrecht@xc.org. 다른 유용한 단체들로는 [Compass Direct](http://www.compassdirect.org)(www.compassdirect.org); [Keston institute](http://www.keston.org)(www.keston.org); [Open Doors](http://www.odusa.org)(www.odusa.org); [US CIRF](http://www.uscuirf.gov)(www.uscuirf.gov).

제 2부

지역적 이슈와 통찰



제 6 장

아시아 선교사들을 위한 도전과 케어

싱가포르의 상담 케어 센터에서 임상 치료사로
서 사역하며 많은 아시아 선교사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내게 큰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싱가포르의 여러 선교 단체와 교회들은 평가와 상담, 디브리핑을 위해 선교사 후보생들과 선교사들을 내게 위탁한다. 따라서 나의 인식들은 서로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서 사역하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부류의 선교사들로부터 주어진 피드백에 근거한다. 내가 사역하는 대상은 3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그들 세대에
게는 아마도 특별한 것일 것이다. 그들은 주로 싱가포르

* 그라시아 위아다(Gracia Wiarda)는 싱가포르에 있는 상담 센터의 선임 치료사이다. 그녀는 Singapore Bible College에서 강사로 있는 Timothy James Wiarda 박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다. 그들은 함께 알제리



그라시아 위아다 *

이 장은
아시아 선교사들이
선교현장과 본국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직면하게 되는 공통의
문제들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구 선교사들이
직면하는 문제들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아시아 선교 인력들에
대해 적절한 멤버케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이 글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영역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포르인들이지만, 대만인, 일본인, 네팔인, 한국인, 인도네시아인, 중국계 홍콩인,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도 포함한다. 그들 대다수는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다.

1. 현장관련 이슈들

1) 가족에 대한 관심

아시아 문화에 대한 존경과 이해는 아시아인들의 정신에 있어서 지고한 효심과 가족에 대한 충성심—부모와 가족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의무—에 대한 인식을 내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인의 정서에는 권리 의식이 보다 적으며, 관계적인 빚을 갚는 것에 대한 강한 필요 의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색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세계화의 맹공과 기술적 진보로 변화함에 따라 그리고 가족생활의 정서적 연대감이 무너짐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많은 중국계 선교사들은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준다. 그것은 어렸을 때 그들을 위한 부모의 돌봄과 배움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내놓고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은 이러한 표시를 자녀들에게 기대한다. 이것은 성인 자녀들이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실질적 돌봄을 베풀 때는 물론이고, 금전적인 면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때, 가족관계에서 잘 반영된다. 따라서 선교사를 대신하여 부모와 친척들을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선교 관계자들의 시도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의미가 된다. 종종 그리스도인 동료들과 교인들은 효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부모들을 방문하거나(특히 중요한 명절이나 행사에) 전화를 드림으로 대리 역할을 한다.

와 오만의 술탄에 소재한 Arab World Ministries에서 사역했다(1980-1992). 그라시아는 1975년에 휘튼대학에서 심리학(B. A.)으로, 1976년에 동대학원에서 대인관계 의사소통으로(M. A.) 학위를 받았다. 또한 그녀는 미국에 있는 하네만 대학원에서 결혼 및 가족치료사 학위를(1989) 취득했다.

Email: wiarda@singnet.com.sg.

가정에 남아 부모를 돌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멀리 떠난 성인 자녀에 대한 개념은 어떤 아시아인 부모들에게는 여전히 용납되지 않는다. 성인 자녀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나 직장의 승진으로, 혹은 다른 일 자리가 없어서 멀리 떠난다면, 그것은 현명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기여 형식으로 보상을 하거나 부모에게(건강상이나 다른 이유들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돌아와야만 한다는 상호이해가 그들과 가족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선교사들의 해외사역을 후원할 만큼 충분히 부유한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

2) 언어 학습

아시아인들은 서구 동료들보다 다른 아시아 언어들을 쉽게 배운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한 개 이상의 언어나 방언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언어를 학습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선교사역에 임하는데, 예를 들자면, 만다린을 구사할 줄 아는 싱가포르인들이 대만이나 중국으로 가는 경우다. 다른 사람들이 꾸준히 애쓰고 있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언어 프로그램을 어렵지 않게 통과한다. 한 선교사의 경우 그는 그가 가진 아시아 배경 때문에 다른 아시아 언어를 보다 빠르게 숙달할 것이라는 심적 기대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몇몇의 사람들은 언어 실수와 오해가 야기될 때,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교정하지 않는 아시아인들의 경향으로 인해 그들 자신이 민감해지며 오히려 당황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아시아적인 “정중함”은 다른 사람들이 “체면을 잃지”(수치를 경험하는 것) 않게 하기 위해 선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선교사들이 말을 더듬을 때, 그것이 설혹 지적되지 않을지라도 드러난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며 당혹감을 느낀다.

영어에 거의 노출이 안 된 나라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국제적인 선교 단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한국과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에서 온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은 어학과정을 위해 파송되어, 타문화 연구과정을 들을 수 있거나 선교단체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에게 사역을 위한 준비기간은 적어도 일 년의 기간이 된다. 이미 많은 아시아인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외국의 대학이나 신학교를 졸업했다. 단지 선교회 내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종종 그들 자신들에 대한 불이익을 발견한다. 특히 그들의 첫 임기 중, 여러 곳에서 온 동료들과의 상호 유대와 이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그들의 언어는 대개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모든 고유한 뉘앙스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히 숙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지 언어를 숙달함에 있어서 배우고 일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들은 계속하여 영어를 배우고 향상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선교 대회나 세미나에서 그 만큼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며, 비록 그들이 매우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3) 새로운 문화 적응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그들이 가진 문화적 유사성 때문에 더 쉽게 현지인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표현했다. “현지인들은 우리에게 개방적이며 서구 선교사들보다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경향이 있다”, “현지인들은 우리를 가족과 같이 대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다”와 같은 언급들이 제기된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는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은 아시아인들과 아프리카인들이 공유하는 가족과 대가족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서구 선교사들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시적 가족 충성심의 유대감에 대해 인식하며 이해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여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 다른 선교사는 한 아프리카 현지인에게서 그녀가 “가족”으로 불려졌다고 했다. 그러나 그 서구 선교사는 보다 고용인에 가깝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아시아 선교사들은 현지인들과는 아시아인으로, 그리고 서구 선교사들과는 팀의 일원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어떤 현지인은 동료 서구 선교사에 대해 비판하며 아시아 선교사들에게 이해를 구하며 그의 편을 들어주기를 기대할지 모른

다. 비록 대부분 표면화 되지는 않지만, 서구인들이 나타내는 부정적인 양상들은 종종 비판적인 것으로 던지지 비추어진다. “서양 사람들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들은...”이라고 현지인은 말할지도 모르며, 혹은 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들(서구인들)과 우리(아시아인들)사이에 비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아시아인들은 동료 서구 선교사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들이 그들 자신의 인종적 편견으로 채색되었거나 또는 현지인들의 감상들에 동일시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 동료들은 여전히 유사한 목적과 소명을 가진 팀 동료들이며, 아시아 선교사들은 때때로 그들 자신이 두 개의 충성심 사이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다른 한편으로, 한 아시아 선교사 가족은 차별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것은 현지인들이 서구 선교사 가족을 접대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었다. 아시아인들 사이에는, 피부색의 정도와 문화적 유산, 출신국의 경제적 상태, 여러 다른 요소들에 근거한 인종 차별주의가 존재한다.

서구선교사들은 경의와 외적 존경을 보다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나, 아시아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을 더 잘 안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다. 여러 아시아인들은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여겨질 때,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무엇이 언급되었고 언급되지 않았는지, 어떤 힌트가 주어졌는지 그 힌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구두적(non-verbal)이고 구두적인 단서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느낀다. 어떤 이는 말한다. “아시겠지만, 나는 그들이 언제 공손해 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중국계 싱가포르인은 용모와 말에 있어서, 중국계 대만인들과 그녀가 공유하는 유사성이 때로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표현했다. 비록 중국어는 탁월하게 구사하지만, 그녀는 다중 문화적 상황과 영어권 학교에서 성장했다. 그녀가 느끼기에 대만인들은 그녀에게 더욱 “중국적”이 되기를 기대했으며, 언어 사용에 있어서 혹은, 어떤 문화적 요소나 관습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녀가 실수할 경우 보다 관용적이지 못했다. 그녀는 영어로 교육을 받았지만, 아마도 어느 면으로도 자신을 결코 “서구인”으로 생각지 않을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교복착용과 다세대와 풍습 그리고 인근이나 한 집에서의 대가족 단위의 생활, 노천 시장, 향을 피우는 일, 집 안에 신전을 두는 일, 부적 사용, 불교 축제나 의식의 행사를 포함하여 유사한 문화적 종교적 표현

들을 공유한다. 주요 종교들의 건축물들: 화려한 힌두교와 불교의 신전들, 모스크, 가톨릭 성당들은 비슷한 외관을 갖는다. 아시아인들이 어느 정도의 문화충격을 경험할 경우, 국가들 간에는 커다란 차이점들이 존재하며, 그 많은 차이점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적게 충격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시아 선교사들은 일단 정착이 되면 현지인들과의 관계 확립과 사역에 있어서 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적응을 위한 노력은 생활 양식과 삶의 기준, 현지 국가의 특정 문화의 깊은 뉘앙스에 대한 이해의 영역들과 보다 관련될 것이다.

4) 동료와의 관계

아시아인들, 특히 영어를 제2 혹은 제3 언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한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지만 자신의 모국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서구인이거나 다른 아시아 친구들과의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할 것이다.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위해 동질 집단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종종 한국인들은 친교의 대상을 구할 때, 다른 한국인들을, 싱가포르인들은 다른 싱가포르인들을 찾는다.

국제적인 팀으로 사역하는 것은 경험을 풍부하게 해 주며 복음의 메시지의 훌륭한 간증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믿지만, 그것은 종종 스트레스를 준다. 서구 선교사들은 현지인들과의 사역을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된 반면, 그들의 동료 아시아 선교사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는 종종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아시아 선교사들은 어떤 면에서 현지인들에 대해 서구 선교사들과 유사하지만,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 때때로 서구 선교사들은 아시아 선교사들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둘 사이에는 잘못된 의사소통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언어 사용과 표현 형태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아시아 선교사들, 특히 한국 선교사들은 영적 훈련과 힘든 사역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으며, 동료 서구 선교사들의 영성에 대해 매우 높은 기대감으로 현지에 도착한다. 한 아시아 선교사는 기독교적 사랑과 헌신이 결여된 것을 인식하게 되자 난감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식민주의의 잔재로 보이는 것에 실망

을 표현했다. 상대방에 대한 대우와 선호가 불일치한다고 여겨질 때, 그러한 것들은 종종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들은 종종 문제의 민감성과 때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명료화되지 않는다. 그것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누적된 인식들은, 거리감과 환멸을 초래한다.

아시아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절실할 때, 왜 서구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지를 질문할 때, 그들의 일반적인 대답은, “부담을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이다. 부담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민감성은 꽤나 일반적인 듯하다. 서구 선교사들은 그들의 시간과 공간에 매우 높게 가치를 둔다고 여겨진다. 아시아인들은 도움이 주어질 때, 아무런 폐가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도움 받기를 여전히 주저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모습은 서구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것이며,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그 횡수는 아시아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다를 것이다. 어떤 이들은 비구두적인 암시들을 찾는 반면, 다른 이들은 수용하기 전에 반복되는 호의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

다른 한편, 흥미로운 것은 첫 임기 이상을 선교지에서 보낸 꽤 많은 아시아 선교사들이 서구 동료들과의 관계로 인해 자신들이 변화되었다고 언급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의사소통의 방식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이 되었다고 믿는다. 어떤 선교사는 아시아인으로서, 나누는 일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첫 임기 후반부를 향하면서 좀 더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선교사는 그녀의 의견이 경청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을 위해 변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지만 팀 리더에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선교사들이 팀의 일원들을 상대할 때는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나누었다. 그러나 아시아인들을 대할 때, 그들의 접근은 온건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보다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서구 동료들에 의해 제공되는 도움을 선호한다. 비록 그들이 새롭게 행동하는 것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선호하는 것들은 변화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어떤 이들은 영어의 속도 때문에 친교모임에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을 발견한다. 게다가, 영어의 다양한 악센트는 듣기에 어려움을 준다. 아시아인들은 대부분의 국제 선교단체에서 아직까지 소수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보다 편만한 서구 문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한다. 한 독신 여성 선교사는 친교를 위한 만찬은 종종 서구 음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교사는 동료들을 초대하여 특별 중국요리를 접대함으로써 국제 팀의 일원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식사 후에, 오직 다수의 서구 선교사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제한된 게임들과 일반적인 대화로부터 그녀 혼자 소외되었다. 그녀의 동료들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아 스크래블(영어단어 만들기 게임-역자주)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음식을 접대하고 설거지를 하며 마치 식모와 같다는 기분만 들고 말했다. 그녀는 몹시 화가 났으며 차별감을 느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사회적 소속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절반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 주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한 상황에 맞추기 위해, 그녀는 대접하는 일을 그만 두었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5) 자녀 교육과 복지

자녀들이 기숙사 학교에 다니는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어려움들을 경험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아마도 기숙사 학교의 문화가 보다 서구적인 경향을 띠는데 있으며, 아이들이 기숙사 학교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들의 모국어와는 상대가 되지 않게 그들의 영어는 더욱 유창해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단지 선교 단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영어를 배운 부모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들이 계속해서 영어에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 자신이 언어문제로 인하여 자녀들과 더 거리를 두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방학 동안 집에 있을 때 모국어로 책을 읽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필요한 만큼 모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국제 학교가 있는 도시에서 사역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고립된 지역이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다. 대부분의 아시아 학교체제에서는 가정학교(home schooling)가 실행 가능한 선택적 사안이 아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가정학교의 교육적 매개체가 아시아 언어이므로 선교 공동체에서 부모를 고립시키는 것은 물론 아이들에게는 더 큰 고립이 되며 보다 심각한 도전이 된다. 한 일본인 가족은 자녀들에게 일본어로 가정학교를 시행하는 동시에 자녀들을 인도네시아 학교에 보냈다. 후에 자녀들이 초등학교 과정을 마쳤을 때, 그들은 일본인 학교가 있는 다른 선교지로 이주했다.

한 학부모는 만일 그의 자녀들이 기숙사 학교 대신 그들 본국의 문화에서 성장했다면, 그들이 보다 설득력 있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고 권리를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 생각도 고려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한 자녀를 예로 들 수 있다. 어떤 부모들의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의 자녀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독립적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많은 가족들의 경우 형제자매들이 기숙사 학교에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다 안정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부모들은 연장자 자녀가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고, 가족에 대한 인식을 유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시아계 아이들은 기숙사 학교에서는 아직도 소수이며, 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수용과 적응에 보다 관심을 기울인다.

부모의 가장 일반적인 관심은 본국에 있는 학교로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것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주된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문화 재적응에 따른 아이들의 내재된 갈등과 교육체제에 따른 어려움들이다. 특히 본국의 교육체제가 영어를 교육 매개체로 하지 않는 경우, 상황은 어려워진다. 아시아 가족들이 자녀들의 교육기간 도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생각이라도 할 참에는 이러한 상황은 곧 그들로 하여금 곤경에 처하게 한다. 기숙사 학교들은 아시아 MK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노출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본국 학교에의 입학에 필요한 수준은 되지 못한다. 아시아 MK가 비영어권 대학에 입학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고등교육을 위해 아시아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하나의 선택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시아 선교사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준다. 대체로 해외교육은 졸업생들에게는 보다 나은 교육 투자와 지위, 취직 가능성을 의미함에 따라 아시아인들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상품이

된다. 교인들이 자녀들을 오직 국내 대학에 보낼 수 없을 경우, 교인들이 해외의 선교사 자녀들을 열정적으로 후원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청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을 해외에 가진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만일 아시아 MK들이 해외의 대학에 간다면, 그들은 전형적인 서구 MK들보다는 3-4년 늦게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시아 MK들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교육을 본국에서 떨어져 해외에서 마칠 경우 “아시아인”으로 느낀다는 것은 보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전 학교생활에 걸쳐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본국에 대해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MK들이 청년이 되어 본국에 돌아갈 경우, 적응하기란 꽤나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매우 구조화되고 억압된 체제, 이중 언어 규정, 해외에 거주하는 11세 이상의 남아들에 대한 현금 증서 요구라는 독특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중학생들의 교육과 거주 조치를 살피는 일은 MK 케어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6) 리더십 스타일과 기회

선호되는 두 가지 리더십 스타일들은 박애적이며 권위적 리더십과 상담적 리더십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권위자에 대한 강한 충성과 존경이 담겨 있다. 종종 권위자는 사람들의 관심과 복지에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고 기대된다. 아시아인들은 지도자가 갖고 있는 위치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으로 지도자에게 도전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 사역자들은 그들이 잘못 취급되었다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경우 갈등하게 된다.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자기 추구 또는 상처 난 감정들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지나치게 위협적이며 혹은 영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분노와 실망, 죄책감을 동시에 느낀다. 그들은 지도자를 향해 부정적인 느낌들을 갖고 내적 불만을 품은 것에 대해 자신들을 호되게 꾸짖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감정적이고 영적인 위기가 되기도 하며, 그들은 종종 그들의 감정을 속에서 해결하고자 애쓴다. 그들은 체제 밖의 다

른 사람들이나 지도자적 사람들보다는 신뢰할 만한 동료들에게 한층 개방적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은 한탄하기를, “제 상사가 그렇게 분명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지요.” 또 다른 여성은 “그분은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식으로 느끼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하며 죄가 없다고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거기에는 지도자의 인격에 관한, 즉 그 사람이 영적, 감정적으로 성숙하길 바라는 높은 기대감이 존재한다. 공적인 장소에서는 고도의 감정조절이 요구되며, 만일 감정이 폭발될 경우 큰 수치와 체면 손상이 초래된다. 인내와 겸손, 청렴, 혹은 드러난 영적 훈련의 결핍에 대해 관용을 보이기보다는 무능력에 보다 관용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아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상담적 리더십 스타일을 원하는 쪽으로 생각이 전환되어 왔다. 어떤 이들의 경우 지도자들이 선교사의 개인적인 은사와 목표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사역에 방해를 느낀다. 여기에서 표현된 감정은 지도자들이 사역 초점을 추구함에 있어서 선교사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한 팀으로 긴밀하게 사역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 특히 그러하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방향과 일의 적합성에 대해 거의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음을 느낀다. 그들의 사역 초점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락된 아시아인들은 감사를 나타내곤 한다.

현지 내에서 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은 훌륭한 영어 구사력을 요구한다. 특정한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의 경우 해외에서 영어로 하는 제3의 교육 기회가 없었다면, 그리고 말하기와 쓰기, 둘 다에 유창하지 않다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지도자의 역할이 요구하는 것은 그 개인이 일반적으로 보다 큰 서구 단체와 의사소통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동질집단의 원리는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혼합된 팀에서의 소수 일원들에 대해서는 역작용이 될 수 있다. 만일 아시아인들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면 사실상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것이며, 그 경우 추대된 지도자는 아마도 아시아인일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7) 현장에서의 목회적 케어

대부분의 아시아 선교사들은 선교본부와의 강한 연계성에 가치를 두며 목회적 케어에 대한 희망을 표시한다. 그들은 본국 선교본부 직원들의 공식적인 선교지 방문이나 후원교회의 목사나 신자들의 방문을 반긴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와 속어를 사용하는 다른 아시아인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다고 느낄지 모른다. 아마도 그들은 집을 떠나 고향의 향수를 정기적으로 갈망하고 있는지 모른다. 선교사가 기억되고 있다는 작은 표시들—생일카드, 우편엽서, 편지, 가끔의 전화, 혹은 작은 소포들과 같은 것들은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특히 때때로 고독감과 격리감을 느끼는 독신 선교사들에게 그러하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감정들과 생각들을 선교회 “체제” 밖에 있는 목회자들과 보다 더 잘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선교사는 그녀가 유일한 아시아 선교사이며 다른 아시아계 선교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며, 목사에게 자신을 방문하여 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요청했다.

아시아 국가들 간의 가까운 거리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료는 싱가포르 교회들로 하여금 선교사들을 방문할 뿐 아니라, 교인들에게 선교현장을 체험시키기 위해 빈번한 선교 여행을 계획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선교여행은 선교사들이 현장에 있는 동안 선교사들과 교회들 간에 활력 있는 접촉을 활성화 시키며, 선교사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며 사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2. 본국에서의 문제들

1) 재입국 스트레스

한번은 한 싱가포르 선교사 부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싱가포르 드림(dream)이 우리에게 꿈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귀공자들 가운데

있는 빈민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싱가포르를 매우 안락하게 변모되어 왔으며, 표면적으로 실제로도 풍부해졌습니다. 싱가포르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곳의[선교현장] 생활양식의 차이는 거의 큰 협곡과도 같습니다. 우리들의 많은 친구들은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 클럽의 회원으로, 멋진 곳에서 식사를 하는 삶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선교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현재의 삶의 표준에 부합하고 적응하는데 점차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소유하는 질 높은 삶에 대한 노출은 종종 선교사들에게 혼합된 감정을 초래한다. 이러한 개개인들과 선교사들 사이의 경제적 기준과 소비에 있어서의 대조는 돌연한 충격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나가있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환영하는 아시아적인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특히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서 고급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한 싱가포르 선교사는 귀국해서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그 선교사는 특별한 금전적 선물을 받고, 호화 클럽에 초청되며, 짧은 휴가도 제공받았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은 “가난”하고 해외사역을 위해 “희생”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재빨리 계산을 치른다. 풍족함을 경험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이 걸터앉은 두 세계간의 불균형으로—한 쪽은 가난하고 다른 한 쪽은 부유하게 인식되는—갈등한다. 어떤 이들은 보호 받는다는 느낌으로 인해, 다른 이들은 추앙되는 느낌으로 인해 갈등하게 된다. 선교사로서, 자신의 역할로부터 유리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민감한 영혼에 고통을 줄 수 있다.

다른 아시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동안 자주 본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선교사들은 기술과 생활양식의 급속한 변화들로 인한 충격을 적게 받을 수 있다. 부유한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은 본국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빈번하고 짧은 본국사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구 동료들이 본국에 돌아가는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료는 도움이 된다. 이것은 유익이 될 수 있는 반면, 선교사들은 희생적이어야 하며 돈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대다수의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의 여전히 기대에 도전을 가한다. 어떤 선교사들은 오해와 시기를 없애기 위해 그들의 계획들과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 필요를 느낀다. 선교사가 값 비싼 물건을 갖고 있

다거나 좋은 옷을 입었다는 찬사를 들을 경우, “누가 준 거예요” 혹은 “내 변호사 친구가 준 옷이예요”라고 재빨리 대답하는 것을 선교사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2) 독신 선교사들을 위한 거처

독신 선교사들은 본국 사역 기간 동안 종종 부모의 집이나 형제, 자매의 집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 조치가 될 수 없다는 몇 개의 이유들이 제기된다. 가족들은 독립적인 것과 개인공간에 대한 독신자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가족들은(특별히 부유하지 않는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방을 비워두지 않는다. 선교사가 쓰던 방은 경제적인 이유로 세를 놓을 수 있다. 한 독신 여선교사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야만 했다. 더욱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은 남자 하숙생에게 그녀의 방을 세 놓은 것이었다. 다른 경우에는, 형제, 자매나 혹은 다른 가족이 그 방을 사용할 수 있다. 혹은 실용적인 이유로, 방은 서재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독신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아파트보다 그들 자신의 집에서 더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부담을 싫어하는 가족과 함께 비좁은 방을 같이 쓰는 것에 재적응하기란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때때로 밀접한 생활은 풀리지 않은 문제들과 갈등들을 표면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몇몇의 선교사들은 선교지가 얼마나 더 편안했는지 강조했다. 본국 사역을 마쳐가며, 한 선교사는 “사역지로 돌아가 쉬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라고 말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했다.

어떤 선교사들에게는, 성인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부모와 함께 지내는데 적응해야 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아시아 부모들은 자녀가 그들의 집에 기거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과 존경을 계속 기대한다. 중국의 부모들은 모든 반대 의견을 일축하기 위해, “나는 네가 먹은 밥보다 더 많은 소금을 먹었다”는 경구를 사용한다. 해외에서 유능한 삶을 영유한 독신자들은 이것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그들의 부모와 다른 점들을 다루게 될 때 갈등 해결 원리들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그들은 더욱 더 긴장하게 된다. 가정생활에 새로운 규정이나 활동을

부가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서는 침실 문들을 대부분 잠그거나 닫지 않으며, 가족들이 맘대로 드나든다.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된 선교사들은 그 “침범”을 매우 방해되는 것이라 느낄 것이다. 한 선교사는 그녀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결혼해서 출가했지만, 부모의 집은 대 집결 장소처럼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는 여러 손자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아내들은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가기 전에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된다. 이것은 대가족과 재회하는 훌륭한 환경을 마련했지만, 선교사들은 녹초가 된 기분이었다.

부모를 이해하는 데에도 여전히 스트레스가 존재할지 모른다. 선교사는 가정생활비에 경제적으로 보태고자 할지 모른다. 보수적인 아시아 중국인들 사이에, 그것은 수입이 있는 직장 성인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효행적인 문화적 표현이 되며, 부모와 함께 동거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은 선교사의 본국 사역비에 책정되지 않을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점차적으로 독신 선교사들에게 본국 사역을 위한 거처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은퇴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할 것을 권유한다. 이러한 사양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닌데, 특히 국민주택이 제공되지 않는 아시아 국가의 선교사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3) 가족을 위한 거처

대부분의 싱가포르 선교사 가족들은 외국에 가기 전에 개인소유의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나 그들의 아파트는 대개 임대를 놓으므로 그 수입은 용자를 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만약 가족이 그들의 아파트를 사용하려면, 임대기간을 선교지에서 돌아올 때에 맞추어 계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임대인을 얻는 차후의 계약이 있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싱가포르 가족들은 연장자 자녀들의 현지 학기에 맞는 본국사역을 선택한다. 그러한 선택들은 더 짧은 기간이 되지만, 더 잦은 본국 사역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비현실적이다.

부유한 가족을 통해서든지 혹은 친구를 통해서든지, 개인 자원을 갖춘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적절히 해결할 것이다. 그들의 본국 교회

내에서 자원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어떤 한 가족은 연말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교회 커플의 새로운 빈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방대한 후원 네트워크를 갖지 못해 친척들에게 신세를 져야 하는 가족들도 있다.

내가 알기에 아시아의 어느 기관에서도 본국 휴가 중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며 휴식을 취할만한 거처를 조치하는 것은 모두에게 도전이 된다.

4) 부모의 기대와 필요

아시아 가족들은 아마도 본국 휴가 동안 선교사가 가족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선교사의 형제, 자매와 다른 친척들은 선교사가 떠난 동안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맡아 왔기 때문에, 관계의 공정성을 위해 집에 있는 동안 선교사는 가능한 한 비중 있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 여성은 혼자 그녀의 부친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과 간호하는 일을 책임지게 되었다. 어떤 이는 다른 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인 문제를 정리해야 했다. 가족들 간에 긴장이 존재할 경우, 선교사는 문제 해결을 요청받을 수도 있다. 종종, 화해자, 돌봄, 또는 기능 이상의 역할과 같은 이전의 가족 역할이 선교사에게 다시금 기대된다. 이러한 역할들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휴식과 자기관리, 후원자들과 동료들과의 재회를 위한 시간은 정작 남지 않게 된다. 본국 사역을 마칠 때에는 중압감과 죄책감, 피로, 감정적 고갈, 극도의 긴장과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로한 아시아 부모들은 성인 자녀들과 위계질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그들은 종종 성인 자녀에게, 때로는 즉흥적인 충고로, 때로는 매우 직선적으로, 그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을 해야만 할지 계속하여 주문한다. 독신 선교사들은 때로는 미묘하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결혼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결혼은 미래에 대한 보장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여겨진다. 한 여성은 그녀의 나이 50대에도 아무 남자든 결혼해서 정착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다른 한편, 독신자들은 결혼한 형제, 자매들보다 걱정거리가 적을 것이라 간주되어 종종 연로하고 쇠약한 부모들을 돌봄 사람들로 “선

정”된다. 보수적인 부모는 일반적으로 장남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독신 자녀와 함께 살며 그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어떤 가족들은 선교를 가족의 의무 앞에 둘 만큼 가치 있는 직업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문화는, 여전히 효도는 연로한 부모를 물질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공양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아마도 20년 후에는,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그들의 은퇴를 위한 재정계획이 격려됨에 따라, 이러한 사고구조는 바뀌게 될 것이다.

선교사들 중에는 그들과 그들의 소명을 존중하고 본국에서의 재 적응을 모든 방면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지지적이며 이해력 있는 가족들을 가진 축복된 사람들이 있다. 종종 이러한 사람들은 보다 유복한 배경의 사람들이거나 인생에 성공해서 흔쾌히 선교사들을 후원하려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나 2세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를 둔 이들이다.

5) 경제적 고려사항

아시아 선교사들은 그들의 재정 관리와 삶의 방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지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검소하며 그들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길 종종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재정적인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영적이지 못하다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Campus Crusade 아시아 선교사들은 선교회의 문화적 성격상 그들의 접근방식은 다를 수 있다). 그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종종 필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경제적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제기될 때 비로소 그것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경제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나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선교회나 교회 행정부가 이를 확인해 주는 것을 고맙게 여길 것이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행정부와 다른 이들에게 민감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요청하거나 통보하기보다는 요청을 받는 쪽을 더 선호한다.

어떤 이들은 본국 휴가 기간 중에 경제적으로 더 힘들게 된다.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의무감은 월 사역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부조금, 생일선물, 결혼선물, 교통비, 다른 여러 비용들이 부가된다.

부모님과 같이 동거할 경우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여긴다. 부모나 형제 자매들, 특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가족들이 선교사의 필요를 돌보리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 한 선교사는 그녀가 선교지에서는 저축을 할 수 있었지만 본국 휴가 중에는 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 다른 선교사는 사회적 책임을 위해 그가 사용한 비용과 여러 기능을 수행하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자 그가 사용했던 교통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동료들과 후원자들에게서 건네받은 금전적인 선물로 금전적 필요가 충분히 채워졌다고 보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옷, 책, 장남감과 같은 실제적인 선물들을 받는다. 이것은 교회와 선교행정부로 하여금 선교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선교사들이 공적인 체제 밖에서 여분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 선교사의 경우, 교회 회계가 수표를 수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쁜 까닭에 그리고 그 선교사는 경제적으로 궁핍해 지리라 여기지 않았기에 3개월 동안 급여가 지불되지 않았다.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훌륭한 후원회를 조직을 구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여분의 선물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내가 아는 한, 아시아 선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선교사 주택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복지국가들이 아니다. 싱가포르 선교사들은 은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을 구입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들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일정 기간 일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며 부유한 친척들이 없는 한, 그들 모두가 계약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아시아 선교사들은 아마도 정부 지원 주택이나 은퇴 주택을 구입할 재정 자원을 사용할 수 없을지 모른다. 어떤 선교 기관들은 은퇴 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지침과 도움을 마련한다. 반면, 다른 기관들은 선교사로 하여금 그들 개인이 보험에 들게 하거나 스스로 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내버려둔다. 한 선교사에게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따로 마련된 충분한 재정이 있는지 질문하자, 그녀는 농담하듯 대답했다. “빨리 죽기 원해요.”

6) 자녀들의 학업

아시아 부모들이 갖는 하나의 독특한 문제는 자녀들을 모국에 있는 학교로 모으는 일이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학교의 교육 매개체는 영어가 아니다. 또한 학교 체제는 보다 구조적이고 엄격하며 교사 한 명에 약 40명의 학생 규모의 학급으로 운영된다. 서구 체제와는 달리, 학기 중간을 마치기까지, 그 체제에 쉽게 어울리는 유치원 이상의 아이를 찾아보기란 힘들다. 선교사가 본국 사역에 임하는 단 1년간 싱가포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초인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교육부와 학교 관계자의 특혜가 필요하다. 학교 교육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다루지 않는 한,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대부분의 아시아 가족들은 본국에서 단기간의 사역체류를 해야만 할 것이다. 단기적이며 잦은 본국 사역에의 해결방안은 미래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단기체류는 보다 연장된 휴가처럼 느껴진다. 개인이 대체적으로 관망은 하고 있으나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 개인의 문화를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염려되는 것은 아시아의 MK들이 서구 MK들보다 모국에 대한 뿌리의식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숙사 학교에서 모국어 사용이 발전되지 못하며 학교 문화가 서구에 가까울 때, 아이들은 미세하지만 확연하게 서구의 평가기준으로 바뀐다. 그러나 서구 동료들과는 달리, 아시아 MK들은 학업을 마칠 때, 서구가 아닌 아시아 국가로 돌아간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시아 학교들보다는 압력이 적은 국제 학교의 교육체제를 선호한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들은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학교들에서 제공되는 돌봄과 영적 지도에 고마움을 느낀다. 자녀들이 그들의 전 학교생활과 기숙사생활을 서구적 방식 안에서 보낼 때 경험할 수 있는 적응의 문제에 대해 고려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다. 몇몇 기숙사 학교들은 한국인과 중국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아시아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아시아 MK들을 위한 기숙사 케이터링(catering, 본국 음식들을 제공하는 식당-역자주)을 마련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직 초기단계에 겪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7) 본국 교회의 기대

많은 아시아 교회들은 선교사들이 장기간 본국 사역에 임하는 동안, 그들이 교회에서의 행정업무나 광범위한 목회적 또는 가르치는 의무들과 같은 교회사역에 바로 임할 수 있을 것이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그 교회가 전적인 후원교회이거나, 적은 교세를 가졌든지 혹은 영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아닐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교인들은 이와 같은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 “하는 일이 없으니 어떠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본국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본국 휴가를 선택한 선교사에게,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묻는다.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의 가중된 사역을 분담할 생각으로 본국 사역에 임하는 선교사들을 고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표현한다. “선교사님께 교인들과 다시 친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사역을 감당할 에너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반면 다른 이들은 타문화와 언어 안에서의 오랜 학습과 사역으로 이미 지친 상태로 본국에 도착한다. 그들은 충분히 쉬고 원기를 회복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채 선교현장으로 귀환할 수 있으며, 어떤 이들은 실제로 선교지를 떠났을 때 보다 더 지치고 고갈된 상태로 돌아간다. 선교 사역에 다시 임하기 직전에 휴가를 취할 수 있었던 한 부부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울해지지 않고 새로운 사역 기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해 주었다고 보고했다. 아시아 인들은 대체로 서구 선교사들보다 대리 업무를 적게 하는 듯 보인다. 그들은 보다 많은 사역 임무를 맡고 가능한 한 후원교회들의 정기 모임에 보다 많이 참석하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선교사의 후원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모국의 한 교회를 갖는 일은 일반적이다. 후원금의 총액수는 매우 실질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휴가를 취할 때, 사역의 결과 혹은 봉사의 차원에서 그들을 향해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몇몇 국제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사 가족들이 대부분 교인들의 월수입 보다 더 많은 선교비를 모금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아시아의 어떤 국가들에서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까닭이며, 후원사항에는 선교 행정비, 자녀 해외교육비, 선교지 여행경비, 의료 및 은퇴 자금, 기타 항목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교를 위해 고소득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나 사회에서 높은 급여를

요구할 만큼 뛰어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후원하려고 한다. 그러한 경우, 모국 교회로부터 모금되어야 하는 그 높은 후원금은 선교사가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선교사는 보다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선교사가 직장이나 전문기술로 얻을 수 있는 소득보다 더 많은 재정 후원을 얻게 될 경우에, 선교사는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누리는 만큼 그 이상의 요구를 받게 된다.

3. 아시아 멤버케어를 위한 제언

1) 선교현장에서의 문제

(1) 가족에 대한 목회적 케어와 조력

선교기관들과 교회들은 각 선교사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후원의 일부로서, 선교사 부모들에 대한 목회적 케어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다. 명절 중에 선교사의 부모들을 찾아보는 것과 부모들에게 복지혜택을 신청하도록 알려주는 것, 특별한 만찬이나 행사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 병중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러한 작은 행위들은 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된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며 비그리스도인 부모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선교사들에 의해 모금된 재정적 후원에는 성인자녀들에게 물질을 기대하는 부모들을 위한 금액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선교사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고르반”을 말하며 그들의 부모를 지원하는 일을 피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한 선교기관에서는 부모님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중국인 특별 신년만찬을 주최하여 전통적인 선물들인 오렌지와 “빨간 포장의 선물”을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대표하여 전한 바 있다.

(2) 언어 프로그램의 융통성

적성과 학습방식, 구사 가능한 언어의 수, 새로운 언어의 자국어에 대한

유사성(예를 들들어, 일본인들의 쓰기와 중국인들의 쓰기는 매우 유사하다)과 같은 요소들에 따라 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언어능력을 소유한 아시아인들의 장점을 한걸음 나아가 인식하게 한다. 서구의 학습자들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조직적인 프로그램들은 아시아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게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선교 팀 결속

아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선교지 팀 구성원들을 통한 선교기관의 결속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다. 선교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미 현지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동(transition)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도움이 필요하다. 아마도 팀에서 “남자 연장자”(big brother) 또는 “여자 연장자”(big sister)를 지정해 준다면 통례적인 언어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언어에 대한 지식이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동일하게 여겨 질 수는 없다. 현지인 신자들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새로 온 선교사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정보제공자들과 조력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선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할 것이며, 첫 케어 제공자들은 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아시아와 서구 선교사들 사이에 더 큰 결속력을 가져올 것이다.

(4) 팀 구축

국제적인 팀과 사역할 때 다수 그룹의 입장에서 소수 그룹의 필요에 대해 특별한 민감성을 갖는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그룹에서 유독 다르게 보이는 사람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과 영어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모든 불공정한 유형의 대우를 피하는 일에 보다 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은 인종적인 편견에 도전하며, 국제적인 팀 내에서 선교사들의 개인성장을 함양하며, 개인과 단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 민족들의 보편적 상이점들에 대한 강좌나 발표는 교육적이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상호이해와 수용을 조성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선교사들이 그들의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받아들였을 잠재적

혹은 무의식적 종족신념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반성적이고 경험적인 집단 연습들은 변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필요하다. 이러한 신념들은 이 때 도전되며 포기될 수 있게 된다. 문화적으로 민감한 결속력 있는 팀과 성숙한 개인들을 세우는 일이 선교지에서 타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탈락을 줄일 수 있을 정도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5) 연장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학교

아시아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숙사 학교로 보내기 전에 자녀들이 최소한 청소년이 되기까지는 부모 곁에 두기 위해 신중히 고려하며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이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가족과 결속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시간을 허락할 뿐 아니라 부모들로부터 문화적 가치들을 배우게 만든다. 그러나 국제학교들이 가까이에 없고, 적합한 지역학교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정학교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 그것은 불가능 할지 모른다. 선교 기관들과 아시아 선교사 가족들은 MK들을 위해 그들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격려하고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동일한 책임감을 가져야만 한다. 학교 기숙사 구내식당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젓가락으로 먹는 것(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의 경우)이나 손으로 먹는 것(인도인의 경우)은 그야말로 충분하지 않다.

2) 본국에서의 문제

(1) 본국사역 코디네이터

본국사역 코디네이터를 정하는 것은 유용하다. 코디네이터는 본국사역 기간 동안 자원제공 및 목양자로서의 역할을 행하며 선교사들의 다양한 필요들을 능동적으로 살핀다. 그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디브리핑 및 상담, 또는 필요한 경우에 전문인 상담 의뢰
- 재입국, 주택, 자녀들을 위한 문화 전수 프로그램
- 1년 장기 본국사역의 경우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조사
- 휴식 및 여가, 자아 및 관계성장 프로그램, 기술향상 프로그램, 영성훈련, 대표자 모임 등을 위한 선교사들과의 일정 기획
- 본국사역 기간 중 교회 참여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선교사와 후원

교회들과의 협력

- 본국사역의 목적과 개인적인 계획 완수를 위한 선교사의 전반적 본국사역 감찰
- 교회, 사회, 이민국, 교육, 다른 국가규정 동향에 대한 최신정보 제공
- 본국사역 목적에 관한 아시아 교회 책임자들과 임원진들의 교육
- 선교사들의 선교지 귀환 전, 본국사역 경험 진행

선교기관들과 교회들이 코디네이터들을 서로 공유하면 매우 유익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코디네이터는 본국사역에 임한 선교사들이 언제 가장 많은 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특별 성장 그룹, MK 모임 또는 결혼 세미나들이 개최될 수 있다.

(2) 주택 코디네이터

기간이 일 년에 달하는 독신자들과 가족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기독교 공동체와 광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재정 자원이든 주택 자원이든, 필요한 경우에 자원들이 소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필요를 위해 자신들의 소유를 관대하게 나누기를 열망하는 많은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아시아 도시들에는 교육받은 부유층들이 많이 있으며 종종 그들은 그들 소유의 가구가 갖추어진 빈 아파트들과 주택들을 무상이나 적은 임대비용으로 단기 체류 선교사들을 위해 기꺼이 제공하려 한다. 아마도 이에 필요한 것은, 필요들과 자원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며 이러한 사역을 멤버케어의 중요한 역할로 여기는 공동체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일 것이다.

(3) 본국 사역의 융통성

본국 가까운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자주 있는 단기간의 본국 사역을 바라거나 심지어는 본국에서 휴가를 보내기를 원할지 모른다. 이는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단절시키지 않으며 가족간에 보다 많은 만남을 갖게 하여 대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러한 해결방안이 그들의 동료들에 대해서는 사역하는 날 보다 쉬는 날이 더 많은 편안한 삶으로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민감해진다. 어떤 한 교인은 시기하듯이, “돈

많고 유명한 선교사들이나 여행하지요”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선교지의 어려운 상태, 가정생활의 주기적 단계, 자녀들의 문화에 대한 뿌리의식, 교회의 재정적 부담,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을 포함하는 여러 요소들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은퇴 계획

국제적인 선교기관들이라면 아시아 국가들이 시민들을 위해 국민보건과 은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영국에서와 같이) 혹은 은퇴 이후 사회보장연금 제도를 제공하는(미국에서와 같이) 복지국가들이 아니라는 것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 선교기관들과 교회들은 그들의 선교사들과 함께 은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연금계획이나 기부금을 모금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결론

나는 이 글에서 아시아 선교사들을 위한 특정한 주제들을 토의하였으며 그들을 위해 멤버케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각 각의 그룹에 다른 경험들과 도전들을 창출시키는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교육적 구조들과 같은 상황적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필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시아 선교사들은 단일 그룹이 아니다. 그들의 다른 점들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아시아인들의 선교에 대한 증가되는 응답 추세와 함께, 파송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은 아시아인들의 특별한 관심들과 도전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5. 토의 주제

1. 저자가 설명한 아시아 선교사들의 주된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면에서 그 장점들이 그들의 사역을 향상시키는가?

2. 아시아 선교사들은 아시아 선교단체 아래 동질집단으로 함께 사역했을 경우 대체적으로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언급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말해 보라.

3. 어떤 방식으로 아시아 선교사들과 서구 선교사들 사이의 문화적 간격을 좁힐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문화적 팀워크가 고양될 수 있는가?

4. 선교기관들이 스텝들의 국제화에 대한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단체 구조 내에 가능한 변화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선교사들 사이의 인종차별 문제와 보다 깊은 신뢰와 수용을 방해하는 무의식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조심스럽게 제기할 수 있는가?

* 이 글을 위해 유용한 조언을 해 준 WEC의 패트릭 림, SIM의 벨린다와 OMF의 케네스 텐에게 특별히 감사한다.

제 7 장

선교사 자녀 교육과 케어: 아시아의 교훈

나는 MK 사역을 1990년 일본에 있는 한 MK 학교에서 시작했다. 나는 그 학교의 재학생들 가운데 절반이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에서 온 아시아인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996년 12월, 마닐라에서 열린 선교사/기독교 해외학교 지역대회(Missionary/Christian Overseas Schools(MCOS) Regional Rally) 기간 동안 여러 MK학교들로부터 온 교사들과 기숙사 사감들은 내게 아시아 학생들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그것은 내게 MK 학교의 아시아 학생들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

* 폴리 찬(Polly Chan)은 1990년 OMF에 들어와서 일본 OMF MK 기숙사 학교인 Chefoo 학교에서 2년간 섬겼다. 그 후 그녀는 1993년 미국 휘튼 대학에서 MK 교육과 케어에 대한 연구로 교육학 석사를 취득했다. 그녀는 캐나다에



폴리 찬 *

아시아 선교사 파송국들은 점차적으로 선교사 자녀(MK) 케어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와 훈련과 후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더욱 건강하고 탄력성 있는 MK들이 양육될 것이다. 이 글은 세 개의 사례연구와 함께 아시아 MK들의 삶의 기복을 살펴본다. 이 글은 MK들과 아시아와 비아시아 MK 가족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실제적 훈련들과 자료들로 결론을 맺는다.

가 되었다. 보다 중대한 관심은 선교 현장에서 국제학교나 현지학교에 다는 MK들이 본국 학교와 생활에 재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갈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었다. MK 학교 관계자들은 점차 이러한 필요들에 대한 긴박성을 인식하고 있다. MK 후원에 대한 상관성과 MK 사역자들을 위한 필요 또한 아시아 선교사 파송국에서 보다 잘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서구 및 아시아 선교 관계자들과 교육자들이 아시아 MK들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해 온 것을 보며 기쁘게 여겼다. 그러나 서구의 반응이 보다 일찍 그리고 기민하게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이 두 집단 간의 발전은 서로 다른 수준으로 진척되어 왔다. 아시아 선교 공동체는 늦은 속도로 성장해 왔으나 꾸준히 서구의 뒤를 쫓고 있다!

1. 배경적인 관점들

아시아는 2/3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사 파송 대륙이다(Barrett and Johnson, 2001; Pate, 1991, p. 29). 1994년 한국선교연구원(KRIM)은 한국 선교의 지속적이고도 극적인 성장을 확증했다. 1979년 93명의 한국 선교사와 비교하여, 1994년 6월 말까지 그 숫자는 3,274명으로 증가했다(Lee, 1994, p. 1).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문화 선교사들을 제외하고, 한국은 현재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뒤를 이어 해외 선교사 파송수에 있어서 4위에 올라 있다. 현재 한국 선교사들의 수는 약 8,000명 정도이다.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인도 선교사들(대개 타문화권 선교)의 대략적인 수는 약 15,000명이다(Rajendran, 1998).

서 심리학으로 B. A. 학위를 얻었으며, 홍콩에서는 공인 고등학교 교사이다. 1995년 폴리는 OMF에 의해 아시아 MK들의 케어를 기획하는 현재의 그녀의 사역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그녀는 HKACM의 MK Care Group의 설립과 기획을 도왔다. 폴리는 아시아 복음주의 선교 위원회의 선교단체간 사역인 Member Care/Asia Task Force가 1997년에 시작한 이래 그 단체의 공동의장으로 사역해 왔다.

Email: ChanPolly@omf.net.

아시아 MK들의 숫자 또한 당연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속한 OMF(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의 1988년에서 1998년에 이르는 연구조사는 OMF 아시아 MK 수가 지난 10년 내에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아시아의 선교사 파송국들의 수도 5개국에서 8개국으로 늘었다고 보고했다. 홍콩과 일본,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 학교에는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선교사의 자녀들이 있다. 다른 연구조사(Chan, 1999)는 1988-1998년 기간 동안 우리 학교의 한국 MK 수는 13명에서 46명으로 3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숫자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아시아인들이 전 세계적 선교 사업에 합류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흥분을 금할 수 없다. 과거 10년 내에 일어난 아시아 선교사들의 상대적으로 갑작스러운 수적 증가와 더불어, 우리의 관심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뿐 아니라, 어떻게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앞서 간 서구 선교 동역자들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는 이전에 행해진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들로부터 값진 경험들을 배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아시아 문화와 상황에 독특한 영역들이 또한 존재하며, 아시아인들은 사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력과 자원들을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홍콩 기독교 선교협의회(Hong Kong Association of Christian Mission, HKACM)의 최근 리서치에 따르면, 부모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이유들 중의 하나인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선교 단체들의 관점에서는 일곱 번째로 보고된 반면, 선교사들에게서는 두 번째로 보고되었다(Hung, 2000). 싱가포르인들에게 있어서, 11세 이상의 남아를 해외에서 학업을 시킬 경우, 부모들은 최소한 75,000 달러의 보증서를 정부에 지불해야만 한다(Taylor, 1993). 이러한 국가정책은 남아가 12세가 된 이후에도 해외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가족들에게는 주요 장애물이 되었다. 이후의 몇 년은 대다수의 한국 MK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며, 정체성 문제를 통과하며, 아마도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므로, 한국 선교역사에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Moon, 1997). 이와 유사한 관심은 일본과 대만, 홍콩까지도 포함해, 단일 문화적이고 단일 언어적인 배경을 갖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와 교육 체제에는 분명한

비유연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특히 아시아 자녀들이 재입국할 경우나 가족들이 귀환할 때에 그들에 대한 사전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된다.

2. 아시아 MK의 잠재력

아시아 MK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삶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Kids Without Borders: Journal of Chinese Missionary Kids*(Chan, 2000)에서,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미국 출신의 부모를 둔 다른 연령층의 중국계 MK들은 MK로서의 자신들의 경험들을 나누었다. 이러한 아시아 MK들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다른 여러 아시아 나라들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들 중의 많은 아이들은 다른 MK들이 선교지 현지 학교를 다녔던 반면, 그들은 MK 학교에서 영어로 교육을 받았다. 이 아이들은 영어와 모국어, 현지 언어를 포함하여 적어도 두 세 개의 언어에 능통하다. 그들은 부모들의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사귀는 것을 즐긴다. 그들 중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비전을 계승하여 2세대 선교사가 되었으며, 혹은 해외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MK/국제 기독교 학교에서 영어로 교육을 받은 MK들은 일반적으로 서구와 비서구 양쪽으로부터 최상의 가치들을 유출할 수 있으며 뛰어난 세계적 그리스도인과 타문화 사역자가 될 수 있다(Loong, 2000).

아래의 글은 아프리카에서 성장한 한 싱가포르 MK의 짙막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당신은 아시아 MK들의 성숙함과 잠재력에 놀라게 될 것이다.

3.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Joel Ng Kuang-Jong¹⁾

선교사 자녀들(MK)은 흥미로운 종족들이다. 종종 나는 내게 맞게 여겨지는 것이 인도와 남미 혹은 그 외의 어느 곳에 살고 있는 MK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지구의 다른 편에서 왔을지 모르지만, MK들과 우리들의 경험을 나눌 경우, “그거 내가 했던 것과 똑같다” 또는 “내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야”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한다.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는 많은 공통점들을 발견하지만, 같은 나라 사람들과는 아주 적은 공통점 밖에는 찾을 수 없으므로 묘한 기분이 된다.

왜 그러할까? 우리는 고국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세상을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는 우리가 성장기에 경험했던 것에 보다 일치감을 느낀다. 어렸을 때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셨던 병원에서 거의 매일 수도 없이 많은 환자들을 보았다. 그와 같은 고통들을 지켜보며, 동료 인간으로서 나는 나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을 돕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싱가포르의 삶의 방식이 내게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나, 이후에는 나의 삶이 아프리카에서 보다 훨씬 진취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생각은 그 해 9월, 내가 영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로 하여금 제 3세계 개발을 공부하게 했다.

선교사 가족의 일원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며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아프리카의 건기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기적들 중 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해에 우기는 늦게 찾아 왔으며, 우리는 비가 곧 내리지 않으면 곡식들이 충분히 자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녁 가족 예배를 마치며, 우리 가족 각자는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기도하자, 강한 천둥이 내리쳤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소리일 듯 한, 함석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그날 밤 내내 계속되었다.

1) *Intercom*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음. SIM Issues 141, September/October 1999.

싱가포르의 안락함은 결코 내게 편안함을 주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물질주의의 추악함은 제3세계에서 내가 목격했던 것들로 증대된다. 많은 것을 소유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적게 소유하나 그들이 가진 적은 것에 감사하는 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 즉 적은 소유를 갖고 있으나, 매일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미래를 그에게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가지지 않은 아프리카인들이 방문객이나 낯선 사람들에게 조차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들의 소유를 값없이 내어 주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우간다의 이디 아민의 독재 아래 겪었던 케파 샘팡기의 간증, “테리의 통치, 사랑의 통치”에서 그는 한 네덜란드인 친구가 그에게 했던 말을 이와 같이 상기한다. “주는 것은 양 방향이 아니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것은 멈추거나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오로지 지나갈 뿐이다.”

내게,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부름이며 축복이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죽음을 향한 삶, 병마와 질병에 대한 건강, 기근을 향한 풍족한 수확은 아프리카인들이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그들과 가까이 사는 것은 우리가 가진 축복의 의미를 증대시킨다. 아프리카 사역은 내가 매우 확신해 왔던 그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주심으로 나를 축복해 오셨다. 돌이켜 보면, 내가 태어난 곳,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신 은사들을 전하는 것이 이에 대한 가장 합당한 응답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4. 아시아인들을 향한 도전

해외의 다른 문화권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아시아인들에게는 특별한 도전이 된다. 예를 들면, 부모 선교사들은 그들의 대가족과 친구들의 압력을 처리해야 하며, 자신들의 아시아적 생활방식에 변화를 일으켜야 하며, 단일 문화적 사고방식에 폭을 넓혀야 할지 모른다. 아시아 MK들에게, 해외

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많은 특권이 될 수 있으나, 문화적 차이에 적은 관대함을 가진 부모의 나라에 돌아가 생활하며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MK 교육은 아시아 선교사들에게 난제가 되어 왔으며, MK를 위한 훌륭한 교육방법이 보다 충분히 발전될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직면하는 유일한 도전들 외에, 많은 아시아 MK들은 빈번한 이동에 대한 도전에 관해 비 아시아인 MK들과 공감하게 된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인사를 하며 작별을 고하는 것은 성인들 뿐 아니라, 아이들 역시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많은 아시아 MK 케어 사역자들과 부모들조차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해결되지 않은 슬픔의 영향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1) 희생

아시아인들은 관계에 가치를 둔다. 그리고 그들은 대가족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부모 선교사들은 선교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며 불우한 지역에서 자녀들을 “고통” 받게 한다며 용기를 잃게 하는 친척들과 친구, 그리고 심지어 그리도인들의 압력에 직면할지 모른다. 이러한 반대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주님으로부터의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는 것은 부모에게 중요하다. 또한 부모들은 MK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선교현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해외 경험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시련의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선한 계획—번영과 보호에 대한 계획(렘 29:11)—을 갖고 계심을 신뢰해야 한다.

2) 가족과 사역 간의 균형

자녀들과 양적이며 질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아시아 부모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사역에 너무 열중하는 까닭에 자녀들의 필요를 등한시 해 왔다. 다른 이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고충을 느낀다. 한번은 우리

기숙사 학교에 있는 한 한국인 MK가 여름 방학 때 17개의 선교 팀들이 그의 가족을 방문하여 그의 어머니가 방문객들을 위해 내내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적절한 여가시간을 취할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시간을 지키는데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은 선교 지도자들과 후원 교회로 하여금 그들 가족의 필요들을 이해하며 가족 휴가를 포함하여, 사역 일정을 함께 수립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유익하며 중요하다. 한 중국인 청소년 MK는 부모의 사역지 변경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옮겨 다녀야만 했으며, 한 학교에서 2년 미만의 공부를 하며 9개 학교를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역과 그 사역의 중요성을 그녀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도와 준 그녀의 부모의 노력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주께서 그녀로 하여금 보다 큰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토록 하신 것 또한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였다고 덧붙였다. 가족과 사역은 둘 다 중요하며, 이 둘 사이에 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 MK 정체성의 문제

단일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감각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할지 종종 갈등하게 된다. 언젠가 나는 한 한국인 MK가 그녀의 아버지를 가리켜 인종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가 백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으며, 만일 자신들의 딸이 외국인과 결혼하게 될 경우 한국 사회에서 직면할 수 있을 압력과 더불어, 국제결혼이 초래 할 수 있는 도전들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서구 문화가 우세한 MK/IC 학교에 자녀들을 보낸 많은 아시아 가족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서구화되어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들이 바른 영어를 배울 수 있으며 그 학교에서 국제적 취향들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게 된다. 민족적/국제적 정체성의 도전에 대한 쉬

운 해결책은 없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를 결정해야 할 때 여러 면들을 조심스럽게 고려해야만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보다 국제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 듯이, 자신들 역시 개방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국제적 학교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들과 간격을 좁히도록 영어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서구 문화를 배워야 할 것이다.

한 한국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세미나에 참석하여 제3의 문화의 아이(third-culture kid, TCK)가 되는 것의 득과 실에 관해 들은 후, 그녀는 “아들을 변화시키는 대신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겠군요!”라고 말한 그녀의 눈에 빛이 어렸다. 단일 문화적, 단일 언어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아시아 MK들은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갈 때 더 많은 도전들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가 지구촌으로 축소되면서, 이러한 단일 문화적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점차적으로 개방적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MK들의 재입국 기간 동안의 적응을 위한 도전들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 기대한다.

4) 장기적 교육 계획

짚은 이동은 아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한 교육 모델에서 다른 교육 모델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유익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한 언어 시스템에서 충분히 머물지 못한다면, 언어를 통합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학문적으로, MK가 한 교육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변화할 때 학습의 간격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갖지 않을 경우 치르게 되는 짚은 이동의 대가에 대한 단지 몇 개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부모들의 본국 사역 기간 동안 그리고 가족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본국에 귀환 할 경우, 아시아 본국에서의 교육은 아시아 MK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 모국어로 학문적인 언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으며 본국의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이 든 MK들에게는 특히 어렵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현지 교육 체제는 압박적이며 경쟁적이다. 동료 간의 압력 또한 심하다.

부모들은 제3의 교육 뿐 아니라, 본국 사역 기간 동안 자녀 교육을 포함하여 자녀들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 받는다. 만일 자녀들이 원할 경우, 자녀들이 본국에 돌아가 정착하기에 언제가 가장 적합한지 시기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의 교육을 위해 자녀들을 북미나 유럽으로 보낼 것을 고려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선교 단체들과 교회들은 단지 고등학교까지만 MK 교육을 후원한다.

부모의 나라로 이동하는 것 또한 큰 도전이다. 부모들과 선교 현지와 본국 양쪽의 교사들이 긴밀한 의사소통을 나누며 이동을 위해 아이들을 준비시킬 방법들을 함께 찾아 나간다면 크게 도움이 된다. 부모들은 이동 기간 동안 자녀들에게 여분의 시간을 허락하며 지지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부모 중 한 명은 자녀들의 정착을 전적으로 돕기 위해 가정에서 머물도록 얼마간 사역을 유보해야만 할 수도 있다. 재입국을 향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로 귀국하는 아시아 MK들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들은 보다 더 많다.

5) 이동

이동을 하는 것은 빈번한 이사와 학교를 옮기는 것과 변동에 밀접하게 연관된 또 다른 큰 문제이다. 그것은 어린이에게는 한 곳에서 사귀었던 친구들과 이별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는 감정적 소모를 가져오는 것이다. 아이들은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그 경험을 반추하고 그 상처에 대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만큼 성장할 때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The Third Culture Kid Experience*(Pollock & Van Reken, 1999)는 부모들로 하여금 이동을 준비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뿐 아니라, 헤어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사는 때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선교사역에서 치러야 할 대가의 한 부분이다. 이사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 외에,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MK들이 가족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여긴다. 그것은 지리적인

위치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소속감을 나타낸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족은 이동 가운데에서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부모들은 이사에 대한 자녀들의 역반응에 대해 보다 민감해 질 수 있으며 이사에 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들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인들은 감정을 개방적으로 나누기를 보다 주저한다. 이러한 점은 부모들이 먼저 행하며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부분이 된다.

6) 재입국

교육적인 문제들 외에도, 재입국으로 MK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문화적 적응들은 간과될 수 없다. 어떤 MK들의 경우 “고국”에 그다지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친척들과 학교의 친구들, 심지어 교인들까지 그들이 모국어로 말하려 할 때 그들의 악센트에 대해 놀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MK들이 문화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르게 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MK들은 집에서는 맨발로 다니기도 하며, 어른들이나 교사들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 학교를 다닌 MK들은 대개 탁월한 영어를 구사하며, 10대 소녀들은 머리를 염색하고 네일아트를 하기도 한다. 재입국은 본국에 몇 안 되는 친구를 둔 10대들에게는 특별한 도전이 될 것이다.

아시아 대가족의 친밀한 관계는 MK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몇몇 MK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본국에 있는 그들의 사촌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갖고 귀국해 그들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한다. 한국의 한 교회는 귀국하는 MK들을 돕는 MK 케어 그룹을 조직하였다. 교회의 나이 든 형제 자매들은 MK들의 멘토가 되어준다. 홍콩에서는, 홍콩으로부터 파송된 모든 선교사 가족들을 돌보는 초교파 선교단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K 케어 그룹이 설립되었다.

아래의 글은 일본에서 성장한 한 중국계 MK와의 인터뷰에 근거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MK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하면서 부딪치는 도전들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줄 것이다.

5. MK의 득과 실

by Karen Wong Chiao-Lin²⁾

많은 사람들은 MK가 모국에서 성장한 여느 다른 아이들과 얼마나 다른지에 놀라게 될 것이다. MK의 득과 실은 무엇인가? MK의 삶에 관한 보다 큰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나는 홍콩에서 태어나 7살 때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으로 가기 전, 우리는 얼마간 싱가포르에 머물렀다. 그 때 부모님은 타문화 훈련을 받고 있었다. 나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유치원에 다녔던 것이 기억난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내 기억은 희미하다. 우리가 일본에 정착한 후에 여동생과 나는 처음으로 도쿄 근처에 있는 중국계 학교에 들어갔다. 우리는 그곳에서 단지 몇 달간 공부하고 현지 일본학교로 전학을 했다. 나는 3년 동안, 두 개의 다른 일본 학교에서 공부했다. 일본 학교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은 처음에는 그다지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직도 일본 급우들에게 들볶였던 기억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여겼다. 하루는 그 선생님이 일본어, *kanji*(인격)라는 말은 중국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그 이후에 급우들은 나를 중국 *sansei*(선생)로 여기기 시작했고, 내게 중국어로 이름 쓰는 것을 묻기까지 했다!

부모님들의 사역 때문에 우리 가족은 또 다시 이사를 했다. 우리는 쓰쿠바(Tsukuba)로 이사를 했고, 나는 그곳에 있는 한 작은 국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나의 영어 교육은 그 학교에서 시작되었다. 그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중학교 진학을 위해 Christian Academy of Japan(CAJ)에 입학하기 전에 단 2년간 그곳에서 공부했다. 나는 CAJ를 매우 좋아했다. 내가 학교를 가정처럼 안락하게 느낀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교사들은 매우 잘 이해해 주었고 내 친구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MK

들이었다. 현지 학교와는 달리, 나는 다른 아이들과 그다지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나는 거기서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았다. 일년 후에 우리 가족은 일본을 떠나야만 했다. 그 때 부모님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Dalat School 기숙사에 나와 내 여동생을 보냈다. 달라트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주로 내가 너무 일본을 그리워 한 까닭이라 여긴다. 나는 현재 14살이며, 내 인생의 절반을 일본에서 보냈다. 일본은 실로 나의 고향이다! 말레이시아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했을 때, 항상 나는 CAJ와 달라트를 비교했다. 그러나 첫 학기 이후, 나는 달라트에 소속감을 갖기 시작했으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달라트는 내가 다닌 학교 중 아홉 번째 학교이다. 때로 나는 내 친구들에게, 2년 이상 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고 농담을 한다!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니며 그렇게 많은 학교를 다닌 것에 대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 할지도 모른다. 때때로 나는 이사가 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내가 부모라면, 나는 내 아이들이 MK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 자문자답한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늘 피곤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친구 사귀기를 즐겨워하는 것에 감사한다. 지금 나는 여러 곳에 친구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 메일로 계속 연락하고 있다. 또한 나는 내가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몇 달 전에 달라트는 페낭(Penang)에 있는 일본 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동안 내 여동생과 나는 선생님들로부터 통역자로 요청을 받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비록 우리는 영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일본어로 대화 나누기를 좋아해서 일본어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MK가 되는 것에 대한 득과 실이 있다. 이사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한 곳에 늘 정착하기 보다는 지금의 내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할 것이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실로 큰 특권이다! 나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일과 그 사역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내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때때로 삶이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얻으신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내가 MK로서 경험한 잃어버린 것

2) 이 글은 *Kids Without Borders: Journals of Chinese Missionary Kids*, 1999의 사용 허락을 받음.

들은 사소한 것이 된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의 신실하심을 더욱 경험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였다.

6. 아시아 MK 교육을 위한 최신정보와 전략

MK 교육은 대개 즉각적 주의를 요하는 중요한 현안이다. 서구와 아시아 교육자들은 아시아 학생들이 지나치게 서구화 되는 것을 염려하며, 그들의 학교 내의 아시아 학생들에게 적절한 후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느껴 왔다. MK 교육을 위해 제공된 커리큘럼과 국제 기독교학교협회(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ACSI)와 같은 출판사들, 그리고 여러 중요한 대회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 MK들의 교육적 필요에 응답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러한 대회들은 아시아 MK 케어를 수행하는 아시아인들의 인식을 증대시켰다.

1) 서구/아시아의 협력사역

MK 사립학교들과의 협력. 1970년대 초 모국어 연구(Mother Tongue Studies, MTS) 프로그램이 SIL(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에 의해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Ukarumpa International School에서 시작되었다.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은 그들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고 국제적 교육 환경 속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현재 그 학교는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일본어, 한국어, 이 다섯 가지 언어들로 구성된 MT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나라의 훈련된 교사들이 이 국제 팀에서 봉사하기 위해 모집되었다. MTS 프로그램은 아시아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MK 교육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몇 년 간, 점점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MK 학교에서 아시아인들과 다른 학생들을 섬길 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파푸아 뉴기니의 Ukarumpa International School에는 한국인

과 일본인 교사들이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Dalat School에는 홍콩 교사들이 있다.

비록 모든 MK 학교가 이 정도의 국제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학생회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여러 다른 MK 학교들에서 창의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학교에 아시아 학생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래 서구문화가 지배적이었던 많은 MK 학교들이 현재 아시아 학생들의 필요에 대해 문화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대처해 오고 있다. 파키스탄의 Murree Christian School은 아시아 MK 케어에 있어서 훌륭한 실례가 된다(Billing, 1998). 학교 직원들과 아시아계 학부모들 사이에는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학교 커리큘럼이 채택되었고 기숙사 식단에 국제화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K/IC 학교들이 학교 내에 중대한 변화를 추구하고자 노력한다 해도, 학교운영의 국제적 특성에 있어서 많은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 협의 및 대회. 유럽의 MK/IC 학교 내에, 아시아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38명의 MK 전문가들과 케어 사역자들이 1999년 4월 19일부터 21일 까지 독일에서 개최된 아시아 포럼에서 처음으로 대면하였다. 이 포럼은 MK/IC 학교 내에 있는 아시아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섬길 건의와 지침, 전략들을 마련하고자하는 취지로 ACSI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독일의 Black Forest Academy에 의해 후원되었다. 아시아 문화와 교육 시스템, 교육철학, 부모와 선교회의 기대와 연관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아시아 선교 지도자들은 MK/IC 학교들이 아시아 MK들이 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나누었다. 그 후에 12개의 합의문이 작성되었고 전 세계의 다른 MK/IC 학교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다. 또한 MK 교육자들은 아시아 파송국들이 아시아 MK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MK/IC 학교들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³⁾ ACSI의 후원 아래 1999년 한국에서 열린 선교사/기독교 해외 학교(Missionary/Christian Overseas Schools, MCOS) 대회는 그 해 초 독일에서 논의되었던 현안들

3) 아시아 포럼, 협의문, 희망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ACSI의 *World Report*, September/October 1999에 수록되어 있다.

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 교육 자들과 선교 지도자들에게 경험이 풍부한 서구 MK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놀라운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한국은 가장 많은 아시아 MK들을 갖고 있으므로 그 대회는 한국의 MK 사역에 불을 점화시켰다. 서구와 한국의 협력으로, 한국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가 동유럽에 시작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또한 그 결과로 12개의 한국 선교 단체들이 MK 사역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2) 아시아 MK 교육의 발전

아시아 MK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를 돌아봄에 있어서 서구 관계자들의 열심과는 달리, 각기 다른 나라들의 발전비율은 그 나라들의 선교 성장 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MK 교육이 가능해지려면 동일한 필요를 공유하는 같은 종족에 속한 아이들 집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집단이나 특정 무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선교 단체들에게 투자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자신의 궤도 안에서 사역을 계속하며, 최근에 더욱 유용한 MK 교육 프로젝트들을 시작하는 것을 볼 때 격려가 된다.

현지 MK 학교와 기숙사. 한국과 같은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그들만의 학교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MK 수를 갖고 있다. 첫 번째 한국 MK 학교인 한국 아카데미는 1994년 마닐라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통학하기에 너무 거리가 먼 선교사 자녀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기숙사 시설을 구비했다. 1998년 첫 한국인 MK 기숙사가 태국 지역과 국경을 넘어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 태국 치앙마이의 한 IC 학교 근처에 구비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몇몇 교육자들은 교육을 위해 자녀들을 한국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의 고등학교를 설립 중에 있다.

기숙사 프로젝트. 현재, 11세 이상의 남아들을 둔 선교사들을 후원하자는 취지로, 싱가포르의 선교 및 교회 지도자들은 부모들이 선교현장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에 기숙사를 세우자는 제안을 하였다. 홍콩에

서는, 몇몇 선교 지도자들이 MK들의 제3교육을 위하여 홍콩에 머물도록 장려하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학부형을 위한 자료 및 제안.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는, 보다 많은 가정학교 자료들, 특히 모국어에 관한 학습물들이 출판되었다. MK 교육에 대한 안내서와 서적들이 교육 자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녀교육 측면에서 부모들을 돕기 위해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출판되었거나 혹은 출판 중에 있다(이 글의 끝에 있는 부록 2를 참조). 현재, 이러한 안내서들은 한국인과 필리핀인, 홍콩인, 말레이시아인들에게 가능하다. 또한, 타 선교 단체의 부모들을 위해서는 물론, 선교 기관 내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MK 교육과 가족 케어 분야에서 여러 아시아 자문위원들이 봉사하고 있다.

오늘날, 정부에 의해 추진된 더 많은 해외 아시아 학교들이 주로 대 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선교지에 세워지고 있다. 대만의 일본학교, 방콕의 대만학교, 홍콩의 한국학교와 싱가포르학교가 그 예이다. 이들 중 몇 학교들은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시아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선교 공동체에 있어서, 마닐라의 한국인 MK 학교, 동유럽의 미국인/한국인 이중 커리큘럼 모델과 같은 대부분의 교육 프로젝트들, 그리고 선교지와 본국에서의 기숙사 프로젝트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다. 이러한 모델들에 대한 효율성 평가는 시간을 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창의적 교육 프로젝트는 큰 격려가 되고 있다.

7. 사례연구: HKACM MK 케어 그룹

다음은 홍콩 기독교 선교회(HKACM)의 MK 케어그룹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선교사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후원의 종류와 MK 케어에 관한 교육이 선교기관과 파송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묘사한다.

1) MK 케어그룹의 역사와 조직

20년 전 홍콩의 몇몇 선교 지도자들과 부모 선교사들이 MK 교육에 관심을 표명하기 내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오직 소수의 학령기 MK들이 있었으

며 그 가족들은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다. 불행히도, 그 당시에는 그 아이들을 위해 극히 적은 것들이 이루어졌다. 1995년, 홍콩인 MK들의 수적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단체를 초월하여 후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인 HKACM 산하에 MK Care Group이 설립되었다. 그 당시 어떤 홍콩의 선교기관들도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케어 사역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MK Care Group은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 분석하여 홍콩에서 파송된 모든 선교사 가족들에게 초 선교 단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현재 이 그룹은 선교 인력, MK 학부모, 목사, 기독교 교육심리학자, 전문 상담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멤버들은 시간제 자원봉사자들이다.

사역이 시작된 이래, 이 그룹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부모들과 선교기관들, 파송교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서구에서 연유된 것이었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성을 위해 다소간 수정을 해야만 했다.

2) 선교 지도자 및 후원 교회 교육

세미나. 부모 선교사들은 세미나 기간 동안 선교 지도자들과 후원교회들과 함께 MK 케어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전에는, 선교사들이 사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좀처럼 가족들에 대한 기쁨과 갈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MK 케어의 필요성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단기 선교여행. 교회와 선교 지도자들이 MK 기숙사 학교들을 방문하는 여행들이 조직되었다. MK 기숙사나 기숙사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새로운 일이다. 이러한 기숙사 학교들과 기숙사 방문은 지도자들과 후원자들로 하여금 기숙사에서 사감의 역할을 보다 잘 이해하게 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모국어 보충 학습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몇몇 부모들의 바람에 대한 응답으로, 몇몇 파송 단체들과 교회들은 선교현장에서 MK들을 가르치는데 여름휴가를 보낼 교사들을 동원했다.

출판. 문서는 강력한 교육수단이다. 사역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더 많은 책과 글, 인쇄물들이 출판되고 있다. 어떤 것들은 영문 MK 출판물의 번역이

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현지의 부모 선교사들과 MK들에 의해 저술된다.

훈련. 최근, 일반적 선교사/멤버케어에 대한 12과정으로 된 훈련과정이 선교 지도자들에게 제공되었다. 그것들 중 두 과정은 MK 케어와 교육에 초점을 둔다. 결혼 관계와 가족계획, 기숙사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임신으로부터 MK 대학교육 모금 사양에 이르기까지, 아동발달의 여러 단계별로 MK 케어와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언어학습 기간과 과제와 같이, 상이한 사역 단계들에서의 사역자들의 기대도 제시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선교/교회 지도자들이 그들 단체들을 위해 MK 정책을 수립해 나갈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3) 부모의 후원

선교지 파송 전 오리엔테이션(Pre-Field Orientation, PFO).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부모들이 타문화에서의 자녀양육과 MK 문제들에 관해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들을 위한 첫 PFO는 2000년 6월에 열렸고, 두 번째 PFO는 같은 해 10월에 열렸다. 토의 주제들은 제3의 문화의 아이들(third-culture kids), MK 교육, 가정교육과 아동발달에 관련된 이슈들을 포함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PFO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자문. 우리는 MK 교육과 가정교육, 재입국 분야에서 부모들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대부분의 성인 선교사 후보생들이 HKACM에서 전문 상담가들에게 심리검사를 받는다. MK 그룹 안에 있는 HKACM 상담가들과 교육 심리학자들은 아동발달과 가정교육에 있어서 조언이 필요한 가족들을 돕기 위해 긴밀하게 대화에 임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러한 서비스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우리 기관의 심리학자들은 선교현장의 선교사 가족들을 방문한다.

친교. 홍콩에서 이동하는 부모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함께 만나 친교하며, 대화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미나나 모임을 만들고자 한다. 선교사들을 위한 HKACM 계간지의 한 기고란은 가족문제에 관한 부모들의 경험들을 나누는 공간으로 할애된다.

자료 센터. 우리는 HKACM 도서관 부속기관으로 MK 케어와 교육에 대한 자료 센터를 갖고 있다. 최신의 현지 교육정책, 강의 자료, MK 서적과 글들이 부모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4) MK 교육

가정학교 커리큘럼. 부모들이 홍콩 유치원 MK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도록 돕는 3년간의 커리큘럼이 교육 자료들과 함께 마련된다.

Dalat/홍콩 프로젝트. 1998년 HKACM은 말레이시아의 Dalat 학교의 홍콩계 학생들의 모국어와 문화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Dalat 학교와 함께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999년에는 한 홍콩인 교사가 그 학교를 돕기 위해 파송되었다.

홍콩 MK 기숙사 프로젝트. 말레이시아의 교육 프로젝트에 의해 고무된 현지 선교기관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홍콩으로 자녀들을 보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을 위한 옵션을 제공하고자 홍콩에 MK 기숙사를 설립하는 예비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다. 교육적 후원을 위한 보다 많은 옵션들이 논의되며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대학교육. 여러 홍콩 MK들이 선교지에 있는 MK/IC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다가오는 해에는 많은 MK들이 북미의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될 것이다. 선교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MK들이 해외로 감에 따라 그들의 대학교육을 위한 재정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MK들의 교육을 보조할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연구그룹을 조직했다.

5) MK 케어

MK 케어는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발전시키고 싶은 분야이다. 우리의 MK들은 유치원생에서 고등학교생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십대나 청년 MK들을 위한 케어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우리는 MK들을 위한 적절한 직업소개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후원 조직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MK 케어그룹이 홍콩에 처음으로 조직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에 있어서 MK 케어의 필요성에 관해 솔직히 의구심을 가졌다. 그 사역이 발전해 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확신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역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MK 케어그룹을 시작한 이래, 우리에게 가장 큰 두개의 도전은 그룹을 기획하는 전임 사역자에 대한 필요와 사역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들을 간구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지키며 사역에 계속하여 충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리라 확신한다.

8. 미래의 방향

1) 아시아인/서구인의 협력

MK 교육과 케어에 있어서 아시아/서구 동반자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협력이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아시아 사역자들은 서구 동료들의 풍부한 경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다른 한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교육철학은 매우 다르다. 동서양의 MK 사역자들이 MK 케어와 교육을 위한 최상의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양자 간에 대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2) 아시아인/아시아인의 협력

동반자 협력의 또 다른 영역은 아시아 국가들 간에 선교단체 간 협력이 다. 어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자원들을 극대화하고 사역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초기 단계에 선교단체 간 협력과 교회와의 협력 그리고 교회간의 협력이 장려되어야만 한다. 국제적 협력으로서, 배경이 서로 다른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이 동역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와 MK 케어에 대한 공동의 목표들을 나눌 때, 우리는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3) 아시아인/북미 아시아인의 협력

북미의 아시아계 교회들은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 해외의 많은 아시아인들은 이중 언어적이며 이중 문화적이다. 그들은 MK 학교에서 아시아인들과 서구인들 간의 효과적인 가교가 될 수 있다. 나는 미국의 한국계 교사들을 동원하곤 했으며 현재는 필리핀의 한국인 MK 학교의 교사로 있는 한 미국계 한국인을 알고 있다. 캐나다에서 온 한 중국인 부부는 독일의 Black Forest 아카데미에서 섬기고 있다. 해외의 아시아계 교회들에는 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다.

4) 아시아 MK 인구

우리는 각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파송된 선교사 가족 인구를 나타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리서치가 필요하다. 그 연구결과들은 사역의 자원들을 배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략적 도구가 될 것이다. 그것은 선교 지도자들과 교육자들에게 각 연령층과 그들의 위치, 그들의 교육적 필요에 있어서 MK 인원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사역에 임하고 있는 가족들을 후원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선교 지도자들이 특정 지역의 동일 종족 집단에서 온 학생층의 MK 집단을 예상한다면, 그들은 교육 목표 달성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5) 아시아 MK 교육 모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구 동료들에 의해 시작된 MK/IC 학교들은 많은 아시아 가족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자녀들이 보다 자국문화에 근거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가족들은 이러한 학교들에 의해 제공되는 국제적 교육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마닐라의 첫 한국인 기숙사 학교와 치앙마이의 한국인 MK 기숙사의 설립을 보며 고무된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아 MK 학교들의 커리큘럼과 기숙사에서의 케어를 한 차원 더 개

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적 아름다움이 학교 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아시아인 국제 학교가 설립된다면 얼마나 특별하겠는가! 또한 우리는 귀환 MK들의 교육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안된 본국 고등학교(home-side high school)를 기대한다. 전통적인 MK 교육 모델들은 MK 가족들의 상이한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아시아 교육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을 위한 교육 모델들을 창안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원룸 교실, 온라인 학교, 다른 비전통적 모델들이 탐구될 수 있다.

6) MK 교사와 케어 사역자의 모집

아시아 MK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감에 따라, 전 세계에 더 많은 MK 학교들이 교사들을 요청하고 있다. 선교단체들은 해외의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며 잘 구비된 아시아 교사들과 아시아계 북미인 교사들을 모집하는데 사전준비를 더 잘 할 수 있다. 우리는 MK 교육사역에 참여하기 위한 선교적 심성을 겸비한, 경험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교사들을 필요로 한다. 또한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돌볼 사감들(home parents)이 필요하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MK 기숙사를 시작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으므로, 그 비전은 아시아 교회들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그러한 필요에 대해 들을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이러한 형태의 사역을 위한 기회와 자격, 준비가 제시되어야만 한다. 이에 대한 한 아이디어는, 아시아 사역자들이 현장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서구 대학에 의해 운영되는 실존하는 기숙사에 그들을 보내어 돕게 하는 것이다.

7) MK 인력 케어

MK 교육자들과 인력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MK 교육자와 이사진, 케어 사역자들의 지위는 향상되어야 한다. 비록 이러한 지위 향상은 후원 역할들을 의미하지만, 그들은 선교 팀에서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부차적”(second class)인 선교 인력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도 선교사들로 인정되어야만 하며 선교지에서 교

회개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후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MK 케어 인력들은 선교 소명을 가져야 하며 타문화의 삶과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MK 케어 기숙사 스텝들을 위한 후원과 감독은 필수적이다. 기숙사 학교의 요원 또는 기숙사 사감들은 MK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한 목회적 케어와 후원을 얻는 것은 물론, 특별 파송 전 훈련 및 현지 훈련과 명확한 안내지침, 감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MK 교사들과 케어 사역자들이 이러한 사역을 위해 장기간 헌신하는 것은 종종 일련의 도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 여름 동안 선교지에서 가족들을 위해 교사로서 봉사하거나 MK 학교에서 1-2년간 봉사하는 사역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자 준비된 후원을 갖춘 교사들을 얻는다면, 보다 나은 것이다. 나는 거의 40년간 선교 현장에서 MK들을 가르쳤던 몇몇 서구 교사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섬김은 선교 공동체에 능력적인 간증이 된다!

9. 결론

아시아인들은 MK 케어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있다. 이러한 케어를 제공하는 것은 지상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시아 MK들이 소중하고도 큰 가치가 있기에 소중한 사역이다. MK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MK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후원하고, 양육하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케어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주님의 뜻대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2세대 선교사들이 될 것이며, 전 세계 선교지에서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될 것이다.

1995년 내가 이러한 사역을 위해 아시아인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아시아 국가들의 터딘 반응에 매우 실망했다. 그 자신이 MK인, 경험이 풍부한 한 아시아 선교사 트레이너는 다른 두 명의 성인 MK와 더불어 내게 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또한 그는 서구의 동료들이 MK 케어를 위해 수

십 년간 활동했으며 아시아인들은 이제 막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내게 이해시켜 주었다. 우리는 더 많은 인내를 요한다. 나는 MK 사역을 시작한 이래 주님께서 아시아 MK 케어에 있어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해오셨고 많은 성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주님께서 아시아 MK들을 돌보시며 우리의 선교 공동체를 돌보신다. 이제 MK 케어에 있어서 좋은 여파를 느낀다. 우리가 인내함에 따라, MK 사역이 실제로 착수되고 확립되는 것을 볼 때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

10. 토의 주제

1. 당신은 MK 교육과 케어가 선교에 있어서 우선적이라고 보는가? 당신의 나라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점에서 사역이 개선될 수 있는가?
2. 당신이 선교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라고 가정하고, 다섯 살과 일곱 살 두 자녀를 둔 선교사 지망생 부부에게 가족과 MK 교육 이슈에 대해 질문할 다섯 개의 중요한 질문들을 나열하라.
3. 비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조차, 예비 선교사들인 당신 부부에게 왜 자녀들을 불리한 국가들에 데려가 “어려움”(suffer)을 겪게 하느냐고 물을 경우 당신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4. 당신이 3개월 안에 1년 간의 본국 사역을 위해 귀국하게 될 선교사 부모라고 생각하라. 당신 자녀의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을 위해 당신은 자녀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이며, 그들의 보다 평탄한 귀국을 위해 어떤 종류의 후원(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후원 등)이 유용한가?
5. 어떤 방식으로 후원 교회는 MK 케어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교회는 어떻게 MK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며, 가족 관계를 강화시키며, 준비 및 현지 사역 그리고 재입국 기간 동안 가족을 후원하며, MK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부록 1 MK 가족을 위한 실제적 훈련

1. 이동을 위한 준비

■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모들은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가족의 전통을 만들어 가도록 권면을 받는다. 예를 들면,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스크림을 사먹거나 산책을 위해 외출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책은 식구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제공하며, 식구들 간의 대화를 촉진한다.

■ 자녀들에게 가족이 이동하는 곳에 대해 말한다. 부모는 나이든 자녀들이 결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가족이 옮겨 가는 나라에 관해 자녀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그것들에는 그 나라에 관한 사진들과 신문 기사, 그 나라 국민, 기후, 음식, 주택 등이 포함된다.

■ 자녀들이 환송 파티를 하도록 돕는다. 그들이 초청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도록 격려한다. 그들이 서신왕래를 통해 친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자녀들에게 떠나기 전에 방문하고 싶은 곳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물어보고,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방문을 하도록 한다. 방문 시 카메라를 소지하게 하여 이러한 장소들과 사람들을 사진으로 남기도록 확인시킨다.

■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이사에 관한 그들의 느낌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때때로 부모들은 이사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흥분, 슬픔, 공포, 불안, 근심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 하며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짐을 꾸리도록 격려한다. 그들로 하여금 가져가고 싶은 장난감들을 꾸리게 하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 부모는 떠나기 전 마지막 몇 주 동안 매우 바쁠 것이다. 자녀들을 여러 모임에 데려가 지나치게 피곤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라. 부모 중 한 명은 다른 한 부모가 모임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과 함께 집에 남을 수 있다.

■ 자녀들에게 스포츠와 음악과 같이 언어가 요구되지 않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라. 이러한 기술들은 MK들이 새로운 문화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며 새로운 곳에서 친구들을 사귀도록 도울 것이다.

2. 모국어와 문화의 유지

■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항상 모국어로 말하라.

■ 본국에서 자녀들을 서점에 데려가 그들이 좋아하는 책이나 테이프들을 선택하게 하라. 이것들은 선교현지에서 그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자료들이 될 것이다.

■ 가족이 해외에 있을 때, 대가족 친척들에게 자녀들을 위해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도록 요청하며, 그들에게 작은 선물들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라. 만일 친척들이 선교지에 단기간 여행을 하여 그들과 함께 머문다면 더 좋을 것이다.

■ 친척들의 사진과 가족력에 관한 큰 사진을 만들어 그것을 집에 붙여 놓으라. 친척들과 사촌들에게 생일카드를 보내도록 자녀들을 격려하며 자녀들이 그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도록 격려하라.

3. 재입국을 위한 준비

■ 가족이 해외에 있을 때, 본국의 신문이나 잡지를 보낼 친구들을 마련하라. 이러한 정보는 가족의 재입국 준비를 위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특히 도착 후 한두 달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자녀들의 흥분과 걱정에 대해 경청하라. 부모의 집은 자녀들에게는 이국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다.

■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MK의 해외 경험에 대해 이해시키라. 그리하여 자녀들이 본국 문화 규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때 그들이 이러한 아이들을 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 본국에서 친구 동아리를 만들라. 다른 MK가 귀국하는 MK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본국” 문화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4. MK 교육

-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권면을 받는다. 그 계획은 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MK들의 대학교육과 어떤 학교를 보내는가를 포함한다.

-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교육 시스템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본국에 친구를 두면 교육 시스템과 학교교육 정책들의 변화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부모가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자녀들을 본국으로 보낼 계획을 할 경우, 자녀들이 해외에 있는 동안 모국어로 학문적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부모나 가정교사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

- 비영어권 사용자인 아시아 부모들이 자녀들을 MK 혹은 국제 학교에 보낼 것을 계획한다면, 그들은 영어를 더 배우며 서구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영어를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부록 2

아시아인들을 위한 서적과 핸드북

1. 한국어

Park, N. (1999). *Korean MK handbook: A comprehensive resource book for parents and caregivers*. Seoul, Korea: GMF Press.

MK Journal(quarterly magazine). Seoul, Korea: GMF Press.

Pre-field orientation seminar for MK parents(manual and nine audiotapes).

Daily quiet time-Grades 4-6(available in Korean and English), Yejeoung Com.

* 위의 자료들은 한국의 MKNEST를 통하여 주문할 수 있다. www.mknest.org.

2. 중국어

Chan, P.(Ed.). (1997). *Nurturing missionaries' children*. Hong Kong: HKACM.

_____. (2000). *Kids without borders: Journals of Chinese missionary kids*. Hong Kong: HKACM and OMF HK.

Fung, J.(Ed.) (2000). *Harold and Stanley say good-bye*. Hong Kong: OMF HK.

Sojourners: The family on the move. Taiwan Chinese Christian Mission, 1999.

* 위의 자료들은 홍콩의 HKACM을 통하여 주문할 수 있다. hkacm@hkacm.org.hk.

3. 필리핀

Manzano, J., & Manzano, R. (1999). *Filipino MKs: Which schooling option?* OMF Philippines.

* 위의 자료들은 필리핀 OMF를 통하여 주문할 수 있다. ph-gs@omf.net.

4. 말레이시아

Kumar, B. (2000). *Member care handbook: A guide to caring for our missionaries*.

* 위의 자료들은 Beram Kumar을 통하여 주문할 수 있다. sbks@pc.jaring.my.

5. 일본

* 일본 MK들에 관해서는 일본 위클리프의 Toshio Nagai에게 연락하라. toshio_nagai@wycliffe.org.

6. 기타 유용 자료와 웹 사이트

Educator teaching overseas. CHED Family Services Department of Wycliffe Bible Translators(WBT) USA.

Educational options: Europe and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s. S.H.A.R.E., 1996.

Interact(periodical on MK issues), www.tckinteract.net.

Parents teaching overseas. CHED Family Services Department of WBT USA.
World Report.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ACSI),
www.acsi.org, www.mknet.org.

† 참고문헌 †

- Barrett, D., & Johnson, T. (2001).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A comparative survey of churches and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2nd ed.).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Billing, P. (1998, February/March). Special report. Serving the Korean community: Caring enough to learn, learning enough to care. *World Report*, ACSI.
- Bowers, J. (Ed.). (1998). *Raising resilient MKs: Resources for caregivers, parents, and teachers*. Colorado Springs, CO: ACSI.
- Chan, P. (1999, September/October). Working towar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MK/IC schools form and Asian perspective. *World Report*, ACSI, pp. 2-11.
- Chan, P. (Ed.). (2000). *Kids without borders: Journals of Chinese missionary kids*. Hong Kong: HKACM and OMF.
- Fan, S. (2000). Going to school in Brazil. In P. Chan (Ed.), *Kids without borders: Journals of Chinese missionary kids*. Hong Kong: HKACM and OMF.

Hung, V. (2000, October-December). Report on missionary attrition. *Go unto all nations*. Hong Kong: HKACM, pp. 9-11.

Lee, T. (1994). *The pabalma*.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s.

Loong, T. (2000, Summer)., Educating and discipling the Asian TCK: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World Report*, ACSI.

Moon, S. (1997). Missionary attrition in Korea: Opinions of agency executives. In W. Taylor (Ed.), *Too valuable to lose: Exploring the causes and cures of missionary attrition* (pp. 129-142).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_____. (1998). *Korean mission handbook*. Seoul, Korea: GMF Press.

Pate, L. (1991). The dramatic growth of Two Thirds World missions. In W. Taylor (Ed.), *Internationalizing missionary training: A global perspective* (pp. 26-39).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Pauls, D., & Pauls, N. (1993). Looking at yesterday for tomorrow's clues: Summary of MK CART/CORE research findings on adult MKs. *Parents teaching overseas*. Dallas, TX: CEFD WBT USA.

Pollock, D., & Van Reken, R., (1999). *The third culture kid experience: Growing up among worlds*.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Rajendran, K. (1998). *Which way forward Indian missions? A critique of twenty-five years 1972-1997*. Bangalore, India: SAIACS Press.

Taylor, B. (1993, September 20-23). *Perspectives on global attrition: Examining the iceberg*. Paper presented at EFMA/IFMA Triennial Leadership Conference, Orlando, FL.

Taylor, W. (Ed.). (1997). *Too valuable to lose: Exploring the causes and cures of missionary attrition*.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저자는 이 글에 도움이 되는 논평을 해준 Barry Mckessar(국제 OMF MK 코디네이터), 백인숙(GMF MK NEST 디렉터), 그리고 David Wilcox(International Ministry의 부총장 ASCI 보좌)에게 감사드린다.

제 8 장

인도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케어: 암흑의 장애물과 신적 기회

자정이 넘어 12시 45분이다. 나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들기 위해 애썼다. 나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로 매우 피곤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8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먼지 속에서 잠이 깨어 인도 도시의 새로운 현상인 FM 라디오를 들었다. 옛 멜로디를 담은 인도 노래들은 듣기 좋았다. 잠시 후, 나는 지루해져서 계속 잠을 자려고 애썼다. 불면증! 아니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

지금은 새벽 1시 15분이다. 나는 침대에서 뒹굴며 다시 한번 잠들기를 간절히 원했다. 인도에서 그

* K. 라젠드란(K. Rajendran)은 선구적인 기독교 사역자이며 트레이너로서 인도와 해외에서 기독교계의 지도자로 활약해 왔다. 원래 타밀 누두(Tamil Nudu)가 고향인 그는 25년 이상의 OM에서의 경력과 함께 30년간의 선교경험을



K. 라젠드란 *

인도의 기독교 사역자들은 매우 어려운 곳에서의 섬김을 위해 부름 받았다.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그들이 인도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 때,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사역하시는 선한 손길을 목격해 왔다. 이 글은 인도 사역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사역할 때 그들을 후원하는 다양한 목회적 케어 구조와 사람들,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다. 사실,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양들(요 21)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 신적인 기회들 - 많은 선한 것들이 있다.

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들은 가히 환상적이다. 인도에는 인도선교협의회(Indian Missions Association, IMA)에 속해 있는 141개의 선교 단체들이 있다. 인도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주춤하고 있으며, 비록 한 국가로서 인도가 진보하고 있지만, 박해의 광신자들은 나치 당원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으로 긍정적이 되고자 노력한다. 수많은 단체들이 기독교의 확실한 소리를 내고자 애쓰는 치열한 경쟁이 존재한다. 우리 선교 단체들의 독특성은 “글로벌 기독교의 장”을 이끌어 들이는 경향이 있다. 가능하다면, 조직의 설명에 흥미를 가미하기 위해 마살라(masala)라는 향신료를 더한다. 혹은 또 다른 은유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외부의 관심을 유도하는 다른 종류의 화음들을 기꺼이 연주한다:

- 남과 북, 동북 인도와 같은 지역적 화음.
- 불쾌한 카스트 제도라는 진노의 화음.
- 교회 대 초교파 단체들의 화음.
- “북 인도가 남인도보다 빈궁하다”는 화음.
- 기독교 사역자의 파송 대 현지인 사역자 활용 간의 화음.
- “훈련 받을 만하며 사역할 만한 훌륭한 현지인이 없다”고 느끼는 기독교 사역자 대 “훌륭한 기독교 사역자들이 없으며, 그들은 우리를 착취한다고 느끼는 현지인들 간의 화음.
- 높은 카스트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카스트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지배”(rule)하는 반면, 달리트(Dalits,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에서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가 배척되는 화음.

갖고 있다. 현재 그는 25,000명 이상의 기독교 사역자들을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중의 하나인 인도 선교협의회(Indian Missions Association)의 총무이다. 라젠드란은 상담학 학위를 소지하고 멤버케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내 프라밀라와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는 벵골라에 있는 South Asia Institute for Advanced Christian Studies에서 선교학 박사학위(D. Miss)를 취득했다. 그는 WEA 선교위원회 실행위원회 위원이다.

Email: rajendranwwf@eth.net.

- 달리트는 게으르고 무능력하다는 화음.
- 남성에 의해서는 결코 미칠 수 없는 미전도 여성들이 인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남성 중심의 소비니즘과 여성의 강요된 복종의 화음.

우리는 조직이라는 음악에 보다 많은 화음들을 더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분열시킬 것이며 인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 하며, 다음 세기를 지나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교회로서, 선교회로서, 기독교 사역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인들과 부상하고 있는 30%의 여성 교육 층에게 누가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10억의 인구 가운데 60%에 달하는 농촌지역의 사람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누가 복음 전도자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잠재적인 박해 지역에서 담대히 교회에 출석하는 새신자들은 누가 가르칠 것인가?

인도의 여러 다른 계층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누가 훈련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여러 신학교와 신학대학원, 선교학과 타문화 “교사들”이 존재한다—그들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가? 이들은 인도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들의 훈련철학은 무엇이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이 기대하는 비전의 최종 결과들은 무엇인가? 훈련의 목적이 단순히 기존 교회들을 유지하고 얼마 안 되는 명목상의 회심자들을 얻기 위함인가? 하위층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가들은 있는가? 세금을 납부할 사람들과 세계의 다른 곳으로 흩어져 “인도 문화”를 더욱 강하게 영속시킬 여피족 인도인들은 존재하는가?

또한 우리는 인도를 향한 인도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에 관해 질문한다. 인도 기독교회들과 선교회들은 미약한 정신상태를 갖고 있으며, 인도인들의 정치, 예술, 문화 그리고 상상력을 이용하는 일에 거의 도전하지 않는다. 우리가 영원한 소수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인공이 되지 못하며 성과 속 모두에 대해 비판적이 되도록 고도로 훈련된 주변적 방관자들이다. 우리의 신학적 지론은(바울신학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대해 비판적이게 한다.

이러한 의문들은 새벽 2시 20분까지 내 마음에 가득 차 나를 압도했다.

비록 이 모든 생각들이 “고상하고, 합리적이며, 고귀한” 것들은 아니지만, 나 역시 다른 “세상적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들로 얽려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을 어느 학교로 보내야 할까? 딸아이는 오늘 대학원 입학 을 위해 1,260루피를 지불하고 입학원서를 팩스로 보냈다. 점점 나보다 더 커가고 있는 11학년 아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 나는 지금 마흔아홉이다. 내가 만일 뇌졸중이나 암, 혹은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면 어디서 생을 마감해야 할까?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까지 문제없이 지내 왔다.

내 마음에 가득 떠오르는 이러한 불필요하지만, 유용한 생각들과 함께, 나는 IMA와 개인과 팀으로서 우리의 부족한 기술들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거의 공황에 빠진다. 지금은 새벽 2시 30분이다.

IMA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몇 가지 방침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항상 쫓기듯 발행하는 *인디언 미션(Indian Missions)*이라는 계간지가 있는데, 나는 우리가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로 기분이 항상 편치 않다. 우리는 “흥미 있는” IMA 유인물들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결과는 종종 만족스럽지 않다. 우리는 IMA 사역에 관한 비디오 제작을 시도하고 있는데, 원고에서부터 가장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우리는 리서치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웹 사이트에 선교회들과 IMA에 관한 정보를 올리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부진한 상태다. 나는 다른 동료들이 이러한 요구들에 어느 정도나 부응하고 있는지, 혹은 그 긴박성을 이해하고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우리는 만족스럽게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해고시켜야만 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발전하도록 도와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에 시간을 허비하며 빈둥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일반직장에서 16,000루피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달에 고작 6,000루피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능력 있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6,000루피의 월급을 가지고 3,000루피의 월세를 내고 나면 그 남은 월급으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음식비, 보험료, 자녀 교육비, 교통비, 양서 구입이나 긴장해소(긴장해소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를 위한 음반 구입 같은 얼마간의 여가생활을 갖는다.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글썄, 아내들이 일을 하고 자녀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돌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아내들이 충분

히 훈련되지 않거나 직장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아! 이제 그만 잠을 자야 할까? 새벽 2시 45분이다.

우리는 인접지역에서 고립되어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인도 선교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며, 박해와 기근, 홍수와 같은 비상 상태의 경우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지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기획안들을 받아들이며, 가능한 기부자들의 연락으로 사역할 수 있는 프로젝트 책임자를 편성했다.

또한 우리는 선교회를 섬기고 상호연결 할 수 있는 많은 네트워크를 조직했다. 그러한 네트워크로는 기도 네트워크, 기독교 사역자들과 대표자들을 위한 목회적 케어 네트워크, 성경번역 네트워크, 선교학 네트워크, 리서치 네트워크,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복지 네트워크, 이외의 여러 다른 네트워크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끌어 갈 시간과 지도자와 자금이 부족하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교회가 동원될 것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과제의 중요성과 인도 교회의 빈약성에 대해 깨닫고 있다. 어떤 교구 단체는 후원자들로부터 선교자금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거대한 선교 임무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자리에서 또 다시 뒤척이며, 어떻게 우리가 인도 전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고심한다.

IMA는 모든 인도 선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델리와 북인도,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다. 이것은 극히 당연한 바람이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내재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여러 지역의 선교 협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더 영적이고, 범세계적이며 지역 사역자들에게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합법성과 유일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은 문제가 없으나, 우리는 계속 분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IMA의 재정 능력에 대해 생각한다. 이 생각은 내게 불면증을 더할 뿐 아니라, 위산과다를 일으킨다. IMA 소속 선교단체들은 그들의 수입의 약 0.2% 정도를 기부한다.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은 3,000루피의 최소한의 재정적인 기여를 한다. 모아진 대부분의 기금은 IMA의 두 달 내지는 석 달 간의 실비에 해당된다. IMA 스태프들은 소속 선교회를 방문하여 여러

어려움들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많은 단체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선교회를 위한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교 대표자들과 부상하는 2세대 선교 지도자들과 계속적으로 연계하며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지도하고 기독교 선교사역의 복지를 위한 자문인들이 된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IMA 이사들은 매우 공감적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만 잠을 청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새벽 3시다.

1) 관점의 유지

당신과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이유는 내가 포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기도해 줄 것과, 당신이 앞으로의 과제를 보다 잘 이해하며, 사역에 동참하며, 그리고 나의 동료들을 위해, 보다 훌륭하게 동역할 수 있기를 요청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당신이 나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케 함이다. 많은 대표자들과 다른 책임자들이 잠 못 이루는 이러한 밤들을 보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중심에서 통제하고 계심을 느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와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렇다! 인도에는 많은 어둠의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의 백성들을 위해 적들의 책략을 거룩한 기회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빛은 더욱 찬란하다. 이 중대한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인도 선교의 장애물

기독교 사역자들은 악마의 세력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적대와 같은, 많은 장애물들에 직면한다. 또한 거기에는 여러 내적 갈등이 존재한다. 어떤 사역자들은 원치 않는 많은 습관들과 풀리지 않은 과거의 중요한 문제를 지닌 채 선교지로 나간다. 어떤 이들은 심각한 불안감이나 무능력, 가족에 대한 반발심, 가족과 부모의 압력, 친구들의 압력, 그리고 삶에서

보다 쉬운 길을 찾고자 타협하는 유혹들로 갈등한다. 따라서 기독교 사역자들은 복음의 특별한 일꾼이 되기 위해 자신을 훈련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다. 콜린스(Marjorie Collins, 1986, p. 25)는 “어떤 이들은 쉽게 적응한다... 어떤 이들은 흥미로운 적응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돌연히 변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남은 삶을 살아야 하기에 필히 적응하며, 순응하며, 그리고 버려야 하거나 발전시켜야 하는, 혹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삶의 작은 것들(그리고 큰 것들 역시)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시작하기에 결코 이른 것은 아니다.”

한 선교 단체의 책임자는 기독교 사역자와 선교 단체의 책임자로서, 그가 가진 갈등을 나와 나누었다. 그가 겪고 있던 것이 얼마나 내게 공감이 되었던지! 그는 사역과 가족, 일과 건강, 개인적인 여가와 다른 이들을 위한 시간의 투자, 영혼 구원과 그 단체를 인도하는 일, 우선순위 선택, 폭 넓은 마음과 그를 통한 유익함에 대한 인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과 지속적인 사역의 행함, 하나님과의 시간과 성취해야 할 사역, 한 집에 가정과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 이러한 것들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 외에도, 특히 결혼 이후 계속되는 방문객들 접대와 함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1) 실망과 외로움

실망의 근거들은 많다. 케랄라(Kerala)에서 온 포우로즈는 비하(Bihar)에서 사역하는 기독교 사역자이다. 독자인 그는 그의 두 동생들을 결혼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무거운 신부 지참금에 대한 부담은 근심으로 그를 짓눌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직물 기술자이며 지금은 기독교 사역자인 데반은 그의 가족 중 첫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가족을 돕기 위해 매달 300루피를 보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인도인인 그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부양해야 했다. 그는 큰 책임감에 눌린 채 자신을 위해서는 음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쓰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였다.

어떤 사역자들은 컴퓨터와 이메일의 시대에 현대적 장비나 시설이 없는 원시적인 지역에 살게 될 때 실망하게 된다. 새로운 과학의 발달과 커뮤니케

이선 기술을 따라가야 하는 압박감은 도시의 중산층과 상류층의 사람들과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다.

콜린스(1986, p. 216)는 외로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영혼을 감싸기 위해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일어나 상실과 변덕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안개와 같은... 만일 외로움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침식하며 사역은 물론, 개인적인 일들에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종종 외로움은 자기 연민으로 변한다. 종종 [기독교 사역자들]은 많은 짐들과 두통거리들, 실망감을 안고 간다. 오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고통을 말한다.”

2) 조직적인 문제

선교 단체 내에는 동료 사역자와의 갈등 관계, 빈약한 리더십, 파벌적 지배의 권위 구조, 비조직적인 계획, 임무를 달성하기에 부적절한 훈련과 같은 압력들이 존재한다. 조직 구조 내에서는, 편향적인 성향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반면, 어떤 사역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과중한 책임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독교 사역자들의 열심을 잠식시킬 수 있다.

나이가 40에 이르는 사역자들조차 그들의 선배들이 자신들이 연하라는 이유로 신뢰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젊은 사역자들은 그들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듣도록 강요당하며,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고난을 받으며 희생해야 할 것을 강요 당한다. 그러나 희생은 마음의 태도이다. 그것은 율법주의적으로 사람들에게 강요될 수 없다. 따라서 선교사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영역과 선교의 새로운 세대에 순응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포용하는 민감성이 필요하다.

한 사역자가 결혼했을 때의 일이다. 선교회는 남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신부가 직장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훈련 받은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 느꼈다. 결국, 그 선교회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사임을 요청했다. 이러한 긴장은 많은 선교 단체들 내에서 볼 수 있다.

3) 재정적 문제

세상에서도 성공이 보장된, 탁월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50대 중반의 한 기독교 지도자는 기독교 사역자로서 그 끝을 잘 맺지 못했다. 그의 자녀들은 몹시 실망했으며, 부모는 소용이 없다고 느꼈다. 부모가 가족의 많은 기본적인 필요들을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부모는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지만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꼈다. 가족 모두는 동일한 질문을 했다.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이 옳은 것이었는가?”

북인도에서 미전도 종족에게 사역하고 있는 한 사람은 그의 선교 단체가 10년 전, 400루피의 월급을 지불했다고 했다. 10년이 지난 후, 그는 약 1,000루피를 받았다. 경제적으로 그와 그의 아내는 생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선교회를 사임하고 떠났다. 그는 질문을 던진다. “가장 낮은 분야의 교회 사역자들—절반의 훈련과 절반의 급여를 받으며 절반은 굶주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고상한 ‘복음 전도자’ 라는 이름이 주어졌단 말인가? 어떻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전도 그 자체의 개념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가?”

한 선교 단체는 사역자들을 위한 일정한 급여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87명의 사역자들을 갖고 있다. 각 사역자의 월급은 200-300루피이다. 그 사역자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예를 들면, 1991년을 기준하여, 인도 북부에서 부부와 학령 층의 두 자녀가 방이 한 개 있는 집에서 살 경우, 한 달에 4,000루피가 든다. 오늘날에는, 도시에서는 4,000-6,000루피가 들며, 대도시나 상업도시에서는 6,000-10,000루피가 든다(Daniel, 1997). 이러한 재정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역을 떠나 선교사역에 일절 합류하지도 않게 된다.

4) 의료 문제

벨로레 기독교병원(Vellore Christian Hospital)의 저명한 의사인 메튜(M. C. Matthew, 1995)는 두 선교사 파송기관에 대한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많은 사역자들이 빈번하게 병을 앓았다. “일의 성격상 탈진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인터뷰를 했던 기독교 사역자들]의 평균 연령

은 35세 전후일 것이며, 적어도 25%는... 40대 중반이다. 사역은 그들에게 고혈압, 당뇨, 요통, 관절염, 위산과다, 정신병 등과 같은 중년기의 질병들에 노출시키고 있다”

인도 선교회들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은 주 의료비 지급에 대한 문제이다. 심지어 적은 금액의 의료비 청구서조차 쌓일 수 있는 상황이다. 선교회들은 사역자들의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여러 다른 방법을 찾는다. 대부분의 선교회들이 체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만족할 만한 한 개의 체제조차 갖추지 못한 형편이다.

대부분의 인도인 사역자들은 의료보험이 없으며, 병들 경우 의료비를 지불하느라 애를 써야 한다. 선교 단체들은 큰 금액의 의료비는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만한 재정이 없다. 사역자가 병이 들면, 그 사역자는 선교회에 짐이 됨을 느낀다. 사역자의 가치와 안전은 하락되고 만다. 이러한 상황은 변화되어야만 한다. 사역자들이 선교 단체에 짐이 되며 이러한 것이 그들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 그들의 자녀들이 선교지에 결코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선교사들의 자녀들 뿐 아니라, 선교를 고려하는 다른 사람들 또한 사역자가 적절하게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망설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인도의 상황에서, 사역자들이 지불한 희생은 너무 크다. 그 희생으로는 불충분한 의료 혜택, 불충분한 급여, 부적절한 학교 시설, 불충분한 은퇴 연금, 장래를 위한 거주지 부족, 그리고 일정 수준의 보험규정의 부재 등이 포함된다. 내가 인터뷰를 했던 많은 사역자들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충분한 저축도, 어떤 종류의 건강보험도, 은퇴 연금이나 생명보험도 없다고 이 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심장마비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그 순간까지도 속칭 “신앙으로”라는 잘못 된 신학에서 기인한다고 그들은 의견을 모았다. 한 사역자의 아내는 정신적인 질병을 앓게 되었는데, 선교회는 부족한 재정 때문에 그녀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없었다. 마침내 남편은 사망하였고 그의 아내는 무숙자로 남게 되었다.

5) 지속적인 교육적, 영적 충전

기독교 사역자들은 개인적 성장과 영적 활력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의 기회들이 필요하다. 규모가 보다 큰 선교회들은 선교회 규모상 그리고 사역자들의 계속되는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측면들을 다루어 왔다. 또한 선교회들은 그들의 효율성을 함양하고 미래의 지도력을 준비하기 위해 사역자들의 삶에 투자할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지도자들은 선교의 팽창과 미래 세대에 선교를 이양할 것을 현명하게 구상한다. 따라서 기독교 사역자들의 삶의 중심에 대한 연구는 의식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선교회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 까닭은 이러한 선교회들은 수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으며 매우 제한된 재정을 갖기 때문이다.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부적합하다고 느끼며, 지친 상태에서 쉬기를 원하고 있다. 선교회 지도자들이 갈등하며 여러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동안, 어떤 사역자들은 그 중간에 사로잡혀 지연된 결정이나 잘못된 결정으로 희생자가 되고 만다. 그 결과로 기독교 사역자들은 그들이 동기의식이 부족하며 부적합하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

선교회들은 점점 더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경력의 중반에서 자신들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고 자기 개발을 위해 학습을 계속 하길 원하므로 이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역자들은 단순히 선교회를 사임할 것이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선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기독교 사역을 완전히 포기하게 될 것이다. 사역자들을 위한 2-3년 정도의 중도 훈련은 미래의 15-20년간의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6) 연금과 은퇴 혜택

장래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잘 수립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나라의 기독교 사역자에게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사역자의 목회적 케어의 일부분으로서, 선교 책임자는 사역자와 함께 연금/은퇴에 대한 문제를 계획해야 하며, 그

러한 중대한 주제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쉬운 해결방안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해답들은 반드시 발견되어야 한다.

점차적으로, 선교 단체들은 은퇴하게 될 사역자들의 필요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인도 사역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자녀들의 “그늘에서” 생활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지 않는다. 오늘날 기독교 사역자들의 경우 조상들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물다. 따라서 사역자들과 선교회 모두는 염려하는 바가 있다. 신뢰할 만한 선교 단체들은 충실한 사역자들의 고정수입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은퇴 사역자들을 위한 연금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해 왔다. 앞으로 몇 년 후면 은퇴하게 될 사역자들의 경우 그들은 은퇴와 연금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다. 젊은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위한 저축을 장려했다. IMA 실행위원회는 모든 IMA 스텝들에게 장래의 고정수입을 위해 가능하면 곧 연금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많은 선교회들이 연금에 가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사역자들의 삶의 최상의 기간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시간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은퇴하면 갈 곳이 없다. 어떤 연금 계획도, 기거할 집도, 집을 지을 땅도 없다. 패트릭 조슈아(Patrick Joshua)는 “기독교 사역자가 은퇴할 때, 그는 위엄 있게 여생을 보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가정은 소속감과 안전을 제공하는 안식과 돌봄의 장소이다. 기독교 사역자를 위한 가정은 축복이며,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CSI 교구의 디라비암 목사는 이러한 상황은 성직자들에게도 문제가 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대부분의 은퇴한 감독과 목사들은 첸나이(Chennai)와 같은 도시들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 지난 1984년에는 성직자들을 위한 주택을 구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1991년에 첸나이에서 60km 떨어진 첸겔페트(Chengelpet)에 성직자들을 위해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취소되었다. 코임베토(Coimbatore) 교구에는 기획된 것이 있었다. 그 교구 영내에는, 은퇴 목사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적은 비용으로 집세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디라비암은 목회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계속 기거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집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만일 목사가 30년 후에 은퇴할 경우, 그 목사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집을 위해 매달 1,000루피씩 적립할 수 있을 것이다. 매달 할당된 1,000루피는

주택 용자금과 함께 주택 건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기획이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7) 자녀 교육

많은 선교회들, 특히 작은 규모의 선교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매우 적은 재정을 할당해 왔다. 문제는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위해 대학에 입학할 때 가중된다. 자녀들의 고등교육을 위해 큰 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어떤 자녀들은 부모/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요구해 왔던 “희생”을 원망하며, 그러한 상황에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비록 그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전적으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살면서 보살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부모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기숙사로 그들의 자녀들을 보내야만 한다. 그들에게는 자녀들을 좀 더 가깝지만, 더 비싼 기숙사나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충분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만약 그들에게 충분한 재정이 있다면, 그들은 자녀들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고, 자녀 교육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들의 사역지 주변의 기숙사를 선호했을 것이다. 선교회 책임자들은 기관들이 추천하는 1,000km나 떨어진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라는 강요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훌륭한 케어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기독교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방관된다면, 사역자들이나 선교사역을 고려하는 다른 사람들 역시 선교회에 들어오기를 꺼릴 것이다.

8) 박해

인도에서는 지난 수년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 집들이 불탔고,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 당했으며, 죽기까지 했다. 그러나 박해가 인도네시아나 다른 지역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크게는 인간이 평등하다

는 생각을 반대하며,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성을 신봉하는 몇몇 종교적 광신자들에 의한 것이다. 인도의 소수 종교들은 여전히 대부분 “이국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는 서구적이며, 종교와 문화의 “식민화”를 시도하는 세력으로 간주된다. 다른 많은 이들과 같이 종교 광신자들은 미디어에 묘사된 할리우드 문화가 실제적으로 기독교 문화라는 그릇된 신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는 힌두교 국가인 인도의 순수성과 통일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박해의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선교적인 노력들이 국가의 “사상가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기보다는 대부분 종족 집단에서 이루어진 점이다. 따라서 광신자들이 언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세속적인 사상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사실 인도의 정치적 집단들은 종종 박해 받는 사람들을 동정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박해 사건들을 이용한다.

박해는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계속되는 두려움을 초래하는 심리적인 영향을 갖는다. IMA는 박해가 있을 때 가능한 방법으로 돕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실제적인 후원과 케어를 포함한다. 또한 IMA는 단순히 특정 집단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전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자들을 고무한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이 적어도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들을 긍정적으로 여길 보다 많은 동조자들(sympathizers)(물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을 이끌 것이라 희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유일성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당할 것이며, 인도와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과 같이 박해는 계속하여 일어날 것이다.

2. 멤버케어와 복음의 기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조직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다. 사역자들은 선한 도구로 드러지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동료 사역자들과의 관계를 위해 돌봄이 필요

하다. 그들은 자녀교육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기와 가능한 박해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사역자들은 은퇴 이후의 주택 및 연금 계획과 함께, 일반 세속적 직업과 견줄만한 적당한 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선교회의 성공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사역자들에게 베푸는 돌봄에 달려 있다. 효과적인 사역 전략은 선교회의 성공에만 있지 않다. 사역자 케어와 전략은 동반되는 것이다.

사역자들을 위한 건전한 돌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에 관해 듣고 응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IMA에서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멤버케어의 필요성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중대한 사안이 되었다. IMA의 지도자들은 멤버케어와 연관된 세미나와 협의회들을 개최해 왔으며, 기독교 사역자와 대표자, 지도자, 사역자들의 가족과 자녀, 사역자들의 의료/재정적인 복지와 관계된 여러 목회적 케어에 대한 글들을 출판해 왔다. 멤버케어와 상담, 복지, 자녀교육과 여러 다른 주제들에 대한 네트워킹들이 구축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IMA의 윤곽과 멤버케어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IMA는 선교에 관련된 기관의 대표자들로부터 정신과 의사에 이르기까지, 목회적 케어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여러 회의들을 주최해 왔다. 그것은 멤버케어 사역자들이 함께 연계하도록 하며, 기독교 사역자들을 케어하는데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발전시키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선교회에 속한 멤버케어 부서들이 창의적이며/강화되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 지역 케어 센터들이 형성되고 수련원들이 추가적으로 세워지며, 기독교 사역자들의 계속적 필요에 대한 보다 큰 이해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또한 멤버케어 중심센터들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선교 단체들과 사역자들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흩어져 있는 것과 더불어, 인도가 너무 광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에서 사역자들을 조달할 수 있는 많은 센터들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각 선교회로 하여금 사역자들을 케어하는데 있어서 각 선교회의 역할을 이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회들이 이미 행하고/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선교회들은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면, 심각한 정신질환과 건강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질환, 어린이들의 특수교육과 행동장애가 있을 경우이다. 그와 같은 센터에서 일하거나 이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른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IMA는 선교회들 내에 멤버케어 정신을 발전시키도록 사역하고 있다. 우리는 선교 지도자들과 파송기관들이 그들의 인력들을 케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후원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접근방식은 보다 선행(先行)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진다. 우리는 앞으로 사역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양육하기 위해 동역할 때 기독교 사역자들이 보다 효율적이 될 것이라 전적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의 헌신과 사역자들을 향한 케어의 결과로서 주님을 위한 눈부신 생명의 수확이 이루어지길 전적으로 기대한다.

3. 토의 주제

1. 저자는 인도 기독교 사역자들의 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을 열거했다. 당신의 상황과 가장 상관되는 것은 무엇인가?
2. 장애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기회들로 전환될 수 있는가? 몇 가지 예를 제시해 보라.
3. 장애물들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기독교 선교활동을 말살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예를 제시해 보라.
4. 저자가 이 글의 서두에서 열거한 개인적 문제와 같은 사역자들의 어려움과 갈등들에 대해 지도자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
5. 당신이 속한 선교회에서는 멤버들의 필요들을 어떻게 제공하는가? 또한 어떻게 멤버케어가 선교회의 사고/정신의 일부가 되는지 설명하라.

† 참고문헌 †

- Collins, M. (1986). *Manual for today's missionary: From recruitment to retirement*.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Deniel, R. (1997, April). Missionary's cost index. *Insight India-Assembly Testimony Journal*.
- Mathew, M. (1995). *IMA health care support for misionaries: A proposall*. Unpublished paper.

부록

인도 멤버케어 자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 사역자들의 삶의 질을 이해하며 이를 고양시킬 기회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에게 주요한 방법들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은 이러한 사역자들을 위해 목회적 케어의 여러 다른 측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반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아래에 마련된 것은 인도에서 이용 가능한 멤버케어의 인적 자원 및 장소에 대한 자료들이다. 이 목록은 전체를 망라하는 내용은 아니며,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 이외의 것들이 목록에 추가될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록들과 다른 멤버케어 자료들을 설명하기 위한 웹 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한다면, 내 아내인 Pramila Rajendran에게 다음의 주소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IMA, 48, First Main Road, East Shenoy Nagar, Chennai 600 030, India. Tel: (0)44-6444602/6444603/6448944/6448945; Fax: (0)44-6442859; Email: rajpramila@eth.net or imahq@vsnl.com.

1. 케어 상담가 및 소재지

- Mr. Samson Gandhi, Person-to-Person(PP), Hyderabad, Andra Pradesh.
- Dr. Gnanamuthu, Counselling Centre at Bangalore, Karnataka.
- Mr. John Zechariah, Grace Counselling Centre, Kerala.
- Mr. Marcus Chacko and Mr. Alfy Franks, Pastoral Care Department, OM, Hyderabad, AP.
- Christian Medical College, Pastoral Care Department, Vellore, Tamil Nadu.
- Dr. M. C. and Annie Mathew, Christian Medical College, Vellore, Tamil Nadu.
- Noor Manzil Hospital, Lucknow, UP.
- South Asia Institute for Advanced Christian Studies, Bangalore(counseling course).
- Mr. and Mrs. Tim and Carol Svoboda, YWAM, Chennai, Tamil Nadu(member care course).
- Mr. and Mrs. Rod and Ruth Gilbert, Corner Stone, Mahapalipuram, Chennai(counseling in Marriage and family).
- Dr. and Mrs. Theodore and Dianna Srinivasagam, IMA, Bangalore, Karnataka.
- Rev. and Mrs. J. N. Manokaran, India Missions Association, Chennai.
- Mrs. and Mr. Kasturba and Hansraj Jain(marriage seminars/counselors; also involved with home schooling for MKs in Nagpur, Maharashtra).
- Dr. and Mrs. Bijoy and Premi Koshy, InterServe, Delhi.
- Mr. Ravi David, Scripture Gift Missions, Bangalore, Karnataka.
- Mr. John Amalraj, India Missions Association, Delhi.
- Mrs. Joyce Joshi, India Missions Association, Delhi.

- Rev. Sushanto Patra, National Fellowship, Calcutta, West Bengal.
- Dr. Rajesh Agarwal, RSP, Barreilly, UP.
- Mr. Augustine Jebakumar, GEMS, Dehrion-sona, Bihar.
- Mrs. Pramila Rajendran, India Missions Association, Chennai, Tamil Nadu.
- Miss Evangeline Stanley, Blessing Youth Mission, Vellore, Tamil Nadu.
- Mrs. and Mr. Sneha Lata and David, Lucknow, UP(marriage counselors/seminars).
- Mr. and Mrs. Ray and Christa Eicher, Shanti Kunj, Landour, Mussorie, UP(a place for MKs to come and relax and share their problems; some families also come).
- Dr. Daniel Sathiaraj, India Missions Association, Hyderabad.
- Mr. James Kaiser, India Missions Association, Chennai.
- Mr. Chacko Thomas, OM, UK.
- Mr. Ashok Kumar, India Ministries, Singapore.
- Mr. J. J. Rathnakumar, MUT, Vellore, Tamil Nadu.
- Mr. David Meengs, Biblical Counselling Trust India, R. A. Puram, Chennai.

2. 게스트 하우스/수련원

- Deodars Retreat Centre, Mussorie, UP.
- Landour Guest House, Mussorie, UP.
- Rod and Ruth Gilbert, Corner Stone, S.U. Mahapalipuram, Chennai.
- Scripture Union Camp Centre, Mahapalipuram, Chennai.
- J. J. Rathnakumar, MUT Rest House, Vellore, Tamil Nadu.
- Mr. and Mrs. Wilson, Brookland Guest House and Retreat, Koonoor, Nilgiris, Tamil Nadu.
- Mountaben Guest House, Ooty, Tamil Nadu.

* 참고: 인도 선교협의회(IMA)는 선교회와 교회들로 하여금 복음전파와 여러 미전도 종족들, 언어들, 지역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을 돕는 인도 국내 선교연합회이다. IMA 멤버들은 자원과 리서치, 훈련을 나누기 위해 협력하며, 그들은 상호책임을 지며 그들의 인력들을 케어하는데 헌신한다. 현재 IMA는 인도의 약 1,500개의 지역과 다른 10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25,000명의 기독교 사역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그 회원수는 141개의 선교회와 복음전도 단체들을 갖고 있다.

제 9 장

남아시아의 아시아 선교사들을 위한 현장 케어

현장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경시될 수 없는 엄청난 도전이다. 멤버케어 분야의 사역에 대한 나의 관심은 내가 속한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의 사역을 살피고자 하는 나의 열망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선교현장에서 수년간 사역 이후, 사역을 향한 열정을 상실하는 선교사들을 보아 왔다. 이는 그들이 소명을 상실했다거나,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상실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던 내재된 갈등들과 스트레스들이 발견되었다. 나의 소망은 그들이 경주하는 것을 도우므로 그 경주를 잘

* 아키 림(Ah Kie Lim)은 말레이시아인이며 16년 동안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과 사역했다. 그녀의 주된 관심은 남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 개척자들을 위해 멤버케어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녀는 지난 7년간 YWAM



아키 림 *

최근에 본국과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시아 선교사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을 내다보며 새롭게 밀려드는 아시아 선교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가? 이 글은 남아시아의 상황에 초점을 둔, 다섯 가지 필요영역인 재정, 독신 선교사, 가족, 자녀교육, 휴가/안식에 대한 부분들을 개관한다. 광범위하며 다양한 분야의 케어에 도전하기 위해 여러 제안들이 제기된다.

마치는 것이다(고전 9:24).

아시아인들은 서구 동료들과 매우 다르게 멤버케어를 보는 경향이 있다. 아시아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은 종종 “너무 많은” 케어가 선교사들을 “망쳐 놓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어떤 이들은 선교사들이 예수와 복음전파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철학까지 갖고 있다. “너무 많은 케어가 선교사들을 방심하게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역자들을 보다 덜 탄력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O’Donnell & O’Donnell, 1992, p. 13).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아시아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은 선교사들을 돌볼 때 매우 유의한다. 진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선교사들의 경우 “사역에 있어 자기희생적이지 않다”거나, 혹은 더욱 심한 경우에는 “선교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에 케어를 요청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종종 충족되지 않는 필요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의 선교단체나 파송교회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이러한 다양한 그룹을 위한 적절한 멤버케어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일련의 도전이 된다. 아시아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서구 선교사들이나 중동 혹은 남미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는 어떻게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가? 이 글에 기록된 것은 남아시아의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교회개척자로서 전방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케어 제공의 성공 및 실패의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직면한 많은 이슈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시아 선교사들의 문제들과 공통점을 갖는다. 말레이시아인으로서, 남아시아에서의 사역은 전체적으로 아시아 선교사들을 위해 보다 나은 케어를 제공하는 다른 방법들을 보도록 내게 도전을 주었다.

남아시아 일선 선교회 내에 멤버케어 사역을 개척하며 책임져 왔다. 아키 림은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M. Div. 과정을 하고 있다.

Email:ahkie@pqsa.net

1. 아시아 선교사들의 당면 문제

1) 재정적 스트레스

“아내는 2년 동안 병들어 있는데, 더 나은 치료를 받게 할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매월 지원되는 후원금은 가족의 생계를 겨우 채워줄 정도입니다”라고 한 선교사는 말한다. 어떤 사역자들은 여러 마을에서 사역할 경우 그 지역들을 여행할 교통비가 없다. “많은 기도모임에서, 선교사들은 재정적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한다. 만약 그들이 필요가 채워지기만을 기다렸다면, 인도와 세계는 결코 복음에 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Rajendran, 1998, p. 108). 이 사역자들은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실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 확신했다. “부족한 돈은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Cunningham, 1991, p. 51). 따라서 상황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은 재정의 부족이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를 방해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역지의 교회 개척자들을 방문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재정적 필요라는 실재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들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그들 중 몇몇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만 한 돈도 없거나 가족의 생계를 채워 줄 정기적인 월 후원금도 없다. 내가 그들의 딜레마에 답변을 줄 수 없기를 얼마나 바랬던가! 이상적인 것은, 파송 교회들이 재정 후원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아직 남아시아의 어떤 교회들은 자급하지 못하는 형편이기에 선교사를 홀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초교파 선교단체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 대해 후원하는 것을 꺼려한다.

공통적으로 갖는 기대는 후원교회나 선교회가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후원을 요청하는 데에는 종종 문제가 존재한다. 종종 아시아 선교사들은 그들의 월 후원금을 요청하는 것이 구걸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면,

그분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한 선교사는 내게 말하기를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교비를 모금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을 위해 모금하는 것은 다르게 여겨진다고 하였다. 자신의 필요를 교회에 요청하는 것 보다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쉽게 여겨진다. 아시아 문화에서 자신을 위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후원을 돕고자 모금하는 것은 명예가 된다.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교회개척 팀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자 소득산출 프로젝트(income-generating project)를 통해 긴밀하게 사역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들은 인도산 피클, 환영 카드 등을 제작한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은 사역자들로 하여금 공동체에 간증이 되게 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지원으로부터 그들을 독립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며, 또는 파송교회/선교단체가 선교사들의 후원을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현장에 계속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들을 통해 창의적이 될 필요가 있다. 사도바울 그 자신도 사역을 위해 스스로를 부양했던 자비량 선교사였다(행 18:1-3).

또한 우리는 사역자들이 다른 관심 있는 단체들과 그들의 현지 파송교회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도록 돕는다.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된 노력으로 그들의 목사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방문한다. 또한 우리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을 후원할지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 선교사들로 하여금 기도서신을 쓰도록 돕는다.

우리는 최근에 선교사 후원자 가족(Missionary Upholders Family, MUF)이라는 남아시아 선교단체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었다. 이 단체는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후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들과 가족들을 연결시켜 준다. 그러면 선교사 후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그룹은 한 선교사를 입양하고 선교사와 사역을 위해 기도한다. 또한 MUF 그룹은 매달 재정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한다. 이러한 참여는 남아시아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후원과 기도를 통해 복음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긍정적 표시가 된다. 또한 인도 선교회협의회(India Missions

Association)는 시기적절한 때에 『인도선교 관리』(*Management of Indian Missions*)라는 책을 출판했다(Sunder Raj et al., 1998). 이 책의 한 부분은 인도에서 가능한 여러 저축 계획들을 제시하므로 선교사들이 저금하도록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2) 선교 현장의 독신 남녀

남아시아의 상황에서 독신은 때로 그 개인과 직계가족에게 수치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신 남녀는 때로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사역자들은 결혼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지며, 그래서 그들이 생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때에 비로소 “어른”으로 인정된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결혼은 부모로서 그들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누군가가 그녀를 돌봐준다는 것으로 그녀의 미래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남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인정된 권위와 함께 그의 위치가 안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아시아 문화는 보통 중매결혼을 권장한다. 우리 선교회의 한 젊은 여성은 그녀의 가족이 결혼상대를 정했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사역을 떠날 것을 요구받았다. 비록 그녀의 장래 남편감이 불신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으며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문화들과는 반대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남아시아 문화들 내에서, 중매는 선교단체가 참작해야 할 영역이며, 아마도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역할이다.

선교단체들은 여러 면에서 단체내의 독신 선교사들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독신 선교사들이 가정을 떠나 선교지에서 섬기는 일은 큰 선택이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가족을 포기하는” 형식이 되며, 다른 곳에 속하는 것을 내포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들은 그들이 사역하는 단체에서 “가족”의 일부가 된다. 선교기관들이 독신 선교사들을 위해 장래의 인생 동반자를 구한다면, 그들은 가족들에 의해 결혼을 이유로 집에 돌아오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구상은 선교기관들이 다른 선교기관들과 협력하여 선교사들을 위해 “결혼상담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에서 독신으로 인해 수치심에 직면하며 또한 비기독교 가정들로부터 결혼의 압력을 받고 있는 일선 선교사들에게 필요하다.

혼자라는 것과 완전하지 못하다는 통례적인 갈등은 차치하고, 남아시아에서 사역하는 독신 선교사들은 이성 회원들과 조심스럽게 관계해야 한다. 이 문화의 남녀들은 공적으로 자유롭게 어울리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행위는 큰 의심을 야기한다. “결혼중심의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독신들에게 특별한 문제를 제기한다”(Foyle, 1987, p. 29). 결혼을 모든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보는 사회에서 개인이 사역할 수 있으며 독신으로 남을 수 있는가? 한 가지 해결방안은 독신자들과 기혼부부들이 선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며,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기혼부부들은 남아시아 상황에서 용납되는 “보호막”(covering)을 독신자들을 위해 마련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개인은 문제 제시되거나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두려움 없이 정당하게 어울릴 수 있다.

3) 가족의 헌신

“저희 부모님들은 연로하시고, 부모님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것이 제 선택은 아니지만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장남입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제 의무입니다. 부모님과 제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저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자녀들이 가족을 돌봐야 된다고 여기는 아시아 문화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것들이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가 연로했을 때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부모에게는 불명예로 여겨진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들의 결혼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는 많은 선교사들이 부모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교지를 떠나는 것을 보아 왔다. 우리나라 혹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다 높은” 소명으로 여겨지는 것을 위해 부모들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것은 대부분의 아시아 선교사들이 직면하고 답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나는 우리가 다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자면, 부모를

위한 자리가 선교지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 경우에, 어느 선교사의 모친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선교지로 이주했다. 거기서 그녀는 손자들을 돌보았으며, 그 결과로 그들은 자유롭게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다.

다른 경우로, 우리 중 한 선교사는 그의 부모를 위해 여분의 월 후원금을 모금해야만 했다. 그의 부모들은 그를 선교지에 보냈지만,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않았다. 그의 서구 동역자들은 그 자신을 위한 여유도 없을 때, 그가 그의 부모를 위해 왜 돈을 주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또 다른 선교사는 존경과 공경심에서 그녀의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매월 지원금을 드린다. 선교사들의 부모들에 대한 도움은 부모들에게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설교를 실천하는 것을 공동체에 보여주는 것이 된다. 더 많은 아시아 선교사들을 선교지에 보내고자 한다면, 선교 기관들은 선교사의 부모들이 현장에서 그들의 자손들과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급진적인 변화들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선교를 향한 소명의 일부가 아닌가?

4) 자녀 교육

많은 선교사들이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로 고심한다. 아시아 선교사들의 염려는 종종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재정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선교회의 경우에는 책정된 자녀 교육비가 없어서 자녀들과 부모들은 고통을 겪는다. 이와 같은 갈등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때로는 선교 사역을 떠나게 만든다”(Rajendran, 1998, p. 114).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부족한 사회적응 능력, 재정 궁핍,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인접 지역에 학교나 대학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다.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들의 사역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그들의 교육은 무시될 수 없다.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원인들 중 하나는 자녀교육 때문이다”(Jones, 1995, p. 101).

아시아에는 자국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학교가 많이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단순히 가능한 기숙사 학교가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이다. 우리와 같은 국제적 자원 단체에서는, 아시아 선교사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모

금하도록 돕는 협력이 가능하다. 우리에게선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다. 이제는 선교사 자녀교육을 “채택하는”(adopting) 구상을 탐구해야 할 시기라 믿는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초교파 선교 기관들은 자국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멤버케어 제공자로서, 우리는 선교사들과 단체들에게 가능한 자원들을 찾도록 지원할 수 있다.

5) 휴가 및 귀국

많은 사람들에게 휴가 및 귀국은 쉼과 휴식을 위해 바닷가 유흥지나 다른 좋은 장소로 떠나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휴가들은 필요하며, 그것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선교지에 다시 돌아 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한 인도 선교사는 내게 외국선교사들은 휴가나 귀국 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그녀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고 또 그렇게 할 자금도 없다고 했다. 그녀에게 휴일은 비기독교인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녀의 가정은 휴식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장소이다. 비기독교 배경의 선교사들에게, 휴일에 집에 가는 것은 가정에서의 이상승배 예식을 견뎌야 하는 것을 의미할지 모른다. 우리들 중의 한 선교사는 그녀가 집에 방문할 때마다 그녀 자신이 선교사가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집을 방문하는 것이 진정한 휴가가 된다. 한 남자 선교사는 집에 방문할 때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에 흠뻑 빠져서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한 주간의 이러한 호화로운 이후에 그는 새로워져서 사역에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영접하는 사역은 선교사들을 위해 휴가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 멤버케어 제공자로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휴가가 필요한 일선의 사역자들에게 가정을 개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휴가를 갈 자금이 없을지 모르나, 한 주간 동안 그들의 처소를 떠나 의도된 멤버케어 제공자들에 의해 “편안해 지는” 것은 최대의 휴식이 될 수 있다. 다른 예로는, 나의 한 동료 그룹이 얼마간의 돈을 모금하여 휴일에 내게 보낸 것을 들 수 있다. 그들의 관대함은 내게 축복이 되었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홀로 있게 만들었고 휴식이 필요한 다

른 선교사들에게 동일한 일을 베풀게 하는 소망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선교 기관들은 적정의 그리고 쉽게 이용 가능한, 특별히 아시아 선교사들을 위해 구상된 선교사 게스트 하우스를 개원하는 일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2. 실제적 멤버케어를 위한 기타 제안들

선교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멤버케어 제공자들의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외지거나 민감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팀들에 대해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장소들의 경우 정규적인 체제가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민감한 지역에서는 “외부인”의 방문이 팀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끌게 하며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한 지역에서, 멤버케어 제공자들은 팀을 방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몇 가지 전략들이 있다.

1) 후속 훈련

선교사들은 종종 너무나 바쁜 사역으로 인해 개인 평가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재정적 여유가 없거나, 혹은 파송교회들이 이를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한 동료는 연구휴가나 삶에 대한 평가와 교훈을 받을 기회가 없이 선교지에서 10년 동안 사역했다고 말했다. 그 얼마나 잃어버린 기회들인가! 그것이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평생 배움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계속된다. 멤버케어 제공자들은 선교사들이 훈련 처소나 훈련을 위한 시설들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장기간 선교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습에 대한 동기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원격 학습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 우리 단체에는, 3개월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선교현장을 떠나 단기 휴가를 갖게 하며 동시에 삶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또한 전방 교회 개척자들을 위해 명시된, 한 주간의 훈련을 마련한다. 이 훈련은 연 2

회 개최하되, 선교사들로 하여금 배운 것을 실습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그들은 정기적인 휴가를 얻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로워진다.

우리는 정규적인 체제로 후속 훈련에 사원들을 보냄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추구하는 기업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 기업의 목적은 동기를 유발시키고 사원들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것은 사원들이 기업에 보다 큰 자질과 생산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훌륭한 투자가 된다. 우리는 경영과 인사관리를 심사숙고하는 기업들로부터 좋은 예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기업의 직원들은 종종 거금의 보너스와 매혹적인 휴가 패키지들과 함께 상당한 장려금을 받는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에서는, 때때로 사역자들의 향상을 위해 그들을 훈련에 기꺼이 보내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2) 지속적인 멤버케어

(1) 선교지 방문

한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었던 4년 동안 아무도 그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따금, 그와 그의 팀은 현지 사무실에서 서신들을 받았으나 그것이 전부였다. 내가 처음 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일종의 슬픔을 느꼈으며, 그리고 나는 대부분의 파송 기관들과 파송 교회들이 그들의 선교사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했다. 이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거나 그들의 선교사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거리문제와 먼 지역으로의 여행시간, 그리고 재정은 그러한 방문을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케어 제공자들과 선교사들 사이의 접촉은 일선 선교사들의 효율성을 위해 결정적인 것이 된다. 선교여행 도중 사도 바울은 그가 방문했던 곳의 신자들을 격려하기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점은 본 받아야 할 좋은 예가 된다. 멤버케어 제공자들로서, 우리는 최소한 년 1회, 현지 각 교회 개척 팀을 방문하는 정규일정을 수립하였다. 우리는 또한 후속 훈련과 휴식, 재충전을 위해 년 2, 3회, 한 집결 장소에 선교사들을 소집한다. 이러한 방식은 선교사들을 외부 접촉과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홀로 남겨두는 것을 방지한다.

(2) 녹음테이프

필 파샬(Phil Parshall, 1988, p. 75)의 글, “선교사들은 얼마나 영적인가?”(*How Spiritual Are Missionaries?*)는 선교사들의 영적상태에 있어서 진지한 통찰을 갖게 한다. 파샬이 발견한 그들의 경건시간과 기도생활은 종종 단기적이며 비지속적이다. 멤버케어 제공자들은 유익한 성경교훈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선교사들에게 보냄으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팀을 방문하는 것 외에, 우리는 그들에게 매월 교육 테이프나 글을 보낸다. 그들은 많은 힘을 소진했으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움과 재충전이 필요하다. 우리 팀 중의 한 책임자는 몇 년 전 우리가 교육 테이프와 교육 안을 그의 팀에게 보내준 데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그의 팀원들은 매월 이러한 자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팀 전체로 테이프를 들으며, 장시간의 토의시간을 갖는다. 팀의 책임자는 그가 받은 모든 교육 안을 파일로 정리하여 때로는 새신자들을 교육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3) 카드

선교사들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제 아내는 큰 외로움과 심한 좌절감 때문에 사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진정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직하려고 한 그 날, 그녀는 한 멤버케어 팀에게 생일 카드를 받았습시다. 그저 단순한 한 카드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사역을 향한 그녀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나 편지가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것은 매우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친구들이-진실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카드나 편지는 누구나 보낼 수 있는 것들이다.

(4) 기도

전선에 있는 사역자들은 기도로 보호받아야 한다. 멤버케어 제공자들은, 특히 외부의 접촉이 많지 않은 고립된 교회 개척 팀들을 위해 기도후원을 동

원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멤버케어 제공자들은 기도로 후원하기 위한 교회들과 관심 있는 그룹들, 자원들에 팀을 연결시킬 수 있다. 몇 교회들과 관심 있는 그룹들은 우리에게 접촉하여 남아시아를 위한 기도에 강한 관심을 나타냈다. 멤버케어 제공자들로서, 우리는 이러한 그룹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개의 팀들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재정적인 후원은 물론, 기도로 우리의 사역자들과 동행할 관심 그룹들을 많은 교회 개척 팀들에 연결시키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3) 상호 멤버케어

선교사들은 상호 케어의 커다란 출처가 되며, 고립된 지역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베리 오스틴(Barry Austin, 1992, p. 60)은 그의 글, “목양을 통한 선교 후원”(Supporting Missions Through Pastoral Care)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자들을 후원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한다. 그는 궁극적으로 돌봄을 위한 일차적인 자원은 실제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후원과 성장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격려하라는 권면을 받는다. 우리는 팀 안에서나 혹은 팀 외부에서 기도의 동반자를 구할 것을 권면한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팀의 책임자 외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신뢰할만한 사람들을 구할 것을 권면한다. 정구적인 즐거운 시간과 외출, 음식을 함께하는 일들은 팀 유지를 위한 팀 구축 활동에 해당된다.

4) 지역 멤버케어 제공자

우리 선교사들은 남아시아 전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그 광범한 지역은 적합한 케어를 마련해야 하는 멤버케어 제공자들에게는 실로 도전이 된다. 이 지리적 실재를 다루기 위해, 우리는 다른 지역의 지역 멤버케어 요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 개척자들과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멤버케어 제공자들은 책임자들에 의해 선

임되며, 그들은 인도의 펀(Pune)에 있는 주 멤버케어 부서에서 최소한 년 1회의 훈련을 받는다. 우리의 목표는 각 교회 개척 팀이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가까운 멤버케어 제공자를 얻는 것이며, 특히 아시아 멤버케어 제공자들을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선교사들을 돌보아야 할 부담과 심정이 있지만, “전문적인” 훈련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것은 리처드 가드너와 로라 메 가드너(Richard Gardner와 Laura Mae Gardner, 1992, p. 315)의 글인, “멤버케어 사역자들의 훈련과 이용”(Training and Using Member Care Workers)에서 토론된 내용과 같은 상담, 정신건강 전문인, 위기치리와 기타 영역들을 포함한다. 나는 특히 멤버케어 제공자들이 위기치리와 정신건강 상담에 있어서 더 잘 구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시아 지역의 현재 정치적 분위기는 유발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준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5) 국내적, 국제적 멤버케어의 협력

멤버케어는 한 단체나 교회의 사역이 아닌, 우리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돌봄을 마련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이다. 남아시아에 있는 우리는 아직 국내적이며 국제적인 두 측면에서, 기관들과 동역하는데 초기 단계에 있다. 여기에는 기관들과 교회들, 그리고 다른 선교단체들 간에 보다 많은 네트워킹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2년간, 우리 단체는 몇 국내 선교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었다. 우리는 자체의 멤버케어 사역자들을 위한 상담 및 위기치리 훈련은 물론이고 자원과 상담자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멤버케어 인력들이 서로 집결하여 문제를 토론하고, 자료와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멤버케어 포럼이 조직되었다. 인도 선교협의회는 인도 선교사들의 점증하는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멤버케어 자문 단체를 설립하였다. 우리 조직은 이 단체의 산하 기관이다. 우리는 훈련 프로그램의 교육을 위해 자문 단체의 일원 중 한 명을 초대했다. 우리 멤버케어 사역자들은 다른 선교 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멤버케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우리는 미숙하지만 바른 노선을 걷고 있다.

3. 결론

결론으로, 나는 아시아인들과 특히 남아시아 멤버케어 제공자들에게,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있는 선교사들을 양육할 소명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함께 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들과 요구들이 있다. 때로 그것들은 우리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에게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가능케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4. 토의 주제

1. 당신의 선교 단체는 어떤 방식으로 독신 선교사들을 실제로 후원하고 있는가? 당신의 선교사들에게 결혼상대를 찾는 일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2. 당신의 단체에서는 선교사들의 부모들을 위해 어떤 종류의 혜택을 마련하는가? 당신의 문화권의 선교사가 부모를 모시고 살기 위해 귀국할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3. 당신의 단체는 선교사, 특히 신생 파송국 선교사의 재정적 필요를 어떻게 돕고 있는가? 소득산출 프로젝트(income-generating projects)들은 실용적인 선택인가?
4. 멤버케어 제공자들이 갖게 되는 필요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당신의 단체는 케어 제공자들을 어떻게 돌보는가?
5. 어떤 방식으로 다른 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가? 다른 단체들은 당신과의 협력으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 참고문헌 †

- Austin, B. (1992). Supporting missions through pastoral care. In K. O' Donnell (Ed.),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p. 60-68).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Cunningham, L. (1991). *Daring to live on the edge: The adventure of faith and finances*. Seattle, WA: YWAM Publishing.
- Foyle, M. (1987). *Honourably wounded: Stress among Christian workers*. London, UK: Monarch Books.
- Gardner, L., & Gardner, R. 1992. Training and using member care for workers. In K. O' Donnell Ed.,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p. 315-331).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Jones, M., & Jones, E. (1995). *Psychology of missionary adjustment*. Springfield, MO: Logion Press.
- O' Donnell, K., & O' Donnell, M. (1992). Perspectives on member care in missions. In K. O' Donnell (Ed.),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p. 10-23).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Parshall, P. (1988). how spiritual are missionaries? In K. O' Donnell & M. O' Donnell (Eds.), *Helping missionaries g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 (pp.75-82).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Rajendran, K. (1998). *Which way forward Indian mission? A critique of twenty-five years 1972-1997*. Bangalore, India: SAIACS Press.
- Sunder Raj, E., Shyam, W., Dhanapal, M., & Lynda, S. (Eds.). (1998). *Management of Indian missions* (rev. ed.). Chennai, India: India Missions Association.

제 10 장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케어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아주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거대한 땅으로 50여 개국의 나라가 있으며 3천만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차지한다. 인구는 약 6억 5천만 명이며 세계 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 아프리카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가진 대륙이다. 어림잡아 2025년까지 아프리카 인구는 세계 인구의 15%를 넘어설 것이다. 아프리카에는 적어도 1,995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3,000개의 종족 언어 그룹이 있다. 아프리카에는 4개의 주요 공용어가 있다: 22개국에서 영어를, 18개국에서 불어를, 4개국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한 나라는 포르투갈어를 공

* 나오미 파모누어(Naomi Famonure)는 나이지리아 아가페 선교회와 복음주의 네트워크(Agape Missions and Evangelistic Network) 본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오미 파모누어 *

아프리카는 풍성한 자원과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대륙이다. 또한 아프리카는 HIV/AIDS의 확산과 가난, 전쟁, 기근, 경제와 정치의 부패, 보건복지와 사회봉사를 위한 최소한의 하부구조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아름다움과 황폐함의 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프리카 교회를 자극하셔서 선교사들을 세우시며 그들을 보내고 계신다. 새로운 선교 운동으로서, 아프리카의 파송단체들은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지속시키기 위해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용어로 쓰고 있다. 다른 나머지 나라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의 어떤 대륙도 아프리카만큼 자연적, 정치적, 경제적인 재난으로 고통을 당한 곳이 없다. 지난 30여 년 간 식량 생산은 감소되어 왔으며 그것은 급속한 인구증가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곳에서 격심한 기근을 겪었고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풍부한 재원을 가진 아프리카 대륙이지만 세계 40개 빈곤국 중 가장 가난한 32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 전체 소득의 1.2%를 산출할 뿐이다. 아프리카의 부패한 정부 정책과 외채, 그리고 수백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며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은 아프리카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리카 교회는 느리지만, 희생적인 태도를 갖고 계속 전진해 왔다. 아프리카 선교사들과 외국 선교사들을 통하여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적 자원들에 대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며 가슴 아픈 자각을 하게 된다. 감사하게도 나는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리라 확신한다.

그 예로, 아프리카 복음주의협회(the Association of Evangelicals of Africa, AEA)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프리카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연합과 협력”을 목적으로 1966년에 세워졌다. AEA는 그 초기단계에서 변화를 이끌어 온 신학과 기독교 교육위원회(the Theological and Christian Education Commission, TCEC)와 전도와 선교위원회(the Evangelism and Missions Commission, EMC)를 시작하였다. 곧 이어 TCEC는 목회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의 훈련을 목적으로 두 개의 신학 기관을 세웠다. EMC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또한 교회와

을 들었다. 선교 훈련 학교를 운영하며 여성 사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섬기고 있다. 최근에 나오미는 메시아 학교에서 아프리카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고 있다. 나오미는 아프리카 복음주의협회의 전도와 선교 위원회의 멤버케어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는 바요(Bayo)와 결혼하여 샤론 이패, 존 다니엘 아두아, 제임스 아요,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 명의 입양자녀들을 두고 있다.

Email: messiah@hotmail.com.

선교단체가 자체 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도록 도왔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멤버케어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훈련과 선발문제, 가족과 선교사 자녀문제, 선교사 자녀 교육문제와 건강, 영적전쟁,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미래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여러 사례 연구들은 비록 가명으로 언급되었으나 모두가 사실임을 밝혀둔다.

1. 훈련과 선발

서구 선교사들의 노력의 결과로 생겨난 토착 선교단체들은 선교사 파송에 대한 적절한 선교 훈련의 필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거나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실제적인 지식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사역의 성격과 관계없이 사역을 위해 소명을 받은 자들은 훈련을 위해 성경학교로 보내졌다. 대부분의 경우 성경학교나 신학교의 학생들은 아프리카 선교지가 요구하는 어려운 선교사역보다는 조직화된 교단에서의 목회사역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 결과 성경학교에서 훈련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선교에 뛰어들게 되었지만 선교지에서 당면하는 도전들에 미처 준비되지 못했다.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한 대형 교회는 효과적인 멤버케어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필요에 부딪치게 되었다. 신망을 받으며 능력을 인정받던 사역자 중의 한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 상처를 입고 피폐하게 되어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했고, 아마도 다시는 선교지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근자에 그 교회의 선교위원회는 2001년 6월(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임) 카메룬에서 열린 AEA/EMC 멤버케어 협의회에 참가하도록 요청되었다. 상상할 수 있듯이 그 위원회의 위원은 멤버케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배우고자 했으며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많은 통찰을 얻고 돌아왔다. 그 선교위원은 이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당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그 자신과 가족을 준비시키기 위한 어떤 형태의 훈련도 받은 적이 없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주님을 알았고 여러 해 동안 사역자로 교회에서 섬겼으므로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큰 과실이였다.

그 협의회에 참석했던 불어권에서 온 또 다른 사람은 그의 신학교 입학 당시 자신의 회심과 중생 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 없이 신학교에 입학하여 훈련을 받고 졸업한 점에 대한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선교사역을 포함한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 그 교단의 훈련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은 회심의 경험이나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어떤 교단은 목회자들의 (같은 과정에서 훈련된) 추천과 지원자의 학력만 참고하였다. 훈련을 마친 후 지원자의 학력에 따라 지원자는 특정 지역의 목사나 담임목사를 돕는 전도자로 고용되거나 교회 개척자로 지방에 배치된다. 아프리카의 많은 곳에서 목회사역은 아주 영예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교사역은 그렇지 않다.

수준 높은 교육 기관에서의 카리스마적 부흥의 결과로 생긴 대부분 오순절 배경을 가진 아프리카의 신생 파송단체들은 초기 유럽선교의 형태인 신앙선교(faith mission)를 그들의 모델로 삼았다. 그들의 선배들과 같이 아프리카 선교단체들은 선교사 훈련의 필요성과 선교사 선발에 대한 신중함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다. 많은 신생 파송단체들이 사역과 타문화 환경을 위해 훈련되거나 준비되지 않은 책임자들에게 의해 운영되었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어떤 형태의 훈련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교도의 땅에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러한 훈련은 시간낭비라고 여겼다. 그들은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성경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이 성경지식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어떤 단체들은 아프리카 주변 선교지에 수백 명의 사역자들을 보내려는 열망 때문에 개인의 자격이나 출신교회를 참고하지 않고 또한 적절한 선교 훈련이 없이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선발하였다.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한 기술은 물론 적합한 선교현장의 슈퍼비전과 멘토링, 적절한 케어도 받지 못한 채 선교지로 나아갔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 스스로가 매우 힘든 미전도 지역에 자청하여 나가기도 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유익보다는 더 많은 해를 끼쳤다. 훈련되지 않은 어떤 선교사들은 비참하게 망가졌고 상처 입은 채 본국으로 돌아왔다.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은 사역을 “변질” 시켰고 그들이 섬겼던 종족들 간에 차후의 선교적 노력을 외면해 버렸다.

1) 긍정적인 도전

많은 실수를 반복한 후, 수 년 동안 아프리카의 선교단체들은 그들이 넘어졌던 깊은 “수렁”들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날을 반성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의 실수들을 수정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최소한 훈련과 선발과정에서 타문화 훈련과정으로 지역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 훈련, 파송하고 그들을 위한 후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하고자 노력했다.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회들은 선교사 후보생들의 자격여부를 확인하며 그들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역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훈련기관의 평가를 신뢰했다. 아프리카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은 선교를 교회의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으므로 이러한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

AEA/EMC는 1990년 초 동부지역 선교학교(the School of Missions Eastern Region)로 명칭된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 곳에서 주요 지도자들이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 선교학교를 시작하기 위해 훈련을 받았으며 적어도 18명의 선교사들이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되었다. 훈련은 큰 효과를 가져왔으며 EMC의 노력의 결과로 많은 선교학교들이 시작되었다. 아프리카의 파송국가들은 현재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특히 아프리카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주요 나라들인 나이지리아, 콩고, 가나, 코트디부아르, 남아공, 케냐에서는 현재 선교 훈련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 아가페 제자 선교 훈련학교-나이지리아
- 갈보리 선교 사역 학교(CAPRO)-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 복음 선교 연구소(NEMI)-나이지리아

- 기독교 선교협회-나이지리아
- 사방 선교 학교-나이지리아
- 양우리 사역 선교 훈련-케냐
- 아프리카 내륙 선교 훈련-케냐
- 세계 선교 센터-남아공
- 베닌 아프리카 선교학교- 베닌
- 아도나이 국제 선교학교-중앙아프리카 공화국(CAR)
- CERFEM-차드
- 가나 복음 선교 연구소-가나

보다 적절한 훈련의 개발은 아프리카 선교의 위험요소를 다소 줄여 주었다. 선교사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자체의 성경학교를 운영했던 열심있는 교회들은 사역자들의 보다 나은 훈련과 무장을 위해 새로운 선교 훈련 센터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1996년 8월 AEA TCEC와 EMC는 연합으로 나이지리아 조스(Jos)에서 선교 훈련 워크숍을 조직하였다. 초대된 참가자들은 아프리카 10개국과 영국에서 온 훈련 관계자들과 더불어 주로 인가된 신학교의 신학자들이었다. 그 공동 연구회는 선교와 신학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아프리카 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아프리카인들을 격려하여 선교에 동참하게 할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 견고한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에 있는 신학교들의 교과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복음전파”를 그들의 교육신조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에 대한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많은 신학교 훈련원들이 충분한 선교과정을 갖지 않는다. 어떤 훈련원들에는 선교과정이 전혀 없다. 이러한 신학교 출신의 사역자들에게는 선교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워크숍은 신학교들에 대해 그들의 필수 교과 과정으로 선교를 포함시켜야 하는 긴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학교교들은 그들의 훈련과정에 신학적 기초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균형 있는 훈련과 준비는 모든 신학교 졸업생들에게 “선교적인 의식과 이해를 갖게

하며 모든 선교 훈련원 졸업생들에게는 적절한 신학적인 기초”를 구비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선교사와 목회자 모두는 아프리카 대륙과 이 세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성숙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양육하게 될 것이다. 워크숍의 실제적인 열매 중의 하나는 남편인 바요(Bayo)와 알렌 칠버(Alan Chilver), 그리고 내가 공동으로 편집한 개론서, 『하나님의 종들의 훈련』(*Training God's Servants*)이다.

또 다른 긍정적인 예로는 아프리카 선교 훈련협의회(the Council of Missions Training in Africa, COMITA)의 EMC 훈련 과정이 출범한 것이다. EMC는 많은 신학교교들이 출현하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커리큘럼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한다. 또한 그들에게는 적합한 훈련가와 교사가 필요하며 선교훈련에 대한 그들의 철학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신학교교들의 부족한 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열악한 상태로 파송하고 있다. 훈련 이슈들은 더 나아가 1998년 4월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한 아프리카 협의회에서 언급되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들의 선교수준을 향상시키며, 아이디어와 교수진을 교환하는 매개체로 사역하며, 선교훈련을 위한 수준 높은 자료들을 제작하고 배포하도록 도울 수 있는 기구를 세워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그 결과 이 EMC 협력기구(아프리카에서 선교 훈련을 위한 조정기관으로서 섬기고 있다).

또 다른 발전은 두 개 교단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보여진다. 수단 내지 선교회(Sudan Interior Mission, SIM)에 의해 개척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대형 교단인 서부 아프리카 복음주의 교회(the Evangelical Churches of West Africa, ECWA)는 복음주의 선교회(Evangelical Missionary Society)라는 자체 선교단체를 통하여 지방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교단은 지역촌을 전도한다는 단일목표와 함께, 교단 성경훈련학교들(Bible Training Schools, BTSs) 내에 지역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일한 일들이 아프리카 내륙 선교회(Africa Inland Mission, AIM)에 의해 세워진 아프리카 내륙 교회(Africa Inland Church, AIC)에도 일어나고 있다.

2) 선발 절차

각 훈련 기관은 자체의 선발 절차와 기준을 갖는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지원자들에게 일련의 양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아가페 제자 선교 훈련학교는 훈련에 입학되기 전에 지원자들에게 양식을 기입하게 하며, 목회자들이나 다른 저명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받게 하며, 필기시험과 구두 면접을 요구한다. 일단 학교에 입학이 되면 신입생들에게는 어려운 훈련과정의 준비를 위해 한 주간의 집중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진다. 오리엔테이션은 학생들에게 각 코스의 과정을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훈련에는 형식적(formal), 비형식적(non-formal), 비공식적(informal) 훈련의 세 종류가 있다. 최소한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도자 팀에 의해 훈련 중간과 훈련 마지막에 이 세가지 훈련 방식에 근거한 평가가 주어지게 된다. 실제적인 학문적 연구는 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비형식적이며 비공식적인 훈련 영역들이 그 보다 더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이 훈련이 갖는 가장 큰 중요성은 인격함양에 두고 있다. 훈련원의 추천서와 함께, 지원자의 선교회 허입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선교 지도자들에 의해 공식적인 인터뷰가 시행된다. 선교사는 1년 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적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전임 사역자로 허입된다.

2. 가족과 선교사 자녀 문제

전형적인 아프리카 문화와 종교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의 말들은 경청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때 그들의 의견은 참조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건강한 국가들은 아내, 어머니, 아이들을 포함하는 건강한 가족 단위로 구성된다. 건강한 가족 구성원들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가족에 대해 특히 아이들에 대해 방치하거나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나 나라는 이혼, 비행, 범죄, 다른 원치 않는 문제들로 결국 고심하게 된다. 선교기관이

가족을 위해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와 동일한 문제가 그들에게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선발과 훈련 영역에서 그러하듯이 아프리카 선교기관들은 가족 영역에서 서서히 진보하고 있다.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하나의 문제는 자녀들에 대한 필요이며 이러한 필요들이 선교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단체들은 오직 남자나 남편만을 진정한 선교사로서 간주하며 그의 아내나 자녀들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선교지에 그를 배치한다. 가족 전체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아내나 자녀들은 선교지 사역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선교사 가족의 필요를 돌보는 한 훌륭한 예로 메시아 대학(Messiah College)이 제공하고 있는 케어를 들 수 있다. 우리가 세 아이들을 갖기 전에 남편인 바오와 나는 둘 다 선교사였다. 우리는 첫 두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던 한 작은 마을에서 낳았다. 교통편은 일주일에 한번 시장 가는 날에만 있었다. 그곳에는 아이가 걷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수준이 낮은 공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유치원이 없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무런 교통수단도 없었다. 단 한 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집에서 아이에게 기본적인 것을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당시에 나이지리아에는 홈스쿨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러한 힘들었던 경험은 몇 년 전에 우리로 하여금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기숙사를 갖춘 메시아 학교라는 중학교 과정을 시작하도록 인도했다. 우리의 시도는 나이지리아에서 시작하여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부족한 지원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와 사역자 가정은 물론 우리만은 아니다!

미망인들을 위한 지원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스텝들 또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훈련을 위해 내가 교회를 떠났을 때 내가 여기에서 수년 동안 섬겨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교회에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과 그들이 내게 보여주는 배려이다. 이제 그 교회는 자녀들과 함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내 친구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은 선교 훈련을 위해

입학했던 조용하고 상냥하며 겸손한 다누바 형제가 내게 나누었던 말이다. 그 형제는 나이지리아의 명성있는 복음교회를 섬기면서 교육부서에서 타문 화권 교회개척의 비전을 장려하는 사역을 담당하였다. 그 후 그는 사역을 사임하고 그의 교회에서 주는 아주 적은 후원금에도 불구하고 선교 훈련에 참가하였다.

나는 그가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친구 미망인을 나에게 소개했다. 그 미망인은 그녀의 아이들 중 둘을 선교사 자녀학교인 메시아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했다. 다누바는 지난 해에 그녀의 자녀들이 메시아 학교에 입학하도록 도운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재정 부족으로 그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다. 다누바는 입학과정에서 다시 그녀를 돕게 되었고 메시아 학교에 있는 우리와 함께 대화하도록 하였다.

내가 그 미망인을 만났을 때 그녀는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베풀 수 없다는 그녀의 무능력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아버지는 교회의 분주한 사역 가운데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교회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또한 절망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섬겼던 같은 기관에서 섬기며 그 교회의 스텝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녀와 아이들은 교회에서 주는 아주 작은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족한 수입은 그녀가 만든 도넛과 빵을 아이들이 거리에서 팔아 대신하고 있다.

11살의 그녀의 아들 두바이는 메시아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인터뷰를 받았다. 두바이에게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집 근처의 공립학교에 가는 것을 선호하는지 물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 “나는 도넛을 팔기 위해 거리를 뛰어 다니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가족을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닐 때 그는 아버지를 더 그리워하게 된다고 말했다.

1) 이별의 문제

리양은 2000년에 메시아 학교에 온 12세의 작은 소녀이다. 입학 인터뷰의 절차로 부모에 대해 물었을 때 리양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리양은 오

랫동안 병적으로 울었기 때문에 면담에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는 그녀를 계속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심지어 리양은 안정을 되찾은 후에도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다.

메시아 학교는 리양의 부모가 섬기고 있는 선교회와 접촉하기로 결정하였고,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리양의 부모는 멀리 떨어진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리양이 그녀의 부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녀가 8살 때였다. 메시아 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리양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입학시 리양과 동행하는 조건으로 그녀의 입학을 허락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감정적으로 리양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적어도 리양은 부모 중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며 가족이 그녀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확인시킬 수 있었다.

또 다른 경우는 지금은 17세 된 토페의 경우이다. 토페는 2001년에 메시아 학교를 졸업했다. 토페의 아버지가 1995년에 메시아 학교에 토페를 데려왔을 때 그의 나이는 11살이었다. 그 후 3년 동안 토페는 그의 가족을 보지 못했다. 토페는 계속해서 외로워했고, 움츠러들었으며, 말이 없었다. 그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놀지도 않았다. 토페의 학급이 초등학교 졸업시험을 치를 날짜가 가까웠을 때 우리는 토페가 학교 외부 시험에서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그가 혼자 있을 때마다 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후에 우리는 토페의 울음이 그의 부모와 가족이 모두 죽었다고 추측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토페는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왜 자신을 볼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토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그에게 숨기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토페의 학급이 외부 시험을 치루기 전에 성탄절 휴가를 이용해 토페가 가족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선교사 부모들과 지도자들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 떨어져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서 들은 것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때로는 충격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선교회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소명이나 확신에 근거하지 않고 파송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목회자

들로서 지역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도 없는 정부가 외면한 마을들로 파송되었다. 어떤 목회자들은 보다 안락하고 유리한 지역으로 임명되기 위해 지도자들의 명령과 그들의 가락에 춤을 추며 로비 활동을 벌인다.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학교와 건강 등 그들의 필요가 충족될 수 없는 열악한 지역으로 파송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선교사들은 결국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들을 돌봐 줄 수 있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보내게 된다.

내가 이 장을 서술하는 동안 유력한 선교단체에 있는 한 선교사가 자신의 아이들 때문에 내 사무실로 찾아 왔다. 그 선교사는 그의 아들을 메시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상담하기를 원했다. 나는 그 선교사와 대화하며 그가 교회개척 사역을 하는 동안 자녀들의 교육에 소홀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 선교사 부부를 괴롭혀 왔다. 그 선교사의 해결방안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좀 더 유리한 지역에 재배치 될 수 있도록 길을 찾는 것이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그 선교사는 투표에 의해 여러 지역의 코디네이터로 선출되는데 성공했다. 이 새로운 지위로 말미암아 그 선교사는 사역을 위해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가 이사한 도시는 메시아 학교가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나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이와 같이 종종 많은 사람들이 로비 활동을 통해 유리한 지역으로 배치 받게 된다!

2) 선교사 아내들을 위한 문제

아주 소수의 선교단체들만이 선교사로 파송된 아내들을 사역에 사용한다. 그 이유는 남자들만이 진정한 선교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만일 아내가 남편을 따라갈 수 없다면 그 가족은 강제로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 아내는 자녀들과 도시 근처에 남아 계속 직장을 다니며 아이들 또한 학교에 갈 수 있게 된다. 덧붙여, 대부분의 선교사 아내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 남편들이 훈련받는 동안 아내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을 내조한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측면들은 변화하고 있다. 어떤 선교단체들은 문맹인 아내들을 위해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다

나은 아내, 엄마, 주부, 내조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어떤 훈련기관들은 목회자/선교사 부인들을 위해 훈련 프로그램에 전도와 다른 관련 과정을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아가페 선교회와 갈보리 사역은 기혼 남자나 여자가 상대 배우자와 떨어져서 훈련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소명을 갖고 훈련을 통과해야만 하며 비록 부부지만 둘 다 선교사로서 파송 받아야 한다. 아가페 선교회는 교육 배경이 없는 선교 지원자들을 위해 기초적인 훈련 교과 과정을 발전시켰다. 이 과정은 읽고 쓰는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선교 지원자들의 아내들이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졸업 이후 남편들과 함께 사역하는 정식 동역자로서 파송을 받았다.

신생 파송기관들은 대체로 선교사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준비가 갖추어 있지 않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편/아버지, 가장의 사망 이후 홀로 남겨지는 아내/엄마와 아이들의 잊혀진 선교사 가정들이 그 경우이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어떤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송기관들은 그러한 가족들의 슬픔과 필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많은 선교사의 미망인들과 자녀들이 잊혀지고 있다. 당연히 그들은 생존을 위해 선교지와 선교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매우 적은 소수만이 남편들의 죽음을 이어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남는다.

카메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한 선교 지도자는 그 기관 소속의 두 선교사들의 비극적인 상실에 대해 말했다. 한 선교사는 그의 오랜 지병으로 인해 아내와 두 아이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다. 다른 선교사는 그의 아내와 7명의 아이들을 남긴 채 끔찍한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첫 번째의 경우, 남겨진 두 아이들은 사망한 선교사의 불신자 친척에게 보내졌다. 그러나 그 선교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배척하였으므로 그가 죽기 전 가족들로부터 배척되었다. 이것을 알게 된 선교 지도자는 죽은 선교사의 마을로 들어가 단독 협상을 통해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그들의 엄마에게 데려왔다. 교통사고로 죽은 선교사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 지도자의 가족과 함께 살도록 데려왔다. 선교회가 죽음과 보살핌의 영역에 대한 아무런 정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선교 지도자는 사람들의 상실과 실제적인 후원의 문제를 돕

는 일로 씨름하고 있다.

3. 선교사 자녀 교육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된 선교사들 역시 그들의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문제에 대해 크게 갈등하고 있다. 한 예로, 노엘은 이 문제 때문에 선교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통보를 받자 위원회 지도자들은 지혜롭게 노엘을 선교본부에 초청하여 지도자와의 면담을 주선하였다. 노엘은 탁월하고 아주 유능한 전도자였고, 미전도 종족 지역을 뚫고 들어간 교회 개척자였으며, 예수라는 영화로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 열정적인 선교사였다. 노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였다.

하지만 그가 가진 “육체의 가시”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였다.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노엘과 그의 아내는 다른 도시에 있는 그의 친척에게 아이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들은 불신자들이었다. 노엘 자신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노엘의 아내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 만일 아내가 소정의 교육이라도 받았더라면 자녀교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노엘의 마음과 양심을 계속하여 괴롭힌 것은 그가 아이들을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의 상태가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점이었다. 그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던 습관과 버릇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둘째 아이는 도둑질과 거짓말, 그리고 저주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은 노엘을 비탄에 잠기게 했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그를 자극했다. 노엘은 눈물을 머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의 사직은 소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때문에 행해졌다.

노엘은 선교 지도자와 면담을 하며 그가 어떤 것을 겪어야 했는지 솔직하게 나누었다. 그 지도자는 메시아 학교에 있는 우리에게 한 통의 서신과 함께 노엘을 보냈다. 메시아 학교는 노엘이 기쁨으로 선교지 사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으며 그의 자녀들은 매우 저렴한 학비로 메시아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교는 그들의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후원자들과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노엘은 진실로 사역지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

던 것이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엘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직 끝이 아니다. 메시아 학교는 여전히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문제와 아이들이 부모의 기독교적 영향과 보살핌 아래 성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고심해야만 한다.

기억나는 또 다른 사람은 말람 아다무이다. 그는 북쪽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차드의 유목민들 가운데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이슬람교 마을에 영향을 끼쳐왔던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었다. 하지만 사역지를 순회해야 하는 사역의 특성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사역했던 지역에는 코란을 가르치는 학교 외에 다른 학교는 없었다. 적합한 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아다무의 친척들은 모두 이슬람교도였으므로 아다무는 자녀들 중 어느 누구도 그의 친척에게 보내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므로 아다무는 메시아 학교를 소개받기 전까지 궁지에 빠져 있었다.

가장 유별난 경우 중의 하나는 스와질랜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비와 자넷의 경우였다. 그들에게는 세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큰 아이는 나이지리아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영어와 모국어 나이지리아 언어를 아주 잘 한다. 둘째 아이는 모잠비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오비와 자넷이 그곳에서 몇 년간 사역했기 때문이다. 그곳의 교육은 모두 포르투갈어로 행해진다. 그들이 스와질랜드로 옮겼을 때, 아이들의 학업 때문에 동료 가족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맡겨야만 했다. 막내는 오비와 자넷과 함께 스와질랜드에 있고 약간의 영어와 스와스티카 언어를 말할 수 있다.

모국어와는 다른(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육 시스템도 다른) 프랑크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자녀들을 위해 국제학교를 보낼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니거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을 때 집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친척들에게 보내진다.

오비와 자넷의 가족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문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것 이라기 보다는 세 아이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점이었다. 부모들은 그들을 파송한 선교위원회와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려 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선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대해 자신들이 불평하거나 험담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차라리 그들은 괴로워하고 침묵으로 견디거나 혹은 그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많은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그들의 고통이나 마음의 상처에 대해 침묵하기를 선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선교지를 떠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이 선교단체를 황급히 사임하거나 물러난다.

조와 램 부부는 라이베리아에서 섬기고 있었고 전쟁으로 그곳을 탈출해야 했다. 나이지리아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들은 불어가 공용어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부르시는 것을 느꼈다. 문제는 영어권인 라이베리아에서 이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이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다. 메시아 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고 그들 없이 선교지로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헤어짐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비행기표를 사줄 수 없었던 그들의 무능력이었다. 이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메시아 학교는 그들의 선교단체의 지도자들을 접촉하여 최소한 1년에 한번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선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은 선교사 가족의 문제이고 그들 스스로 그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6년 전 토고에서 남편과 나는 뛰어난 교회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두 가족을 만났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더 이상 선교사역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가족은 16살에 학교를 그만둔 19살 난 아들이 있었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불어로 교육을 받았다. 그의 부모들은 그가 불어 학교에서 계속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국제학교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그를 나이지리아로 보냈다. 불어 학교 배경을 가진 그 아이에게 나이지리아의 영어 학교 시스템은 맞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는 학교를 그만 두게 되었고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그의 여동생 역시 비슷한 문제를 갖게 되었으나 일찍 결혼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수습했다.

토고 북쪽에서 약 50개의 교회를 개척한 두 번째 가족은 동일하게 비극적

인 경험을 했다. 그들은 국제학교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토고의 수도에서 두 세 시간 운전 거리에 있는 나이지리아의 한 도시에 있는 학교에 그들의 자녀들을 보냈다. 그들은 자녀들이 살 수 있는 한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다섯명의 아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령이었다. 부모 중 한 명이 두 달에 한번씩 교대로 그들을 방문했다. 중국에 그들은 이러한 해결방식의 부정적인 결과와 위험을 깨닫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제일 좋은 해결책은 교회 개척자로서의 사역을 접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나는 최근에 추억에 잠겨 어떻게 학교를 마쳤는가에 대해 말하는 차드에서 온 성인 MK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선교사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교까지 가기 위해 어떻게 3일 동안 말을 타고 다녀야 했는지 이야기 했다. 말을 타고 학교에 가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의 동생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되었고 문맹이 되었다. 선교사 자녀교육이 과연 이렇게 밖에 행해질 수 없는가?

어떤 선교단체들과 교단 선교단체들은 선교사 자녀교육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선교사 가족을 위해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그 지원금은 자녀들의 학년에 기준하여 수업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부모들이 초과되는 비용을 감당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메시아 학교는 선교사 가족을 섬기는 사역의 일환으로 자녀 교육비의 30-80%를 항상 면제해 주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일해 왔다.

다른 긍정적인 발전은 3년 전 한 복음적인 그룹(ECWA)이 서부 아프리카에 선교사 자녀 기숙사를 시작한 것이다. 현재 그곳에는 연령과 학년이 다른 약 75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숙박하고 있다. 어떤 아이들은 조기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혹은 미래 학교)을 사용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통과하는 한편, 대부분의 아이들은 서부아프리카의 복음적인 그룹(ECWA)의 스텝들의 자녀들이 있는 인근의 학교를 다니고 있다.

4. 육체적인 건강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건강은 여러 면에서 많은 배려를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계속되는 보건시설은 마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시 “소방원”의 필요를 인식하게 된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건사역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들은 많은 지역에서는 사치로 여겨진다. 선교사들이 있는 대부분의 시골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아프기 전까지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지 않는다. 만일 문제가 있을지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 되기까지 병원에 가는 것을 주저한다.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와 이질과 같은 질병들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들이 싸워야만 하는 평범한 질병들이다. 말라리아는 매우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으로 자신들을 치료하고 있다. 선교기관에서 행하는 정기 건강검진은 보통은 실시되지 않으며 대개의 경우 선교사들을 검진할 수 있는 지정된 전문의 조차 없는 실정이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자원하여 선교사들을 돕는 크리스천 전문의들은 있을지 모른다. 이들 의사들은 상담과 치료를 위해 치료비를 할인해 준다. 어떤 선교단체들은 전문 병원, 클리닉, 선교사들의 상담과 치료를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선교단체 소속의 선교병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아프리카 선교사들이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세운 병원이나 클리닉을 들어보지 못했다.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스트레스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선교사들에게는 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일하고 또 일한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몇 년 동안 휴가가 없는 사역, 충분하지 않은 지원, 가족과 자녀들의 문제, 시민전쟁이나 종교 전쟁,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 등을 포함한 많은 요인들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했던 한 나이지리아의 선교사 가족의 자녀들은 아직도 “시에라리온”이라는 이름만 언급되면 병적인 반응을 보인다. 유엔 평화봉사단에 의해 그들이 구출되기 전까지 그들은 반란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몇 번이나 잊지 못할 힘든 경험을 했다. 어느 누구도 이 아이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 그 가족은 시에라리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아직도 선교사로 섬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충격과 전쟁의 상처로 인해 계속되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한 선교사가 다섯 사람 몫의 일을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과중한 일들로 인해 선교사들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탈진을 피할 수 있는 정기적인 휴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휴가나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휴가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사역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사역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휴가를 갖는 것은 영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교사가(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지도자가) 10년의 사역 동안 단 한번도 휴가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가족과 함께 여행 할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휴가를 떠나고 싶어한다.

선교사 탈진을 목격한 선교 지도자들은 선교사의 건강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단계로서 어떤 지도자들은 “재충전” 과정을 위해 선교사들을 소환한다. 이러한 충전/휴식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 자신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선교지를 얼마동안 떠나게 함으로 그들에게 휴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 예로 나이지리아 복음주의 선교협회(Nigerian Evangelical Mission Association, NEMA) 소속단체들은 NEMA 자체 기관에 의해 조직된 단기 과정이나 회의에 그들의 선교사들을 보낸다. 이 과정은 2-3주 혹은 몇 달 동안 계속된다. 이 기간은 선교사들에게 배움을 위해 죽히 긴 시간이 되며 반면에 사역을 오래 비우지 않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단기간의 시간을 허락한다.

5.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많은 경우 파송교회나 선교단체들은 소속 선교사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기도 후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기도 후원은 경제적인 후원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다양한 연령층의 다락방 그룹들과 함께 교회들은 주요 파송 국가들에 있는 선교사들을 기도로 후원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동원된다. 여성들의 기도모임은 이러한 종류의 후원의 최전방에 있다.

오순절 교회의 배경을 가진 선교사들은 오늘날 소속 선교사들이 섬기고 있는 지역들이나 종족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영들에 대항하여 기도와 영적 전쟁을 위해 훈련을 받는다. 사실 어떤 선교학교들은 커리큘럼 안에 영적 전쟁이나 능력대결을 한 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금식기도(예를 들어, 먹지도 그리고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는 아프리카 선교 사역의 일부가 되었다. 능력대결을 준비시키지 않은 교회의 배경을 가진 선교사들은 힘들게 그 방법을 터득해야 했다. 어떤 파송기관들이나 교회들은 사탄의 공격을 통한 희생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믿어야 했고 능력대결과 영적 전쟁을 위한 적합한 준비를 취해야 했다.

영적 전쟁의 한 예는 세네갈에서 섬기고 있던 5명의 선교팀(한 부부와 세 명의 독신들)에게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팀 리더는 온 몸에 설명할 수 없고 참기 어려운 통증이 퍼져 나감을 느꼈다. 그는 앉을 수도 누워 있을 수도 없었다. 그를 진찰한 모든 의사들은 그 증상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견디기 힘든 지속적인 두통을 겪었다. 매우 유능한 타문화권 남자 선교사는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다. 팀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기 선교사인 젊은 여성 뿐이었다. 선교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위협을 감지한 팀 리더는 선교 본부에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초보자인 단기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우울증에 걸린 동료 선교사를 동반하였다.

아픈 동료와 함께 본부 사무실로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왈각 울음을 터트렸고(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을 것이다) 세네갈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분을 그렇게 울었다. 긴급 기도 요청이 모든

기도 후원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선교 지도자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그 팀을 방문하여 기도하기 위해 세네갈로 갔다. 한 주간 만에 모든 선교사들은 어떤 의학적인 개입이나 설명 없이 회복 되었다. 하지만 본부로 호송된 선교사는 오랫동안 선교지에 돌아갈 수 없었다. 사실 그가 선교지에 갈 수 있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그는 동일 지역의 선교지가 아니라 다른 선교지로 가야 했다. 그것도 여러 달 동안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은 후에야 가능했다. 이 모든 과정의 사건은 영적 전쟁에 포함되며 실재하는 신체적, 감정적 문제들로 사단으로부터 기인된 것이었다.

6. 미래의 방향

2000년 5월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에서 “선교 아프리카”로 불린 선교대회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선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다. 이 대회 기간동안 AEA/EMC는 아프리카를 위한 멤버케어 과정을 출범하였다. 그 과정은 특별히 선교 지도자들 가운데 멤버케어의 필요와 자원들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전략은 선교 실행 위원회와 지도자들을 위하여 각 대륙의 지역에 멤버케어 인식을 고양하는 세미나와 협의회들을 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멤버들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목적 성취에 커다란 장애물로 제기되었다. 특히 전화시설이 좋지 않고 우편제도가 지나치게 느린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제기된다.

2001년 7월 EMC는 카메룬에서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멤버케어 회의를 소집했다. 모임에는 선교 및 교회 지도자, 목회자, 선교사들이 참석했다. 그 시간들은 매우 소중한 시간들이었으며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케어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 되었다. 우리는 2002년에 멤버케어 인식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모임을 위해 보다 많은 책임자들이 초청되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지역을 위해 지역 멤버케어 위원회가 세워졌고 그들은 그 지역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케어의 필요를 조사하며 함께 사역하게 될 것이다. 2002년을 위해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실행 위원회들과 선교단체들의 인사 책임자들을 위해 멤버

케어 훈련이 준비 중에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여행은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항공편은 더욱 그러하다. 아마도 세계 어느 지역보다 가장 많은 여행 경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필요는 우리에게 큰 부담을 안겨다 준다. 덧붙여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의 불안정한 정세는 멤버케어/선교 대회를 기획하고 참석하기에 어렵게 한다. 예를 들면, 카메룬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한명도 참석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현 정부를 와해하려는 시도와 반란에 의해 조성된 불확실한 정세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아프리카 선교는 크게 진보하였다. 멤버케어에 대한 인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선교사들을 효율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속한 시일 내에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멤버케어에 참여하며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도한다. 우리의 스텝들이 선교지에서 주님을 섬길 때 보다 나은 준비와 돌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우리의 선교적 노력은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다.

7. 토의 주제

1. 아프리카에서 멤버케어를 발전시키는데 주된 장애물은 무엇인가?
2. 아프리카 파송 교회/기관을 위한 전형적인 멤버케어 프로그램/방식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멤버케어 프로그램/방식은 당신의 파송 그룹과 어떻게 비교 되는가?
3. 아프리카 선교사 아내들과 선교사 자녀들이 갖는 도전들에 대해 재검토하라. 그들을 후원하고 선교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4. 조직 내에서 그리고 지역적인 수준에서 멤버케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인들이 아프리카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열해 보라.
5. 이 글에 제시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예들을 검토하라.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왜 그러한가?

† 참고문헌 †

- Adeyemo, T. (1997). *Is Africa cursed?* Christian Learning Material Centre.
- Anyomi, S. (1997). Mission agency screening and orientation and effect of attrition factors: Perspective the new sending countries. In W. Taylor (Ed.), *Too valuable to lose: Exploring the causes and cures of missionary attrition* (pp. 229-239).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Famonure, B. (1989). *Training to die: A Manual for discipleship*. Jos, Nigeria: CAPRO Media Services.
- Famonure, B., Famonure, N., & Chilver, A. (Eds.). (1997). *Training God's servants*. Nairobi, Kenya: Association of Evangelicals of Africa.
- Johnstone, P. (1993). *Operation world*. Carlisle, Cumbria, UK: OM Publishing.
- Newto, A. (1992) *West Africa: A travel survival kit*. South Yarra, Victoria, Australia: Lonely Planet.
- Olande, T. (2000). *Equipping for the harvest*. Jos, Nigeria: CAPRO Media Services.
- Richmond, Y., & Gestrin, P. (1998). *Intro Africa: Intercultural insights*.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 이 글을 교정하고 검토해 준 바오 파모누어, 클레멘트 아네그베, 앤드루 아바 그리고 에스더 제임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편집자의 메모: 이 책이 출판되기 전 메시아 학교에 있는 소년 기숙사가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학교를 적대하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화재로 파괴되었다. 메시아 학교는 그 나라의 다른 기독교 학교들과 같이 학생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

제 11 장

북아프리카에서의 멤버케어: 사막에서의 삶

만 일 누군가가 내게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무엇 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즉시로 멤버케어를 위해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그 소리를 떠올릴 것이다. 이 소리는 기차역 타일 위에 짚까닥 소리를 내는 내 작은 여행 가방에 붙은 바퀴 소리이다. 그 여행 가방에는 몇 벌의 갈아입을 옷이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건네줄 편지와 선물들로 가득 차 있다. 멤버케어를 위한 나의 출장은 북아프리카와 그 근처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면서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고 있다. 현지의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그 소

* 안케 티싱(Anke Tissingh)은 간호사로 네덜란드에서 태어 나고 자랐다. 1976년에 예수 전도단에 합류해서 1983년에 북아프리카에 갔다. 그녀의 남편 게리(Garry)와 함께 북아프리카에 있는 예수 전도단 팀을 이끌고 있다. 그녀의 주요



안케 티싱 *

시기적절한
선교지 방문,
건강한 팀,
적당한 오리엔테이션과
좋은 관계들은
목마른 영혼에게
시원한 물과 같다.
특별히 영적으로
황폐화되고 소외된
북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현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중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막인 이곳에 교회가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놀랄만한 확신과 희생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

1. 배경

비록 북아프리카가 사막 전체를 다 포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북아프리카는 광활한 사하라 사막으로 알려져 왔다. 사하라 사막은 북아프리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크기는 미국보다 크다. 그 사막을 중심으로 약 1억의 인구가 도시와 천막과 마을에 살고 있다. 북아프리카의 약 98%가 이슬람교도들인데,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손님 접대를 좋아하며 자주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열린 사람들이다. 바로 이 사막에 심겨진 씨가 물을 공급 받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북아프리카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때에 영적인 번영이 있을 것을 믿는다. “사막에 꽃이 피게 될 것이다”(사 35:1)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이 지역에 대한 선교의 노력은 약 100년간 지속되었다. 우리는 북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있다. 그들 중에는 그들의 노력에 대해 어떤 열매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 북아프리카 교회에 기쁨과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국가들에서 교회는 그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훈련의 필요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북아프리카 신자들은 주제들을 선택하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다. 내적치료와 올바른 관계 뿐만 아니라 축귀 기도의 중요성을 그 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기 전에 민속 이슬람 혹은 널리 퍼져 실행되고 있는 미신적 관습을 통하여 귀신들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사역은 선교지에 있는 예수 전도단 팀의 멤버케어와 다른 선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현재 그녀는 북아프리카를 위해 멤버케어 사역 그룹을 조정하고 있다.

Email: 100767.527@compuserve.com

남편 게리와 나는 1980년 초부터 북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팀들을 인솔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주된 역할은 사역을 돕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비전을 갖고 장기적인 목적을 세우며, 선교지에 정착하여 효과적으로 사역하도록 도왔다. 우리의 후원은 목회적 케어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었다. 우리는 자주 깊은 감동을 받곤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방문이나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아주 작은 선물에 대한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주님은 그들의 동료들과 리더들, 특히 위로자이시며 목자되신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기억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글들과 방문들을 사용하신다.

최근의 선교지 방문 동안 나는 그 나라의 남부 지방까지 1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갔다. 다음날 나는 그 마을에서 보건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작은 여성 팀을 방문하기 위해 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산을 넘어 그곳에 갔다. 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갈 수 있었다는 것,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다. 정찬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며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그 대답을 읽을 수 있었다. 단지 내가 그들 때문에 그렇게 먼 곳에서 왔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었던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나의 어떤 말보다 더욱 더 소중한 것이었다.

2. 스트레스 요인과 전략

우리는 사역자들의 신체적, 영적, 감정적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와 사역에 약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1) 신체적 건강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되어 왔다. 현지인들과 같이 사역자들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부족, 값비싼 고기, 부족한 물의 공급, 말라리아, 콜레라, 장티푸스, 뇌수막염과 같은 질병의 문

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사역자들이 있는 곳들은 치료가 불충분하거나 전혀 없는 곳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적인 건강관리와 창의적인 방법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 사역자들에게 인접 국가의 지부 사무실에 있는 간호사들과 전화로 상담하도록 격려한다. 워너(Werner, 1992)의 『의사가 없는 곳』(Where There is No Doctor)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되었다. 우리는 또한 사역자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2) 언어 스트레스

언어 습득은 최대 스트레스 요인이다. 북아프리카에서 사역자들은 최소한 두 개, 어떤 경우에는 세 개의 언어(불어, 아랍어, 부족어)를 배워야 한다. 학교 교육 때문에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들이 사역하는 언어를 배우지 않을 때 부가적인 스트레스가 생긴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불어 학교에 가고 그 부모들은 아랍어로 현지인 가정을 인도하는 경우이다.

3) 사역 스트레스

개인이 “선교지에 머물 이유”, 즉 그 개인과 가족에게 체제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적합한 직업을 찾는 일은 가장 도전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가 된다. 사역자 중 한 사람은 그들의 고민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것은 마치 두개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비밀’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복음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공적인 삶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직업이 존재한다. 어떻게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료적 형식주의는 사역자들을 매우 피곤하게 할 수 있고 압도할 수 있다. 사역자가 합법적인 일을 시도하고자 할 때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일들과 함께 “어떻게 내가/우리가 북아프리카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최상의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사역자에게 상당한 당혹감을 줄 수 있다.

사역자들은 종종 “합법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예를 들면,

사역자들은 아침에 집을 떠나서 온종일 직장에서 보내야만 한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이웃들이 그들을 늘 감시하기 때문이다. 사역자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직장에서 소비하므로 전도와 제자훈련, 그리고 교회개척을 위한 시간은 극히 적어지게 된다. 그곳에는 어떻게 그 문화와 연계하여 사역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서도 없다. 사역자들은 그들보다 경험이 많은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며, 때로는 팀 멤버들이나 다른 동료들이 그들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해야 할 때가 있다.

4) 영적 건강

척박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환경에 정착하기 전에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한다는 확신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나는 훈련된 헌신적인 삶의 양식을 포함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동안 남아 사역하는 것을 보았다. 특별히 이러한 것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5) 인간관계

건강한 관계를 가진 바람직한 팀조차도 외로움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사역이 너무 힘들 때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의 균형과 행복감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훈계를 피하기도 한다. 북아프리카에는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외식을 하고 공원이나 해변을 산책하며, 영화를 보러가는 것과 같은 기분전환을 위한 기회들을 제한해야 한다.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결혼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소외되며 외로움을 경험한다. 그들은 사역을 위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선교지에 왔다. 비록 그들이 자녀나 언어 그리고 문화로 인한 그들의 한계를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함께 믿음을 나누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깊은 영적인 사귀기를 가지기 원한다. 극히 소수의 사람

들 만이 그러한 우정을 키울 수 있는 곳에 체제하고 있다.

비록 선교팀 내에서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관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팀 멤버들 각자가 이미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을 때, 당신의 약점을 나누고 드러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나는 각 개인에게 “믿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지도록 격려한다. 예를 들면, 언제라도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긴장은 해소하고 있는지, 정해진 목표는 잘 해내고 있고 사회 활동은 어떠한지, 외롭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결혼 생활은 어떠한지” 등과 같은 난해한 질문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 현지 사역자들은 나와 이러한 형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고 있고,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이메일을 통해 나누고 있다. 많은 경우에 이메일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우정, 외로움, 신뢰의 문제들은 이곳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선교회도 마찬가지다. 기대나 상처 없이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때로는 가슴 아픈 과정들을 거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북아프리카인들과 우정을 쌓기 위한 노력에서 “그들이 내게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의아해 하기도 한다. 아마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나를 친구로서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서양에서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서류를 획득하도록 도와주거나, 그들에게 적당한 동반자를 찾아주든지, 혹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길 바라는 것인가?

6) 부부와 자녀

언어를 배우고, 현지인과 관계를 쌓고, 팀을 세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 부부들은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생활에서 의사소통의 기술은 부부가 선교지에 오기 전에 배워야 한다. 올바른 방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배우자나 동료 사역자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부부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부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며 결혼생활을 강화시킨다.

자녀 교육을 위한 완전한 선택은 없다. 부모들은 책을 읽고, 다른 부모들과 대화해야만 하며 때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한된 지역에 사는 경우 자녀들과 부모와의 대화이다. 자녀들은 고국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모든 장난감이나 기회를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은 보다 폭넓은 문화적인 지식을 갖는다. 부모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한 의사소통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신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대개 부모들이 생경한 도전적 환경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한다.

7) 독신 사역자

사역지에서 독신들은 선교의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다. 예를 들면, 독신 여성들은 결혼한 사역자들보다 관계를 쌓고 사역을 하는 데 더 많은 여유를 갖는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건강관리 교사로서 그들의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심어왔다. 독신여성들에게 특별한 도전은 그들이 그들의 작은 숙소에서 혼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혼자 있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남녀 모든 선교사들에게는 어떻게 건강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취미 생활을 하며, 특히 현지인들과 강하고 오래 지속될 우정을 쌓아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가끔 독신들은 그들의 특별한 감정적이고 영적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독단적인 필요가 있다. 팀 리더들, 혹은 부부들이 독신들의 특별한 필요를 항상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8) 팀

북아프리카는 개척자들에게 매혹의 대상이 된다. 고결한 생각들로 고무된 사람들이 그들의 비전과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전반적으로, 그들은 값비싼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훌륭한 헌신된 사역자들

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 모두가 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나 좋은 팀원이 되거나 리더십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팀 사역을 돕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종류의 갈등은 팀에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강한 이상가들은 그들의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방식에 따른 긴장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팀 생활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온 신입 사역자들은 작은 규모의 그룹에서 협력 사역자로 “갇혀” 있게 될 경우 아연해 할지도 모른다. 결국 동료들, 심지어 같은 비전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중재와 상담 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사람들은 단순히 헤어지는 것을 선호하게 될 수 있다. 미개척지 상황에서 우리는 실제적이 되어야 하고 사역자들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는 이러한 힘겨운 갈등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깨어진 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거운 죄책감으로 갈등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 리더들을 가르치고 조언해야 하는 점증되는 필요를 보았다. 우리는 리더들이 사역자들을 수정하고, 지도하며,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그들의 리더십을 더 발전시키고 행정적인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종종 사역자들 중에는 상관에 대한 대단한 충성심 때문에 그들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말을 삼가한다. 팀 멤버들이 채워지지 않은 기대들에 대해 나누자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신입 사역자들은 비판으로 들릴까 염려되어 그들의 관심을 쉽게 나누지 않는다. 그러므로 케어 제공자로서(caregivers) 사역자들에게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관심에 관하여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팀 모두가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역자들이 그들의 팀, 직장 그리고 선교기관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우정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9) 오리엔테이션

팀들과 팀 멤버들은 그들의 사역 기간과는 상관없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적당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좋은 오리엔테이션은 문화 소개, 현지인의 생활양식, 사역에 대한 기대, 이전에 경험한 언어 학습과 타문화권에서의 생활, 사생활, 손님접대, 자녀 교육 등이 포함된다. 민감한 논점들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어떤 면에서 나는 나의 인간관계를 향상 시켜야 하는가? 내게 쓴 뿌리, 혹은 해결되지 않은 깨어진 친구관계 등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나는 확대하는 지도자 아래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어떻게 두려움을 처리하고 있는가?(두려움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것이고 이슬람은 두려움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외로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감옥에 갇힐 가능성과 독신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각오하고 있는가? 이러한 모든 논점들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해결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것들은 자신을 헌신하기 전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첫 선교사역 기간 동안 독신 여성들을 다른 가족들과 함께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그 팀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배치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들을 혼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신 남성들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오리엔테이션은 거지들과 같은 빈곤의 문제와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근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시켜야만 한다. 독신으로서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당신의 헌신의 정도를 사전에 점검하라. 그리하여 당신의 마음 속에 헌신에 대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직하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초보 사역자들은 자신의 삶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직면하게 될 스트레스에 대해 인식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삶의 장애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우리는 북아프리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역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

고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역자 개개인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짐을 지기 위해 헌신된 사람들임을 재확인하길 원한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도록 돕는 “도구”(mechanism)는 멤버케어 사역 그룹(Member Care Working Group)이다. 이 그룹은 북아프리카 협력 기관 산하에 8개의 단체를 대표하는 멤버케어 동료들의 초교파 연합 기관이다. 이 그룹은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멤버케어 노력에 함께 동참하고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 방문/세미나를 계획할 수 있는 훌륭한 토론장을 제공한다. 이 그룹은 일년에 약 4회 소집되며 시작된지 8년이 되었다.

10) 이동과 사역보고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들이 현지를 떠날 때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사역자들과 이야기할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나는 일주일 동안 하루 1-2시간 대화할 것을 권한다.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 좋았던 경험과 나빴던 경험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성공했고 무엇을 실패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지도자로서 앞으로 다르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유익한 것을 남기고 가는가? 누구에게 작별인사를 했고 어떻게 했는가? 당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는가? 당신이 떠나며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는가? 긴장을 풀고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다음 지역, 혹은 고국에서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가? 새로운 사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현지 사역을 마감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다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보다 쉽게 여겨진다.

3. 거룩한 씨

북아프리카의 신자들의 삶, 특히 초신자들의 삶은 매우 힘들다. 이슬람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가족의 커다란 압력이 존재한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

로 선택할 때, 많은 배척이 뒤따른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은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참고 견딜 때 깊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들이 가족으로부터 단절되며 가까운 혈연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직장을 잃는 것과 같은 헌신의 대가를 보게 된다. 주님과 사역을 향한 그들의 강한 헌신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

이러한 특별한 외국인 사역자들과 현지인 형제들이 주님의 발 앞에 함께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며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허락하시길 바란다. 하나님의 영이 북아프리카에 임하시길 원한다. 거의 13세기 동안 잠자고 있는 교회의 거룩한 씨가 다시 한번 많은 싹을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4. 사례 연구: 공동생활, 팀 갈등

다음은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가상의 팀 사례연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많은 팀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독일인 선교사 엘리자베스는 약 4개월 전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팀과 합류했다. 엘리자베스의 일은 분명하지 않았다. 덥고 먼지가 많고 매력 없는 도시는 그녀에게 커피를 마시러 나간다가나 혹은 자전거를 타고 석양을 감상하며 산보를 즐기는 것과 같은 휴식의 시간을 갖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소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느꼈고 선교지에서 성공하기를 원했다. 그녀는 문화적으로 남자와 친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팀은 세 명의 여성 독신 선교사와 두 쌍의 미국인 부부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엘리자베스는 그녀와 집을 함께 쓰는 동료들(해영이라는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과 칠레에서 온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 콘치)과 긴장관계에 있었다. 최근에 엘리자베스가 본부에 책임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해영의 문화와 라틴 아메리카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엘리자베스의 “너무 다름”에 대해

콘치의 부정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영은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신뢰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이 문제는 문화적인 것보다 성격문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대화로 해결하길 원했다. 하지만 콘치에게는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콘치는 사회적으로 많은 일에 헌신했고, 때문에 그녀의 우선순위를 기도와 사역을 주로 토의하는 팀 모임에 두었다. 처음에는 식사 시간을 관계 형성을 위해 할애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나 해영은 자신의 음식을 더 선호했고 콘치는 동료들과 단지 두 번 식사했을 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팀과 함께 문화 유대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했다. 하지만 사역 리더는 엘리자베스가 처음부터 현지인 가족과 함께 있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현지 생활양식”에 익숙해지고 현지 언어에 몰두하기 위해 다른 선택을 찾아야 했다.

사역 리더는 엘리자베스를 재배치 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몇 주안에 두 가족이 떠날 것이고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서 온 가족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곧 언어 훈련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팀은 앞으로의 팀의 변화와 종결에 대해 토의하였으나 엘리자베스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팀이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불어였다. 하지만 불어는 어느 누구의 모국어도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도시에 막 영입한 다른 단체의 선교사 가족과 살길 원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를 초청하고 그녀에게 방을 따로 내주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가 자녀들을 위해 홈 스쿨링을 해줌으로서 그들의 짐을 덜어주기를 바랐다. 다른 선교회 가족과 함께 머문다는 것에 대해 팀 멤버들은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 해영과 콘치는 “그렇게 이사한다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증인적인 삶은 무너지고 말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함께 머무는 것을 원했지만 그녀가 이러한 압력들, 특히 보이지 않은 콘치의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몰랐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했다!

5. 토의주제

1. 사례 연구에 나타난 이 세 명의 독신 여성들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인가?
2. 하루의 과제와 사역을 마친 후 이 여성들이 긴장을 풀 수 있는 창조적인 것들로는 무엇이 있는가?
3. 신입할 수 있는 리더는 현지 방문을 통해 어떻게 이들을 돕고 그들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가?
4. 저자는 북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안들을 묘사하고 있다. 당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5. 외국인 사역자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들은 어떻게 다른가?

† 참고문헌 †

- Daniel, R. (1993). *This holy seed*. Harpenden, UK: Tamarisk Publications.
- Farmaian, S. (1996). *Daughter of Persia*. London, UK: Transworld Publisher.
- Hargraves, O. (1995). *Culture shock! Morocco*. Portland, OR: Times Editions.
- Mallouhi, C. (1994). *Mini-skirts, mothers, and Muslims: Modeling spiritual values in Muslim cultures*. Carlisle, UK: Spear Publications.
- Mernissi, F. (1998). *Doing daily battle*. London, UK: The Women's Press.
- . (1996). *The harem within*. London, UK: Transworld Publishers.
- St. John, P. (1990). *Until the day breaks*. Harpenden, UK: OM Publishing.
- . (1995). *Patricia St. John tells her own story*. Carlisle, UK: OM Publishing.
- Werner, T. (1992). *Where there is no doctor*. London, UK: MacMillan Press.

* 이 기사를 위해 도움을 준 게일 위트니(Gail Whitney), 앤디 리(Andy Lee), 그리고 미셸 마틴데일(Michele Martindale)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제 12장

서부 아프리카 이동 멤버케어 팀: 우리의 여행과 방향

나는 몇 년 전 우리가 받은 이메일에서 발췌한 편지로 이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 편지는 사역지에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한 선교사 부부에게서 온 것이다.

“무장 강도를 당한 후 몇 번이나 당신에 대해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당신이 이곳 서부 아프리카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첫 지원자가 될 수 있었지요. 우리는 최악은 아니지만, 선교지에서 가장 열악한 멤버케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과 듣지 못한 것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해진 것들과 또 그렇지 않은 것

* 달린 제롬(Darlene Jerome)은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이동 멤버케어 팀 서부 아프리카의 훈련과 인사담당 이사이다. 카메룬 지부에서 SIL(위클리프)의 인사 담당 이사로 9년을 섬겼고, 그 경험을 훈련, 멤버



달린 제롬 *

불안정한 지역에서 멤버케어를 시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동료들과의 상담, 주의 깊은 계획, 적합한 기술들, 팀 사역, 자문 위원회, 명확한 가치관과 목표들,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양질의 희생적인 서비스에 대한 헌신. 이러한 위기에 반응하는 팀은 본보기이며 이 팀은 위험이 높은 다른 지역에 있는 소규모 그룹들에게 길을 제공한다.

들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은 이러한 것이 누군가에게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서부 아프리카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수준 높은 디브리핑을 위해 당신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도부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만 내년에 있을 일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첫 번째의 것은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들과 조치들을 모든 선교회 지도자들에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1. 무엇이 이동 멤버케어 팀인가?

이동 멤버케어 팀(MMCT)은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훈련과 상담, 그리고 직접적인 위기 대처를 제공하는 선교단체간의 협력 사역이다. 피난, 납치, 자동차 강탈, 무장 강도, 강간, 도둑, 폭행, 중병과 같은 정신적 충격 사건들(traumatic events)은 오늘날의 선교사들이 점점 더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동 멤버케어 팀이 존재하는 것은 활동적이고 연민을 갖는 멤버케어가 선교사들이 위기 이후에도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적은 도전, 변화 그리고 위기 중에도 건강하고 충실한 섬김을 이루도록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첫 지역 이동 멤버케어 팀(MMCT 서부아프리카)은 2000년 5월에 사역을 시작했고, 중심지인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서부 아프리카를 섬기고 있다(세네갈에서 나이지리아까지 14개국). MMCT의 스텝은 각 전문 분야의 상담자들과 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자들이다. 이들은 간사들과 선교 행정가들을 위해 자문하며 디브리핑, 평가, 의뢰를 시행한다. 이 팀은 인간관계 기술, 위기 반응 영역에서 훈련을 제공하므로 선교사들이 위기에

케어, 행정, 팀 구축에 사용하고 있다. 달린은 SIL과 일하기 전에 타문화 관리와 훈련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건강관리/공동체 개발을 위해 2년간 라이베리아에서 일했다.

Email: darlene_jerome@sil.org

처할 경우 동료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한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선교 그룹 멤버들을 위해 훈련과 위기대처를 마련하도록 세계의 여러 전략적 지역에 이동 멤버케어 팀들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코트디부아르에서 한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모델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상황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standing on the shoulders of the giants before us)이 이동 멤버케어 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비전, 경험, 그리고 선교 전문가로 이루어진 설립자와 개발자들의 멤버케어에 대한 지혜로운 조언과 함께 우리는 흥분되는 모험을 시작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주님이 축복하신 우리의 여정과 비전 그리고 특별한 전략들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2. 개념에서 섬김으로의 여정

1997년 중반 멤버케어 운동의 여러 명의 리더들이 싱크 탱크(think tank)로서 멤버케어 사역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교 단체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였다. 여기서 표출된 주요 관심은 멤버케어에 대한 접근부족과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있는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의 필요였다. 이동 멤버케어 팀은 이러한 관심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비상근 컨설턴트로 여러 선교 단체를 섬겼던 위기 대처 전문가인 임상 심리학자 카렌 칼(Karen Carr) 박사는 이러한 팀의 잠재적 리더로 판명되었다. 그 후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열린 “정신건강과 선교” 대회에서 “싱크 탱크”는 좀 더 큰 그룹으로 이 팀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떤 종류의 서비스와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8년 3월에 핵심 그룹이 다시 만나서 사명 선언, 가치,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전략들을 세워나갔다. 이 그룹은 비전이 성취되도록 해외 고문단(Global Advisory Board)을 형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카렌 박사는 이 이동 멤버케어 팀에서 전임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부탁 받았다. 카렌 박사는 팀의 지도 그룹에 합류할 것을 내게 제의했다(나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팀

의 일원이고 인사 담당 이사(personal director)로서 9년 동안 성경번역 선교회(SIL) 카메룬 그룹을 섬겨왔다. 나는 타문화 훈련과 경영 분야의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마리온 디(Marion Dicke)이 팀의 일원이 되었다. 마리온은 조산원, 지도자 훈련, 선교 행정과 멤버케어 분야에서 15년 동안 자이레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 연맹/캐나다(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Canada)를 섬겼다. 현재 카렌 박사는 병원장으로 섬기고 있고, 나는 인사 훈련 책임자(personal and training director)로 그리고 마리온은 훈련/디브리핑 담당자로 사역하고 있다. 정신건강, 선교행정, 훈련의 결합은 이동 멤버케어 팀의 가치 기준과 전략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SIL 리더들의 조언을 토대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세계의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만일 우리가 여러 곳에 분산된다면 이를 수 없는 서비스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서부 아프리카에서 멤버케어를 시작할 것을 제의했다: 아프리카 지역의 멤버케어 자원의 부족, 이 지역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폭력과 위기 발생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기반, 그리고 내가 이미 아프리카에서의 삶에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 등이었다.

1998년 8월 카렌 박사와 나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을 방문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근거지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아비장은 통신 제도가 잘 발전되어 있었고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다. 여러 선교회들이 아비장에 지역적인 인사들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그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였다. 14개의 선교기관에서 24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가능성을 의논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확인했던 그 모임 전에 필요한 조사를 했다. 정신적 외상 사건은 흔하게 일어났지만 그에 대한 위기 대처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모임에서 8개의 선교기관을 대표하는 11명으로 된 한 그룹이 연락 위원회(Liaison Committee)로 조직되었을 때, 우리는 큰 격려를 받았다.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갖고 다음 20개월 동안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 대표 그룹은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연락 위원회는 여러 선교 단체로부터 9명의 지역 이사회(Governing Board)를 탄생시켰다. 이 이사회는 서부 아프리카 이동 멤버케어 팀에 팀 지도력, 조언, 책

임, 그리고 선교 공동체에서의 연락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서부 아프리카에 관해 보다 세밀하게 맞추어졌을 때, 해외 고문단은 지역 고문단에게 감독을 맡겼다. 현재 해외 고문단은 이동 멤버케어 팀이 사역을 시작할 다음 지역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20개월의 변화의 기간 동안 우리가 MMCT 비전 선언문을 조정하고 우리의 가치들을 설명하며 전략 문서들을 발전시킬 때, 고문단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상담과 후원과 전략들로 우리를 도왔다.

1) 사명 선언문

우리는 훈련, 멘토링, 상담, 즉각적인 위기 대처, 전문가 위탁을 제공하는 이동 팀과 더불어 동료들의 네트워크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가들의 후원을 통해 삶의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선교사들의 공동체를 계획한다.

2) 가치

- **섬김.** 우리는 주님의 종들로서는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것을 헌신한다.
- **동반자 협력.** 우리는 선교 단체의 지도부와 교회, 목회적 케어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한다.
- **정직과 성실성.** 우리는 성실과 진리, 약속을 이행하는 일에 헌신한다.
- **적극적인 케어.** 우리는 공동체의 힘과 활력을 증진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훈련과 관리를 제공한다.
- **접근성.** 우리는 적절하게 위기에 반응하거나 도움을 위한 요구에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
- **공동체 개발.** 우리는 동료 후원 네트워크와 자원의 나눔, 지역 멤버케어 프로그램의 운영을 촉진한다.
- **다양성.** 우리는 다문화적이며 다중학문적인 팀이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 믿는다.

■ 상호 후원. 우리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보호함으로 팀의 건강과 견고함을 유지하여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

3) 이동 멤버케어 팀의 특징

위에서 표현된 가치들은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을 가져온 프로그램의 특징들을 자연스럽게 산출하였다. 나는 멤버케어를 위한 MMCT의 특징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근접성

우리는 지정된 서비스 영역에 있는 선교 공동체가 쉽게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 이것은 그 지역에 체제하는 것과 필요할 때 여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 위기에의 초점

전략의 어떤 것들은 멤버케어의 다른 면들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위기관리이다. 비록 우리의 특성이 편협하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14개국의 서부아프리카는 광활하다. 따라서 이 지역을 여행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다. 만일 우리가 위기대처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원은 빈약하게 분산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팀에만 그 지역을 알고 있는 선교사 임상 심리학자가 있으므로 위기대처에만 초점을 맞추기란 쉽지않다.

선교기관들이 카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카렌에게 그들의 위기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위기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왔다. 예상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위기 상황을 보고한 것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조직망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망과 함께 일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절로 인해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지게 되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문의를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전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의 사역을 한정시키기란 너무 어렵다.

이러한 역동성은 이 지역을 위해 우리가 상담 혹은 멤버케어 센터의 필요

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아주 적절하게 배치되었음을 의미한다. 여러 선교기관들이 이러한 멤버케어 팀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발전을 환영한다.

(3) 다양한 전문분야(Multidisciplinary)

MMCT의 개념적 기초는 정신과 의사, 선교 행정가, 그리고 훈련자로 구성된 팀인데, 그들은 다른 사람의 역할과 도움에 대해 서로 존경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섬긴다. 우리는 이 세 분야로 구성된 팀을 갖게 된 것을 축복으로 여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그 분야를 증가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4) 선교 지도자들과의 협력

궁극적으로 선교 행정가들은 멤버케어, 특히 위기 상황에 대해 큰 책임을 진다. 그들은 처음의 필요를 평가하고 자원들을 분배하며 상황을 감독하고 위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우리의 소망은 선교 지도자들과 의도적으로 후원 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을 무장시키고 자문함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다.

2000년에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적 불안은 우리에게 선교 지도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었다. 정치적 불안, 거리의 폭력,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관해 멤버케어의 관심을 호소했다. 우리는 불안한 시기에 전략요점으로 “긴급대책 계획과 위기관리”에 대한 내륙 선교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고 19개의 기관에서 31명의 지도자들이 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자원, 전략들을 나누었고 내륙 선교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모임을 도우며 위기 상황에 멤버케어의 기초적인 것들을 전하는 감격을 맛보았다.

(5) 촉진하는 역할

우리는 선교 공동체와 상응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리된 사역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단체의 경계를 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선교 공동체가 상호적인 멤버케어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화시키고 준비시키기를 소망하고 있다. 대형 선교 단체들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소규모 선교 단체들은 그렇지 못하다. 확실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전방에서 서로를 위해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MMCT는 마지막까지 선교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돕는 일에 헌신했다. 공개토론회와 공동 연구회에서 선교기관들 간에 이러한 관계가 시작되고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일이다.

(6) 훈련에 대한 강조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일대일의 위기대처 서비스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치로 여겨진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약 5천 명의 미국 선교사들이 있다. 우리는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서 다른 선교단체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숫자와 점증되는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환경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가들과 동료들을 훈련하는 것과 미래에 그들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데 헌신하는 것은 중요하다.

(7) 적극적인 케어(Proactive care)

충격적인 사건들은 주위의 선교 공동체로부터 즉각적이고 적절하고 정성스러운 케어가 요구된다. 하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충격적인 사건 후에 누군가 뚜렷하게 괴로워하기 전에는 도움을 구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된다. 지도자들과 더 나아가서는 선교 공동체가 멤버 케어를 전형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교육을 통한 인식의 증대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 MMCT의 전략

MMCT의 사명 선언문, 가치들과 특징들은 여러 전략 선언문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것들은 인력, 위기 대처, 훈련, 동역 그리고 재정 전략을 포함한다.

1) 인력에 대한 전략

인력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우리는 MMCT의 스텝으로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하였다.

(1) 상주 인력

다양한 전문 분야의 스텝은 아비장에 거주한다. 그들의 역할은 MMCT에 행정적인 지도력을 제공하고 선교 행정가들과 동료 상담자들을 위한 훈련과 상담, 디브리핑, 심리학적 평가, 그리고 위기 사건 후의 간결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협력 인력

비상근 협력 스텝은 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현재 우리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 있는 약 20명으로 구성된 모임을 갖고 있다). 2주에서 2달 정도의 단기 서비스가 가능하며, 이러한 사람들은 워크숍 스텝으로 섬기며, 위기 후의 직접적인 케어를 제공하고, 리서치를 지원하며, 상담가로 섬기거나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가, 정신의학 전문가, 리서치 담당자, 불어, 독어, 네덜란드어를 구사할 뿐 아니라 다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한다. 더욱이 현재 상주 인력들이 모두 독신 여성들이므로 큰 그룹으로 볼 때 여러 명의 남자와 결혼한 부부들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3) 동료 상담자

사역의 크기 때문에(지리적으로뿐 아니라 선교사들의 숫자로도) 훈련된 동료 상담자들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형식적 혹은 비공식적 멤버케어 역할로 섬기는 개인들은 이미 위기적인 상황에서 동료들을 위해 디브리핑 담당자들로 섬기고 있다. 우리의 전략은 선교 단체에서 동료 상담자들로 인정된 선교사들을 훈련하여 “일상적인” 위기 사건들을 다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4) 선교기관 간의 동료 상담자

동료 상담자 그룹에서 우리는 보다 큰 선교 공동체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훈련시킨다. 훈련은 그들을 보다 심도있게 준비시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들은 MMCT 스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선교기관들도 섬기게 된다. 이러한 팀들은 MMCT 스텝과 계속되는 상담과 지도와 훈련의 관계를 갖는다.

(5) 컨설턴트

전문적인 상담 컨설턴트, 특히 정신과 의사와 같은 인적자원들은 인력을 위한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장거리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것이라 해도 이러한 후원은 효과를 증진시킨다.

2) 위기대처 전략

각 상황에 따라 MMCT는 아래에 묘사된 대로 여러 단계의 대처 방법들을 제공한다.

(1) 훈련

첫 번째 대처는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선교 지도자들과 동료 상담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적합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선교 지도자들과 동료들은 위기 상황에서 멤버들의 필요에 대응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멤버케어 수준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

(2) 간접적인 대처

위기가 발생했지만 그 결과가 심각하지 않아 MMCT 스텝이 직접 대처할 필요가 없을 때, 예정된 간접적인 대처 계획이 실행된다. 이 계획은 선교 지도자들과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지 동료 상담자들과의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장거리 상담을 포함한다. 동료 상담자들은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희생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후원을 위한 짧은 만남), 관련

된 그룹을 디브리핑하며, 선교회 책임부서와 MMCT 스텝에게 보고하는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 규정 원안을 취하고, MMCT 스텝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동료들을 지시하고 상담 한다.

(3) 직접적인 대처

위기의 결과가 심각하여 동료 선교사들뿐 아니라 선교 지도자들이 필요한 관리를 제공할 만한 자원이 없을 때, MMCT 스텝은 최선을 다하여 직접 대처한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환경 때문에 현장에 도착할 수 없을 수 있으나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동안 현지 동료 상담가들은 감정적인 응급처치를 행한다. MMCT 스텝의 도착과 함께 희생자들과 사건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위기를 당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관리를 받고 선교 리더들과 동료 상담가들은 상담과 자문을 받으며 장기간의 케어가 계획된다.

(4) 위탁(Referral)

때때로 최선의 대처는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탁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행될 수 있다.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MMCT에 충분한 전문가나 자원이 없을 경우 전문화된 분야에서 심리학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MMCT 스텝이 이미 다른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을 경우들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지만 위탁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최선의 경우가 되기도 한다. 멤버케어 기관들 혹은 은퇴한 개인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는 기독교 기관들과 선교사들의 필요를 인식하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서비스를 위탁한다.

3) 훈련 전략

서부 아프리카 MMCT는 선교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위기상황에 멤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동료 상담가들과 선교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무장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아래에 제시된 다섯 개의 워크숍(workshops)을 제공한다. 워크숍은 성인 학습 원리에 기초하며 지식, 기술,

그리고 각 참가자들이 훈련 상황에 임하는 태도에 근거해 구축된다.

(1) 대인관계 기술(Sharpening your Interpersonal Skills, SYIS)

위클리프 성경 번역자들/SIL의 켄 윌리엄스 박사에 의해 발전된 이 워크숍은 청취, 갈등 해결, 공동체 생활과 같은 성경적인 관계 기술로 멤버들을 무장시키고 격려하기를 희망하는 선교기관들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경을 강조하고 기도로 후원을 받는 훈련 환경에서 참가자들은 여러 다른 기관으로부터 온 28명의 선교사 그룹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을 4일 반 동안 받는다. 우리는 선교 공동체 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워크숍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러한 워크숍이 공동체를 통하여 보다 나은 상호간의 멤버케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2) 위기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Crisis, UC)

하루 과정의 이 워크숍은 위기가 발생 할 때 선교사들이 보다 나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위기관리의 기초로 선교사들에게 소개된다. 참가자들은 정상적인 위기대처에 대해, 그리고 위기나 손실을 당한 후에 슬픔의 과정들을 통과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3) 위기관리 중 멤버케어

(Member Care While Managing Crises, MC/MC)

UC 워크숍 이후 계속되는 이틀간의 이 워크숍은 위기상황을 처리하는 동안 그들이 맡고 있는 멤버케어에 관한 전략적인 역할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배우기 위해 특정 지역의 선교회 리더들을 초청한다. UC 자료 위에 세워진 주제들은 그룹에 미친 위기의 영향; 유익한 정책, 과정, 약정서(protocols); 비밀유지와 의사소통;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평가; 위기시의 리더십 스타일; 언제, 왜, 어떻게를 설명하는 디브리핑; 위기 위원회; MMCT와 현지 동료 상담가 팀들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선교기관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반나절 혹은 하루 동안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준비와 위기 대처에 관한 선교회 간의 공개토론회”를 소집하며 멤버케어의 일부를 제공한다.

(4) 동료 상담자 훈련(Peer Response Training, PRT)

1단계

이 훈련은 자신의 기관에서 동료 상담자로서 섬기도록 선교사들을 준비시키는 6일간의 워크숍이다. 참석자들은 재검토하고 UC 자료들로 보다 심도있게 연구한다. 나아가 그들은 일대일 위기 디브리핑과 위기 사건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배운다. 이 워크숍은 개인적인 지도와 함께 이러한 기술들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석자들은 성경공부와 성찰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 자신의 고난의 신학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참가자들은 지원서, SYIS 수수료, SYIS 진행자들의 평가와 선교회 리더와 동료들의 추천에 기초하여 이 워크숍에 초대된다.

(5) 동료 상담자 훈련(Peer Response Training, PRT)

2단계

5일간의 이 워크숍은 동료 상담자들을 보다 준비시키고 MMCT 요청에 따라 다른 선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그들에게 갖추게 한다. 참석자들은 MMCT 스텝과 계속되는 상담, 지도, 훈련 관계를 가진다. 이 워크숍에는 선발, 기술 평가,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기술, 진보된 일대일 디브리핑 기술과 그룹 디브리핑 방법을 발전시키는 데 강조점이 주어진다. 동료 상담자 훈련 2단계를 위한 조건들로는 동료 상담자 훈련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동료 상담자 훈련 1단계에 대한 선교지 실습 증명과, MMCT 스텝의 초청장, 다른 선교기관을 섬길 수 있는 적합성과 유용성에 대한 선교 행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6) 선교사 자녀들과 위기

이 주제는 MMCT와 다른 관심 있는 부서들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 주제를 위해 두개의 워크숍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부모와 선교사 자녀학교 스텝들을 위한 것이다.

4) 파트너십 전략

서부 아프리카 MMCT의 주요한 가치는 공동으로 돕고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멤버케어를 실시하는 다른 기관들과 형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전략적인 협력 관계에 있다. 우리의 파트너들은 Mercy Ministry International(국제 공홀 사역)과 프랑스 제네바 가까이 있는 르 루셔(Le Rucher);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선교사를 위한 건강 검진기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신학교의 헤딩톤 연구 센터와 나라모레 기독교 협회이다.

우리는 선교사 공동체를 위한 위기대처 기술을 개발하려는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MMCT가 인턴과정의 장소가 될 가능성에 관하여 임상 심리학 학위 프로그램이 있는 기독교 교육 기관과 접촉하고 있는 중이다. 위기 상황과 선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원하는 학생들이나 관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선교회나 파송 교회, 혹은 다른 후원 단체들은 MMCT에 팀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후원 단체(선교회)와 MMCT 이사회 사이에 이루어진 이해 문서에 기초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받는다.

5) 재정 전략

책임, 성실성, 내부적 책임 원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 우리는 사역을 돕기 위한 재정적인 전략을 가지며, 우리의 사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1) 스텝 재정과 연관된 전략

- MMCT 스텝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후원금(생활비, 안식년 경비, 전문적인 훈련비, 보험료, 은퇴를 대비한 저축 등)을 완전히 확보해야 한다.
- 각 스텝은 각자의 개인적인 사역을 돕고 있는 MMCT 사무실을 후원하기 위해 매달 “행정 기여금”을 낸다.
- 단기로 섬기는 동안 임시 스텝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모

금한다(특히 항공료).

- MMCT를 대표하여 사역 현장에 나간 스텝이 강사료를 받을 경우 그 돈은 전체 그룹 재정으로 들어간다.

(2) 봉사와 연관된 전략

- 워크숍의 비용은 참여자들의 회비로 충당한다.
- 프로그램을 유치한 선교단체가 위기대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예를 들면, 그들이 비용을 낼 능력이 있는 경우 청구된 강사료를 지불한다.
- MMCT는 선교 지도자들에게 위기대처를 위한 예산 책정을 권고한다.
- 위기대처를 위한 후원기금이 마련된다. 비용을 완전히 다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기금의 한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워크숍 참석자들을 위한 후원 기금이 마련된다. 워크숍 등록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후원 기금의 한도 안에서 재정이 지원된다.

(3) 자산 매입과 연관된 전략

대규모 자산을 매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역 및 모국의 MMCT 서부 아프리카 구성원들에게 스텝과 지역 실행 이사회와 전체 고문 이사회는 그 필요를 전달한다. 주님께서는 자산 매입을 위해 다양한 기금과 현금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4)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서부 아프리카 MMCT에 책정되지 않은 수입에 대한 십일조는 현지인 선교를 위한 멤버케어의 발전을 고려하여 MMCT와 공동의 비전을 나누는 다른 사역단체에 제공된다.

4. 하나님에 대한 감사

위에 제시한 중요한 가치와 특성과 전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나와 내 아내 카렌(Karen)이 2000년 초에 불란서에서 불어

를 공부하고 있을 때 서부아프리카에서 첫 사역을 시작한 젊은 부부가 자동차로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에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 가족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속히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셨다.

그들의 현지 지도자 부부가 재빨리 그들을 찾아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 일이 있기 몇 달 전 그들은 우리가 코트디부아르에서 실시한 “대인관계 기술 개발” 워크숍을 통해 향상된 멤버케어 기술로 그 부부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덧붙여서 다른 서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정신 건강 전문가와 학교에서 상담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의 준 스텝 중 한 사람이 그 젊은 부부에게 갈 수 있었다. 그 스텝은 그들과 5일간 함께 보내면서 자동차 납치사건에 대한 디브리핑을 시행하며 그들의 첫 사역 기간 동안에 제기되었던 다른 위기적인 사건들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 가족이 이 위기의 과정을 잘 통과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기는 그 가족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실제로 그들이 당면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통찰력과 탄력성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불행이 선으로 바뀐 것이었다.

지난 3년 동안 MMCT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며 공급해 오셨는가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어왔던 것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세계 이사회(Global Advisory Board)와 지역 실행 이사회(local Governing Board)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 그 실례가 된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고문들과의 상담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 그 결정을 인도하셨다. 시간이 지난 후 돌이켜 보면 주님께서서는 다른 것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에 대한 좋은 본보기는 MMCT 본부를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에 두기로 한 결정이었다. 그 이유는 아비장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였으므로 팀원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98년 8월 우리가 이 도시를 방문했을 당시의 상황은 그러했으나 그 후 2년 동안 한 번의 쿠데타의 성공과 또 다른 쿠데타의 시도와 함께, 어려운 상황 속

에서 실시된 선거와 거리 폭력으로 나타난 종족간 갈등과 불확실한 분위기로 그곳의 삶의 질은 퇴보되고 말았다. 현재까지 이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변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런 위기를 통하여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나아가 스트레스를 이기며 살아가는 참된 뜻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가 신뢰할 분이시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된다.

5. MMCT의 미래의 방향

세계의 한 지역에서 MMCT를 발전시키며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생각해 본다. MMCT의 다음 사역지로 주님이 마음에 두신 곳은 세계의 어느 지역일까? 그 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누가 그 팀에 속하게 될까? 그 팀이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동시에 서부아프리카의 MMCT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확장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비전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이 지역출신 선교사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 역시 이런 종류의 멤버케어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멤버케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닐까?

이 지역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멤버케어 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선교부로부터 파송되는 선교사들만 해도 5,000명(아이들 포함)이 된다. 다른 지역 선교부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엄청난 수의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멤버케어 사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선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종합적 관리 센터를 세우도록 우리가 도울 수는 없을까? 특별히 선교 지도자와 선교사를 직접 케어하는 사람들의 훈련에 강조점을 두는 멤버케어 센터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데 귀중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멤버케어를 행하고 계시는 주님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각종 위기에 대처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6. 토의 주제

1. MMCT가 가장 필요한 지역은 세계의 어느 지역인가?
2. MMCT 개념이 특별한 지역을 위하여 어떻게 응용될 필요가 있는가?
3. MMCT를 당신의 지역에서 시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4. 당신/당신의 기관은 MMCT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5. 해외에서 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의 필요에 대해 MMCT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이 글을 위해 도움을 준 서부 아프리카 MMCT 동료인 마리온 디크(Marion Dicke)과 카렌 카(Karen Carr)에게 감사를 드린다. 편집을 도와준 나의 모친이신 캐더린 제롬(Catherine Jerome)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제 13장

남아공의 멤버케어 발전

1996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남아공에는 아프리카인(76.7%), 백인(10.9%), 혼혈(8.9%), 인디언(2.6%) 그리고 기타(0.9%)로 구성된 4천만의 인구가 있다. 천 육백만 이상(40.1%)이 가장 큰 개신교 집단인 아프리카인 개혁신교회, 오순절 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루터교회, 카리스마 교회와 장로교회 신자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하지만 거의 전 인구의 3/4이 특별한 기독교 교단과 관련되어 있다(Froise & Hendriks, 1999, pp. 1,35,48).

인종의 다양성은 교회를 포함한 전 사회에 새로운 도전이 된다. 남아공은 크게는 한 나라이지만 두

* 마리나 프린스(Marina Prins)는 남아공에 있는 스탈렌보쉬 대학에서 농학 석사를 받았다. 1991년부터 1997까지 마리나는 말라위(Malawi)에서 네덜란드 개혁신교회 선교부의 선교사로서 섬겼다. 마리나는 현재 남아공 멤버케어 디렉터



마리나 프린스
브람 빌렘스 *

남아공의 지난 몇 년은 정부, 사회, 교회, 선교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더 많은 지역 교회들이 스스로 혹은 선교 단체와 협력하여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남아공의 파송 단체들은 선교사들을 준비시키고 후원하면서 좀 더 준비될 필요를 느꼈다. 이 장은 선교사의 삶에 있어서 선교지에 가기전과 선교현장, 그리고 본국 재입국의 단계들을 위한 전략들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이 장은 선교단체간의 협력과 네트워크들에 대한 최근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가 존재한다. 한편으로 남아공은 빈곤과 그와 연관된 사회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다. 다른면에서 남아공은 보다 발전된 나라이다. 인구의 61%가 가난 속에 살고 있고 2년 내에 25만 명이 매년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Froise & Hendriks, 1999:19,22).

지난 십여 년 동안 남아공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의 숫자는 1990년에 309명에서 1999년에 1,870명으로 6배가 증가되었다(Froise & Hendriks, 1999, p. 39). 이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유럽계 후손들이 참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파송되었다. 이 교회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선교에 대한 인식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했으며, 특히 아프리카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들 사이에 그러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불리한 조건의 공동체 교회들 간에도 선교에 대한 중요한 자각이 일어났다. 프로이스와 헨드릭스(1999, p. 41)에 의하면 남아공 선교사의 41%가 아프리카에서, 25%가 서구에서, 19.5%가 10/40 창문 지역에서, 그 나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다.

남아공 선교사의 전망에 관한 다른 흥미 있는 현상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교 단체의 변화이다. “전통적인 모델”을 따르는 기관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OM, 예수 전도단, 남아공 세계 복음화(South African Action for World Evangelization), 남아공 멤버케어, 그리고 그 외의 단체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세대의 선교단체들이 번성하고 있다.

로서 멤버케어를 위한 책임을 맡고 있다. 그녀는 이를위해 멤버케어 자료를 제작하고 워크숍을 제공하며 국내외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 마리나는 멤버케어 공개 토론회의 조력자이기도 하다.

Email:mcsa@xsinet.co.za

* 브람 빌렘스(Braam Willemsse)는 남아공에 있는 스타렌보쉬 대학에서 학사와 명예 학위를 취득하고 케이프타운 침례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브람과 내과 의사인 그의 아내 마리나는 말라위에서 선교사로 6년 동안 야오(Yao) 사람들을 섬겼다. 브람은 교회와 관련된 글로벌 커리어스(Global Careers)와 남아공 멤버케어(Member Care Southern Africa)에서 책임자로 섬겼다. 브람은 이 글을 쓴 후 얼마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우리는 브람을 정말 그리워할 것이다.

전통적인 모델에 있어서 선교지의 상황은 선교단체에 의해 강하게 통제된다. 이러한 선교단체들은 지역의 파송 교회들의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남아공에서 이러한 선교단체들은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보수 단체들과 합병하기로 했다.

파송 교회는 역사적으로 편협하였으나 재정과 기도 후원, 선교 편지, 현지 방문, 안식년 동안의 후원, 의류와 그 밖의 다른 필요를 공급하는 역할을 활발히 감당했다. “수 년 동안 선교기관들은 점차 모호해 지기 시작했으며 상대적으로 교회로부터 독립적이 되어 갔다... 상대적으로 자치적으로 되는 것을 보아왔다... 선교사들의 준비와 영적, 감정적인 후원에 대한 책임은 선교단체의 영역으로 가정되었다”(Strauss & Narramore, 1992, p. 299).

과거에 우리는 이와 같은 동향을 남아공에서 경험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선교단체나 지역 교회와 관계없이 무책임한 교단 선교부에 의해 파송되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남아공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변화는 지역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파송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가 자체적으로 혹은 선교기관들과 협력하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

1. 남아공 교회에서의 멤버케어

“멤버케어”라는 용어는 남아공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용어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의 핵심을 본다면 그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멤버케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멤버케어는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된 선교사들을 포함한다. 오도넬(O'Donnell, 1997, p. 144)에 의하면, 멤버케어는 이런 면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멤버케어는 신약의 실천이다. 새로운 것은 타문화권의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지원하도록 포괄적이고 적절한 멤버케어 발전을 위해 보다 조직적으로 시도한 점이다.

교회는 선교에 대한 점증된 관심으로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남아공의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에서의 멤버케

어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선교사들의 관리에 초점을 둘 뿐 아니라, 효과적인 멤버케어를 위해 지역 교회들을 구비시키는 데 특히 강조점을 두고 있다. 남아공에서 멤버케어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낙후된 상태이며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파송한 선교사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이 수반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지역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들을 무장시켜야 하는 도전적인 임무가 주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의 목표가 존재한다. 첫째는 선교사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많은 교인들이 지상명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직 소수의 교인들만이 선교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많은 교인들이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그들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신자를 제사장으로 여기지 않는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차별 정책”에서 기인한다. 사회에서 매우 유능하고 잘 훈련된 사람들일지라도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순간 무능력해지고 만다. 그 이유는 성직자들만이 교회에서 진정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아공에서의 멤버케어는 지역 교회에 의해 파송 받은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 팀(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을 세우고 훈련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멤버케어는 남아공 밖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남아공 안에서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공동체들과 선교 단체들을 섬기는 국내 스텝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인들이 선교를 지역 교회의 사역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돌보는 것이 미전도 종족에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역 교회들은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측면에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선교단체들의 공헌을 경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년 동안 선교 단체들은 다른 기관들과 본국과 선교지의 교회들과 연결체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다. 선교단체들은 여러 일 가운데 선교지에 들어가는 일들과 외국에 돈을 보내는 일들을 능숙하게 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단체들의 역할은 경시할 수도 없고 또한 경시되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지역 교회

들이 이러한 영역에 무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선교 단체들은 지역 교회들과 그들의 경험을 기꺼이 나누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 교회들은 그들의 책임을 기꺼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 선교사들의 후원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교회와 선교 단체는 협력해야 한다. 선교사와 지역 교회,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 헌신하는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아공의 지역 교회들은 선교사 후원이 “돈을 주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임을 깨닫기 시작했으나 선교사들은 아직도 적절한 뒷받침과 관리 없이 파송되고 있다. 파이로로(Pirollo, 1991, p. 15)가 지적했듯이 “보내는 자들에 대한 필요는 수 없이 많다. 그것은 송별회를 행하거나 돈을 보내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요구한다. 타문화 사역자들은 선교지에 가기 전에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동안 또한 본국으로 돌아올 때 팀의 후원을 필요로 한다.”

2. 선교사 사이클

적절한 멤버케어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교회들은 선교사의 삶의 단계들과 도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 멤버케어 그룹에서 우리는 선교사 과정의 주요 3단계를 교육한다. 즉 선교지 파송 전 단계와 선교현장 단계, 그리고 재입국 단계이다.

1) 선교지 파송 전 단계

선교지 파송 전 단계는 선발, 개인적 준비, 후원 팀의 형성, 선교지 오리엔테이션의 4영역을 포함한다. 간략히 말하면, 선발 과정 동안 선교사 후보생에 대한 설문서, 추천서, 심리평가에 대한 정보가 수집된다. 과정의 목적은 적절한 정보를 얻고 후보생의 기능과 성격, 품행에 대한 자료를 얻는데 둔다. 정보는 다음의 영역들에서 사용될 수 있다:

- 감정적인 문제와 인격 장애를 규명한다.
- 장점을 평가한다.

- 개인적인 개발 영역을 규명하고 제시한다.
-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 특정 환경, 문화 혹은 직위에 대한 후보생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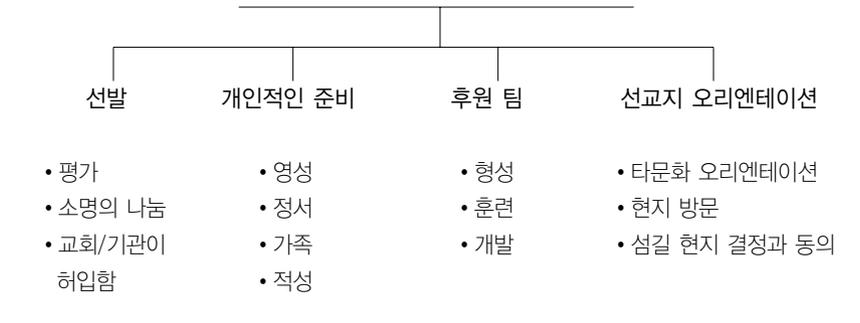
선교사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준비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가족을 평가할 때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선교사 후보생과 가족은 그들의 소명을 교회나 선교단체의 지도자들과 나누어야 한다. 기도와 토론을 거친 후, 후보생과 가족은 다른 부서들에 의해 선교사로 허입된다.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에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적절한 평가이다. 남아공의 지역 교회들과 선교 공동체는 최근에서야 심리학적 평가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남아공 인구를 위한 적합한 평가도구에 대한 필요와 평가를 시행할 뿐 아니라 타문화 선교에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다. 필요와 그 평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타문화권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필요와 같은 문제들을 창출해 낸다.

선교지 파송 전 단계의 기간동안 후원 팀이 형성되고 준비되어야 하며 지역 교회에서 사역이 시작되어야 한다. 후원 팀은 친구들과 후원자들과 가족들로 구성되며 그들은 선교사들에게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팀으로 함께 사역한다. 이 사역은 후원 팀의 코디네이터의 지도아래 이루어진다. 팀에는 여러 영역에서의 책임이 수반되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정신적인 후원, 병참 지원(의료 관리를 포함한), 기도 후원, 의사소통 후원, 재정 후원, 직업적인 후원(만일 선교사가 자비량 선교사일 때), 재입국 후원.

프로이스와 헨드릭스(Froise & Hendriks, 1999, p. 42)에 의하면, “정규적으로 혹은 파트타임으로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그것은 많은 신학 기관에서 선교 훈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훈련은 선교사 훈련의 새로운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훈련의 방법이 정규적인 훈련에서 파트타임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최고에 이르렀던 정규 학생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아마도 다음의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선교사 사이클: 선교지 파송 전 단계



- 경제적인 압박
- 학생들의 가족을 위한 숙소의 부족
- 학생들이 집/사역을 떠나서 보내야 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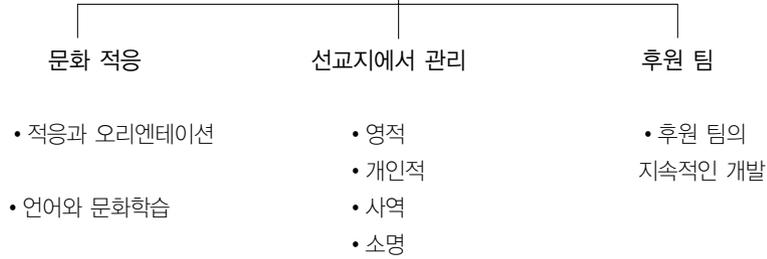
따라서 공식적인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특히 학생들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공동체에서 왔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어떤 교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의 프로그램의 일부로 신학 훈련을 시작했다. 불행히도 성경학교에 의거해 있는 소수의 교회만이 선교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수 전도단과 OM 같은 기관들은 선교 후보생을 모집하기 위해 자체로 선교 훈련을 시행한다.

선교사 훈련에 있어서 선교지를 사전에 방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후보생들은 선교지의 상황과 그들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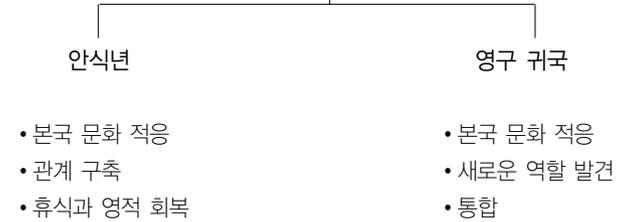
2) 선교 단계

선교현장에서 선교사는 새로운 환경과 생활양식에 적응해야 한다. 본국의 후원 팀은 필요한 도움을 공급하기 위해 선교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예를 들면, 문화적 스트레스, 언어 공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방법은 후원 팀의 멤버들이 정기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만일 후원자들이 실제로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삶의 현장들을 이해하고 현지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보다 쉽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선교사 사이클: 선교 현장



선교사 사이클: 재입국 단계



된다. 이와 반대로 선교지를 한번도 방문하지 않으며, 선교사의 사역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후원지들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은 편안하게 느끼지 못한다.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정규적인 의사소통은 선교사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 기간 동안 후원 팀은 계속해서 선교사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멤버케어 전략을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야만 한다. 후원 팀이 도움을 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만 한다. 예를 들면, 후원 팀에서 아무도 현지를 방문할 수 없거나 멤버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이미 사역하고 있는 다른 선교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 재입국 단계

대부분의 경우 선교사는 본국으로 재입국하여 파송교회로 돌아온다. 일반적으로 선교사에게 재입국은 힘들며 스트레스를 주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지역 교회가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선교사나 파송 교회가 이 단계를 위하여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종종 선교사가 본국에 돌아온 이후에는 교회는 선교사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교사가 귀국한 순간부터 재정적인 후원이 중단되기도 한다. 다른 경우에 어떤 교회들은 선교사들을 기꺼이 도우려고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할지 모른다. 과거에 교회는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가

재입국 했을 때(많은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선교사를 관리하는 것으로 가정했었다. 대형 선교단체의 경우 재입국 기간 동안 선교사 개인들의 필요를 돌보아 주기란 쉽지 않다. 이런 면에서 지역 교회의 구조나 기능은 쉽게 재입국 선교사의 특별한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교사는 셀 그룹이나 혹은 케어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 그룹들의 멤버들에게 재입국 선교사의 특별한 필요에 대해 알릴 수 있다.

3.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멤버케어 개발

1999년과 2000년에 남아공에서 두개의 중요한 멤버케어 개발이 있었다. 그것은 남아공 멤버케어(Member Care Southern Africa)라 불리는 선교단체 간 협력(interagency affiliation)과 멤버케어 포럼(Member Care Forum)이라 불리는 동료의 네트워크의 형성이었다.

1)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멤버케어

남아공 멤버케어 설립을 위한 준비는 1999년 3월에 시작되었다. 먼저 연구조사가 시행되었고 멤버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문헌들이 수집되었으며,

국내외적인 멤버케어 네트워크들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1999년 9월에 멤버케어 연구 그룹이 형성되었고 2000년에 우리가 속해 있는 남아공 멤버케어 기관으로 발전되었다. 우리는 선교 후원 기관이고 남아공과 남아공 밖의 멤버케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 5개 주요 영역은 선교사 평가, 교회의 훈련과 준비, 선교지 케어, 재입국 케어, 연구조사이다.

(1) 선교사 평가

평가 과정의 목적은 선교사 후보생들에 대한 전체 프로파일을 얻기 위함이다. 여러 종류의 도구를 통해 선교사 후보생의 성격, 일하는 방식, 팀에서의 기여, 영적 은사에 대한 정보가 수집된다. 인터뷰와 함께 개인의 영성과 소명에 초점을 둔 이러한 내용들은 후보생이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위치와 장소를 보여준다.

지난해에 남아공 인구를 위해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초기 평가도구가 만들어졌다. 선교와 선교사의 심리학적 평가에 경험이 있는 심리학자에 의해 이미 작은 규모의 평가가 실행된 바 있었다. 미래의 남아공 멤버케어는 웨스턴 케이프(Western Cape)에 있는 선교사 후보생들을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를 공급하고, 더 나아가 남아공의 모든 주요한 도시들에서 적합한 심리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기를 원한다.

(2) 교회에 대한 훈련과 준비

우리는 지역 교회에 제공하였던 워크숍 자료를 발전시켰다. 다음의 주제들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 정의, 성경적인 근거, 멤버케어의 중요성
- 선교사를 준비시키고 보내는 데 있어서의 지역 교회의 역할
- 선교사의 삶의 단계
- 선교사의 준비, 파송, 케어의 단계
- 선교 평가
- 지역 교회의 후원 팀
- 선교사 중도탈락, 선교지 케어, 재입국

위의 자료들은 “선교사 멤버케어: 파송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서”

(Prinse & Willemse, 2001a)와 “후원팀”(Prinse & Willemse, 2001b)에 수록되어 있다. 비록 다른 곳에서 언급되긴 했지만,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케어는 이 단계에서 따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워크숍들은 회의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3) 선교지 케어

선교사들이 현지에 있는 동안 선교사를 후원하고 케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두 종류의 케어가 있다. 첫째는 실제적, 영적, 감정적인 필요에 역점을 두는 일상적 케어(day to day care)이다. 남아공 멤버케어 팀은 영적이고 감정적인 케어에 있어서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팀을 세우는 것, 인간관계의 기술과 결혼과 풍요로운 가정생활에 대한 상담들이다.

둘째는 잠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위기케어이다. 예를 들면, 전쟁, 무장 강도 또는 심각한 우울증과 같은 감정적인 갈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의 케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문화된 위기케어 팀의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수 있다.

(4) 재입국 케어

재입국을 위한 케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교사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게되며 그러한 상처들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재입국은 지역 교회들을 위한 워크숍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그 목적은 선교사를 돕고 파송교회에 재입국 과정을 이해시키며 재입국 케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남아공 멤버케어는 재입국에 대한 간단한 워크숍을 제공한다.

(5) 연구조사

연구조사는 위에 제시된 네 분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남아공 멤버케어는 멤버케어 전문가들과 국내외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우리는 멤버케어의 사용 가능한 새로운 자료들과 옛 자료들을 수집하고 편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2년 전 남아공 멤버케어가 시작되었을 때 “멤버케어”라는 용어는 남아공

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멤버케어가 선교의 중요한 요소임을 납득시키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신실하게 지원해 주는 몇몇 개인들과 지역 교회들이 있었다.

월터 헨드릭슨(Walter Henrichsen)은 “사업을 성장시키라(Grow into business); “사업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라”(do not go into business)라고 말한다. 켈리 오도넬은 우리에게 “역할은 사람들을 소집한다; 교제는 사람들을 함께 있게 한다”는 말을 상기시킨다. 이 말은 우리 멤버케어 그룹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정확히 대변해 준다. 우리는 전방의 사역자들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되었다. 단계적으로, 하나님은 문들을 열어 주셨고 우리에게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 주셨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에 불을 지피셨다. 2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노력의 열매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시간과 그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사역은 크게 성장되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팀으로서 서로에게 줄 수 있었던 정신적, 영적 후원이었다. 서로에 대한 케어가 없을 경우 케어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만일 다른 그룹이나 포부가 있는 목회 그룹들이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이다-첫 번째 단계로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작은 일의 시작이라 멸시하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눈에 그것을 기뻐하심이라”(슥 4:10). 하나님은 그의 때에 그의 일을 이루신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1:4-6).

2) 멤버케어 포럼

멤버케어 포럼은 남아공에 있는 멤버케어 네트워크의 설립에 대한 절실한 필요에 의해 2000년 6월에 케이프타운에서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포럼은 마리나 프린스(Marina Prins)와 다른 그룹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한다. 참여자들은 기관과 교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는 관련

자들이다. 포럼은 3-4개월마다 한번씩 열린다. 포럼은 남아공 안팎에 있는 멤버케어 자원들을 발전 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포럼이 설립될 당시 참여자들은 관심이 요구되는 몇 개의 멤버케어 이슈들을 규정지었다. 다음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규정한 이슈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기 위해 3개의 사역 그룹이 형성되었다. 이 세 그룹들은 지역 교회를 준비시키고 멤버케어를 위한 통계 자료와 재입국 관리를 준비한다. 포럼이 발전됨에 따라 첫 모임에서 규정된 다른 이슈들 또한 사역 그룹들로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사역들에는 중보, 평가, 그리고 선교사 자녀 케어가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서부 케이프(남부 케이프타운 부근에 있는)에서 왔다. 하지만 자매 멤버케어 그룹은 이미 카우텡(Gauteng) 지역(요한네스버그/프레토리아 부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에서 발전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남아공 내에 국내적인 멤버케어 네트워크를 설립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4. 결론

남아공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멤버케어가 발전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회와 기관과 개인들이 의도적으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남아공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단순히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교지 파송 전 단계로 부터 재입국 단계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것이다.

5. 토의 주제

1. 선교사 파송과 케어에 있어서 지역 교회/기관들이 직면하는 도전들을 나열하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2. 선교사 후원을 위해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면들을 나열하라. 후원 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인가?
3.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의 케어를 위해 어떤 자원들이 사용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종류의 케어들이 향상될 수 있는가?
4. 여러분의 교회/기관이 지역/나라에서 멤버케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자원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
5. 남아공 멤버케어의 경험/방법이 당신의 지역/나라에서의 멤버케어 발전을 위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비슷한 그룹이 시작될 수 있는가?

† 참고문헌 †

- Froise, M., & Hendriks, J. (1999). *South African Christian handbook 1999–2000*. Welkom, South Africa: Christian Info.
- O’Donnell, K. (1997). Member care in missions: Global perspective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143–154.
- Pirolo, N. (1991). *Serving as senders: Six ways to care for your missionaries*. San Diego, CA: Emmaus Road.
- Prins, M., & Willemse, B. (2001a). *Member care for missionaries: A practical guide for senders* (also in Afrikaans: *Sendelingversorging—’n praktiese gids vir stuurders*). Cape Town, RSA: Member Care Southern Africa.
- _____. (2001b). *The support team* (also in Afrikaans: *Die Ondersteuningspan*). Cape Town, RSA: Member Care Southern Africa.
- Strauss, G., & Narramore, K. (1992). The increasing role of the sending church. In K. O’Donnell (Ed.),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p. 299–314).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우리는 이 글을 위해 조연해 준 남아공 스탈렌보쉬 대학교 실천신학과 선교학 부서의 헨드릭스(H. J. Hendriks) 교수와 남아공에 있는 타어거 벨리 호프메이어 선교 센터의 테론(J. H. Theron)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제 14 장

투마이니(Tumaini) 상담 센터: 동 아프리카에서의 10년

선교사들은 매우 도전적인 상황에서 섬기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치적인 위기, 적대감 혹은 육체적인 공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타문화 적응의 스트레스는 과거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상기시킬 수 있거나 새로운 관심을 일으킬 수도 있다. 선교사들은 우울, 탈진, 불안감, 물질적인 어려움, 또는 인간관계의 갈등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선교사 자녀들은 학습의 어려움, 야뇨현상, 섭식 장애(eating disorders), 혹은 방종의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다. 선교사들은 파송 교회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세상의 문제들

* 로저 브라운(Roger Brown)과 셸리 브라운(Shirley Brown)은 1991년 이래로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와 함께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사역해 왔다. 로저는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다. 그는 무디 성경 학교를 졸업했다. 셸리는 간호



로저 브라운
셸리 브라운 *

이 장에서 우리는
투마이니 센터에
초점을 두고
선교지에서 선교사 관리
센터의 운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지
상담의 적절성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들을
살펴볼 것이며 센터의
운영방식과
미래의 방향, 그리고
여러 다른 측면들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또한 5개의 간략한
사례연구로 이 장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과 케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과거 세대의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움과 검소함에 익숙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농촌 배경의 출신이며 철저한 기독교 가정에서 배출되었다. 때로는 과거 세대의 선교사들은 오늘날의 선교사들보다 스트레스를 잘 견뎠던 사람들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초기 세대의 깨끗한 선교사들은 인간적인 상처들과 필요들을 그들의 기독교 문화 내에서 표현하지 못했다. 어떤 가정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깊은 아픔과 상처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의 감동적인 가족의 희생은 죽히 헤아릴 수 없다.

선교사 사역은 항상 도전이 되어왔다. 정치적 불안정, 허물어져가고 있는 하부구조, 과격한 범죄, 적대적 환경, 고립, 익숙한 후원 시스템에서의 분리, 재정적인 압박, 가족의 필요들은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일부이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상처와 필요들에 대해 보다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될 때, 교회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은 그들 자신의 갈등들을 과감히 나눌 수 있게 된다. 삶의 감정적 측면에 대한 이러한 점증되는 솔직한 인식은 감정적인 갈등을 가진 더 많은 지원자들이 선교사로 섬기도록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후보생들은 선교지에서도 감정적이고 영적인 후원을 기대하며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서방 국가로 돌아가는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을 돕는 전문 단체, 즉 미국에 있는 링크케어(Link Care), 영국에 있는 인터헬스(InterHealth),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 보건 연구소(Missionary Health Institute)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었다. 특별한 관심과 기술을 가진 기독교 정신 건강 전문의들은 도움이 되는 상담과 치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기독교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케어에 대한 요구는 제공 가능한 케어를 훨씬 더 넘어선다.

사이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받았다. 로저와 셸리는 독신으로 단기 선교 경험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레이첼과 한나 두 딸이 있다.

Email: roger-shirley_brown@aimint.org.

여러 기관들이 선교사 자녀를 위한 기숙사 학교에(missionary boarding school) 상담자들을 두고 있다(케냐에 있는 리프트 벨리 아카데미(Rift Valley Academy, Kijabe);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웨이스 아카데미(Faith Academy)). 그들의 기능은 주로 학생들의 감정적인 필요를 케어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담 스텝을 방문했고, 심지어는 다른 선교사들도 그들을 보러 온다. 어떤 기관들은 한 선교지에서 다른 선교지로 여행하면서(선교사들의 문제들을) 경청하고, 조언하고, 중재하는 목회 상담가를 둔다. 때로는 이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장기적인 이슈나 주요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기관들은 보다 영구적으로 현지에서 개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SIL은 1983년에 상담 선교사들을 현지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들중 어떤 사람들은 과중한 업무와 전문인으로서의 고립과 그들의 전문 영역을 넘어 사역으로 인해 압박감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관, 외의 다른 선교사들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게된다.

선교사 위기나 관심들이 제기될 때, 선교기관들은 선교사들과 선교지에 있는 행정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사용하기도 모른다. 그 지원은 너무 작거나 너무 늦을 수도 있고 목표가 빗나갈 수도 있다. 행정가들은 위기를 겪게될 때 압도감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 선교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항상 그들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선교기관과 선교사 모두는 그들을 돕고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인 숙련가들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선교사와 선교 기관, 그리고 사역의 결과가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다. 케어를 위한 필요가 긴급할 때 선교사들은 도움을 위해 그들의 사역 장소와 가정을 “떠나”(uproot)야만 한다.

선교기관들은 위기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행정가, 목사, 혹은 상담가를 선교지에 보낸다. 그들은 단기상담과 함께 선교지 회의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최근에 어떤 기관들은 선교지에 단기 혹은 장기 선교사들로 구성된 전문 상담가들을 두기 시작했다. 기존 파송국가(Older Sending Countries) 그리고 작게는 신생 파송국가(New Sending Countries)에 이르기까지 전문 상담가들을 두고 있는 추세다.

1. 투마이니 상담 센터

1980년 중반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와 위클리프 선교회 선교사들은 동 아프리카에 위치한 상담 선교사들이 사무실을 공유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동 작업의 결과로 1990년 후반에 케냐 나이로비에 투마이니 상담 센터가 설립되었다. 투마이니는 스와힐리어로 “소망”이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그 센터가 제공하는 치료와 케어를 위한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

투마이니 상담 센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한 상담센터이다. 선교회 사무실, 선교사 자녀 학교, 의료와 운송 서비스가 포함된 선교사들의 활동을 위해 지역 센터에 근거를 둔 투마이니는 선교사들과 선교사 가족들을 위한 케어에 헌신하고 있다. 투마이니 스텝들은 각 전문분야의 임상치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교사 케어 제공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그들의 상담과 조언, 그리고 훈련에 통합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된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다. 스텝들은 그들의 선교 기관인 AIM과 SIL 소속 선교사들에 대한 케어를 우선한다. 하지만 그들은 아프리카를 섬기고 있는 다른 선교 기관의 선교사들에게도 상담을 제공한다. 대략 100여개의 다른 개신교 선교 단체들이 투마이니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투마이니의 주요 이용자들은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 그리고 수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다. 하지만 투마이니는 정기적으로 에티오피아, 부룬디, 르완다,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코모로스,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차드를 포함한 동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섬기고 있다. 덧붙여 서아프리카 11개국을 행정적인 상담으로 돕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선교사들은 종종 평가를 위해 나이로비를 방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상치료사들이 교육이나 위기 중재를 위해 그곳을 방문하기도 한다.

투마이니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선교사들은 약 20여개국에 해당된다. 북미와 남미, 서유럽, 동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선교사들이 포함된다. 내담자들이 비록 아프리카인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교 공동체와의 접촉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스

스로 센터를 방문한다. 상담의 유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종종 내담자들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다. 센터 이용자의 대다수가 도움을 위해 스스로 센터를 방문한다. 개인의 단체에서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1) 서비스의 종류들

나이로비는 안팎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된 것들은 상담(개인, 그룹, 가족, 자녀, 결혼); 위기 사건 스트레스에 대한 디브리핑; 선교 행정가와 선교사 자녀 학교의 행정부와의 상담; 팀 구축 워크숍과 갈등 처리; 결혼, 부모, 스트레스 처리, 인간관계 기술과 같은 주제로 세미나 개최; 학교나 교회에서의 세미나; 글 쓰기; 개인, 그룹, 부부, 혹은 가족 성장과 영성에 관계된 도서대여 등이 있다.

선교지의 비상사태는 상담자에게 해외여행을 요구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계속되는 중재는 상담자가 간단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선교사들은 평가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나이로비를 방문한다.

때때로 상담 선교사들은 선교지 회의 기간동안 강의하거나 세미나를 인도하는 국제적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여행들은 시간적인 문제와 나이로비에서의 사역의 방해와 가족로 인해 규제되었다.

2) 문제의 형태들

대개의 경우 투마이니에서의 상담 이슈들은 서구에서 경험되는 것들과 매우 흡사하다. 정치적인 불안정, 영적 전쟁, 그리고 타문화적 이동은 문제를 야기하거나 확대시킬 수 있다.

정신적 상처의 희생자들.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폭력, 자동차 납치, 사고, 전쟁, 피난은 많은 선교사들에게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한다.

경계선. 선교사들은 고차원의 사역 윤리와 많은 긍휼심을 갖고 있다. 또한

그들은 끝없는 필요를 요구하는 환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때문에 어떤 선교사들은 사역과 개인의 필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갈등할 수 있다.

적응의 어려움. 많은 선교사들은 사막, 외딴 마을, 혹은 복잡한 도시 등, 어려운 조건하에 살아가고 있다. 문화충격, 향수, 재정적인 압박,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오랜 이별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삶이다. 결과적으로 사역과 일상적인 삶에 심각한 스트레스 이슈들이 존재한다.

영적 이슈. 선교사들은 그들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형상으로 갈등할 수 있다. 수용, 중요성, 안전에 대한 이슈들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기도 한다. 왜곡된 것들이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교사들의 사역은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팀 멤버들 간의 관계는 종종 다양한 문화와 다른 시대, 그리고 단혀진 지역에서의 상호의존하는 삶을 내포한다. 성격 충돌, 대면과 갈등해결의 어려움, 말없는 기대들과 문화적인 오해는 인간관계를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

과거의 이슈들. 모든 선교사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과거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최선의 선발과 오리엔테이션일지라도 선교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발될 수 있는 과거의 개인적인 갈등을 분명히 확인할 수는 없다.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학대 가정의 배경을 갖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결혼 설계를 배우고자 하는 첫 세대 신자들이다. 선교지에서의 후원 시스템의 부족은 어려운 기간동안 개인들을 보호하는 완충장치(buffer)를 약하게 할 수 있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결국은 선교사의 안정과 기능을 파괴할 수 있다.

약물 중독. 서구의 상담 그룹들과는 달리 투마이니 상담가들은 어른이나 청소년의 약물중독으로 상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 중독증이 어떤 선교사들에게는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최근의 인터넷의 사용으로 선교사 자녀들과 선교사들에 대한 포르노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발달 장애. 집중장애와 학습장애는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그러한 장애들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이해와 치료방법이 없다. 투마이니를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들은 선교지에 남아 있는 많은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2. 현장 서비스 혹은 재입국 서비스?

투마이니 초기 단계에서 여러 상담가들은 성적 학대, 심각한 유년기 외상 충격(trauma), 인격 장애, 혹은 심각한 섭식 장애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를 공급하고자 했다.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가들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막대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보다 덜 심각한 문제들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선교사들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되었다. 투마이니 같은 전문적인 센터에서 조차 어려운 필요들이 깊이 있게 다루어 질 수 없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심각한 상태로 평가된 사람들은 위기 중재, 평가,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송 국가로 보내진다.

보다 더 심각한 상처를 받은 내담자들은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며 그들의 행정가들과 동료 선교사들은 물론 상담가들의 상당한 시간 투자를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동료 선교사들과 행정가들의 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교사들의 신망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덧붙여 그들의 치료는 부수적인 후원 서비스, 병원, 가까운 친구, 혹은 가까이 있는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선교사가 도움을 받기 위해 파송 국가로 돌아가야 할 경우 상담가는 현지에서 제시된 상담 내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은 내담자가 재배치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동, 분노, 그리고 슬픔과 같은 이슈들을 논의하는 중대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투마이니의 스텝들은 감정적인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기관들에 대해 투마이니가 그들을 위해 지속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정과 함께 분명한 조언을 제공한다. 선교지의 자원들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스텝들은 그들의 에너지와 자원을 조심스럽게 할애한다. 선교사 후보생들을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선별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교사들이 선발 과정에서 제기된 정신적이고 의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적절히 다루지 않을 경우, 그들은 선교지로 파송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생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본국에서 가지게 된다면 그는 선교지에서 성공할 수 있

게될 것이다. 새로운 선교사로 적응해야 하는 과제는 선교사를 압도할 수 있으며 내면의 깊은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 성공적인 이동과 사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과제는 선교사와 파송단체, 그리고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현지단체의 공동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

준비되지 않은 선교를 현지에 파송하는 것은 선교사 가족과 그들의 후원자, 그리고 현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전반적인 선교의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지 선교사들과 교회들은 적당한 현지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협력을 위해 합류하는 새로운 동료들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엄청난 감정적인 지원을 행하기 보다는 선교사들이 책임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선교현지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적응이나 관계들로 고통을 당하는 선교사들이 아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을 필요로 한다.

3. 투마이니 상담 센터는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투마이니 상담 센터의 형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속에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 최초의 스텝들은 각각 동 아프리카에서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1983년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교회 개척 전문가인 데이빗 던컬톤(David Dunkerton)은 상담학 학위를 가지고 케냐에 돌아왔다. 그리고 나이로비의 데이스타(Daystar) 대학에서 교수와 교목으로 봉사했다. 그와 선교사들과 행정 기관 사이에 신뢰가 쌓이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상담을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는 그 후 선교지 상담 후원에 대한 데이빗의 비전을 받아들였고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케어(AIM Care)라고 명명된 새로운 부서를 승인했다.

1983년 하나님은 의사인 로저 브라운(Roger Brown)을 부르셔서 선교사 후원사역을 위해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을 훈련 시키셨다. 브라운 부부는 여러 선교단체들에 그들의 사역 제안을 의논하였고, 그들의 사역 비전과 유사한 비전을 갖는 아프리카 내지선교회(AIM)에서 상담 센터를 시작하고자 뜻을 갖게 되었다.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가 사역을 위한 그들의 비전과 많은

측면에서 동일선상에 있었던 선교사 상담 센터와 함께 전진할 준비가 되었음이 매우 명백하게 되어갔다.

또한 던컬톤은 SIL 스텝들이 나이로비를 거쳐 갈 때, SIL 국제 상담부서와 관계를 발전시켰다. 로저 브라운은 훈련을 마치고 AIM 케어에 합류하기 위해 준비하며 달라스 SIL 상담 센터와 상호간에 후원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1989년 하나님이 경력 있는 상담 선교사 해리(Harry)와 팻 마이어스마(Pat Miersma)를 새로운 상담 사역자들로 나이로비에 인도하셨을 때, 두 기관은 보다 큰 교류를 갖게 되었다. 여러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해리(M. A., M. F. C. C.)와 팻(M. N., C. S.)은 공산주의 혁명(1973-1976) 때 이디오피아에서 미국 개혁 교회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 처음으로 선교지 상담 선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선교지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이후 1980년에 그들은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의 상담 스텝으로 합류했다. 그들은 1989년에 현재 아프리카 사역을 받아들이기 전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위클리프의 자매기관인 SIL에서 3년 동안 상담자로서 봉사했다. 그들이 던컬톤과 SIL/AIM 사역의 공동 협력에 관한 세부적인 것을 논의했을 때, 두 기관은 그들의 합의를 인정하고 축복했으며, 1990년에 공동 사무실이 마련되었다. 이 협력의 장소는 투마이니 상담 센터라고 불리게 되었다.

1991년 브라운 가족은 AIM의 지도하에 상담 사역을 위해 나이로비에 도착했다. 던컬톤 가족은 1992년 말에 목회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다. 1993년 SIL 정신과 의사인 리처드 베지(Bagge) 박사와 그의 가족이 도착했다. 목회상담이나 다른 상담 경험을 가진 경력 있는 여러 선교사들이 파트타임으로 센터를 도왔다. 1998년 AIM은 베테랑 상담자 존(John)과 카렌 자일렌(Karen Zilen)을 팀에 합류시켰다. 임상 심리학자인 낸시 크로포드(Nancy Crawford)와 정신과 의사인 더그 그리스트(Daug Ghrist)가 2001년에 AIM 스텝으로 합류했다.

선교 공동체가 상담 사역을 승인한 열쇠는 던컬톤이 놓은 기초였다. 그가 오랫동안 일해 왔던 이전 교회는 그를 “진정한 선교사”로 인정했고, 동료 선교사들도 그가 진정한 선교사임을 인정했다. 데이빗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 결과 상담에 대한 잠재된 불안을 줄일 수 있었다. 그가 제공한 상담은 문화적으로

예민했고 지혜로웠으며 경건한 것이었다. 다른 상담자들이 투마이니에 도착했을 때, 데이빗은 그들을 선교사 공동체에 소개했다. 이렇게 그는 동료 선교사들뿐 아니라 그 상담자들을 받아들이는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상담자들의 민감성을 촉진시켰다.

4. 투마이니 상담 센터는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투마이니는 본질적으로 형식적인 기관이 아니라 상담 선교사들이 함께 사역하며 전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호간에 후원을 마련하는 곳이다. 스텝은 조력자, 사무실 장비, 용품들과 보안 비용, 도서 임대, 전문 서적과 같은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 협력의 열쇠는 스텝의 높은 헌신도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사역들이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속한 것이지 기관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에 따른다. 상담가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사례를 논의하며 비공식적인 교류를 위해 매주 한번씩 만난다. 투마이니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각 선교 단체가 상담 사역을 두고 있는 본부이다. 이러한 구조는 각 기관의 독특한 성격과 철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전문적이고 기관적인 부담을 최소화 시킨다.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와 SIL 상담부는 그들의 행정 위원회로부터 사역의 방향을 지시받는다. 상담 스텝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방향과 건의 사항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사역 요청은 항상 스텝의 역량을 초과해왔다. 상담자들은 위기관리, 지속적인 치료, 예방차원의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년 동안 고심해 왔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지나친 압박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얼마 전에 스텝 멤버들은 사역의 방향과 초점을 의논하기 위해 스텝을 위한 수련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한 시간투자는 잠재적인 중재와 적극적인 사역에 관해 함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이러한 시간들은 서로를 격려하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는 역사적으로 동 아프리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선교단체들의 공동체를 넓히기 위한 비전을 가진적이 있었다. 상담 사역은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국제 사역부에 잘 맞는 사역이었다. 이 사역부는 또한 오지 비행(flights), 수하물 운송과, 선교사 숙소, 재정적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는 리프트 벨리 아카데미(RVA)와 키자베 의료 센터와 같은 연구소들을 발전시키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는 상담 센터의 일반적인 사무 관리를 감독하고 돕는다. SIL 스텝들은 직원 케어에 있어서 수년간 축적한 풍부한 경험을 나눈다. 그리고 그들은 비용이 필요할 경우 사무 행정도 지원하고 있다. 전체 상담 스텝과 사무국장은 정책과 사역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동한다.

모든 상담자들은 본국 교회와 개인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선교사들이다. 그래서 어떤 기부금도 스텝들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기부금은 임대료, 시설 사용료, 보안, 현지인 직원 등 운영비로만 사용된다. 운영비는 각 기관을 대표하는 상담자들의 숫자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된다. 그러므로 두 기관의 수입은 다르다.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상담자들은 상담을 받는 개인들로부터 적은 액수의 기부금을 받는 것을 제안한다. SIL 비용은 선교사들의 지역 할당금을 통하여 채워진다. 유사한 기부금이 비 SIL 선교사들에게도 부과된다.

5. 미래의 방향

우리는 스텝 충원을 위해 주님께 의뢰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여러 중요한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해 나갈 것을 소망하고 있다.

선교 공동체를 위해 현지에 근거지를 둔 목회자들. 선교 목사는 여러 선교 부서를 방문하고, 현지 회의에 참석하고,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일에 초점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신임 선교사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검토. 신임 선교사들에게 선교지에서 첫 몇달은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문화적 적응을 겪게 됨에 따라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 가족과 헤어짐을 슬퍼하고 문화 적응을 통과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선교지에서의 첫 달은 중요한 기간이 될 수 있다. 훈련

된 상담자들에 의한 케어는 상담과 삶의 기술에 대한 실제적인 워크숍을 통해 과도기를 잘 통과하도록 도울 수 있다.

아프리카 현지인 선교사들에 대한 격려. 아프리카 교회는 점차 더 많은 선교에 참여 하고 있다. 투마이니는 아프리카 교회 내에서 그들의 사역을 무장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프리카에서 다른 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네트워크와 협력. 이것은 다른 선교사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케어를 마련할 것이다.

인턴십 프로그램. 선교사들을 위한 미래의 상담자들이 세계로 흩어질 때 현지 임상 경험과 조언을 공급해 줄 것이다.

선교 지도자 훈련. 인간관계와 경영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 훈련. 현지인 지도자 훈련을 위한 성경적 자료개발을 위해 선교사들과 상담한다. 에이즈 위기의 심리적, 감정적, 영적인 충격과 아프리카에서의 종족 갈등은 소수의 지역에서만 언급될 것이다.

필요한 스텝들의 충원과 함께 최근 투마이니의 시설은 한계에 이르렀다. 투마이니 센터는 옥상에 작은 사무실을 갖춘 네 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를 임대했다. 큰 거실은 대기실로, 베란다는 세미나 방/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는 효과적 멤버케어를 위해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조용한 내부공간과 충분한 주차장이 마련된 상담 센터 신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센터에는 10개의 사무실과 여러 개의 그룹 세미나실, 전문 도서실, 일반 도서실, 대형 세미나실이 있다. 투마이니는 나이로비 근교의 쾌적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 센터는 도시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기에 조용한 분위기와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투마이니 센터의 목표는 전문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상담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6. 선교현지 상담 센터의 유익

선교지에서 잘 조직된 상담/멤버케어 센터는 선교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준다.

1) 선교 인력들에게 주는 유익

- 전문적이며 신앙적인 상담.
- 상담 센터가 선교현장과 인접해 있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선교지에서 상담은 가족의 연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 선교지에서 상담은 보다 유용하다.
- 선교지에서의 상담은 재정적, 시간적 경비를 줄일 수 있다.
- 선교지 상담 센터는 본국에서 상담을 할 수 없는 선교사들에게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 선교지 상담자들은 추천서를 제공하고 선교회 사이의 협력, 그리고 자원과 지식의 공유를 촉진 할 수 있다.
 - 선교사의 상담은 선교 사역의 갈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2) 선교 단체들에게 주는 유익

- 상담 센터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문적 케어를 제공한다.
- 상담 센터는 선교사 모집에 있어서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 상담 센터는 건강한 근무 환경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상담 센터는 스텝 문제, 선별, 요구되는 평가, 그리고 인사정책과 관련된 현지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상담 센터는 장기간의 스텝 발전, 리더십 훈련, 현지인 상담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상담 센터는 선교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변화의 대행자가 될 수 있다.

3) 선교 사역에 주는 유익

- 선교 공동체는 많은 절박한 필요와 갈등에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강해질 것이다.

■ 상담가들의 준비된 후원은 선교사의 소명, 훈련, 그리고 문화와 언어 습득을 위한 귀중한 투자를 보호할 수 있다.

■ 투마이니의 상담자들은 전방 선교사들이 건강한 방법으로 그들의 가족, 동료, 그리고 목표 그룹에 대해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자가 된다.

7. 사례들

다음의 사례들은 단지 투마이니 상담센터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례들은 사실이지만, 각 개인과 선교단체의 보호를 위해 다른 이름을 사용하였다.

1) 사례 1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에게 상존하는 위험은 열악한 도로 사정이다. 지난 수년간 많은 선교사들이 사고를 경험했다. 그 중 어떤 이들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거나 죽기도 했다. 여러 선교 기관들은 그와 같은 사고뿐 아니라 선교사의 부주의로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생명을 잃게 한 사고들로 투마이니 상담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쥬디와 조 부부는 한 미전도 종족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해 어려움을 투자했다. 그런데 조는 비극적으로 교통사고로 죽었다. 쥬디가 슬픔을 극복하는 동안 그녀는 투마이니에서 상담을 받았다. 선교지 현장 상담을 받으며 쥬디는 남편과 함께 추진했던 중요한 교회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2) 사례 2

오지에서 삶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다. 동부 아프리카와 중앙 아프리카의 많은 선교사들은 비슷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다.

메리와 존은 두 자녀와 함께 오지에서 살았다. 그들은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역지에는 기독교를 강력하게 적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상황을 영적 억눌림으로 묘사했다. 어느 날 존이 출타 했을 때 한 남자가 침입하여 메리를 밧줄로 묶었다. 메리의 자녀들 앞에서 그는 무서운 협박을 했고 많은 물건들을 훔쳐 달아났다.

메리와 존은 몇 차례의 디브리핑과 정신적 외상진단을 위해 현지 상담가를 만났다. 메리가 가졌던 과거에 감정적인 이슈들로 치료가 복잡해지자 그 상담가는 병가를 내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다. 안식년 기간 동안 메리는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진단되었다. 메리의 치료는 꽤 잘 진전 되었다. 그들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길 희망했고 상담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아이들과 함께 고국을 떠났다.

처음에는 사역이 잘 되어 나갔다. 하지만 메리는 집안일과 어린 아기를 돌보는 것과 홈스쿨링으로 더욱 힘들어하기 시작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다시 메리에게 나타났고 그것은 심한 우울증으로 발전되었다. 메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온 가족은 나이로비로 철수했고 메리는 투마이니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8주 동안 메리의 치료는 훌륭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메리의 가족은 메리의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해 이전의 고립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메리의 가족은 어렵지만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투마이니 상담센터에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3) 사례 3

그린 부부는 중요한 후원자로서 현지인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들의 청소년 아들 피터에게 심각한 강박 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가 나타났다. 그는 날마다 손을 씻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계속하여 매달렸다. 피터는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피터의 부모는 투마이니에 치료를 부탁했다. 치료법은 부모가 가까이에서 도와주면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피터의 형편이 안정될 때까지 임시 사역을 하게 되었으며 케냐에 재배치되었다. 피터의 치료는 잘 이루어졌고 지금은 주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피터의 부모들

은 이전의 사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4) 사례 4

쥬디는 온 국민이 기아에 직면해 있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온 30세의 간호사 선교사였다. 쥬디가 속한 선교단체는 전쟁과 기근에서 그들의 선교사들이 견디고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소속 선교사들에게 6주에 한번씩 나이로비에서 사역을 보고하고 휴식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쥬디는 그러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투마이니에 상담을 요청했다. 그녀는 불의를 향한 그녀의 분노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다. 게다가 쥬디와 다른 동료들은 박격포로 집이 불타버린 일에 대해 투마이니에서 디브리핑을 받았다. 쥬디는 투마이니의 후원으로 힘든 임무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다.

5) 사례 5

선교사 자녀인 11살의 존은 학교에서 과제를 마치는 것을 힘들어했고 자주 산만했다. 존의 어머니는 존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홈스쿨을 했다. 존이 집에서 공부할 때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기숙사 학교에 다니면서 존은 친구들과 문제를 갖게 되었고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선생님의 추천으로 존의 부모는 그를 투마이니로 데려 왔다. 존은 집중장애로 진단 되었다. 투마이니의 아동 정신과 전문의는 존과 부모에게 집중장애에 대해 설명하고 가족과 학교에 대해 행동치료 요법을 제의하였고, 약물 투여를 처방했다. 또한 존은 교육 심리학자에게 의뢰되었다. 계속된 테스트로 존은 학습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존의 부모가 사역을 계속하는 동안 투마이니는 존의 약물 치료, 학업 상태, 가족과의 상호관계를 계속하여 관찰하고 있다.

8. 토의 주제

1.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투마이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2. 선교지 센터에서 상담자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자질은 무엇인가?
3. 선교현지의 선교사 케어 센터가 현지 선교사들이나 현지인 상담자들을 후원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4. 선교단체나 서비스 제공단체가 이 장에 설명된 선교현장의 선교사 멤버케어 사역을 설립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과 위험 요소들은 무엇인가?
5. 선교사/멤버케어 센터를 둘 수 있는 전략적 지역은 어디인가?



크리스토퍼 쇼 *

다른 대륙으로 파송되는
라틴 아메리카
선교사의 계속적인
증가는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는
선교과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
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첫 세대 사역자들의
갈등으로부터의
교훈은 미전도 종족에게
진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15장

라틴 아메리카 선교의 목회적 케어에 대한 각성

어느 누구도 이미 지나간 사소한 것들이나 불필요한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의 열심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때로는 절망의 언저리에서 교회는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기 위해 애를 썼다. 흥분된 젊은 자원 봉사자들로 복음의 전선을 조금하게 채우며 수백 명의 남미 선교사들이 페루로부터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보내졌다.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서 빛을 발할 시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교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 일어났다. 수년 동안 대륙 전체에 걸쳐 고립된 작은 무리의 지도자들이 선교에 참여할 것을 주장했던 메

* 크리스토퍼 쇼(Christopher Shaw)는 아르헨티나에서 나고 자랐다. 그는 1982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성경 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후에 캘리포니아의 풀러신 학교에서 선교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20년 이상 목회를

시지는 주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행해진 셈이었다. 이 선교에 관한 것이 일깨워진 것은 최종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코미밤(Iberoamerican Missions Cooperation)의 후원으로 1987년에 상파울루에서-이런 대륙적인 모임은 처음이었다-열린 선교 대회였다. 코미밤에서, 땅 끝까지 왕국의 확장을 주장하는 합류의 나팔 소리는 어느 때와는 다른 확신을 주었다. 중남미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의 3,500명 이상의 대표자들은 그 지역이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에 따른 교회의 반응은 많은 교단의 지도자들의 기대를 넘어섰다. 오늘날 중남미 대륙의 각 나라에서 어렵잡아 약 4,000명의 중남미 선교사들이 10/40 창문 지역을 포함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Limpic, 1997).

1. 목회적 케어의 필요

이 운동 초기에는 라틴 지도자들이 라틴 사람들이 소유한 선교적 잠재능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흔치 않았다. 라틴 사람들은 북반구 선교사들에게 개방적이지 않은 나라에서 사역하기에 적당히 잘 혼합된 문화와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 파송국들(the Older Sending Countries)의 선교사들이 저지른 실수들이 라틴 사람들에게 의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실수의 결과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깨달음은 라틴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경험 부족에 따른 지나친 자신감은 교회로 하여금 목회적 케어를 경시하

하고 있다. 1992년 이후부터 크리스토퍼는 브라질 선교 단체인 카이로스(Kairos)의 객원 강사로 섬기고 있다. 브라질 선교 단체 카이로스는 세계의 주요 중심 도시에 있는 빈민가의 사역을 위해 라틴 사람들을 선발하고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있다. 선교지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해 그는 페루, 칠레, 스페인 그리고 필리핀을 여행했다. 그는 인성 개발과 선교사의 멤버케어에 대한 주제로 여러 개의 논문을 쓰기도 했다. 크리스토퍼는 아이리스(Iris)와 결혼했고, 그들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살고 있다.

Email: fliashaw@sinectis.com.ar.

도록 만들었다. 교회가 추구한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현지로 파송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어떤 지도자들은 극심하게 어려운 지역일지라도 라틴 선교사들은 방해받지 않고 전진하리라 기대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어떤 지도자들로 하여금 선교지의 어려움을 선교를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로 생각하게 했다. 그 결과 피할 수 있는 어려움과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시간을 대부분이 갖지 않았다.

첫 번째 대륙 규모의 선교 대회가 있는 지 15년이 지났다.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대회들이 라틴 아메리카 도처에서 열렸다. 선교의 주제는 많은 지역 교회들의 비전의 일부가 되었다. 선교 초기부터 계속된 불상사들이 여과되어 본국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선발, 훈련, 선교사 파송에 관련된 이슈들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주체한 조사에 따르면 어떤 기관들은 과거 10년 동안 사역자들의 40% 정도를 잃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최악의 상태는 사역자들이 교회에 등을 돌린 경우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낙오자들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불편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선교사 문제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 단체들에서 추구되었다. 그 지역의 주요 지도자들 가운데 선교사들을 위한 멤버케어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증되는 관심은 근자에 있었던 선교대회나 집회에서 시행된 목회적 케어 워크숍에 포함되었으며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목회적 케어에 반영되게 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스텝들에게 이 선교 사역을 위한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한 글들이 기독교 서적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선교와 관련된 교회, 파송 단체, 훈련센터와 함께 자원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관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설립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만일 선교지의 고난과 패배에 대한 이야기가 라틴 사람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꺾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발전은 환영되어야 한다. 예방적이고 회복적인 케어가 타문화권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선교운동의 방향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2. 라틴 아메리카 선교사들의 중도탈락에 기여하는 요소들

라틴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일련의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 요소들의 어느 정도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공통된 것들이다. 이러한 면에서 라틴 사람들은 교회사를 통하여 비슷한 문제들로 갈등해왔던 세대들과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요소들은 전형적으로 라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관계된다. 이들 중 어떤 요소들은 목회적 케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파블로 카릴로(Pablo Carrillo, 1995)는 그의 글에서 라틴 사람들과 관계된 선교 문제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파블로는 20년간의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세 개의 광범한 문제 영역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들은 오늘날에도 크게 당면하고 있는 것이다.

- **사역자들 내에서의 문제**-다른 사역자들과의 관계상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한 능력 부족; 사역자의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영적인 생존을 위한 도구 부족.
-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문제**-재정자원의 부족; 조직의 차이; 선교사들이 의미 있는 사역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의 부족.
- **선교 단체의 문제**-계획과 전략 개발의 부족;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 부족.

1) 현존하는 교회 구조의 약점

멤버케어는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남미 사람들은 가족, 친구들, 그리고 협력 사역자들과 사회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갖는다.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안에서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지역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행사들은 이러한 관계들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공급한다. 만일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후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졌다면 어떤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처리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인 삶의 많은 부분들은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도적인 목회적 케어는 자주 설교로 대치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모임을 제공하려는 막대한

헌신은 목회자들이 교회 신자들에게 제공하는 개인적인 케어와 충돌된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개발됨에 따라 그들 역시 끝없는 공식적인 활동에 빠지고 만다. 목회자들은 특정한 사역에서 자연스럽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로써 목회적 케어가 필요 없다고 여긴다. 목회자들은 지도자들이 목회자의 보살핌 없이 개인적인 필요를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양상들은 선교지가 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 선교사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모임에 자주 의존해 왔던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의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 정착하게 될 때 고립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동시에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그들의 삶에 존재하는 문제와 갈등, 상처들은 선교사/지도자들은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그릇된 가정으로 인해 부인될 수 있다. 부인(denial)은 내재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행하지 않으며 선교지에서 자기패배의 형태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선교지에서 선교사 부부는 그들의 결혼 관계가 와해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혹은 팀과의 갈등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알리거나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본국의 지도자에 도움을 요청하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대신, 이 부부는 그 문제들이 그들의 사역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들은 “끔찍하지 않고” 그 문제들이 다른 사역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혹은 그들이 주님의 사역에 충성할 때 주님이 그들의 문제들을 처리해 주실 것을 바랄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 즉 선교지에서 그들이 직면해야 하는 다른 많은 문제들을 올바로 처리할 경험도 없고 그러한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이다.

2) 개인적인 노력에 관한 강조

많은 지도자들이 적절한 후원 없이 사역을 책임지거나 그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역에 관심을 두게 한다. 적절한 멤버케어의 부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느끼게 한다. 사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종종 부족한 자원들

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잠재적인 경쟁자들로 간주된다. 다른 이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위협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한편, 각자는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서야만 한다. 강하고 권위주의적인 지도자 중심의 문화적인 성향은 그러한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러한 태도는 사역에 연관된 많은 사람들도 편만할 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강한 교파적인 압력은 종종 자기 교파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의심 혹은 심지어는 적대감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게 한다.

비록 최근 수년 동안 여러 집단들을 분리시키는 강력한 장애물의 일부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라틴 사람들은 팀으로 일하는 데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철저한 강조는 대화나 협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한 명백한 반항의 태도로 인한 논쟁이 이따금 일어난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선교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불화들이 선교지에서 쉽게 드러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선교사들이 팀으로 구성되었을 때, 다른 팀 멤버들과의 견해 차이는 사역에 있어서 주요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갈등해소를 위한 도구들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개별 구성원들이 팀 구조 내에서 기득권을 얻기 위해 경쟁할 때 참을 수 없는 수준의 긴장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별한 어려움은 아이러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라틴 사람들의 삶의 질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들이 생각이나 열정의 깊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강점은 선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다시 말해, 라틴 사람들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지역교회의 틀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떻게 이러한 질적인 면들을 더 심도 있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

3) 단기 훈련 경험

보다 형식적이고 학문적인 형태의 훈련을 받지 않으려는 일반적인 경향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공통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보다 인격적이고, 적절한

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교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선교 훈련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은 인격 개발, 공동체 경험, 전도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 교회 개척, 그리고 제자 훈련과 같은 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왔다. 이러한 변화는 사역을 준비하는 전 영역에 있어서 절실한 갭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훈련에 할당된 시간들을 철저하게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공식적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4년 코스는 고도로 압축된 4개월 정도의 짧은 훈련으로 대체되고 있다. 비록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제적인 현지 경험이 필요한 좀 더 큰 프로젝트의 일부이지만, 짧은 기간의 훈련은 종종 효과적인 학습경험에 필요한 감독(supervision)의 결핍을 초래한다.

이 훈련의 조급성은 보통 선교지에서 분명히 문제를 야기할 후보생들의 삶의 이슈를 올바르게 지적하고 다룰 시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치료에 대한 절실한 필요나 심각한 인격적인 문제들을 가진 많은 후보생들이 적절한 관리도 받지 못하고 선교지로 떠나고 있다. 이렇게 적절한 도움으로 후보생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때, 그들의 삶에서 처리되지 않은 영역들은 선교지에서 흔하게 받는 압박을 경험하면서 크게 표면화되기도 한다.

4) 목회적 케어에 대한 낮은 헌신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회 지도자들은 종종 고국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목회적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심한 압박을 받는다. 자원과 시간의 부족, 부적절한 훈련 그리고 다른 주요 요인들이 많은 교인들에게 수준이 낮은 목회적 케어를 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주의 단체들이 교회 출석교인 수의 증가를 통해 성공적인 목회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 받는 심한 압력이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대형 교회의 가시적인 사역들을 강조하는 보고서들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모방 교회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 신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후원 구조들을 제공함이 없이 교회확장에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적인 교회확장만 특별히 초점을 두는 목회 사역은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어려운 선교지에 파송된 팀들이 좌절감을 맛보는 경우는, 특히 본국의 파송 교회들과 비교하여 성장하는 교회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이 안타깝게도 보잘 것 없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이다. 선교사들이 그들과 다른 규범을 가진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파송 교회는 동일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단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 그들이 개인적인 문제들이나 팀 내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뿐 아니라, 만일 그들이 복음전파의 중대한 공헌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선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자원들이 잘못 사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교회 지도자들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목회적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바람직한 투자로 항상 이해하지는 않는다.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성도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선교사들은 초대를 받아 선교지에서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 분주한 여행을 한다. 선교사들은 후원자들에게 “보람 있는” 결과를 보고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새로운 선교 후보생들을 동원하고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모금을 기대한다. 선교사들이 귀국하기 전에 많은 일정들이 잡혀있다. 본국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들로부터 그들의 상처, 좌절, 분노 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선교지에서 문제시되었던 것과 똑 같은 부인(denial)이 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하거나 그들의 아픔과 귀국시의 필요를 해결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5) 너무 부족한 자원들

교회와 선교 지도자들이 목회적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를 온전하게 이해할 때조차도 그들은 그것을 실행하기 어렵게 하는 부족한 자원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후원금은 제한되어 있고 선교지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에는 아주 빠듯하다. 하지만 후원금의 부족만이 문제

는 아니다. 해외에서 목회적 케어를 위해 은사가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그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관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종종 불평을 한다.

그러므로 지난 10년의 경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알려주었다. 첫째, 선교사들은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올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확고한 목회적 은사를 가지고 감정적 상처에 대한 치료와 인간관계의 갈등해소 방법에 대한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나이 또한 중요하다. 라틴 선교사들은 위기 시에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든 사람들과 더 쉽게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 찾아볼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공헌할 수 있게 만드는 경험적 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한된 케어 제공자들이 선발되어도 그들을 동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정확한 장소에 배치하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이 사역자들 가운데 몇 몇은 다수는 쉽게 사역지를 떠날 수 없는 책임을 맡고 있기에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가 너무 힘들다.

3. 목회적 케어를 제공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

선교사들을 위한 목회적 케어의 이슈를 해소하는 데는 특별한 창의성이 요구된다. 20년 전에는 선교의 주요 파트너로서 라틴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라틴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참가자들이 되었고,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 공동체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다.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 실제로 현실화된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멤버케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선교사들은 계속 공급 되어야만 한다. 라틴 사람들이 일어나 주님의 추수지에서 그들의 자리를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한편, 일군들을 위한 건강한 목회적 케어를 위해 필요한 후원 구조를 세우려는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경험이 확장되어 갈수록 우리의 선교사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는 방법들을 보다 더 잘 깨

단계 될 것이다.

기존 파송 국가들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제공하는 포괄적인 목회적 케어는 명백하게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들은 선교사들을 준비시켜 파송하는데 오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국가 경제의 견고한 재정적인 이점을 누리고 있다. 북반구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보여준 목회적 케어에 대한 접근은 사역의 통전적인 모델에 대한 강한 강조, 균형이 잡힌 우선순위를 통한 탈진 방지, 팀 내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 그리고 견고한 재정적 후원으로부터 오는 보장과 같은 그들 자신의 문화적 특성을 입증한다. 주님은 이 상황에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라틴 사람들에 있어 세계 선교는 매우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과 함께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따라서 오늘날은 특히 라틴 선교사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선교사들을 케어하기 위한 수단들을 탐구하고 발견하기에는 아주 최상의 시기이다. 그렇다면 우리 라틴 사람들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문화적으로 상관적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1) 목회적 케어를 위한 팀 훈련

멤버케어를 제공할 사람들 자신이 현지에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주장이다. 원칙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보다 선교사들의 특별한 필요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교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선교사들을 위해 적절한 목회적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더 유익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선교사들을 위해 목회적 케어를 제공하는 것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은사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더불어 더 심각한 문제는 선교 경험을 가지고 이 영역에서 도울 수 있는 충분히 많은 라틴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시간이 경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적절한 목회적 케어의 필요는 매우 절박하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요구되는 기술은 광범위하다: 팀 구축, 갈등해소, 결혼 생활의 향상, 자녀교육, 가정생활, 위기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이다. 흥미 있는 하나의 대안은 교단이나 선교단체의 전체적인 선교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목회적 케어를 훈련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집중화된 프로그램에만 의지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훈련은 비록 계속된 실제적인 경험과 관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만 통신 과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내가 보기에 앞으로 좋은 방법은 신중하게 소규모 그룹을 선발해서 구비시키고 세계 여러 선교지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필요를 직시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단체 지도자들과 선교지 지도자들과 연결되어 현재 목회적 케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발에 참여 할 수 있다. 초기에 이 프로그램은 지역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함으로 기본적인 상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들을 그들에게 구비케 하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선교 지도자들과 상담자들과 함께 선교지 상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행도 할 수 있다. 사역 팀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친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짐을 끝없이 지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살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은 틀림없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모든 개척 상황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적으로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은 보다 많은 선교 단체들에게 사용 가능한 목회적 케어 담당자들의 네트워크 발전에 일부가 될 것이다. 적절한 케어를 제공할 수 없는 파송 단체들이나 교회들은 그러한 팀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팀에서 경험이 적은 상담자들은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위기 상황을 다루고 있는 동안, 다른 선교지들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지역 교회를 인식시키는 일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두 번째 영역은 지역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사들도 목회적 케어가 필요함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선교사들에 대한 목회적 케어를 위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 교회가 선교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연결점을 이용해서 파송 단체와

함께 일을 해야만 한다. 지역교회는 선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 시련과 기쁨, 성취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 세미나와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를 케어하는 지도자들과의 개인적인 대화는 지역 교회가 다른 지역을 섬기고 있는 파송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비록 목회적 케어에 대한 문서가 거의 없는 곳이라 해도, 간단한 글들은 그 주제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듣고 놀라는 지도자들을 돕는데 매우 잘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교 단체들은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들을 이해 하도록 파송 교회들을 도울 수 있다. 세심한 계획을 통하여 귀국 선교사들은 선의로 행하지만 예민하지 못한 신자들이 선교사들에게 주는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위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는 않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침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치료와 축복의 도구가 되어 필요한 도구들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3) 목회적 케어를 훈련의 일부로 만드는 것

마음의 감동 없이 진행되었던 지적인 모델로부터 훈련의 놀라운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공동체의 삶은 후보생들이 선교지에서 팀으로서 함께 살고 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미리 맛보게 한다. 경건 생활의 강조는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는 습관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새로운 훈련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양상은 후보생들의 삶에서 문제 영역에 대한 지식과 인격의 약점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값으로 살 수 없는 통찰력은 너무 귀중해서 훈련 지도자들이 영성하게 관찰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한다. 훈련 부족, 팀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부족, 과거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부족, 혹은 정해진 규칙을 지킬 수 없는 능력과 같은 이러한 특별한 약점들은 후보생들이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충분히 조정된다. 후보생들이 선교지 경험이 없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선교 경험과 그와 연관된 전체적인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지식을 후보생들에게 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후보

생들을 개인적으로 더 많이 섬길 뿐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돕는다. 예를 들어, 나는 한 프로그램에서 자유 시간이 거의 없이 꽉 짜여진 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꽉 짜여진 훈련은 그 기간동안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도 빼앗는 경향이 있다. 결혼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대신에 우리는 부지중에 선교지에서 꽉 짜여진 훈련생활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계속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훈련 기간 동안 자격을 갖춘 목회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 리더들이 선교 임무를 위해서 다른 중요한 특성들을 발전시키는 일을 계속하는 동안 자격을 갖춘 목회자들은 이러한 이슈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후보생들을 돕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훈련생들은 종종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치료의 과정과 갈등 해결이 스스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훈련은 후보생들에게 그들 자신과 그룹의 상황 가운데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목회적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후보생들을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들로 훈련하여 다른 팀 멤버들을 위해 목회적 케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선교사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을 다룰 수 있도록 더 잘 무장될 수 있다.

4) 자원 공유

목회적 케어를 위해 신생 파송국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아마도 매우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변화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역사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선교사역의 성공은 결코 사용 자원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이런 의미에서 우리 라틴 사람들은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아주 잘 무장되었다. 참으로 많은 라틴 사람들은 선교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실제적이고 훈련된 믿음

이라고 생각한다.

확신하기에 선교는 자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방에 있는 사역자들의 필요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가져야 하는 민감성으로서 교회 안에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케어를 강구하는 것이다. 민감성이 존재하는 이상 자원은 쉽게 활용될 수 있다.

나는 보다 건강하고 잘 준비된 사역자들을 선발하고 무장시켜서 선교지로 파송하고자 하는 교회와 선교 기관이 출몰할 것을 꿈꾼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혼자 일하고자 하는 성향을 버려야 한다. 대신 우리 자신과 비슷한 관심을 갖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목회 경험과 자원은 점차 증대되므로 우리는 그러한 경험과 자원들을 서로 나누어야만 한다. 의심이나 독자적인 계획은 교회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죽은 문화적 첨가물(accretion)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상담자와, 훈련자, 선교 보고자, 목회적 케어 담당자, 선교사 상담을 포함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네트워크를 이용해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제공된 자원들을 사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라틴 문화에서는 불신과 다른 사람들을 접근할 때 갖게 되는 망설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추천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 지역에서 지도자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다른 선교 공동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중요한 지도자들의 승인에 달려 있다. 지도자들은 공동체에서 자연스러운 교제와 그들이 가진 권위를 이용해서 지도자들을 어느 한 그룹에만 헌신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목회적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해마다 가난한 자들이 증가되고 있고 선교사가 점차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나라들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한 역경은 장애가 되기보다는 전례가 없는 관대함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기적인 경쟁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의 무한한 자원을 탐구할 수 있는 이 얼마나 귀중한 순간인가!

4. 결론

수년 동안 우리 라틴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다른 나라의 선교 프로젝트인 선교 대상지로 받아들였다. 정말로 우리 자신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공헌할 수 있으리라고는 거의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 있었다. 지난 20년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에 매우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우리 역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숙원인 그리스도를 다른 나라에서 섬기며 그러한 꿈들이 서서히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미래의 길은 좋고 나쁜 온갖 종류의 경험들로 채워질 것이다. 청년기의 열심에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다.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후퇴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선교 사역에 합류했고 하나님이 라틴 사람들을 위해 창조하신 그 특별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토의 주제

1.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는 빠른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같은 속도로 라틴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향해 떠나가고 있다. 이러한 진행이 열심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
2. 파송 교회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통신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어떤 방법으로 지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예산으로 선교사들과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가?
3. 만일 당신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케어 팀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맡을 것을 요청 받았다면 당신은 그러한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겠는가?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단계들을 밟겠는가?
4. 라틴 사람들의 견해를 가지고 쓴 목회적 케어에 대한 서적을 필요로 하

고 있다. 지역적인 목회적 케어 사역자들과 선교 지도자들은 선교 프로젝트를 위한 출판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5. 새로운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업이다. 선교사 양성의 전통적인 모델과 새로운 모델이 갖는 위험들이 이 장에서 대략 설명이 되었다. 만일 당신이 예방차원의 목회적 케어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어떤 요소들이 선교사 훈련 경험에 포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가?

† 참고문헌 †

Carrillo, P. (1995). Struggles for Latin Americans in frontier mis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12, 195-198.

Limpic, T. (1997). *Ibero-American missions handbook*. COMIBAM/OC International.

제 16 장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목회적 케어: 파송교회를 위한 제안들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타문화 선교 운동은 35년도 채 되지 않는다. 라틴 선교운동은 모든 새로운 선교 운동들과 같이 힘과 열정은 있지만 경험은 부족하다.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성경적 기초를 확고히 하기 위해 그 기초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금세기의 과업을 맞이하면서 잠시 멈추어 서서 성찰의 시간을 가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우리는 선교를 위한 신학적인 원칙을 분명히 하기 원한다. 부언하여 우리는 타문화 이해, 사역 기술, 열정, 그리고 선행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 파블로 카릴로 루나(Pablo Carrillo Luna)는 멕시코에서 태어났다. 그는 폴리테크닉 나시오날(Politecnico Nacional) 연구소에서 산업 공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71-1974년까지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스페인 오엠(OM)에서



파블로 카릴로 루나 *

남미의 파송 교회들은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라틴 지도자들의 목회적 케어에 관한 숙고와 제안을 제시한다.

라틴 아메리카 교회의 선교는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라틴 사역자들이 선교지에서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원을 드러낼 것이라 여긴다.

1. 선교 이해에 있어서의 한계

지역 선교회의에서 제기되는 호소에 대해 젊은 선교사들이 반응하는 태도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 없이 그리고 많은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그들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고자 결심 한다. 나 또한 그러한 결정을 여러 번 내린 적이 있었으며 지난 18년간 라틴 젊은이들을 면접한 사람으로서 선교 참여 방법에 있어서 주요한 두 가지 면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는 선교를 위한 이러한 선택 방법은 잘못된 것이며, 둘째는 이 젊은이들의 잘못된 동기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주님의 선교를 가장 잘 설명했다고 생각되는 몇 개의 구절들을 많이 사용해 왔다. 구약 이사야 6장 8절("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과 신약 마태복음 28장 18-20절("세상으로 가서...")이다. 만일 이 구절들이 우리가 강조하는 주된 것들이라면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부르심에 마지못해 응답하는 것이나 응답한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선교에 대한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많다. 우리는 새로운 접근을 찾아 성경 전체를 재검토하고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 라틴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재발견해야 한다. 참된 지식이 우리의 선의의 열심에 더해져야 한다!

사역했다. 파블로는 제인(Jane)과 결혼해서 세 자녀(나타샤는 24, 유세프 20, 야밀라 18)를 두고 있다. 그들은 1979년부터 사역의 기지인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살고 있다. 피엠(PM) 인터네나시오날(Internacional)의 설립자이자 전 회장인 파블로는 레이몬드 룰(Raymond Lull) 세미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 도구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라틴 선교에 대한 성경적 성찰을 하도록 격려한다.

Email: saulus1030@cs.com.

선교대회는 여전히 선교 사역을 위해 젊은이들을 모집하는데 동기화되어 있다. 이러한 모델이 갖는 문제는 대회에서 선교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보다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장기 사역에 적합하게 여겨지는 *점액질형의* 사람들은 감정적인 형태로 응답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아는 일반적인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예상은 정확했다.

더욱이 선교 지원자들이 선교지에 가길 원하는 이유를 설명 할 때, 그들은 자주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라고 대답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소명"은 "이것으로 의논은 끝입니다. 누구든지 이 소명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주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로 번역된다. 물론 선교사의 부름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편도 제공하셨다. 신약에서 확인은 항상 지역 교회를 통해 온다.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명이 재확인되지 않고 선교 사역에 파송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며 실제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다메섹 도상에서(행 9:3-7) 명백한 소명을 받은 사도 바울조차도 후에 교회의 멤버들의 객관적인 심사에 복종했다(행 9:10-18, 27, 30; 13:1-3).

일반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의 개념은 선교단체(많은 경우 외국 단체)가 선교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강탈하는 것과 같다. 후에 그 선교단체는 그들이 강탈한 젊은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돈을 요청하러 교회에 온다. 지역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수동적이었으며 선교회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선교의 방법이 되어 왔다. 우리는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교회론과 포스트모던 세계의 한 가운데에서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라틴 아메리카 선교사들의 갈등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갈등들은 라틴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부족한 이해의 직접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

에 선교사 후원을 위한 재정 부족은 교회가 선교 사역에 대해 완전한 신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른 경우들은 지역 교회가 결과, 숫자, 그리고 투자에 대한 보상과 같은 기업 방식으로 선교를 한 것에서 기인한다. 그런 방식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선교지에서 과장된 기도 편지를 쓰게 하며 열매가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활동들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때때로 본국의 기대에 따를 수 없으므로 선교사들에게는 죄책감과 우울함의 증상이 나타난다.

다행스럽게도 어떤 라틴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그들에게 임한 새로운 기회로 그들의 선교 과업을 다시 정의하며, 그들의 후원자들을 다양화함으로써 이러한 면을 개선하고 있다. 관계를 구축하고 “결과”를 얻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들은 라틴 사람들에 의해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 교회의 일부에서 계속되는 선교 과업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교회 지도자에 의한 선교와 선교지 방문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은 실제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의 또 다른 이슈는 선교지에서의 자녀 교육이다. 라틴 선교 운동이 발전하면서 이에 관련된 선교사의 가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선교사 자녀들의 존재와 필요성이 선교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다른 파송 국가들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전략은 좀 더 확실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기로 라틴 교사들을 선교지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선택은 홈스쿨링이었지만 이것은 조심스럽게 재검토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국적”인 것이고 어쩌면 본국에 있는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자녀들을 현지 학교나 어떤 경우에는 불어나 영어와 같은 국제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 보내는 추세였다. 하지만 교육 여건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 성장한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파송하는 것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국 선교 단체와 라틴 지역 교회들은 이점에서 경험 있는 라틴 선교사들의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지역 교회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의료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일이다. 본국의 지역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그러한 보증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같은 교회에서 파송한 젊은 선교사들을 위해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을까? 쉬운 해결책이 없다. 이 부분

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채워질 때까지 선교사들의 예정된 출국이 지연되기도 한다. 많은 선교사들이 의료 보험 없이 선교지로 나간다. 완전하게 의료 보험과 생명 보험을 들고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폭발 직전의 나라들에 선교사들을 파송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결정들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교회와 지원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문제는 그들이 이 결정이 의미하는 것을 완전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이 위험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이다.

3. 교회 오리엔테이션과 참여

선교지에서 라틴 사역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그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 떠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건강한 지역 교회는 이러한 이슈들을 언급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만일 모집이 부주의하게, 혹은 교회 지도자들의 승인이나 깊은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들을 반복할 것이다. 사역자들은 준비 없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존경하는데 있어서 갈등할 것이다. 현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 자신을 훈련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권위를 오해할 것이며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힘들어할 것이다. 성경의 공동체가 실행되어지고 있는 교회는 지원자들의 감정적이고 영적인 안정도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파송 단체들로부터의 질문지와 면접들 역시 유용한 장을 마련해 준다. 물론 지원자들의 행동과 성장을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만일 교회나 교단이 선교사 후원을 위해 적정한 선교비를 책정한다면 재정적인 스트레스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파송하는 기관은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기관과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대는 편협한 교파주의라는 구습을 반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바른” 교리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본국교회를 그대로 닮은 현지 교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협력의 부족은 고립된 방랑자들과 선교사들을 낳는다.

4. 유용한 제안들

이 주제에 대한 이전 글에서 나는 라틴 아메리카 선교사들이 갈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Carrillo, 1995). 이 영역들은 선교사 자신들과 파송교회이며 선교단체였다. 이것들은 고립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리된 실체들이 아니다. 이 장에서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라틴 사역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과 해결책 모두 교회 안에 존재한다.

말할 것도 없이 선교사역에 대한 성경적 기초와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지역 교회의 역할은 이론과 실습보다 더 중요하다. 파송 교회는 선교사의 사역이 주님 자신께 하듯 탁월함으로 실천 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탁월함의 일부는 선교와 라틴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이슈들인 성경적인 근거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포함한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가야할 선교지, 책임져야 할 선교사의 프로젝트, 사역자들을 위한 사역 기대, 파송 단체의 기대와 헌신, 그리고 책임의 유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 개의 훈련 코스가 있고 좋은 의도에서 나온 체계적인 방법들이 있다. 내 경험으로 이러한 것들은 매우 실제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도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 혹은 라틴 교회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실제적인 도구는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실제적인 단계들은 레이몬드 룰(Raymond Lull) 세미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4-15세기경에 이슬람교도 세계의 선교를 처음 제안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 룰은 스페인에 살았다. 우리가 제한된 지역에서 사역하는 라틴 사역자들을 위한 목회 케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는 동안 그의 이름과 관련된 이 세미나가 탄생했다. 처음에 우리는 파송 역사가 깊은 국가들 중에 어떤 일반적인 방법은 방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교지로 나가고 있는 많은 라틴 사역자들에게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좌절되어서 본국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교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를 물었으며 많은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

그 세미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선교의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기초를 재검토한다. 아이디어는 라틴 지도자들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지원자들은 성서적인 견해를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신실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수레바퀴를 개혁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선교 역사와 우리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세미나의 두 번째 부분은 이슬람 세계를 다루는데 우리가 복음과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과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선교의 실재를 파악하게 한다. 선교 과업에서 라틴 교회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가 무엇이고 교회와 선교 지원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이몬드 룰 세미나(SRI)는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었다. 그리고 칠레,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서 이 세미나를 처음 소개했을 때, 그들의 열렬한 수용은 그러한 도구의 필요함을 확인시켰고, 그 세미나가 문제를 설명하는데 올바른 도구임이 증명되었다. 레이몬드 룰 세미나는 라틴 아메리카 교회 성장의 중요한 시기에 그들의 중대한 필요를 채워준다.

교회가 선교 사역에서 경험할 실망과 더 많은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아직 늦지 않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세계 선교에 라틴 교회의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하도록 라틴 교회에 역사하고 계심을 감지한다. 하지만 교회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라틴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이 충분히 있다.

5. 토의 주제

1. 라틴 파송 교회들을 위하여 저자가 언급한 도전에 대하여 나열하라. 이러한 도전들이 당신 자신의 파송 교회/나라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2. 파송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후원하는 파송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3. 선교 참여에 있어서 라틴 아메리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상호협력을 위해 당신은 어떠한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가?

4. 선교지에서의 케어와 연관된 라틴 아메리카 선교 이슈들/갈등들을 기존파송 국가들의 것과 비교하고 대조해 보라.

5. 선교 대회 이외에 선교에 동참할 젊은이들을 동원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은 무엇인가?

† 참고문헌 †

- Bertuzzi, F. (Ed.). (1994). *Rios en la soledad*. Alcantara, Argentina: Unilit.
- Bosch, D. (Ed.). (1999). *La mision transformadora*. Grand Rapids, MI: Eerdmans.
- Bowers, J. (Ed.). (1998). *Raising resilient MKs*. Colorado Springs, CO: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Carrillo, P. (1995). Struggles of Latin Americans in frontier mis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12, 195-198.
- Gnanakan, K. (1993). *kingdom concerns: Atheology for missions toda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Manning, B. (1994). *Abba's child*.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 Minirth, F., Hawkins, D., Mier, P., & Flournoy, R. (1986). *How to beat burnout*. Chicago, IL: Moody Press.
- Padilla, R. (1986). *Mision integral*. Buenos aires, Argentina: Nueva Creacion.
- Snyder, H. (1978). *La comunidad del re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Steuernagel, V. (Ed.). (1996). *Obediencia misionera y practica historica*. Grand Rapids, MI: Eerdmans.
- Tournier, P. (2000). *El sentido de la vida*. Tarrasa, Barcelona, Spain: Publicaciones Andamio. Ed. CLIE.
- Worthington, E. (1989). *Marriage counseling*.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이 글에 도움을 준 제인 카릴로와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 동료들인 마르코스 아마도, 피엠아이(PMI) 회장 팀 할스와 수사나 말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Note: 이 글은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1995, vol 12:195-198) 에 "프론티어 선교에 있어서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갈등"이라는 특별한 멤버케어에 대한 주제로 발표된 저자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마르시아 토스테스 *

시험 아래에 있으며
유혹 아래에서 일어나는 자는
복이 있고, 행복하며,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다.
이는 시험을 받고 일어났을 때
그는 인정을 받았으며,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약 1:12).
이 장에서는 브라질 출신
선교사의 생애에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실현 되었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저자는 브라질 교회가
다음 단계, 즉 인내의 단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 실질적인
격려를 하고 있다.

제 17 장

브라질 선교사역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

와 여행 가방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글쎄
요, 당신이 이 여행 가방을 얻기 위해 우리가
견뎌냈던 모든 일들을 다 겪을 준비가 되셨다면 이
것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브라질 선교사와 그 선교사가
동역자 발굴을 위해 방문하고 있던 어느 교회의 교
인이 그 선교사의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나는
짧은 대화였다. 실제로 여행 가방은 상당히 비싼 것
이었다. 특히 선교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
는 여행 가방에 비하면 아주 비싼 것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선교사의 삶이 매우 수월하였다는 잘못

* 마르시아 토스테스(Marcia Tostes)는 브라질 선교 단체
안디옥 선교회의 선교사였다. 그녀는 목회적 케어 책임자
로 안디옥 선교회를 섬기고 있다. 마르시아와 남편 실라스
는 영국에 있는 올 네이션 기독교 대학에서 훈련을 받았

된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 여행가방은 그 선교사와 다른 세 명의 선교사들이 그들의 석방을 위해 오랜 시간의 협상 끝에 지친 몸으로 잠시 머물기 위해 포르투갈에 왔을 때 영사가 준 선물이었다. 그들은 반정부군에 의해 점령된 한 아프리카의 도시에서 포로로 8개월간 잡혀 있었다.

그곳이 점령되는 날에 네 명의 선교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확신했기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시급하게 결정할 당시 그들은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 확실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순진하고 주재님은 것이었을까, 혹은 용감하고 현명한 것이었을까?

다행히도 공격이 있기 며칠 전, 그 브라질 선교사는 많은 양의 의약품을 받았다. 현지인들이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그는 현지인들을 치료할 수 있었고, 그 교회는 도움과 희망과 안전을 위한 센터가 되었다. 그녀는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 시기에 지도자가 되었다. 심지어 부상자들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것과 같은 좀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여러 사람들이 그녀가 제공하는 간단한 치료를 통해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다.

공격이 있던 어느 날, 두려움과 절망에 찬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 왔다. 그 선교사는 명령하는 목소리로 크게 소리를 쳤다. “앞드리시오, 앞드리시오.” 그런 다음 그녀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고 고개를 돌렸다.

계속된 공격이 있었고 그녀의 친구들 중 몇 사람은 상처를 입거나 바로 옆에서 목숨을 잃고 쓰러져 갔다. 8개월 후 안전하게 고국에 돌아온 오랜 후에도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다른 여러 끔찍한 장면들과 함께 생생하게 그녀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의 체중은 줄었으며,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무어든 없었을까?”라는 잔인한 질문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다. 목회적 케어를 위한 그녀의 비전은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시작되었다. 그 후 마르시아는 가족 요법(family therapy)을 공부했다. 그녀는 WEA 선교 위원회의 일원이고 브라질 목회적 케어 사역 그룹과 코미밤 목회적 케어 그룹의 코디네이터로 돕고 있다. 마르시아와 실라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그들은 현재 브라질에 살고 있다.

Email: antioquiabrasil@uol.com.br.

유엔의 도움으로 협상이 이루어졌고 선교사들과 다른 몇 사람의 포로들은 석방되었다. 네 명의 선교사들도 옷만 입은 채 그 나라를 빠져 나왔다. 그들의 건강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의료진의 도움을 얻기 위해 카보 베르데(Cabo Verde)에서 사흘을 보냈다. 그런 다음 포르투갈에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브라질로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브라질 영사가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이 때에 각 사람은 새 여행 가방과 함께 좋은 옷들을 받았던 것이다. 유행에 맞는 이 여행 가방을 얻기 위해 그들이 치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가!

이 이야기를 반추해 보면서 나는 마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다. 첫째, 이 브라질 선교사는 이런 경험을 대비해 적합한 준비를 했었는가?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은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상황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번 장에서 나는 브라질 선교에서 목회적 케어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가를 재고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살펴보려 한다. 나는 또 우리가 어디까지 왔으며, 어떤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숙고할 것이다.

1. 브라질 선교와 목회적 케어에 대한 재고

브라질 선교 운동은 특히 기존 선교사 파송국의 선교운동에 비한다면 비교적 새로운 운동이다. 가장 오래된 브라질 복음주의 선교회인 안디옥 선교회는 1976년에 설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는 이미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포함한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통과하는 고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고난을 견뎌냈다.

선교 운동 초기에 선교사들은 마치 소포를 보내듯이 파송되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것은 선교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초를 놓기 위해 치를 수밖에 없는 대가였던 것 같다. 이 초기 선교사들은 현재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후원, 미지의 세계, 문화 충격, 그리고 본국과 현지 사이의 의사 소통의 어려움과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커다란 믿음이 필요했다. 초기에 파송되었던 많은 선교사들은 어려움을 잘 극복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현지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한 채 선교지로 파송 되고 있다. 많은 선교인력들이 계속해서 높은 대가를 치루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 성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북아메리카나 유럽보다 이 지역에 훨씬 더 많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지역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들의 수적인 증가도 놀라울 정도이다. 라틴 아메리카 선교 운동은 1987년에 가장 크게 최고조였다. 당시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스페인계 아메리카 연합선교회(Iberoamerican Missions Cooperation)의 대규모 선교대회(COMIBAM 87)가 열렸던 때이다. 3,000명 이상의 대표들이 이 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회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 교회가 세계 선교에 어떻게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이 대회가 있는 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 선교 집회들이 열렸고, 새로운 선교회들이 설립되었으며 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 되었다. 10년 후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또 다른 선교대회(COMIBAM 97)가 열렸다. 이 곳에서 3,000명 이상의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미래의 기회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평가했다. 균형과 실질적인 평가를 추구했다. 그렇다. 선교사 파송 면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떤 실수들은 표면화 되었다. 주된 잘 못 중에 하나는 적합한 준비와 선교지에서 충분한 케어 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다는 것이다.

이런 흥분된 분위기 가운데, 이런 위대한 사역의 일부가 됨을 기뻐하는 교회와 함께 브라질에서 파송된 선교사 네 명 가운데 세 명은 현지에 5년 이상 남아있지 않는다는 슬픈 평가가 나왔다. 이 소식이 우리의 주의를 끌었다! 1995년에 세팔 오씨 인터내셔널(Sepal/OC International)의 테드 림픽(Ted Limpic)이 세계복음주의연맹 선교위원회(WEA Missions Commission)와 더불어 브라질의 선교사 중도탈락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새롭고도 신중하게 조사된 평가는 중도탈락률이 상당히 낮았지만 걱정스러운 정도였다. 브라질 선교사의 7%는 각양의 이유로 인해 본국으로 철수 하고 있었는데, 이 비율은 평균 5%인 다른 국가들의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리서치는 선교사들이 현지를 떠나는 이유도 함께 탐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빌 테일러가 편집을 맡았고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Too Valuable to Lose*, Taylor, 1998)이란 책에 상세하게 밝혔다. 브라질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의 중도탈락의 주요 이유들은 선교사들의 인격과 연관된 개인적인 문제들이었다.

이런 발견들은 브라질 선교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세 기관들인 브라질 타문화 선교협회(Brazilian Association of Transcultural Missions, AMBT), 브라질 선교훈련가 협회(the Brazilian Association of Mission Teachers, APMB) 그리고 교회 선교부 협회(the Association of Church Mission Departments, ACMD)는 기사와 발표와 상담을 통해 선교사 케어와 중도탈락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선교사 멤버케어를 위해 두 개의 중재단체가 형성되었다. 그 첫 번째 단체는 1999년에 시작하여 브라질 선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그룹은 목회적 케어 영역에 관해 구체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선교사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전문가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파송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의 목회적 케어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브라질 그룹은 코미밤(COMIBAM)의 목회적 케어 프로그램과 두 번째 협력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코미밤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베로 아메리카(남미와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역자주) 안에서 적절한 문서, 컨설팅, 그리고 의사소통/나누는 경험을 통해 그들의 라에서 목회적 케어 자원들을 개발하도록 국내 선교 운동들을 돕는 것이었다. 2000년 10월에 남미 대륙 목회적 케어를 위한 컨설팅이 페루의 리마에서 열렸다. 이 모임의 결과로 목회적 케어 프로그램의 목표를 형성했고, 그 활동을 감독하는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

목회적 케어에 관한 모든 이해와 활동의 결과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파송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은 선교사 선발에서 은퇴까지 필요한 케어에 대해 더욱 깨닫고 있다.

2. 라틴 아메리카 선교사 케어 모델

선교를 이해하는 기본 틀로서 많은 선교 단체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선교사 케어의 3단계가 있다. 이것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생애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 모델은 후원 케어와 파송 전에 요구되는 훈련과, 현지 훈련 및 본국 사역 기간 동안의 훈련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 교회와 훈련원과 선교회의 통합된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가와 타문화 트레이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1) 파송 전 훈련

이 단계는 선발, 가능하면 비자를 받는 것과 의료보험에 관한 것을 전략적인 도움,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신학적, 선교학적 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오리엔테이션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안디옥 선교회에서는 지역 교회의 일원으로 목사가 추천하는 지원자만 받아들인다. 선교사 훈련 과정에는 후보생들이 선교지에서 힘든 상황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선별하기 위한 시험과 수업들이 있다. 이것은 선교지로 갈 입증된 인력은 보내고, 기술을 발전키시거나 혹은 과거를 처리하지 못한 인력들은 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한 사람을 걸러내는 과정이다. 선교지에 나가서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보다는 나가기 전에 더 훈련을 받고 나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브라질 선교단체인 카이로스(Kairos)나 안디옥(Antioch) 선교회에서는 후보생들이 선교지에 배치 되기 이전에 가게 될 지역의 문화를 체험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실제적으로 나간 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과 유사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2) 현지 훈련

살면서 배워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브라질 선교회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현지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이 감독과 목회적 케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 지역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의 참여, 파송 국가 지

도자들의 방문, 휴식을 계획하고, 이메일과 전화,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려주고 선교사들 간에 서로를 격려해주는 것을 통해 많은 면에서 발전하고 있다. 선교사들에게는 본국 사람들과 선교지의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잊혀지지 않았다.

3) 본국 사역

안식년이 잠시의 귀국이거나, 휴가, 은퇴 혹은 사역의 종료가 되든지 안식년 기간 동안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의 필요들에 대한 이해가 보다 증진되고 있다. 숙소, 건강검진, 교통수단 제공, 자녀들을 위한 교육 선택권, 또는 선교지 보고를 들어주는 것 등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다. 선교사들에게 연금이나 은퇴를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3. 발전된 단계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 외에 우리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가?* 라는 또 다른 관심사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 관심사는 브라질에서 잘 알려진 교사 선교 마가레타 아디와르다나(Magaretha Adiwardana)가 1999년에 쓴 석사 논문의 주제이다. 이 논문은 2000년 4월 브라질 교사 선교사 협의회(Brazilian Mission Teachers Association Consultation)에서 발표되었다.

이제 브라질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서 선교사 케어 발전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유년기와 청년기 사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제까지 선교사 케어에 관해 배우고 적용을 시도한 모든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행보를 내딛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로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 후보생들은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 주제는 베드로전서 4장 12-19절과 같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이해했으며,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일부라고 여겼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요청하신다.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이며, 고난에 익숙지 않은 이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5).

현재 우리 후보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교육받은 세대가 아니다. 개발도상국 출신이라고 해서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더 유리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후보생들은 자신들의 삶에 가운데서 큰 고난을 만난 적이 없다. 전쟁, 홍수, 억압, 그리고 다른 많은 재난들은 모두 뉴스로만 들려오는 먼 나라의 이야기들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브라질 문화는 미와 삶의 유희에 많은 가치를 둔다.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현재를 더 중요시한다. 많은 이들이 가난과 고난 속에 있지만, 대부분의 브라질 사람들은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살며, 자신의 현 상태를 농담처럼 이야기 한다. 이런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가뭄,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과 억압이 만들어 내는 재난들로 인해 더욱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해야 하는 선교사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디를 가나 끊이지 않는 전쟁과 종족 간 갈등은 선교사들에게 더욱 큰 스트레스를 준다. 선교지에 남아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의 갈등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앞서 말했던 사례처럼 많은 선교사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선교지에 남는다. 알바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라질 선교사 나주아 디바(Najua Diba)도 그 곳에 너무 정이 들어 어려움 속에서도 피난을 가거나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맺은 형제와 자매들을 두고 떠날 수 있었겠는가?

폐쇄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압박감을 느낀다. 그들이 활동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행동양식과 어떤 특정한 의상(특히 여성들)을 입

어야 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것들조차도 외로움과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선교사들은 이런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필요에 따라 적응하면서도 마음을 다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시간이 오랫동안 경과해도 뚜렷한 결과를 볼 수 없는 것 또한 사람을 지치게 한다. 특히 교회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여러 해 동안 눈에 보이는 사역의 결과 없이도 한 나라에서 기꺼이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질병도 있다.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가장 큰 적은 말라리아다. 남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브라질 선교사 알다시르 모타(Aldacyr Motta)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작은 모기에 의해 옮겨지는 병이라고 말한다. 많은 선교사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과거의 선교사들과 그들이 현지인들처럼 선교사들은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것이 현실이며 헤쳐 나가야 할 역경들이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하나님의 일에는 많은 기쁨과 상도 있다. 하지만 편안한 삶에 익숙하여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인의 성공과 부, 그리고 빠른 결과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진 이들은 특별히 갈등과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하기 쉽다. 좋은 소식은 인내 가운데 전해지며, 인내로만 나타난다.

4. 역경 대처를 위한 구비

내 자신이 몇 년간 선교사 훈련을 몇 년간 하며 내린 결론은, 훈련은 될 수 있는 한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름길이란 있을 수 없다. 교실에서의 수업, 과제, 일상적인 잡일, 공동생활, 전도모임, 그리고 심지어는 파티도 배움의 과정이다. 그룹 과제, 현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상 체험, 그리고 공동생활은 창의력, 독립심, 갈등 해결 방법, 지도력, 청취능력 등과 같은 우리의 장단점을 지적해 준다. 스트레스 가운데서 우리의 반응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형식 또는 비형식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언어와 문화학습, 기술습득 등을

위한 훈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많은 중요한 영역들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훈련 받는 이들이 선교지에서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훈련자들과 행정가들이 발전시켜야 할 결정적인 부분이다!

1) 고난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

앞에서 선교사 후보생은 고난, 인내, 그리고 믿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나타나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종종 고난과, 거부와, 박해와 연관되어 있다. 훈련 과정에는 선교지에서 직면하는 일반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후보생들이 예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연구들은 후보생들이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후보생들은 자신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장기 사역에 긍정적,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병원이나 빈민가등을 방문하거나 비디오나 다른 미디어 매체를 통해 고난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실제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타 문화 이해와 삶의 기술에 있어서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후보생들이 고난에 대해서와 고난에 노출 되었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공산권이 무너지기 전, 동유럽에서 활동하던 한 브라질 선교사 부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고난 받는 교회를 후원하는 단체와 함께 사역했다. 그 단체의 훈련 중에 가상 고문이 있었는데,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참가자 중 몇 명은 그 훈련을 마치지 못했다. 나는 이런 실제적인 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문화에 발을 내딛기 전에 이론을 실습해 볼 필요가 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살게 되면 누구나 내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의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고난은 무감각, 공포, 민감, 우울증을 초래하고 육체와 정신에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 무감각은 내적 황폐함을 가져

오고, 자신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해 흥미를 잃게 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도 흥미를 잃게 만든다. 선교의 일부인 개인적인 상실(예, 잦은 이별과 이사)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팀 내의 갈등도 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동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는 브라질 선교사는 짧은 기간 동안 시민전쟁을 경험했다. 그녀는 두려움, 불안전,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것의 결핍을 매일 겪으며 살았다. 그녀는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큰 고통 가운데 살았지요. 하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고난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후원과 사랑으로 보상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고 모험을 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학교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자 했던 그녀의 헌신을 꺾을 수 없었다. 나는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 가운데 하나라고 믿는다. 사랑은 타문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산이다.

2) 모델과 멘토

선교사 훈련은 교사와 학생들이 단지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배움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방법에 속할 것이다. 교사들은 친구, 동역자,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사가 모델이 되는 제자훈련 과정이다. 가치들, 관심사들, 그리고 태도들이 좀 더 투명하게 되고 성경적인 가르침 아래서 평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생들은 변화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똑같이 교사들도 후보생들의 삶을 통해 변화의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지도자들에게 많은 책임을 부여한다. 가르침은 지식을 전해 주는 것 그 이상이다. 교사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선교사 훈련 트레이너들은 선교지의 도전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효과적으로 훈련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3) 영적 성장

나는 중요한 습관들, 특히 영적인 습관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표로 비공식적인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본다. 영적인 훈련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과 선한 일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돕기 때문이다. 기도, 찬양, 소박함, 도움, 고독(solitude), 성경, 그리고 금식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중요한 실천이다. 이러한 연습들을 통하여 선교지에서나 선교지가 아닌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풍성한 삶이 현실화 될 것이다.

“축복의 골짜기”(The Valley of Blessing)는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 훈련 센터이다. 안디옥 선교회 본부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안디옥 선교회 본부는 헌신적인 삶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곳으로 좋은 실례가 된다. 그 본부 건물 중심에 기도 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철야기도가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각 사람은 정기적으로 거기서 기도하기 위해 90분을 특별히 배정받아야 한다. 예배당 안에 7개의 조그마한 개인 기도실이 있다. 이 방에는 두 개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축복의 계곡”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다. 이 센터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들은 이 기도 경험으로부터 배운 교훈들이 선교지에서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되었다고 간증한다. 기도는 변화를 가져온다.

5. 결론

우리가 선교사 후보생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교사 훈련은 고난과 인내에 관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포함해야만 한다. 후보생들은 미리 건강한 공동체의 삶과 함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 훈련은 지적, 감정적, 영적, 그리고 행동에 관한 모든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트레이너들은 그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로서 삶의 방식을 통한 가르침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준다.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는 선교사들을 훈련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시킬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미전도 종족에 대한 소명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잘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여러분은 이 장에서 처음에 언급했던 선교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를 원할 것이다. 그녀는 인질로 잡혀 있었던 아프리카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갔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회복을 한 후 1년 만에 그녀는 그 선교지로 돌아갔다. 그 여선교사는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건강관리와 가르침의 영역에 중요한 사역을 발전시켰다. 처음에 한 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는 인내함을 배웠다”라고 말할 것이다.

6. 토의 주제

1. 고난과 인내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원리들과 주요 구절들을 나열하라. 이 말씀들이 당신의 경험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2. 많은 고난의 흔적이 있는 환경에서 선교사로 적응할 때 당신 자신의 문화/교육의 어떤 면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3. 선교사 트레이너들이 고난에 대해 후보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훈련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아이디어들은 무엇인가?
4. 당신은 후보생들(독신들과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사역하는 동안 의미심장한 고난을 경험할 것 같은 이들에게 어떤 충고를 하겠는가?
5.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고 돌아온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당신의 선교회는 어떤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 참고 문헌 †

Adiwardana, M. (1999). *Missionarios: Preparando-os para perseverar* (Preparing to persevere). Sao Paulo, Brazil: Descoberta.

O'Donnell, K. (Ed.). (1992).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Taylor, W. (Ed.). (1998). *Valioso demais para que se perca* (Too valuable to lose). London, UK: Descoberta.

* 이 글을 읽고 제안해준 두르바리나 베제라(Durvalina Bezerra), 마가메타 마이와르다나 (Margaretha advardana) 그리고 로지메르 로페스 드 수자(Rosimeire Lopes de Souza)의 도움에 감사를 드린다.



에슬리 카르발호 *

이 장은 세 시간 동안의 회의를 정리한 글로써, 선교지에서 귀국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안식년에 대한 기대와 선교지로 복귀하거나 복귀 하지 않는 경우에 선교지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장은 선교사역에 관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평가를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남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 18 장

좋은 것을 취하는 것: 감정적인 디브리핑을 위한 짧은 경험

서경말씀(살전 5:21)에 보면 모든 것을 조사해 보고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였다. 많은 경우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자신이 성취한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이 없다. 안식년은 항상 뒤섞인 감정과 어느 정도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기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하고, 선교지에서 잃어버렸던 고국의 친숙함을 맛보게 해주며 더 이상 눈에 드러나는 외국인이 아님을 맛본다. 하지만 선교지의 문화가 그들 자신의 존재의 일부가 된 사람들에게는 친숙함의 상실이 되기도 한다. 특히 아이

* 에슬리 카르발호(Esly Carvalho)는 그룹 치료와 심리극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로 브라질 태생의 미국인이다. 그녀는 에콰도르 키토(Quito)의 플라자 델 엔쿠엔트로(Plaza del Encuentro)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 켄

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잠깐 동안이나마 일상생활, 친구들, 친숙한 환경과 문화에 대한 상실을 인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반대로, 안식년은 자주 내키지 않아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선교비 모금을 위해 여행하고 방문해야 하는 아주 불안정한 기간이다. 어린 아이들은 가정의 일과를 그리워한다. 때때로 안식년은 아이들에게 학업과 사회적인 기술면에서 새로운 도전과 함께 새로운 학교에서 한 해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남미 선교사들은 특히 선교지에 돌아가기 위해 선교비를 모금하는 것이나 빚지지 않고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선교사들은 교회에 사는 쥐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살겠다는 서약대로 살아야 한다는 개념에 기인한다. 자녀 교육의 문제도 있다. 현 시점에서는 홈스쿨링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년에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선교지에서 공부했던 것과 다른 언어/문화를 가진 학교에 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논의 되지는 않지만 선교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대가 있다. 때때로 선교사들은 이전의 사역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은 진정으로 막대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만일 같은 선교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예상되는 일들을 선교사들에게 설명함으로 어떤 것이 현실적인지, 또는 두렵거나 위로가 되는지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선교사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랜트(Ken Grant)와 중국에서 자란 선교사 아이들과 딸 라켈(Raquel)과 함께 살고 있다. 예술리는 상담, 회복 그리고 감정치료에 관한 많은 글을 썼으며 포르투갈어,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에 능통하다. 그녀는 현재 행동 방식을 통한 기독교 상담 훈련 워크숍을 인도하고 있다.

Email: plazadelencuentro@attglobal.net

1. 디브리핑 워크숍

다음의 워크숍은 위에서 나열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줄 것이다. 이 활동들은 논평과 함께 제안될 것이다. 이상적인 용어들로 말하자면, 디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많은 이슈들은 이미 가족 내에서도 선교 구조 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논의된 적이 있을 것이다. 선교 단체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에도 수용할 수 있고 안전한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화 수단이 있기를 바란다.

많은 단체들이 선교사들을 위한 목회적 케어와 관심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주 그 초점을 작전상의 활동 보고에만 국한시킨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보고도 장점이 있다(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가, 선교지에서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등). 하지만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불만은 그들의 감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말할 때 보복이나 거절당함에 대한 위험 없이 긴장을 풀고 이야기 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것은 선교사의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다(어떤 결정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떠했는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더 나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러한 결정이 선교 단체와 당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서는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것을 볼 수 있다(눅 9:10; 10:17). 이 특별한 과정은 선교사의 필요와 선교단체의 필요를 증대하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디브리핑이 주요 목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선교사들이 귀국하는 즉시 이러한 워크숍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은 안식년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며 선교사들이나 본부의 지도자가 관련된 이슈들을 의논하는 기회도 갖게 한다. 분명 세 시간의 워크숍은 안식년 과정 전체를 다루기에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선교단체가 선교사의 재입국 전에 지침서와 자료들을 미리 공급하기를 바란다. 남미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성숙해 가면서 선교사들이 탈진하거나 결과적으로 사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이러한 주제들이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디브리핑 워크숍은 귀국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신뢰와 비밀유지의

구조 속에서 발전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워크숍들은 참가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그들 또한 성인들만큼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부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러한 워크숍 자료들을 감추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선교사들은 기대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두려움 없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배려해 주는 환경에 있을 수 있었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원할 경우 워크숍에서 자신들에 관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참가한 다른 동료들에 대해서는 비밀은 지켜야 했다. 모든 선교단체가 이런 투명성을 기꺼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특별한 과정의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그것은 필수적이다. 참가자들은 자신들만 특정 문제나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며 많은 용기를 얻었다. 워크숍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현실을 인식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주었다.

이 워크숍의 지도자는(훈련되고 경험이 있는 집단 심리치료사) 선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선교사들에게 일어난 일과 또는 그들에 대한 미래의 결정에 있어서 감정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다. 그 지도자는 완전히 중립적이었고 참여자들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는 외부인으로 특별히 이 워크숍만을 위해 초대된 사람이었다. 때문에 참가자들은 이들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선교 본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나,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상처와 힘들었던 결정들에 대해 선교단체와 논의 할 것을 격려했다. 워크숍은 재입국 선교사들이 통례상 거치는 것으로서 한 주간의 재입국 및 디브리핑 형식으로 선교기관에 의해 제공되었다.

1) 지침서

다음은 워크숍을 시작할 때 제공되는 지침 사항에 대한 실례이다:

“이 워크숍은 여러분 각자가 선교지에서 보낸 시간들을 평가하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안식년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소망들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입니다.

이 워크숍은 몇 개의 활동, 그림, 그리고 각자가 경험했던 것에 대하여 서

로 나누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일들에 대해 정리하며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이 워크숍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나누었던 것에 관해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게 하셔도 좋고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만큼 많이 배우실 것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이러한 규정들을 지킬 수 없다면 지금 조용히 떠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2) 워크숍

(1) 제1단계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소개하고, 어디서 왔으며, 마지막으로 사역한 선교지가 어디인지를 말하게 한다.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타문화 경험을 말해줌으로써 참가자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종종 참가자들은 서로 구면일 경우도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므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명찰이 도움이 될 것이다(특히 워크숍의 리더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리더는 참가자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선교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인지(예를 들어, 은퇴하기 때문에) 아는 것은 도입단계에 이러한 면을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된다.

(2) 제2단계

참여자들에게 흰 종이와 색연필을 나누어 주고 마지막에 있었던 선교지에서의 경험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다. 뒤에 남기고 온 것들이 무엇인지 작성하게 한다. 어떤 참가자들은 그림에 소질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경험을 글로 나타내기를 원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섯 살짜리보다 그림을 못 그리며 이것은 미술 경시대회가 아니니 안심하라고 설명한다. 글은 그림에 대체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림의 취지가 빠르고 창조적인(그림 한 장이 수천 마디의 말과 같다고 한다), 그리고 보다 감정적인 상징/

기호 등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뇌의 기능에 다가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뇌의 역할은 행동의 변화를 돕게 된다.

그림을 다 그렸으면 참가자들은 네 명 혹은 다섯 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안에서 그림에 대해 이야기 한다(이때 부부들은 같은 그룹에 배정되지 않는다). 그림들은 일반적으로 선교지에 남아 있는 소중한 친구들과 상황들, 특별했던 애완동물, 그리고 성경책이나 하나님과 같은 종교적인 상징들이 포함된다. 소그룹에서 나누는 것이 끝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요청한다.

참가자들이 선교지에서 어떤 것들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뒤에 남기고 온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할 때 이 시간은 종종 감정적이 된다. 많은 이들이 대화 중에 울게 되므로 그룹을 위해 휴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감정들이 방해받거나 억누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쩌면 참가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그들의 지난 경험에 대한 격심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이 시간은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적절하게 마칠 수 있게 된다.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상실한 것들을 인식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3) 제3단계

다시 참가자들에게 큰 그룹 안에서 그들이 간직하기를 원하는 그림을 상징적으로 “뺏으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들이 배웠던 것들, 사랑했던 사람들, 염려하는 것들 등이 될 것이다. 참석자들에게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그들의 몸의 한 부분에 놓으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여인은 그녀가 쌓은 친구와의 우정을 꺼내서 그녀의 가슴 위에 놓는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가 배운 것을 꺼낼 것이고 미래를 위해 머리에 올려놓게 될 것이다. 한 참가자는 자신의 가족을 꺼내어 그의 손바닥에 놓았다(“그들은 나의 손바닥에 새겨졌습니다.”).

전체 그룹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간직하기를 원하는 과거의 경험들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이 때 사람들은 대개 긍정적인 경험들을 선택하며 간직한다.

(4) 제4단계

마지막으로 약 5미터 간격으로 바닥에 테이프로 “출발”과 “결승” 선을 붙인다. 참가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안식년 계획, 은퇴, 선교지를 떠나는 일과 같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걷기 위해 그들의 신발을 벗으라고 요청한다. 참가자들 모두가 출발선에 일렬로 서서 그들이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 몇 개월간 이루어질 일들의 방향으로 그들의 신을 하나씩 옮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한번은 참가자가 두 신발을 모두 벗고 “나는 무엇을 하든 두 발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간에는 한 사람이 계속 돌기만 해서 그녀가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결승선까지 직선을 만들었다. 그들은 그들이 어디로 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 앞에 놓여 있는 불확실함 때문에 머뭇거리며 발을 내딛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이 연습에 참여하며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수시로 설명해가며 연습했다. 어떤 그룹에서는 참가자들이 한사람씩 돌아가며 행했다. 대부분의 그룹들이 동시에 활동에 참여 했다.

(5) 제5단계

이 단계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는 시간이다. 참가자들에게 워크숍을 통해 그들이 배운 것과 이러한 이 기회를 통해 감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 나누게 한다.

2. 결론

이 간단한 워크숍이 현지 선교사들의 감정적 디브리핑을 위해 라틴 아메리카와 다른 곳의 파송단체들에게 장려되길 바란다. 또한 이 워크숍은 아동들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아동들이 이 워크숍 활동을 즐거워했다. 선교사들의 성취와 어려움을 포함하여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한 디브리핑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경험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나누는 기회를 갖는다. 마음의 경험들은

머리로 한 경험들과는 아주 다를 수 있다. 때때로 머리와 가슴이 충돌할 수도 있다. 신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안다” 하더라도 그 감정들이 어떤 것이든지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 되지 못한 감정이나 불만족, 혹은 비현실적인 기대들은 미래에 선교 단체나 선교사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브리핑 과정이 가치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참가자들에게 신중하게 상담을 권하고,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며, 지도자들과 함께 워크숍에서 일어났던 과정을 나누거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과정들을 행하도록 권면한다.

워크숍 활동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남미 문화에서 이러한 워크숍 활동은 특히 도움이 되는 데, 그것은 라틴 사람들의 “극적인(dramatic) 특성” 때문이다. 여성들은 좀 더 쉽게 그들의 감정을 나누는 경향이 있지만 남성들 또한 기회를 주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여는가를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특히 남성들은 신발을 벗는 활동을 좋아한다. 참가자들 모두가 재입국 과정에서 오랜 강의를 듣는 대신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워크숍은 그들로 하여금 안식년과 재입국에 들어가게 하는 훌륭한 방편이 되었다.

3. 토의 주제

1. 왜 감정적인 디브리핑이 중요한가? 당신은 디브리핑 시 어떤 종류의 경험을 했는가?
2. 그룹 디브리핑 시간에 개인의 비밀은 어떻게 보장되었는가?
3.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디브리핑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가?
4. 외부인이 디브리핑을 주관하는 데 있어 그 장단점은 무엇인가?
5. 파송 단체들은 어떻게 멤버케어 과정에 디브리핑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

제 19 장

지혜로운 중동사역: 압제 하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사역

중 동은 세계에서 광활하고 다양한 지역이다. 중 동 사람들은 친절하고 호의적이며 대체적으로 그곳 대부분 지역에서의 삶은 아름답고, 편안하며, 의미 있고, 조용하다. 하지만 다른 문제 있는 지역에서의 삶은 긴장, 스트레스, 충돌과 적의로 나타난다. 중동은 매우 다양한 하부 문화들, 규제, 전통, 그리고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곳은 고대 문명과 현대 생활방식이 존재하는 곳이다. 중동은 세계의 주요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한다. 그곳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 가치, 신념, 그리고 문화를 깊이 사랑하며 아직도 그 땅에 정착하고 있다. 대부

* 나지 아비 하셈(Naji Abi-Hashem)은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문화 임상(clinical and cultural) 정신과 의사이며 안수 받은 목사이며 워싱턴 시애틀에 살고 있다. 그는 골든게이트(Golden Gate) 침례 신학교에서 1985년에 목회학 석사



나지 아비-하셈
아니키 콤파니엔 *

중동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그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적인 가치관과 함께 중동의 사회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목사, 선교사, 그리고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압력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고 한다면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야만 한다. 그들은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며 사례 연구에서 보겠지만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통과하기도 한다. 이 장의 전반부는 나지(Naji)가 썼고
아니키(Anneke)는 후반부를 썼다.

분의 도시인들은 문화적인 유산이나 종교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현대적 서구적 생활방식과 잘 어울리고 있다.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많은 보상과 기쁨을 만난다. 동시에 그들은 심각한 도전과 싸움을 대면하기도 한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 기독교 사역은 주위의 환경, 전통, 하부 문화들, 사회적 규범들과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제한되며 형성된다.

현재 중동의 많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줄어들고 있으며 약화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21세기로 들어가면서 기독교 공동체들은 그 수와 존재와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감소되고 있다. 어떤 지역에는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경고의 징조들이다. 동서양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과거에 기독교가 우세했던 많은 지역들, 공동체들과 도시들이 지금은 서서히 없어져가고 있고 대부분이 비그리스도인(대부분 이슬람교도)인 지역들과 섞여가고 있다. 현재 이런 현상에는 정치적인 긴장,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불안정, 그리고 종교적인 박해를 포함한 많은 이유들이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특히 떠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주의 요

를 했고 1992년 바이올라 대학의 로즈미드(Rosemead) 상담대학원에서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지는 1998년에 미국 심리학 전문위원회의 전문의였고 미너스 마이어(Minirth-Meier) 새 생명 클리닉을 9년 동안 섬겼다. 그는 선교 사역, 상담, 저술, 편집, 가르침, 네트워킹, 고문, 그리고 상담자들을 위한 관리를 해 왔다. 그의 전문분야는 신앙과 관련된 임상실현, 멤버케어와 상담, 중동문화 연구, 슬픔과 사별, 정치심리학과 평화 심리학, 실존주의 철학과 명상하는 영성이다.

Email: NajiAH@worldnet.att.net.

* 아니키 콤파이넨(Anneke Companjen)과 남편 존은 베트남에서 기독교 선교사 연맹(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소속 선교사였다. 그들이 본국 네덜란드로 돌아온 후 오픈도어(open Doors)와 함께 박해받고 고난 받는 자들을 섬기고 있다. 아니키는 여러 지역들을 여행했고 직접 박해의 비참한 희생자들을 보았다. 그녀가 발간한 “숨겨진 슬픔, 지속되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핍박받는 교회의 여인들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 책은 10개국 언어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남편들과 함께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고난 받았던 20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세계 곳곳에서의 집회를 통하여 아니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떻게 개인들이 값비싼 희생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인식시키고 있다.

Email: Annekec@od.org.

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난하고 정착되지 않은 공동체의 젊고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주의 열기가 높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 가족들은 보다 규모가 작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독신으로 남길 선호하는데, 독신은 다른 곳들보다는 기독교 공동체와 도시에서 약간 더 수용적이다. 더욱이 독신과 성직(보다 적은 수의 후손들을 얻는 것을 의미)에 헌신하는 많은 성직자와 수녀들이 있다.

따라서 중동의 기독교 공동체와 수는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의(Naji-전반부의 저자이름) 고국 레바논은 85%의 그리스도인과 나머지는 두루즈(Druze)와 무슬림으로 이루어진 현저한 기독교 국가였다. 지금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35%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레바논은 성경시대만큼 오래된 곳이다. 레바논도 한때는 번성하고 성공적이었으며 공존하는 지역의 한 모델이었다. 문화, 교육, 인종, 종교, 문명, 그리고 정치적인 신념이 만나 균형 잡힌 조화와 건강한 통합을 나타내는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가 형성된 곳이었다. 레바논은 호의적이고 자유롭고 현대적이었으며 동서양의 국제 공동체에 개방이 되어 있었다. 근래에 레바논은 풍부하고도 다양한 하부 문화들과 사회경제적 계층들, 그리고 전통들을 갖고 있다. 레바논의 인구는 약 3백 5십만 명이고, 국외에 거주하는 레바논인들은 천 삼백 만 명이다.

레바논이 중동의 모습을 반영하고 유럽과 아랍 세계로 가는 관문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종교적인 분파들과 하부 문화들이 꽤 많이 레바논에 모여 있다. 마론파, 가톨릭, 힌두교, 동방 교회들이 매우 왕성하다. 개신교는 소수이다. 유대인들은 많은 도시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혼란이 시작된 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집과 아랍적인 유산과 회당들을 남겨두고 마지못해 이웃 나라들로 이주해갔다. 시아파는 레바논에서 가장 큰 이슬람 집단이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수니보다는 안정되지 않았다. 산과 골짜기, 사막에 있는 마을, 시골 지역에서 여전히 아랍과 옛 중동의 삶의 방식을 볼 수 있다(지금은 레바논보다는 주변국들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중동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모든 역동성들은 지역 교회들과 선교 사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종류의 교회들은 적응하는데 갈등을 겪

고 있고, 때때로 새로운 발전들과 대두되는 필요들에 재적응하느라 애쓰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정권, 정치적 시스템, 사회 경향들과 종교적인 실재들에 재빨리 적응해야만 한다. 그들은 접근 방법을 바꾸고, 장소를 변경하고, 새로운 호칭을 적용하고 조심스럽게 그들의 사역을 살피거나 아니면 그들의 활동을 완전히 접어야만 한다. 때때로 소요 후에 먼지가 다시 가라앉을 때까지 그들은 앉아서 끈기 있게 기다려야만 한다. 불안하고 변화가 많은 이 중동 지역에서 쉽게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역사적으로 중동은 대부분의 문명과 세계 종교들의 발상지였다. 아랍 세계에는 종교적으로 급진적(참된 유일의 종교는 이슬람이라는 열심 때문)이고 정치적으로 분노하는(이유는 서양 제국주의와 문화의 침입과 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존재와 그들의 행동 때문이다) 여러 집단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궁극적인 원리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들도 사용하며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싸운다. 세계의 문제가 있는 곳의 경우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렇게 할 것을 교육받아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랍 사람들은 친절하고, 온건하며, 평화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호의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그 영향이 줄어들고 있기는 해도 영적으로는 유익을 얻고 있다. 신앙의 원천으로의 회귀와 교회 갱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역사를 통해 신자들이 압박, 반대나 박해를 받았을 때 종종 나타났던 것들인 참신한 감각의 협력과 동지애가 그리스도인 그룹들 사이에 존재한다. 도전에 직면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노력과 에너지를 연합하고 동원해야만 한다. 나쁜 조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점차적으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들의 믿음, 증거, 그리고 사역을 나누게 한다. 이것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며, 수백만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신실하게 섬기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케어를 제공하고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비호의적인 환경 아래서 겨우 생존하려고 애쓰고 있다.

1. 공통적인 잘못된 견해들

서구적인 사고나 미디어에는 아랍 세계와 중동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나타난다. 그러한 생각들은 종종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때때로 위험한 부정확한 인상이나 사회문화적인 고정관념의 형태를 취한다(Abi-Hashem, 1992). 특히 중동에 있는 교회와 사역을 후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서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모든 아랍인들이 무슬림이다

비록 아랍인 대부분이 무슬림이지만 레바논과 그 외의 다른 지역에는 중요한 기독교 공동체들이 존재한다. 중동 역사가들은 이슬람이 들어오기 수백 년 전에 아라비아 반도의 기독교의 존재를 기술했다. 초대 교회 선교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막으로 흩어졌고 여러 지방 부족들과 아랍 유목민들에게 갔다. 그들은 계속해서 인도의 끝에 도착할 때까지 극동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 계속되는 거룩한 이슬람교도의 습격의 위협 아래서 혹은 생존을 위한 필요로 개종을 하게 만든 간접적인 압박을 통하여 아라비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 후로 이슬람은 계속해서 확장되었고 세계에서 주요한 종교적 정치적 시스템의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 중 하나이다. 코란의 메시지로 현대/풍족한 세계와 개발도상국가들로 진입하는 집중적인 선교와 전도의 노력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과 같이 어떤 이슬람교도들은 연합체 안에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종교적 신자들이다. 그들은 “삶으로 이슬람 신앙을 실천”하지만 헌신된 무슬림들은 반드시 아니다. 그러나 종교적 연합체는 여전히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의 통전적 일부이며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이다. 중동에는 대개 종교와 정부간에 뚜렷한 구분이 없다. 문화적 유산과 사회적인 관습과 함께 종교와 정치가 서로 얽혀 있다. 그러므로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사적, 공적, 비즈니스, 혹은 정치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나 그들의 신앙의 여지를 만드는 것, 혹은 서로의 실천들과 관습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아랍 국가의 전체 인구와 비교하여 여전히 소수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현재 아랍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스도인 집단은 이집트에 있다. 그 기독교 공동체는 주로 역사적이지만, 동방정교회의 북아프리카적 형태를 지닌 활동적인 콥트(Coptic) 교회이다. 다른 주류 기독교 교단들, 선교 단체(parachurch),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에 기관들 대부분이 심각한 압력과 박해 아래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발흥과 1991년 걸프 전쟁의 영향은 아랍 세계에서 반서구, 반기독교 운동을 강하게 부채질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활동들은 제한된다. 정치와 종교 시스템이 온건한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이집트에서 교회들은 정부의 감시 하에 제한된 자유를 가진다. 특정한 나라의 종교적인 시스템에 따라 교회들은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데, 그 이유는 일요일이 일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설교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조심스럽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검토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첩보원이 예배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법이 주로 이슬람법인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카타르, 예멘, 바흐레인, 모로코와 쿠웨이트는 교회 건물이 전혀 혹은 거의 허용이 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 외국인들에게만 집회장소나 예배장소가 허용된다. 모든 형태의 직접전도나 설득으로 현지 주민에게 접근하는 것은 위법으로 혹독하게 처벌을 받는다. 처벌은 종교적 모임을 취소하거나 심지어는 관련된 사람들의 국외 추방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매우 제한된 나라에서 현지 신자들은 문이나 창문, 전화선들을 감시하면서 성경공부나 기도를 위해 비밀리에 만난다.

이 전 지역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는 레바논이었다. 지난 10년 까지 레바논은 중동에서 기독교 국가로 알려졌었다. 왜냐하면 인구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레바논은 많은 기독교 기관들, 신학교들, 단체들과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섬겨왔던 출판사들의 본부였다.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위치들, 군대, 사법 시스템의 대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했었다.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크게는 군주정치, 반은 민주적인 시스템, 혹은 일당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레바논은 중동에서 다른 나라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베이루트는 전략적인 관문이고 동서양에 개방 되어 있는 국제적인 도시이다. 비록 협력관계, 문화, 언어는 아랍 세계의 일부이지만 특히 도시 생활양식, 교육, 노출(exposure), 재정, 국제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면에서 유럽과 유사하다. 아랍 세계에 있는 모든 다른 기독교 공동체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소수의 위치를 향상시켰던 리더십, 격려, 네트워킹, 그리고 도덕적 후원을 위해 레바논을 주시하곤 했다.

모든 아랍인들이 이슬람교도가 아닌 것 같이 모든 이슬람교도들이 아랍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인도네시아(가장 큰 이슬람 국가임), 이란, 파키스탄, 터키,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법률적, 종교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이다. 하지만 문화적, 인종적으로 그들은 아랍인들은 아니다. 게다가 극동과 구소련, 그리고 최근에는 서구에서 가장 큰 인구집단이 무슬림들이다.

모든 중동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은 아니다. 비록 이란이 중동에 있는 나라이지만 아랍인이 아니고 페르시아인이다. 사이프러스(Cyprus)는 중동에 있는 섬이다. 하지만 인구의 반은 그리스인이고 나머지 반은 터키인이다. 사이프러스는 다른 아랍 국가가 아닌 터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그리고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인이지만 넓게는 아랍 국가들이고 아랍 연맹국의 멤버들이다.

2) 모든 아랍인들은 야만적인(primitive) 사람들이다

“서양인들이 아랍을 생각할 때 갖는 처음 이미지는 모래, 사막, 낙타들, 유정들(oil wells), 불합리한 군중들...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이다...” (Hamady, 1960, p. 229). 이것은 사회경제적인 고정관념이다. “서구 세계는 아랍 문화와 역사에 대한 무지가 ‘기쁨’이 아니고 국제 관계에 있어서 손해임을 깨달아야만 한다”(Hamada, 1990, p. 128). 이것은 이 지역에서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구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에게도 진실이다. 불행히도 많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과 개인들은 적절한 준비나 신중한 자문 없이 현지로 뛰어든다. 그 결과는 대개 모든 면에서 비우호적이고 부정적이다.

다른 큰 지역에서의 경우와 같이 아랍 사람들과 국가들은 다양한 사회들, 하부 문화들, 경제적인 수준들과 전통들을 갖고 있다. 그 사회의 한쪽 끝에는 마을과 작은 도시와 유목민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있다. 다른 끝에는 현대적이고 가장 복잡한 생활양식들이 있다. 이 지역이 땅과 역사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많은 전통들과 사람들의 특성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왔고 금실과 같이 얽힌 사회구조와 공동체적 삶이라는 천으로 직조되어 있다.

모든 중동 국가들이 석유, 사막, 혹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국가들은 부유해서 사회가 안정되어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발전을 위해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레바논은 비록 석유와 사막이나 낙타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재정, 교육, 관광, 그리고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전 지역에서 선두였다. 수십 년 동안 레바논은 중동의 스위스라 불렸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종종 작은 국가들이 지역 갈등의 값을 지불해야 하고 세계 정치의 희생양이 된다. 레바논도 다른 국가들의 간섭으로 하락과 붕괴를 경험했다. 레바논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성, 성취감, 독특성, 그리고 아마도 대개는 자기 정체성의 상실에 대해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지역의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정치의 바람과 더불어 레바논은 또 다른 사이프러스나 아마도 제2의 팔레스타인이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레바논은 지도적인 “기독교” 국가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종교적 자유와 전 중동 지역을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역사적 능력과 북아프리카와 근동(Near East)을 섬기는 대부분의 유럽과 북미의 선교 단체들(parachurch)을 수용하는 능력을 잃을지도 모른다.

3) 모든 아랍인들은 광신자이고 테러리스트들이다

어떤 서양인들은 아랍인이라는 용어를 광신적이고 과격한 이슬람교도나 문명화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테러리스트와 동등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오해는 부분적으로 편견에 치우친 방송과 무지나 잘못된 언론사들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서구에서 살거나 여행하는 아랍인들은 아랍인이라는 용어가 최근의 고정관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아랍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중동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아랍 세계에는 다른 유형의 무슬림 사회가 존재한다. 전통적이고(평화로운 공동체의 삶과 풍성한 문화적인 유산을 가진 선하고 단순한 마음을 지닌 주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 세속적이며(보다 개방되고 진보적인 복잡한 사회에 사는 주로 교육받고 사업하는 사람들), 근본적이고(극단적으로 이슬람의 사회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면에 크게 이바지하고 열성적이며 철저하게 헌신한 자들), 온건하며(개인과 그룹이나 국가로서 시각이나 실천에서 균형을 이루는 자들), 그리고 민족주의적인(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 이슬람 시민법들과 규례들을 적용하므로 정부와 종교와 사회적 삶을 연합하는 정권을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유형들이 있다(더 자세한 분석은 Voll, 1982를 보라).

압드 알-마시흐(Abd Al-Masih)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교양 있는” 무슬림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다른 많은 서구인들이 이슬람을 정의하는 것처럼 이슬람은 단지 또 다른 종교나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다. 많은 서구인들은 “이슬람은 신 중심적인 종교다”라고 정의한다(p. 50). 소수의 “근본주의자들”이 설명하듯 진정한 무슬림들은 신 중심적인 국가를 목표로 해야만 한다. 그러한 종교적 국가들은 영적, 문화적, 일반적인 시스템이 함께 융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압드 알-마시흐에 의하면 종교 전쟁과 힘의 사용에 관한 견해에서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코란에 있는 알라는 신실한 이슬람교도들은 노력할 것을 명령하고, 거룩한 전쟁인 지하드(jihad)에서 죽는 사람들에게 “낙원에 직접 올라가게 될 것임” 약속한다(p. 60). 후자는 마호메트가 어떤 침략에 가담했다고 믿고 있고 그의 모델은 “알라의 이름아래 행해지는 모든 이슬람의 전쟁을 위한 유일한 규범으로 남아 있다”(p. 60).

매우 소수이지만 극단적인 형태의 저항이나 그들 자신들을 자유를 위한 전사자들과 알라를 섬기기 위한 최후의 이데올로기적인 목표를 수행하는 자들로 생각하는 “과격주의자” 혹은 “광신주의자들”의 발흥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했다. 많은 이슬람 그룹들이 일반적으로 현저하게 서구(the West)에게 분노하고 특별히 미국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들은 문화적 침략, 경제적인 착취, 정치적인

압박, 군사적인 우세와 제국주의적인 탐욕과 관련해서 서구를 향해 분개한다. 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지나치게 후원하는 미국 정부에 대해 격분하고 있다. 경건한 이슬람교도에게 예루살렘은 최고로 중요한 곳이다. 예루살렘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Mecca)와 알 마디나(Al-Madina) 다음가는 세 번째의 거룩한 도시이다. 게다가 “가지지 못한 자들이나 적게 가진 자들”은 “많이 가진 자들”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넘치는 소비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서구와 동일시하며 아랍 지역과 이슬람 세계를 침입했던 유럽의 십자군 전쟁 역사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서구가 계속적으로 중동에 수출하고 있는 타락한 생활양식과 생산품들과 영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무슬림 공동체의 주요 형태들과 이슬람의 기본 신앙 시스템들에 대한 이해는 중동에 있는 기독교 사역이나 사역자들에게 엄청난 함의를 담고 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살면서 섬길 것을 결정한 사회의 종류와 종교적인 헌신의 수준에 따라 사역자들은 그들의 접근 방법과 언어와 활동에 신중해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필요한 기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용되는 것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현지 공동체와 보다 광범위한 중동사회에 어떤 자극적인 실수나 불필요한 공격을 피하는 것이다.

2. 역사적 종교적 배경

아라비아와 아라바라는 용어들은 평지와 광야를 가리킨다. “아랍인들과 히브리인들은 본래 어떤 국가나 국민을 형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막에서 방황하는 유목 민족이었다”(Hamada, 1990, p. 41). 대부분의 서구인들은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은 기원을 가진 “셈 족들로 불렸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것이다(p. 40). 또한 아랍이라는 용어는 “사막”을 의미하고 아마도 히브리어 엠페르(Eber)에서 유래되었다. “문자적으로 엠페르는 ‘다른 편’ 혹은 ‘그 강(유프라테스) 건너’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아비르(Abir)는 아랍어로 엠페르이다. 그 의미는 “건너다”(p. 40)이다. 코란에서 아랍이

라는 용어는 베두인족이나 유목민을 묘사하는 데 쓰였다. 아랍인들에 대한 성경구절 중 하나는 예레미야 25장 24절에 나오는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이다.

아랍어로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평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슬람은 알라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은 유일하신 한 분, 초월자,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한다. 알라는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으며, 진실 되고 성실한 이슬람교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마지막 사자요 마지막 선지자인 모하메드에 의해 계시된 법과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 모하메드는 깊은 사색가요 위대한 개혁가로 나타났다. 그는 부지런히 영적인 삶과 경건에 대해서 배웠고 담대하게 이상 숭배와 그 시대의 사회적인 무질서와 맞섰다.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의 메시지는 널리 환영 받았다.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al-jahilyyya)는 모하메드가 “진리”(true way)을 소개하기 전의 무지의 단계로 언급되었다. 모하메드의 주위에는 그가 존경했고 한분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모하메드 자신이 매력을 느꼈던 일신론자(monotheist)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라비아와 이슬람을 합병하려는 욕망이 있었다.

따라서 강력한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인 운동으로서 이슬람의 발흥과 확장은 대부분의 유럽이 여전히 어두운 역사 속에서 고심하고 있는 동안, 건축, 과학,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 중대한 번영과 진보를 누렸던 중요한 세계 문명을 탄생시켰다. 그것은 확실히 이슬람의 황금기였던 것이다. 현재 많은 무슬림 집단들과 국가들은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이슬람의 완전한 힘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고 완전한 연합과 확장을 꿈꾸고 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거대한 재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 자원들은 주로 그들에게는 검은 황금으로 알려져 있는 유전이다. 그와 같이 이슬람교도들은 알라에 의해 특별하게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며 알라의 진리를 지키고 전해야 할 의무를 깊이 느끼고 있다(Youssef, 1991).

본질적으로 이슬람은 신조들, 특별한 교리들, 영적인 법칙들, 민법들과 사회적인 규범들에 의해 안내되는 삶의 방식이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한 방대한 해석은 공동생활, 개인적인 행실, 그리고 가정생활의 모든 면에 관한 자세한 주석으로 가득 차 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슬람은 사상적으

로 여러 분파와 학파, 그리고 여러 전통과 문화적인 차이를 가진 다른 역사적 세계종교와 같다는 것이다. 모든 전통들에 대해 헌신한 이슬람교도들은 알라의 법을 지키고 그 목적들을 수행해야 할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단일체와 주권을 강조한다. 이슬람에는 반복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기독교와 이슬람, 성경과 코란 사이에는 유사한 많은 주제들이 있다.

1) 이슬람교의 6가지 신조

1. 알 샤하다(*Al-Shahaada*)-신앙 고백. “나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모하메드는 알라의 사자(messenger, *Rassool*)임을 선포한다.” 이 신조는 진정한 이슬람교도가 되며 진정한 이슬람교도로 남는 열쇠이다.

2. 알 살라트(*Al-Salaat*)-그들의 거룩한 도시 메카를 바라보고 집단이나 개인이 하루 다섯 번씩 드리는 지정된 기도들. 기도의 외침은 보통 이슬람 세계에서 모스크의 첨탑(minaret)에서 방송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정해진 글자들의 반복이다. 사망 시에 알라 만이 그 사람이 낙원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슬람교도들은 그들의 품위, 행동, 그리고 영적인 신실함이 그들의 죄보다 더 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은총으로 다스릴 것을 바라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것들을 암송한 후에야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

3. 알 자카트(*Al-Zakaat*)-자선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는 필요조건이다. 어떤 형태로든 좋은 이유에서 주는 것은 이슬람 선교처럼 적합한 것일 수 있다. 거지들은 이러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특히 이슬람의 공휴일을 이용한다.

4. 알 사움(*Al-Sa'uom*)-음식은 주로 거룩한 달(holy month)인 라마단에 국한한다. 코란이 모하메드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졌거나 계시되었다고 믿는다. 이슬람교의 해(년)는 12 태음월(lunar months)에 근거한다.

5. 알 하지(*Al-Hajj*)-메카로의 순례이다. 순례는 반드시 이슬람교 태음력에 어떤 확실한 기간동안 행해져야 한다. 세계에서 수백만의 이슬람교도

들이 역사에서 가장 크고 하나뿐인 종교적인 순례지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몰려든다.

6. 알 지하드(*Al-Jihad*)-거룩한 목적을 위한 싸움, 혹은 뜨거운 열심과 최대의 노력으로 알라를 섬기는 것이다. 이 용어는 부드럽고도 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예, 청결과 경건을 향한 개인적인 추구) 단체적, 국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예, 국가로서 이슬람을 위해 더 위대한 헌신을 구하는 것). 만일 필요하다면 그것은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격렬하고 극단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은 부패, 위협, 혹은 불의 앞에서 남자, 여자, 소년, 소녀의 구별 없이 헌신된 모든 이슬람교도들의 임무라고 믿었다. 지하드는 신앙을 변호하고 능력을 더하거나 개혁하기 위한 부름이다. 대부분의 이슬람교도들은 우호적이고 동정적인 사람들이지만 이슬람 교리의 핵심에는 쉽게 투쟁적인 정서와 침략과 무력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극단적인 견해와 해석과 과격한 주장들을 위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직체들과 그룹들이 이슬람의 신앙과 그 의식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어떤 정부는 이슬람의 세계적인 전진을 위해 중대한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들은 코란을 가르치고 아프리카에서 개종자들을 얻고, 이슬람 공동체와 구소련에 있는 분쟁국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유럽과 북아프리카 도처에 산재한 대규모 모스크와 이슬람 센터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후원하고 있다. 이슬람 전략가들은 전도와 선교 사역에서 기독교인에 의해 사용된 것과 비슷한 방법들과 계획, 그리고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버츠만(Wertsman, 2001, p. 42)은 “아랍 그리스도인의 불균등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아랍계 무슬림들의 쇄도는 이슬람이 미국에서 제일 급속하게 성장하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음 몇 십 년 내에 미국에서 이슬람교도들의 숫자가 유대인들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한다.

이슬람의 메시지가 서양으로 점점 확장되어 나아갈 때 기독교 메시지는 동쪽으로 더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어떤 기독교의 영향으로부터 그들의 백성들과 경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굳게 지키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나 이슬람교도가 아닌 자들의 침투에 관해서 염려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에게 유일한 종교가 되는 이슬람 외에는 어떤 종교의 자유

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국가들은 (이슬람법을 강화시키는) 엄격한 법 아래 제한되어 있고 움직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는 기독교 사역자들은 그들의 운동들, 관계들, 그리고 활동들을 주의깊이 살펴야만 한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서구의 국가들은 무슬림 이민자들과 전략가들이 활동하고, 예배하고,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신앙과 관습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고 있다.

3. 기독교 사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

보다 활동적인 복음주의 사역이나 개신교 사역이 더 많은 저항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저항은 아마도 반기독교 종교 지도자들과 정부, 혹은 과격한 사회 정치적인 집단들에서 기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나는 교회와 선교 단체 주도의 운동들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고대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도 온다. 후자는 복음주의자들과 개신교인들을 중동의 오랜 역사와 전통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그들의 사역은 중동 사람들 중에 연속성, 본질, 그리고 응집력(cohesion)이 부족한 서구 기독교의 형태를 수입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 좌파이면서 급진적인 다른 집단들은 생각하기를 복음주의자들과 개신교인들이 정치적인 의제들을 감추고 있고 서구 편이므로 그들의 방침이 시온주의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믿음은 사역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그 지역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성경적이고 비정치적인, 그리고 유대인의 국가인 근대 이스라엘과 무관하며, 그들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들과 같이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보여주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 지역의 영적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보다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일수록 (물론 비그리스도인 종교 지도자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더 좋지만) 그들 자신과 사역이 더 잘 수용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어떤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개인주의적이고 보다 고립된 방법을 사용하여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고 있다. 현지인들과 다른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

동 노력과 작업을 하는 대신 고립된 전략들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상, 나쁜 선전, 그리고 증가되는 의심만 창출해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들을 따르는 자들이 공동체에서 그들 자신과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킨다는 사실이다.

나는 자주 중동에 있는 내 동료들에게 교리적이고 관례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반대하고 싸움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독특한 스타일과 접근법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합시키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지역에서 현지인들과 외국인들 모두 기독교인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 이 그룹들은 사역을 위한 공동 전략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전략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조직들과 교단들을 모으고 있다. 그들이 압박과 위기 가운데서 기운을 북돋아 주며 격려하는 사람들이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종종 개인, 결혼, 가정생활에서 중대한 감정적인 갈등과 심리적인 고통을 만난다. 더욱이 그들은 종종 그 주변지역에 신중한 도움과 때로는 전문적인 케어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주민들과 가족들을 섬기고 있다. 기독교 사역자들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건전한 훈련과 지속되는 교육과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 위기중재와 기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그들은 또한 소속감과 진정한 우정, 개인적이며 지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은 그들을 점검하고 돕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양육과 조언과 지지를 갈망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중동에서 해마다 몇 달씩 내 자신의 교회와 더 크게는 공동체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다. 나는 가르침, 상담, 설교, 훈련, 그리고 격려와 같이 가능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다. 나는 기독교 사역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놀라운 여정들을 들을 수 있어 즐거웠다. 고질적인 불확실성과 대부분의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외에도 중동에 있는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은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슬픔과 고통과 함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기를 통과했고 크나큰 상실을 경험했으며 잊지 못할 사건을 보았고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다. 게다가 거기에는 목회자들과 현지인들에게 특별한 짐이 되는 혹독한 경제

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최소한도의 삶 그 자체가 도전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두개의 직장에서 일해야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난민과 이민자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뿌리가 없었고 가족 관계는 강제적으로 붕괴되었으며 사랑하는 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희망은 깨어졌고 상실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부지런하게 신앙을 지키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영웅들이다.

4. 종교적인 박해에 대한 속고

이 글의 후반부에서 나는(Anneke) 내 책 『숨겨진 슬픔, 지속되는 기쁨』(Companjen, 2000)에서 박해받는 교회에서의 여성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했다. 특별한 초점은 이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에 대한 몇몇 사례였다. 이 사례들은 신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자주 치러야 하는 값비싼 희생의 살아있는 본보기이다. 주요 주제인 타쿠쉬(Takoosh)는 그녀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나눌 것을 허락해 주었다.

여러분은 내가 이란만 선택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박해나 차별은 많은 모양과 형태로 중동만이 아닌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은 다른 신앙을 가진 세계 종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 가장 큰 그룹이다. 1948년에 공포된 유엔의 “인권의 우주적인 선언”의 18조에 묘사된 완전한 인권이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2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Candelin, 2001).

18조에는 “누구든지 사고와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한 사람의 종교 혹은 신앙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그리고 혼자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개적 혹은 개인적으로 가르침, 예식, 예배와 의식에서 그 사람이 믿는 종교를 나타낼 수 있는 자유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1년에 유엔 연합 총회는 종교 혹은 신앙에 근거한 편협과 차별에 모든 형태의 배제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을 거친 이 선언과 다른 초기 기록에 나타난 원리들(principles)을 재확인했다.

5. 타쿠쉬 호브세피안(Takoosh Hovsepian): 하나님의 대학에서

타쿠쉬는 반짝이는 검은 눈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아르메니아 계통의 명랑한 이란인 10대 소녀이다. 그녀는 가끔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하여튼 그녀는 그 생각을 머리 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여러 번의 대화 후 그녀는 친구 몇 명과 함께 기도했고 주님을 영접했다.

타쿠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곧 바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중요한 부탁을 했다. “주님 제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함께 당신을 섬길 수 있기를 위하여 그리스도인 동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그녀는 하이크 호브세피안(Haik Hovsepian)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하나님께 매우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었다. 하이크도 역시 신자였다. 그는 공부를 막 끝냈고 기독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고 계심을 깨달았다.

그는 기도하기를 “주님, 당신이 나를 당신의 사역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와 함께 나의 사역을 나누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발 내가 모든 것보다 당신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경건한 여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그녀에게 이끌어 주시면 내가 청혼할 것입니다.”

하이크는 여러 교회에서 자주 초대를 받아 강연을 했다. 어느 주일 아침 그는 이스파한(Isfahan)이라는 도시를 방문했다. 거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동안 그의 눈은 청중 가운데 앉아 있는 15살 된 소녀에게 멈췄다. 꽤 많은 다른 젊은 여자들도 그 집회에 참석했지만 어떤 이유로 그 특별한 얼굴은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여행하기 전에 경건한 부인을 찾는 것을 위해 금식했고

기도했다. 이것이 그의 상상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이 여인이 내가 기도해 왔던 여인이고 내가 너를 위해 선택한 여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그가 검은 눈과, 고요한 영, 그리고 사랑스러운 미소에 단순히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소 키가 크고 가냘팠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하이크는 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이 끝날 즈음 그는 주님이 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모든 용기를 다해 타쿠쉬에게 말하러 갔다. 그는 타쿠쉬에게 경건한 아내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수줍어하면서 “이것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택하신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타쿠쉬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녀는 “당신과 같이 나도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배필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아마도 당신 역시 나의 기도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저녁 후에 그녀가 부모와 함께 그 일을 의논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너는 이 남자를 알지도 못하잖니!” 그들은 항의했다. “그리고 너는 공부를 끝내야 해. 만일 언젠가 네가 혼자 남겨져 일을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할래? 너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녀가 하이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 이야기 할수록 타쿠쉬는 이 남자가 오직 타쿠쉬를 위한 사람임을 확신했다. 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기도 후에 결국 타쿠쉬의 가족은 승낙했다. 사실 그들 역시 이 젊은 남자에게 감동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말하기를 “그는 비범한 청년이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어.”

1) 큰 기쁨, 깊은 슬픔

꽤 젊은 나이에 타쿠쉬는 호브세피안의 부인이 되었다. 그녀는 곧 이란에서 목회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하이크의 사랑과 온유하고 낭만적인 행동은 그녀가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분명하게 그녀를 사랑했으며 둘 다 주님을 깊이 사랑했다.

그 당시 이란은 점증하는 정치적인 격변기에 있었다. 이 격변기는 결국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초래했다. 오래전에 타쿠쉬의 부모님은 이란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다.

하이크는 그녀의 부모님이 작별 인사를 하는 날 “당신도 미국으로 가고 싶나요?”라고 물었다. 타쿠쉬는 “아니,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남겠어요.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여기 남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예요!”라고 대답했다. 하이크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머물기를 원해”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 그가 그 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그녀의 가족이었기 때문이 없는지는 몰라도 하이크는 그의 아내를 여왕처럼 대우하기 시작했다. 그는 타쿠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격려하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들은 정말 잘 어울렸고 서로에게 만족했다. 그들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과 같이 하이크도 그 아기를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하이크가 아들을 더 사랑할수록 타쿠쉬는 하이크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의 아기를 돌보고,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지켜보던 때가 그녀의 삶 중에서 가장 즐거운 나날들이었다.

그녀는 새 가족을 향한 깊은 감사를 느끼며 가끔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너그러우십니다”라고 기도했다. “당신은 내게 당신을 사랑하는 훌륭한 남편과 아름다운 아기를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당신을 함께 섬길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까지 하이크는 매주 성장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다. 하이크는 뛰어난 성경 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집회를 인도하는 것을 좋아했던

재능 있는 음악가였다. 그는 특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교회의 예배는 타쿠쉬에게 감동을 주었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라고 타쿠쉬는 자주 기도했으며, 그녀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받고 있음을 느꼈다.

때때로 삶의 가장 큰 기쁨은 가장 깊은 슬픔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할 불행한 때도 있다. 곧 타쿠쉬도 그녀가 나누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교회 모임에서 돌아올 때 하이크의 차가 다른 차와 정면충돌했다. 분명히 상대방 운전사의 실수였지만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하이크와 타쿠쉬는 심하게 부상을 당했고 그들의 아름다운 아들은 즉사했다.

육체적인 고통이 혹독했지만 그녀의 감정적인 고통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타쿠쉬의 몸이 서서히 회복되어갈 때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라고 자주 외쳤다. “우리가 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은 당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의 아기가 죽어야만 했습니까?”

타쿠쉬의 절망적인 질문에는 쉬운 대답이 없었다. 몇 개월 동안 타쿠쉬의 상한 심령은 결코 치료될 것 같지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멈추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녀의 갈등을 이해했고 그들은 그녀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 기도했다. 그들은 타쿠쉬가 상대방 운전사를 용서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들은 주님이 그녀의 쓰라린 마음을 치료하시도록 기도하며 실제적인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다.

결국 타쿠쉬는 그녀의 쓴 뿌리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 드렸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있는 상처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그녀와 하이크에게 다른 아들을 허락하셨고, 그 후 그녀는 슬픔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이 힘겨운 기간 동안 하이크는 강한 요새가 되어 주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강한 믿음은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했다. 하이크는 그 자신의 상실 가운데 머무르기 보다는 타쿠쉬를 돕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의 삶을 쉽게 하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를 위한 그녀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삶의 등불이었다.

2) “하이크 형제가 사라지다”

수년 동안 그들의 가족이 늘어남과 함께 박해도 심해졌다. 장남의 죽음 후 하이크와 타쿠쉬는 세 아들과 딸 하나를 얻어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 또 다른 이란 목사 메히디 디바즈(Mehdi Dibaj)가 감옥에 갇히자 그의 아내는 가족들을 돌볼 수가 없었다. 하이크는 디바즈의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이란 기독교 공동체에서 하이크의 역할은 더 중요하고 현저하게 되었다. 그는 개신교 목사 협의회 회장이 되었다. 그 협의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란의 인권 침해에 대해 전 세계에 알리는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 있었다. 그는 이란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란 종교국에 의해 출판된 기록을 승인하는 것 또한 거절했다. 이러한 행위는 이란 정치의 핵심에 있는 근본주의자들의 정권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하이크는 이슬람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라는 압력을 받았을 때 그 제의를 단호히 거절했다. 테헤란 교회는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해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계속해서 환영할 것을 그는 분명히 했다.

하이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어떤 정부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가 섬기는 교회는 살아있었고 활동적이었다. 이란 정부를 제외하고 하이크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사랑했다. 전투적인 이슬람교도 세계에서 거리낌 없는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소수의 신자들만이 용감하게 대항할 수 있는 도전이었다. 하지만 하이크는 그의 용기와 믿음을 함께 나누었던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 도전을 매일 직면했다. 하이크는 협박과 두려움에 굴복할 것을 거절함으로 온 세계에 본을 보여 주었다.

1994년 1월 어느 날, 하이크는 타쿠쉬와 작별 인사를 하고 예정대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처음으로 그가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정부가 그를 억류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정부기관을 방문했을 때 모든 관료들은 똑같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라

고 말했다. 타쿠쉬의 마지막 희망은 남편이 감옥에 있는 것이었다.

며칠 뒤 우리의 식사 시간을 방해하는 전화가 울렸을 때 요한과 아이들, 그리고 나는 저녁식사 중이었다. 요한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 표정으로 보아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화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란 친구로부터 온 것이었다. “요한, 하이크 형제가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만나러 공항에 갔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 주십시오. 솔직히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슬픈 소식은 충격적이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하이크 목사가 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에 대해서 정말 솔직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메흐디 디바즈의 즉각적인 처형에 대하여 항의하고 기도하는 세계적인 캠페인이 있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하이크와 타쿠쉬가 9년 동안 그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다. 디바즈는 며칠 전 예기치 않게 풀려났었다.

오픈도어를 통하여 우리는 엄청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을 접촉했다. 몇 시간 내에 많은 나라에서 수 천 명의 사람들이 24시간 하이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의 소재에 대한 소식을 걱정스럽게 기다린지 일주일이 지난 후 1월 30일 주일 아침 호브세피안 집의 전화가 울렸다. 타쿠쉬는 장남인 요셉에게 전화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경찰이다. 그들이 너와 이야기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요셉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한 경관은 투명스럽게 요셉의 손에 소름끼치는 사진 한 장을 던졌다. “이 사람이 네 아버지냐?” 그 경찰관은 냉정하게 물었다. “우리는 이 시신을 테헤란에 있는 작은 골목길에서 발견했다. 그는 난폭하게 살해당했다. 그가 약 열흘 전에 죽은 것 같다.” 요셉은 그 사진의 시체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했다.

그 충격은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사실 하이크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친한 친구를 잃은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타쿠쉬와 10살부터 23살에 이르는 네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것이다.

타쿠쉬는 며칠을 울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고 그 눈 밑의 피부는 감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며칠 후 테헤란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 교회에서 비디오로 기념예배를 보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나는 하이크의 미망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나는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교회는 차고 넘쳤다. 하이크의 대형 사진이 수 십 개의 화환과 부케에 둘러싸여 있는 강단에 놓여졌다. 우리는 조용히 박해와 고난에 대한 하이크의 녹음 된 설교 중 하나를 들었다. 후에 하이크의 녹음된 노래를 들었을 때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채웠다.

카메라는 메흐디 디바즈에게 초점을 맞췄다. “하이크가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예배시간에 그렇게 외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외침이 예언적이었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

3) 배워야 할 교훈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타쿠쉬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이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수 천 통의 편지와 카드가 발송 되었다. 그들의 위로의 말이 고맙기는 했지만 타쿠쉬의 영혼의 상처는 회복될 것 같지 않았다. 하이크의 살인 사건의 실체가 수그러들자 타쿠쉬는 그녀 자신이 커다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타쿠쉬의 마음은 남편을 살해한 사람들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찼다. 타쿠쉬는 그녀와 가족에게 이러한 엄청난 비극을 불러온 이슬람교도들을 증오했다. 그 증오의 감정을 정당화 시키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두려워했고 통제 능력을 잃어 누군가를 차로 치거나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까봐 두려워했다.

몇 달 후 친구들이 타쿠쉬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대학에 들어와 있어. 나는 가장 낮은 점수로 시작하고 있지만 서서히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일하시기 시작하셨어. 처음

으로 나는 그 살인자들을 기꺼이 용서해야만 했어. 용서는 의지의 결정으로 시작이 되었고 감정은 나중에 따라왔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증오를 가져가 시기를 허락했을 때 나는 그 미움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 결국 나는 내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지.”

타쿠쉬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또 다른 걸림돌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녀의 원수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었다. “주님,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라고 타쿠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인 그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화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도와주셨다. 조금씩, 한결음씩 그녀는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점에까지 오게 되었다. 그녀는 극단적인 이슬람교도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듯 목자 없는 양으로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은 타쿠쉬가 사랑할 것을 요구했고 그녀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그녀가 두 번째 시험을 지날 수 있도록 도우셨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대학에서 졸업할 준비가 되어있지는 않아”라고 타쿠쉬는 말했다.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것은 불가능했다. 용서와 사랑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찬양은 그녀가 노래하고 기뻐하고 경축하는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러한 것을 하기를 어떤 사람이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하이크가 그녀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그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를 의지했는지를 아신다.

“아직도 나는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했어”라고 타쿠쉬는 설명했다. “그래서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비록 내 마음은 울고 있었지만 내 입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시작했지. 내 마음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나는 입술로 순종한 셈이지. 전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영혼에서 일을 하시게 시작하셨어.” 테헤란에 있는 남녀 성도들은 호브세피안 가족을 열심히 돕기 위해 노력했다. 하이크가 실종된 기간과 그의 사망이 확실해진 후 교회 성도들과 많은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교대로 타쿠쉬와 자녀들을 위로했다.

그들은 오랜 기간동안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 타쿠쉬의 일상적인 필요

를 채워주었다. 그들은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청소와 손님 접대를 했다. 타쿠쉬가 하루도 혼자 있었던 날이 없었다. 타쿠쉬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누군가가 거기에 항상 있었다. “비록 내가 내 가족을 많이 그리워하긴 했지만 하이크가 죽은 후 그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한 순간도 바라지 않았어”라고 타쿠쉬가 말했다. “내가 교회로부터 필요한 모든 사랑, 돌봄, 그리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지.”

주님 자신이 타쿠쉬에게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셨다. 어떤 때는 놀라울 정도로 현저한 방법으로 다가 오셨다. 하나님은 그녀의 큰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삶의 가장 작은 세밀한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타쿠쉬에게 보여 주셨다. 타쿠쉬가 누렸던 작은 위로 가운데 하나는 초콜릿을 먹는 것이었다. 하루는 아주 작은 초콜릿 조각이 남아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먹으면서 기도했다.

“주님 당신은 내가 초콜릿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다. 내게 조금만 더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같은 날 캐나다와 미국에서 방문객들이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녀는 감사함으로 그들의 선물 꾸러미를 열었다. 다른 순교자 가족들을 위한 장난감들과 옷들이 있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특별히 그녀를 위해 보내준 선물을 기쁘게 펼쳤다. 초콜릿이었다. 다시 한번 타쿠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끊임없는 관심을 깨닫게 되었다.

타쿠쉬가 가장 어려워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딸 레베카가 결혼할 때였다. 타쿠쉬는 젊은 커플을 위해 그날을 어떻게든지 즐겁게 만들어야 할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했다. 하이크와 타쿠쉬는 이러한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할 것을 기대했었다. 지금 그녀는 혼자 그 순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었다. 결혼을 위해 그 집을 장식하는 동안 타쿠쉬는 조용히 그 시간을 잘 통과하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정말 기쁜 날이었다. 왜냐하면 젊은 커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타쿠쉬는 딸에게 경건한 남편을 주신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들을 축하해 줄 하이크가 없는 그 날은 타쿠쉬에게는 허전하고 쓸쓸한 날이었다.

4) 삶과 죽음의 문제

타쿠쉬가 이란에서 슬픔을 당한 유일한 미망인은 아니다. 1990년 12월 이슬람에서 개종한 수드만드(Soodmand) 목사가 마샤드(Mashad) 도시 가까이에서 처형당했다. 장님이었던 그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극복하는 데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타쿠쉬는 그녀가 경험한 것을 나눌 수 있었다. 비록 수드만드 부인이 타쿠쉬와 같은 다른 사람들도 그녀 자신과 같이 많은 슬픔을 경험한 것을 알고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 해에 이란에서 죽음을 당한 기독교 목사는 하이크 한 사람 뿐이 아니었다. 6개월의 자유가 있는 후 6월 메흐디 디바즈는 그의 네 자녀들을 남겨두고 공원에서 살해당했다. 비록 정부가 테러집단인 무자헤딘 칼끄를 비난했지만 그 역시 순교자로 죽었다.

정부는 디바즈의 시신을 그의 장례식 2시간 전에 넘겨주었지만 심지어 그 가족들이 관을 열어 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용감한 하나님의 종은 처음부터 기꺼이 그의 생명을 내 놓았던 것이다. 그의 아내는 그가 억류되어 있는 동안 그를 떠났다. 그리고 그의 네 자녀들은 두 배로 고난을 당했다. 첫째 그들은 그들의 양아버지 하이크를 잃었고 지금은 친아버지를 잃었다. 하지만 호브세피안 자녀들과 같이 그들도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계속하여 섬기고 있다.

메흐디 디바즈가 죽은 지 며칠 후 그의 아내 줄리엣과 장성한 세 자녀를 남겨두고 타테오스 미카에리안(Tateos Michaelian) 목사가 총살을 당했다. 또 다른 지도자가 사라진 것이다. 미카에리안 목사는 하이크를 대신해서 이란의 개신교 목회자 협의회 의장이 되었다. 그가 책임을 맡은 지 5개월 만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준 것이다. 현재 그의 아내는 결혼한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

1996년 9월 28일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라반바크쉬 유세 피(Ravanbakhsh Yusefi) 목사의 시신이 가엠샤홀(Ghaemshahr)에 있는 그의 집으로부터 약 20마일 떨어진 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는 그날 아침 기도와 묵상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일찍이 집을 나섰다. 이란에서 또 다른 기독교 목사가 목숨을 내 던졌던 것이다. 또 다른 미망인 아크타르(Akhtar)가 어린 두 아이들과 함께 혼자서 살게 되었다.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은 아크타르를 황폐화시켰다. 오늘날 타쿠쉬와 같이 그녀는 슬픔의 길을 걷고 있고 그녀의 고통을 한결음씩 헤쳐 나가고 있다. 매일 3시가 되면 타쿠쉬는 아크타르에게 전화를 한다. 누구보다 더 많이 그녀는 아크타르가 무엇을 통과하고 있는지 잘 이해한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자주 이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충성된 신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이란 목회자는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어쩌면 당신들은 우리의 기도를 더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 방황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것을 위해 주님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의 곁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는 타쿠쉬의 마음과 그 자녀들을 시험하고 있다. 그들은 치료, 지혜, 그리고 인도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들은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지만 과거를 처리하고 용감하게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것처럼 호브세피안 가족과 이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6).

6. 토의주제

1. 중동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주요 실체들은 무엇인가?
2. 현지인 목회자들과 외국인 사역자들의 스트레스의 요인들은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3. 중동에 대한 대부분의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4. 사례 연구에서 어떤 점이 당신에게 가장 많이 와 닿았고 왜 그런가?

5. 중동에서 그들의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것들을 나열하라.

† 참고문헌 †

- Abi-Hashem, N. (1992). The impact of the Gulf War on the churches in the Middle East: A socio-cultural and spiritual analysis. *Pastoral Psychology*, 41, 3-21
- _____. (1999a). Cross-cultural psychology. In D. Benner & P. Hill (Eds.), *Baker encyclopedia of psychology and counseling* (2nd ed.) (pp. 294-298). Grand Rapids, MI: Baker.
- _____. (1999b). Grief, loss, and bereavement: An overview.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8, 309-329.
- _____. (1999c). Grief therapy. In D. Benner & P. Hill (Eds.), *Baker encyclopedia of psychology and counseling* (2nd ed.) (pp. 1229-1230). Grand Rapids, MI: Baker.
- Accad, F. (1997). *Building bridges: Christianity and Islam*.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 Al-Masih, Abd. (1996). *The main challenges for committed Christians in serving Muslims* (English ed.). Villach, Austria: Light of Life.
- Bell, R. (1968). *The origin of Islam in its Christian environment*. London, UK: Frank Cass.
- Candelin, J. (2001). *A perspective on global religious freedom challenges facing the Christian community: The Geneva Report 2001*.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Available from: markalbrecht@xc.org)

- Companjen, A. (2000). *hidden sorrow, lasting joy: The forgotten women of the persecuted church*. Wheaton, IL: Tyndale House.
- Coote, R., & Stott, J. (Eds.). (1980). *down to earth: Studies in Christianity and culture*. Grand Rapids, MI: Eerdmans.
- Esposito, J. (Ed.). (1995). *The Oxford encyclopedia of modern Islamic worl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amada, L. (1990). *Understanding the Arab world*. Nashville, TN: Thomas Nelson.
- Hamady, S. (1960). *Temperament and character of the Arabs*. New York, NY: Twayne.
- Hitti, P. (1978). *History of the Arabs* (10th ed.). New York, NY: Saint Martin's Press.
- Lapidus, I. (1990). *A history of Islamic societi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y, R. (1975). *The social structure of Islam*.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ttlefield, D. (1997). *The Islamic Near East and North Africa: An annotated guide*. Littleton, Co: Libraries Unlimited.
- Marsell, A., & Pedersen, P. (Eds.). (1981). *Cross-cultur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 NY: Pergamon.
- Nasr, N. (1994). *Islamic spirituality I & II*. Lexington, NY: Crossroads.
- Robinson, N. (1991). *Christ in Islam and Christianity: The representation of Jesus in the Qur'an and the classical Muslim commentaries*. Basingstoke, UK: Macmillan Education.
- Voll, J. (1982). *Islam: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modern world*. Boulder, CO: Westview Press.
- Wertsman, V. (2001, June). Arab Americans: A comparative and critical analysis of leading reference sources. *MultiCultural Review*, 42-47.
- Williams, J. (1971). *Themes of Islamic civiliz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 Youssef, M. (1991). *America, oil, and the Islamic mind: The real crisis is the*

gulf between our ways of think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Zwemer, S. (1986). *Arabia, the cradle of Islam: Studies in the geography, people, and politics of the peninsula with an account of Islam and mission-work.* London, UK: Darf.

* "하나님의 대학에서"는 2001년 국제 오픈도어에서 출판된 『숨겨진 슬픔, 지속되는 기쁨: 박해받는 교회의 잊혀진 여인들』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이다. 틴대일(Tyndale) 출판사의 허락으로 사용했다. 호더(Hodder)와 스토크우튼(Stoughton)의 허락으로 재판되었다.

제 20 장

적색 지대(Red Zones)에서의 멤버케어: 중동에서의 실례들

적색 지대란 용어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날마다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험이 감지되는 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세계의 많은 지역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내가 과거 25년 동안 섬기고 있는 중동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이러한 적색 지대들은 개인, 부부, 가족 혹은 팀으로 이러한 지역에 살면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험하다. 중동에 있는 적색 지대 몇 개를 지명한다면 가자(Gaza), 웨스트뱅크(West Bank), 레바논, 예멘, 그리고 시리아가 될 것이다.

* 레이몬드 히스(Raymond Hicks)와 그 아내 베벌리(Bervery)는 국제선교회(International Mission Board), SBC와 함께 지난 25년간 적색 지대에 살면서 사역해 왔다. 레이는 멤버케어 고문으로서 많은 기독교 기관들과 민간공



레이몬드 히스 *

중동에는 여러 개의 적색 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교사의 안녕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적색 지대는 민족적 정치적 갈등(ethno-political tension), 불안정, 잠재적, 혹은 실제적인 폭동으로 구분되는 특별한 지역이다. 저자는 적색 지대 스트레스의 경고 신호를 보면서 적색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획을 제시하며 적색 지대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행정가들과 지도자들에게 지침서를 제공한다.

타문화권 환경에서 살고 있는 선교인력들은 대개 그들의 재능과 잠재된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데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언어, 문화, 새로운 구두적, 비구두적 단서들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사실, 선교사가 스트레스 해소를 경험하고 타문화에서의 삶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적응을 위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적색 지대의 스트레스 요인들과 결합되면 가장 잘 훈련되고 헌신된 선교사라 할지라도 무능력하게 되고 두려움, 분노, 감정의 폭발, 절망감,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 다음의 목록들은 어떤 지역이라도 적색 지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태로운 경험들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타문화 삶의 정상적인 스트레스의 요인들과 결합되면 선교사들을 감정적, 신체적, 혹은 영적 탈진으로 빠르게 몰고 갈 수 있다:

- 강도, 강간, 혹은 유괴의 위협.
- 죽음의 위협.
- 기독교에 대한 정부나 전투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억압.
- 테러리즘과 집중적인 반서구 정서.
- 무차별한 폭력, 공격, 총격.
- 총격으로 부상을 당하고 불구가 되거나 죽임을 당한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것. 만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면 이러한 스트레스가 격화된다.
- 전쟁, 쿠데타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정치적인 불안정과 정치적인 폭력.

익단체들을 도와왔다. 그는 최근에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IMB를 위한 멤버케어 전문가/고문으로 섬기고 있다. 히스 가족은 이스라엘 웨스트뱅크와 요르단에 살았다. 레이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스턴 침례 신학교(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결혼과 가족 사역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목회상담으로 목회학 석사를 받았다. 레이와 베벌리는 결혼한 지 31년 되었으며 아들인 미가(Micah) 두 딸들인 솜머(Sommer)와 멜라키(Melakee)를 두고 있다. Email: memcare@netzero.net

- 서구인들이나 자신들을 거부하는 집단에 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분노, 증오, 폭력.
- 민간인 지역에서 무장된 시민과 정부의 충돌, 잠재적인 위험요소의 증가, 부상, 혹은 위험지역에서의 죽음.
- 폭력과 정치적인 격변으로 나타나는 높은 실업률, 저임금, 기아와 육체적인 필요.
- 특히 서구인들이나 상류층을 향한 이유없는 도둑질이나 무장 강도를 초래하는 극도의 가난한 경제상황.
- 통행금지와 여행 제한들.

이 목록은 점차 격렬하고 생생한 상태로 계속 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특징들 중의 어느 하나라도 자체적으로 적색지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색 지대 스트레스 요인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세 개의 군이나 그 이상의 군으로 나타날 때, 그 지역은 적색지대로 분류되게 된다.

이에 대한 좋은 본보기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자 지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인들 사이의 분쟁은 적색지대의 관찰 가능한 특색들이 이 지역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 여러 선교단체와 함께 사역하는 서구 선교인력은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 죽음의 위협은 “지시된 집단 저항”을 따르지 않는 현지 팔레스타인들에게도 있다.
- 팔레스타인인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술 판매와 음주를 중요하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전투원들의 표적이 되었다. 더욱이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동시에 시위, 폭력, 투석, 화염병 투척, 그리고 다른 저항 활동과 같은 대부분의 이슬람교도들의 활동에 대항하였다(여기서 기독교는 종종 삶의 양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문화적인 유산과 관계가 있다. 즉 명목상의 기독교라는 것이다).
- 무차별 총격과 폭격이 정기적으로 일어난다. 이스라엘의 정착민들과 군인들은 시위, 차량총격전, 매복, 암살과 같은 방법으로 팔레스타인들을 정기적으로 부상 입히고 살해한다. 팔레스타인들은 가자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정착자들을 해치거나 죽이고 있다. 2000년 말 가장 최근의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은 사망은 400명이 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팔레스타인들이었다.

■ 거의 모든 팔레스타인 가족 구성원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그러므로 가자 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서구 사역자들이 부상을 당했거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은 보통이다.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경계선의 폐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경제에 위협을 초래했다. 팔레스타인 사업자들은 회사에 공급물량을 제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 회사들의 고용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스라엘에서 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그들의 일터로 건너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가자에서 팔레스타인 실업률은 50%로 보고 되고 있다. 그들의 평균 수입은 하루에 2달러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하루 24시간, 그것도 일주일 내내 너무나 많은 육체적인 필요와 만연된 가난을 직시하며 그들 스스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과 슬픔을 겪는다.

■ 그 지역에는 테러리즘도 만연해 있다. 이스라엘 군인이나 팔레스타인들에 의한 다음 공격이 어디서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공격은 있을 것이고 그것도 가까운 것에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결과 통행금지와 여행 제한은 매우 평범한 것이 되었다.

■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 가자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실은 정치적 불안정이다. 나이든 지도자들과 좀더 전투적이며 정치적인 젊은이들은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충돌하고 있다. 때때로 이 충돌은 고함과 싸움에서부터 총격과 살인까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

■ 서구가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절대적인 지지에 대한 분노는 서구인들과 그들의 사업에 대한 증오로 이어지고 있다.

1. 적색 지대에서의 삶: 사례연구

다음은 내가 말하는 적색지대에서의 삶의 의미와 사역자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는 한 가족에 대한 사례이다. 나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정보를 바꾸었지만 자세한 적색 지대의 삶은 실제적인 것이다.

롭과 케롤은 적색 지대에서 첫 사역 기간인 3년차를 보내고 있는 외국 사역자들이다. 그들 둘 다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해외사역 이전에 그들은 매우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공동체와 교회에서 리더들이었다. 둘 다 활동적이고 동기가 분명했으며 미전도 종족집단을 위한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롭과 케롤은 세 명의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었다. 가족 모두 현지 언어를 배웠고 그 문화에 잘 적응했다.

롭과 케롤과 자녀들은 지난 3년 동안 서로 충돌했다. 처음에 자녀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적색 지대에 살면서 적색 지대 밖의 외국인 학교에 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했다. 롭과 케롤의 결혼 관계는 새로운 문화적응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들로 인해 위기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롭과 케롤과 그 자녀들이 지난 일년 반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는 적색 지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들과 결합된 것이었다. 위에 명시한 적색 지대 스트레스 요인들 대부분은 일상적인 삶의 현실이다.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부가되는 세 개의 실례들은 (1) 롭과 케롤이 그들의 자동차를 위해 보안경을 사야만 했다. 왜냐하면 시위하는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이다; (2) 그들은 군대의 도로봉쇄와 전투적인 군중들의 시위를 피하기 위해 매일 여행 경로를 변경해야만 한다; (3) 그들은 여러 차례 학교에서 자녀들과 연락도 할 수 없었고 혹은 데려올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여행 경로가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의 요인들은 역으로 롭과 케롤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주요 어려움들을 살펴보자.

■ *하나님과의 관계*—롭과 케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잃었다. 그들은 경건의 시간과 기도를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영적인 “사막에” 있다.

■ *자신과의 관계*—그들의 개인 생활에서 “여유”(margin)를 가질 시간(예, 회복과 재생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 충전)은 거의 없다. 휴식을 취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다. 운동할 시간도 없다. 에너지를 충전하고 무엇을 시작할 힘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 **부부 관계**-많은 대화가 불화나 논쟁으로 발전하는 것 같다. 서로에 대한 격려가 없으며, 룩과 케롤이 서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잔소리가 삶의 한 방식이 되었다.

■ **자녀들과의 관계**-부모와 자녀 사이에 긴장이 있다. 잔소리가 그러한 긴장관계의 일부분이 되었다. 자녀들은 유럽으로 돌아가거나 적색 지대를 떠나 적색 지대 밖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과 가까이 사는 것에 대하여 자주 말한다.

■ **현지인들과의 관계**-그들과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장애물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지인들의 필요가 급격하게 증가될 때, 그들의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굶주림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한 룩과 케롤의 능력은 정비례하여 감소된다. 이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가 되며, 그것은 룩과 케롤의 마음에 죄책감과 슬픔과 좌절감을 만들어낸다.

■ **동료들과의 관계**-룩과 케롤이 동료들부터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동료들이 룩과 케롤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이 어렵다. 동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룩과 케롤은 그들과 더 멀어지게 되었고, 불필요한 논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격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줄어들게 되었다.

룩과 케롤의 적색 지대의 경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감정적, 육체적, 영적 탈진 “궤도”에 놓여있다. 나는 그들이 휴식이나 중재 없이 앞으로 얼마나 적색 지대의 압력솔과 같은 상황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항존하는 압력은 선교에 대한 그들의 소명을 재평가해야 하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미전도 종족에 대한 소명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 룩과 케롤의 적색지대 시나리오는 중동 지역과 세계의 여러 적색 지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다.

2. 사전적 단계들

룩과 케롤의 경우와 적색 지대와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다른 선교인력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자신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적색 지대의 압력솔”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전적인 조치들은 무엇일까? 두개의 전략이 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적색 지대 스트레스의 경고 사인을 배우는 것이다. 둘째는 개인, 부부, 가족의 여유 있는 시간을 분명하게 확보하므로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케네스 윌리엄스(Kenneth Williams, 2000, p. 171) 박사는 여유(margin)를 “비축해 둔 충분한 시간, 에너지(영적, 감정적, 관계적, 육체적),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공급하기 위한 돈”으로 정의한다.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여유를 갖는 것은 적색 지대의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신체, 감정, 그리고 영적인 삶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갱신시킨다.

1) 경고 사인에 대한 인지

중동에서 수년 동안 나는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적색 지대 스트레스의 5가지 주요 경고 사인을 지적했다. 그것은 우울증, 감정 억제, 집중력 부족, 지속적 두려움과 영적고갈이다.

(1) 우울증

우울증의 주요 증상들은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적은 잠을 자는 것, 무기력, 두통, 기증되는 과민성과 분노, 즐거운 활동에 대한 관심 결여, 식습관의 변화, 책임과 관계의 회피(예, 많은 비디오를 보거나 컴퓨터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 중독성 행위, 대인기피,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함의 상실이 포함 된다. 몇몇 이러한 증상들이 몇 주에 걸쳐 집중되기 시작하면 우울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억제된 감정들

피로, 갈등 관계, 신경성 신체질환의 문제, 심리적 문제들은 표현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들의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경험들이 처리되지 않고(친한 친구들과 나눔 또는 의논 없이) 오래 지속될수록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밥의 경우는 감정과 생각을 억제할 때 일어나는 증상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적색 지대 스트레스 요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밥은 더 내성적이 되었다. 밥은 납치당했을 경우에 나타날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을 찾는 대신에 그러한 생각과 두려움을 내면 깊숙이 묻어 두었다. 막힌 도로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밥은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을 내면 깊숙이 밀어 넣었다. 젊은 남자들을 부당하게 때리며 시민들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군인들을 보았을 때 그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을 내면 깊숙이 억눌렀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삶과 경험들에 관해 아내와 동료들에게 점점 말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그는 함께 일하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더 자주 화 내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행하고 말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들은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운전 중 다른 운전자들을 향해 소리 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아내가 간단한 요청을 할 때 그는 그녀를 집어 삼킬 듯이 달려들었다. 그는 자녀들에게 쉽게 화를 냈고, 자녀들이 “아빠 무엇이 잘못되었어요?”라고 물으면 그는 재빠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그의 생활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건에 대응하는 것보다 점점 더 느리게 반응하게 되었다.

밥은 매우 불건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너무 예민하다,” 혹은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차이를 처리하는 그의 방법은 화를 내거나 침묵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밥의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이 쌓이게 되자 그의 대화의 대부분은 불평으로 나타났다.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1년을 보낸 후 밥은 극도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며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동안 공황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황은 무서운 것이었고 가끔은 고의적인 것이었다. 밥은 다음과 같은 것 중 여러 개 혹은 하나의

증세를 자주 보였을 것이다: 불규칙한 심장박동, 호흡장애, 죽음과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슴통증이나 복부통증. 그는 실제로 심장에 큰 문제가 있는 줄로 생각했다.

처음에 밥은 아내와 동료들로부터 공황으로 인한 갈등을 숨겼다. 하지만 매우 무서운 공황에 빠진 후 그는 아내에게 그러한 증상을 털어 놓았고 도움을 청하러 의사에게 갔다. 철저한 신체검사 후에 그는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하지만 감정적, 영적으로는 이상이 있었다. 밥의 주치의는 그가 상담을 받도록 격려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선교 단체의 멤버케어 전문가를 만났고 그의 사역을 대체할 적절한 사람에게 그의 일을 위탁했다.

밥의 상담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최초의 관계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밥은 몹시 힘들어했다. 더욱이 상담자는 밥으로 하여금 그의 적색 지대 스트레스의 요인들, 그의 생각들과 느낌들,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과 신체적 정신적인 관점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2개월이 약간 지난 후 밥은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생활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의 관심이 되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의 역할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그의 생각과 느낌을 아내와 신뢰할 만한 동료들과 보다 자유롭게 나누는 것을 배웠다. 그는 그의 두려움을 좀 더 솔직하게 나누는 법도 배웠다. 밥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장소로서 적색 지대를 보기보다는 현지인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적색 지대의 상황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밥은 과거보다 더욱 기능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는 그를 괴롭히고 그의 활동을 제한했던 공황을 느끼지 않고 가족, 친구, 그리고 현지인들과 보다 나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적색 지대 안에서의 모든 경우들을 밥의 경우와 같이 다룰 수는 없다. 가끔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그 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는 것도 필요하므로, 적색 지대의 활동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이 없이도 중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접근은 사역자가 스트레스 요인들을 즉각적으로 줄이고 그의 생각과 감정, 두려움을 멀리서 그리고 안전과 지지의 자리에서 처리하도록 돕는다.

(3) 집중력 부족

적색 지대의 사역자들에게 집중력 부족은 극히 어려운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섬기는 선교인력들은 높은 사역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재정적으로 그들과 그들의 사역을 신뢰하는 선교단체들이나 신자들의 특별한 후원금에 의해 재정적 후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역자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역이 생산적이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후원자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의무감, 헌신, 책임감은 그에게 죄책감을 유발한다. 집중력의 부족이 계속되며 다른 적색 지대의 경고 사인들이 더해질 때, 죄책감과 실패와 비생산성이 그 사역자를 위험한 절망의 상태로 점점 더 깊이 침몰시키게 한다.

(4) 지속적 두려움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은 깨어있는 순간들과 심지어는 잠자는 동안에도 사역자의 삶에 스며든다.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고갈시킨다.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직면하는 것, 폭격, 테러행위, 유괴, 강간, 살인, 강도, 영적전쟁의 공격들이나 다른 두려움을 자아내는 위협과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자신과 가족과 친구나 동료들에 대한 것일 수 있다. 두려움은 가장 단순한 일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어느날 오후, 복면을 한 병사들에 의해 봉쇄된 거리에서 총부리로 위협을 당한 후 나는 내가 여행하는 모든 거리에서 두 달 동안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내 생각과 느낌의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매우 초조하게 되었다.

(5) 영적 고갈

중동의 사막은 수 세기 동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갭신과 관계를 강화시키는 장소가 되어왔다. 예수님과 사도바울이 두 중요한 실례이다. 수도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가 살았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고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한 광야의 경험을 갖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나 우리 사역자의 영적인 삶은 종종 이러한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황

무하게 된다. 내 경우도 그랬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장소가 되는 대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적색 지대 스트레스가 가장 격렬한 기간이 있었다. 기도도 어려웠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졌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소망의 원천을 끊었다. 그러한 메마른 영적인 상태들에 대한 몇몇 이유들을 생각해보자:

- 적색 지대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위한 영적인 준비가 부족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거나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적색 지대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투 지대라는 사실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 적색 지대에는 신자들이 거의 없거나 다른 신자들과의 친교를 하기가 어렵다. 파송 단체의 가장 큰 실수는 한 사람/부부를 적색 지대에 한 “단위”로 보내는데 있다. 팀원들이나 현지 신자들의 지원 없이 외딴 지역으로 부부를 보내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심한 공격을 당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팀으로부터의 영적 후원 없이 그들은 패배할 것이고 쉽게 낙담하게 될 것이다.

- 적색지대에는 협력적이고 개인적인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함께하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얻는 격려, 힘, 후원, 능력이 필요하다. 적색 지대에서 이러한 것은 더 더욱 필요하다.

- 적색 지대의 선교인력들의 특별한 필요와 도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적절한 기도 후원이 결핍될 수 있다. 기도의 후원은 적색 지대에서 사역하는 선교인력들에게는 본질적인 것이다. 기도의 후원 없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몸과 더불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대면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영적 전투를 혼자 치러야 한다.

-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와 헌신적인 생활방식의 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 영적인 훈련은 적색 지대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기도, 금식, 성경읽기, 예배, 침묵, 고독(solitude), 섬김, 청지기 의식, 그리고 전도는 적색 지대의 삶을 고양시키는 훈련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장할 것이고 더욱 더 친밀하게 될 것이다.

- 적색 지대에서는 삶의 활동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다. 사업, 일,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욱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한 영적인 고갈은 방향과 소망과 비전 없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를 적색 지대라는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만들 수 있다.

2) 적색 지대의 삶을 위한 전략들

전략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적색 지대의 삶에서 그 삶을 위한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다음 10가지의 전략은 적색 지대에서 사역자들이 삶의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당신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라

나와 내 아내가 적색 지대에 살고 있을 때 했던 가장 중요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관해 신뢰하는 한 부부와 특별하고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우리는 적색 지대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불분명한 경계선을 갖게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우리가 “상황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혹은 “우리는 잘 처리할 수 있어”라고 계속하여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나가기 바로 전에 폭탄이 거리에서 폭발하는 것과 같이 상황이 더욱 더 나빠지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이 그리 나쁘지는 않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계선을 뒤로 옮겼을 때,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정리하는 것을 잃어가고 건강한 방법으로 극복해 낼 수 있는 능력도 잃어가면서 매일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었다. 만일 우리가 적색지대의 실재들과 위험요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다면, 적색 지대 밖에 살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에게 적색 지대를 떠날 것을 권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들을 신임했기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일과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일 주에서 이 주일 정도 떠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권면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한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하고 있다.

(2) 도움을 청하라

때때로 우리 모두는 우울함을 느낀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사역의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다. 우리 모두 영적 고갈의 시기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정상적인 현상들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상적인 것이 되었을 때에는 도움을 청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의 몸이 말하는 것과 주변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라. 건강검진을 통해 당신에게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라.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상담가나 믿을만한 친구를 찾아보라. 당신이 속한 선교단체의 지도자나 멤버케어 사역자를 찾아서 당신의 적색 지대의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라.

(3) 어려움 가운데서 황금률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

첫째로, 마가복음 12장 28-31절에서 예수님은 관계의 중요성과 관계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로,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고난이 우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시는 분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적색 지대에서의 삶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인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실재에 의존한다.

적색 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소망의 주요한 원천이시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 설명하신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해 상기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매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하여 침잠하라. 그것이 어려울 때조차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 분은 응답하실 것이다.

(4)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하라

에베소서 6장 10-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마도 영적 전쟁은 적색 지대의 삶에서 고려되어지고 실천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마귀들림과 영 분별, 마귀의 압제,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갈등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들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실재들이다.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는 선교 인력들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터에서 마음을 상실하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첫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다.

적색 지대의 많은 사역자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일어날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현저한 실례 중 하나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과 레인 부부가 있다. 결국 남편인 팀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경멸했고 아랍어를 배우고 유능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경시했다. 내 아내와 나는 다른 부부를 불러서 팀과 레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 우리는 두 시간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 시간 동안 팀은 이 모든 것을 주님 없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게다가 팀은 그의 언어공부를 돕던 사람이 이슬람의 저주에 연관되어 있었고 팀에게도 저주를 했었음을 깨달았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끝난 후 즉시 팀의 표정이 변했다. 중요한 내적인 변화가 기도를 통해 일어났다. 팀과 그의 가족은 적색 지대의 사역지로 돌아갔고, 팀은 새로워진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로 들어갔다. 그는 경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되었고 기도 전략과 후원의 기반을 발전시켰으며, 언어공부를 도와주던 현지인의 저주를 다루기 위해 전략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후에 팀은 그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개선되었고, 그의 부부 관계도 더 강해졌으며, 그의 우울증은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영적 전쟁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며, 그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하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다. 어떤 책들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당신의 목회자나 동료와 함께 의논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요성을 기억하라. 조지 오티스(George Otis, Jr., 1998, p. 187)의 견해가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Lordship)에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단지 매일 아침 우리의 의식적인 처음 생각을 주인의 의지에 맡긴다. 일상의 균형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을 의식하면서 걸어갈 것을 선택할 때, 영적인 전신갑주는 생활방식이 된다.”

(5) 부부관계의 향상을 위해 힘쓰라

부부들은 서로를 그러려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 사역의 요구들, 최종 기한, 그리고 다른 사역들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하루를 마칠 때 배우자를 위한 시간이 없게 된다. 적색 지대 스트레스에 이러한 상황이 부가될 때, 당신은 그 관계를 유지할 시간과 에너지와 관계를 상실하여 결혼 결혼 생활에 중지부를 찍을 수 있다.

개인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선교지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지만 혼자 지내는 부부들과 함께 일했다. 이러한 일이 생길 때 불륜의 가능성이 바로 눈앞에 잠재해 있는 것이다. 배우자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라. 부부로서 영적 성장을 계속해라. 로맨스의 불꽃이 계속해서 탈 수 있도록 노력하라. 배우자와 데이트를 하라. 함께 웃고 즐기라. 하룻 밤이라도 부부만의 시간을 위해 떠나라. 분명하고도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라.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와 휴식의 시간을 가지라. 좋은 부부 관계는 적색 지대의 폭풍이나 스트레스 가운데서 당신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된다.

(6) 운동

적색 지대에서 우리의 육체는 운동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실외

운동이 안전하거나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운동과 식사 습관은 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영적인 생활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정과 마음과 영혼과 힘은 모두 얽혀있기 때문이다. 만일 육체적으로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부분들도 영향을 받는다. 내가 적색 지대에서 가능한 운동에 대해 사람들로 부터 받는 반복된 질문은 “내가 적색 지대에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운동하는가?”이다. 자전거 페달 밟기, 러닝머신, 에어로빅 등은 아주 좋은 운동방법들이다. 이 모든 운동들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들을 살 수 있으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운동할 수 있다.

(7) 절친하고 가까운 친구관계를 개발하라

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내 배우자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적어도 절친한 친구 하나가 있으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이것은 물론 독신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내 아내와 내가 적색 지대로 들어갔을 때 처음 기도했던 것 하나가 아내와 나를 위한 친구였다. 나는 내 아내 이외에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대개 “가장 친한 친구” 관계를 쉽게 갖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적색 지대에 사는 여성들은 특별한 친구를 발견하는 것이 더 쉽다. 당신이 룯과 나오미 혹은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를 가질 때 당신은 축복을 얻게 되며 당신의 삶과 사역에서 도전 받게 될 것이다. 적색 지대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내게 힘을 주고 지탱해 주는 존재였고 나도 그에게 힘을 주고 지탱해 주게 되었다. 그러한 친구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서로를 위한 유익은 그러한 노력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8) 격려하라

성경에서 매일 어떤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누가복음 9장 23절이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둘째는 히브리서 3장 13절이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규칙적인 격려 없이 우리는 희망도 비전도 초점도 상실할 수 있다. 이 두가지의 것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격려는 쌍방향, 상호적인 것이다. 격려는 훈련과 실천이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매일 격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적색 지대에 있는 동안 서로를 위한 격려의 네트워크와 우리는 절망을 위한 좋은 해독제가 된다. 격려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잠재된 선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9)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고 이슈들을 분석하라

분노, 두려움, 증오, 그리고 좌절이 당신의 적색 지대의 삶을 방해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당신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라. 의도적으로 당신의 배우자, 가장 친한 친구, 믿을 수 있는 파트너, 동료, 멤버케어 전문가, 혹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라. 우리가 1980년 후반과 1990년 초 적색 지대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을 죽이고 불구로 만들고 있는 군인들을 미워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 증오가 자라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내 아내와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많은 이슈들을 해결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삶에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10) 여가 시간을 가져라

휴식과 재생, 그리고 재창조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어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 이러한 종류의 경험들은 우리의 적색 지대의 삶을 보다 견딜 수 있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게임을 하고 등산을 가거나 부부, 가족, 부부 동반 혹은 독신자들 그룹, 팀 혹은 다른 종류의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 활동들을 해보라. 이러한 활동들은 적색 지대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 심을 주며 상존하는 걱정, 두려움, 좌절, 위험, 그리고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 있게 한다.

“아랍인 반란”(Intifada, 1980년 후반과 1990년 초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들과 이스라엘인들 사이의 투쟁)이 극에 달했던 기간 동안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거나 총살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계속되는 도로 봉쇄, 통행금지, 그리고 긴장된 분위기로 마음이 상해 있었다. 어느 주말 약 다섯 가정이 유대 광야에서 온종일 도보 여행을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깊은 협곡들과 시냇물을 건너며 웃고 대화하고 걸으며 놀이를 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웨스트 뱅크에서의 긴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피곤함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원기가 회복되어 있었다. 우리의 몸은 늘어져 있었다. 우리는 유대 광야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감정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적색 지대에서의 살아가는 스트레스라는 두 가지 공통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대화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다.

3. 행정가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지침

파송단체들은 적색 지대에 살고 있는 그들의 선교인력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선교지부의 지도자들과 같은 선교 지도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주요 멤버케어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적색 지대에서 행정가로 일하면서, 그리고 멤버케어 전문가로 도우면서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행정가들과 지도자들이 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제안들

(1) 과장을 피하라

만일 당신이 적색 지대에 6개월이나 그 이상을 살아보지 못했다면 “나는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고 느끼는지 이해한다”는 말을 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적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예민하다. 적색 지대 선교사들은 그런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별히 서구의 선교본부에서 사역하는 행정

가들과 지도자들이 그러한 말을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2) 위험과 스트레스에 대한 경시를 피하라

적색 지대에 있는 선교사와 이야기할 때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적색 지대의 위험과 스트레스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을 주의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적색 지대의 선교사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는 배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주는 것이다.

(3) 갈등을 피하라

적색 지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개인적으로든 전화로든 이메일로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은 의사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으며 어쩌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지도자들과 충돌하여 스트레스를 더할 필요가 없다. 어려운 논제들을 다루기 위한 시간과 장소가 있으나 이메일과 전화는 적당한 것이 아니다. 적색 지대 밖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할 때까지 기다리라.

(4) 사역자들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피하라

적색 지대 사역자들의 일, 사역, 혹은 행정적인 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들은 많은 시간을 그들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어떤 부과된 책임들은 오직 좌절, 스트레스, 그리고 근심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적색 지대의 사역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역의 문제는 “배우자의 여행”이다. 나는 여러 선교단체들을 알고 있는데 그 단체들의 어떤 선교사들은 30-60%의 시간을 여행하는 데 보내고 있다. 여행은 사람들을 쉽게 탈진시키는 처방이다. 또한 한 배우자의 여행은 뒤에 남아서 “요새를 돌보고”, 아이들을 지키며 삶의 모든 다른 면을 해결해야 하는 다른 배우자의 탈진을 위한 처방이다. 보통 뒤에 남아 있는 사람은 아내이다. 더욱이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으므로 생기는 긴장은 특별히 적색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부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행정가들은 적색 지대 사역자들의 여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혜로워야 된다.

(5) 사역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을 피하라

적색 지대 사역자로부터 제시된 정보 없이 그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노력하라. 항상 그들로부터 오는 정보를 귀하게 여기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포함시키라.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의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지도자와 적색 지대 사역자간 서로 충돌하게 만들 것이다. 적색 지대의 사역자들과 함께 결정을 내리고 서구의 본국 선교부의 관점에서 결정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2) 해야 할 10가지 제안들**(1) 멤버케어 후원을 제공하라**

적색 지대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한 도움에 감사해 할 것이다. 위기 대책 워크숍, 영적 생활 세미나/수련회, 결혼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교육상담, 직업 능력개발, 디브리핑과 여러 기회들은 사역자들을 크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멤버케어는 그 선교단체가 얼마나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연간 계획, 예산, 전략적인 발전에 “멤버케어 자원들”을 포함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라. 좋은 멤버케어는 누군가 갈등할 때 단지 상담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보다 적극적인 것이다. 지난 5년간 적색 지대에 있는 선교사들을 포함한 여러 선교사들과 함께 담화할 때 일련의 핵심적인 열쇠는 “우리는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멤버케어가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의 지속적인 부상이었다.

(2) 정기적으로 전화접촉을 하라

이메일은 훌륭한 것이다. 하지만 적색 지대에 있는 선교사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으며,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배려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전화의 빈도는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따라서 주 1회에서 한달에 한 번 정도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언제 어느 때에 전화를 할 것인가를 정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선교사는 당신의 전화에 놀라기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적색 지대에 있는 사람

들을 점검하기 위한 전화와 업무상의 전화와 혼합하지 않도록 하라. 당신은 그들이 잘 있는지 점검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먼저 업무를 위해서와 다음으로 안부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3) 경청하라

전화로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지 않는지를 들어라. 묵회적 배려의 관점에서 그들의 생각, 아이디어와 느낌들을 물어보라. 지나친 합리화, 지나친 영적 해석, 과민함, 불분명한 경계선, 혹은 그들의 상황을 경시하는 것들에 대해 들어라. 도움을 애원하는 말없는 부르짖음을 들어라. 덧붙여 이 글의 초반부에서 말한 경고의 암시들에 대해 들어라. 당신의 사역자는 항상 자신들이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면 당신은 멤버케어 전문가와 당신의 사역자와 함께 당신이 그들의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상담을 할 수도 있다.

(4) 격려하는 자가 되라

사역자들이 특별히 고립된 지역에 있는 경우라면 당신은 그에게 중요한 격려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적색 지대의 사역자 배치 있어 선교 기관의 지도자들이 하기 쉬운 주요한 실수 중의 하나는 적색 지대에 한 가족만 파송하는 것이다. 적합한 가족을 “두 가족씩” 준비하여 파송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자들을 정서적, 영적으로 큰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어려운 적색 지대에 사는 가족은 다른 가족의 돌봄과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5)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라

적색 지대에 사는 사역자는 정규적으로 그들이 사는 지역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필요하다. 개인들, 부부들, 그리고 가족들이 휴식의 소망 없이 “전쟁의 열기” 가운데 머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사역자들에게 휴식할 것을 명령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후원도 제공하고 있다. 유용한 휴가 기간은 6개월에서 2주간이 될 것이나, 이러한 기간은 적색 지대의 사역자와 멤버케어 사역자,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적색 지대에서는 이러한 휴식이 선교지를 떠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경우는 전투적인 지역을 떠나 그 나라 안의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이다. 어떤 단체들은 소속 선교사들뿐 아니라 다른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들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가옥”을 마련해 놓고 있다.

(6) 가능할 때마다 사역자들을 방문하라

당신의 선교단체 멤버케어 사역자나 지도자들 혹은 다른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누군가의 방문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은 여러 날 동안 체류하면서 적색 지대의 어려움과 위협에 관하여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이 선교사와 함께 걸으며 그들의 기쁨, 두려움, 어려움, 그리고 상처들에 관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방문은 그들을 위한 사역이 될 것이다. 당신이 떠난 후 당신의 전화는 그들뿐 아니라 당신에게 의미를 더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므로 보다 나은 후원과 격려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7) 디브리핑 기회들을 제공하라

당신의 사역자가 휴식, 모임, 회의, 혹은 워크숍을 위해 적색지대를 벗어날 때 디브리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위기사건 스트레스 디브리핑(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CISD)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단지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느낌/계획들을 명료하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8) 직접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라

좀 더 어려운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 당신이 지도자로서 좀 더 직접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 올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의 가족 중 하나가 서서히 붕괴되고 와해되기 시작한다면 그들을 대신해서 행동할 준비를 하라.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멤버케어 전문가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상담한 후 그들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그들을 구해낼 준비를 하라.

(9) 모니터링하라

당신의 사역자들이 적색 지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과 사역을 마친 후에 그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멤버케어 전문가를 통해 이메일, 전화, 개인적인 방문으로 그들을 점검하라. 만일 멤버케어 전문가가 없다면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선교단체의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라. 또한 당신의 사역자가 적색 지대를 떠날 때 그들이 위기사건 스트레스 디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라. CSID는 사역자가 적색 지대 경험들을 처리하도록 도울 수 있고 후에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려움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도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10) 적색 지대 계획안(protocol)과 전략을 발전시키라

각 선교단체가 적색 지대의 프로토콜을 발전시키므로 적색 지대의 안정 상태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적색 지대의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사역자들이 적색 지대에 들어가기 전, 대개는 현장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에 프로토콜은 발전되어야 하고 사역자들과 의사소통되어야만 한다. 위기 훈련과 긴급대책 관리 또한 중요하다. 다음의 권고들은 프로토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유용한 것들이다:

- 적색 지대를 정의하고 사역자들에게 위협의 정도를 모니터 하는 방법을 찾으라.
- 사역자의 사역과 사역의 기대감을 항목별로 나누라.
- 선교지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과 명백한 기준들을 제공하라.
- 선교 기관과 멤버케어 전문가로부터 도움의 기회를 제공하라.
- 적색 지대에서의 삶을 위한 자원을 공급하라(스트레스, 운동, 영적 성장 등에 관한 서적들).
- 적색 지대의 상황들을 다루기 위한 행정전략을 세우라(우발사고 대응 계획). 모든 행정가들과 지도자들은 우발사고 관리 절차들에 대해 숙지해야만 한다.

4. 결론

적색 지대에서 멤버케어를 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첫째로, 멤버케어는 적색 지대에 살고 있는 사역자들의 책임이다. 개인, 부부, 그리고 팀들은 그들 자신의 멤버케어와 관련하여 사전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각 사람은 삶을 위한 건전한 여가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사역자들은 자신을 케어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적색 지대의 경고 사인과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기꺼이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까운 친구들은 안전한 지원과 격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로, 멤버케어는 선교단체 행정가들과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도움 요청이 없다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정기적으로 민감하게 적색 지대의 사역자들을 점검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델과 사역자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선교단체의 전반적인 가치체계와 멤버케어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열쇠이다. 나의 절친한 친구와 선교지 리더인 에디 페이트(Eddie Pate) 박사는 뛰어난 관찰을 했다. 그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은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셋째로, 적색 지대에서의 멤버케어는 현지 팀의 멤버케어 전문가들, 이동 멤버케어 팀, 혹은 선교단체 본부의 책임이다. 이 전문가들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그들과 실질적인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게다가 그들은 멤버케어 이슈와 필요에 대하여 파송 단체들에 알릴 수 있다. 멤버케어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최신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휴식과 후원을 갖게 해야 한다. 만일 멤버케어 전문가들이 적색 지대 선교사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적색 지대에서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적색 지대의 삶이 있다. 하나님, 자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성장이 가능하다. 스트레스와 위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적색 지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 좋은 멤버케어를 통해 오는 사랑과 후원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할 수 있

게 하는 열쇠가 된다. 적색 지대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신실하게 사역하고 부지런히 우리 사역자들을 돌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실 것이다.

5. 토의 주제

1. 어떤 종류의 위험과 스트레스 요인들이 당신이 살고 있거나 당신이 알고 있는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적색지대를 설명하고 있는가?
2. 당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적색 지대에서의 삶을 당신이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경고 사인들은 무엇인가?
3. 이 글에서 제안된 것 중에서 당신이 속한 선교단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보라.
4. 당신의 적색 지대 경험에 도움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그리고 적색 지대에 살면서 사역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별적인 전략들을 확인해 보라.
5. 적색 지대에서 살거나 갇혀 있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더 잘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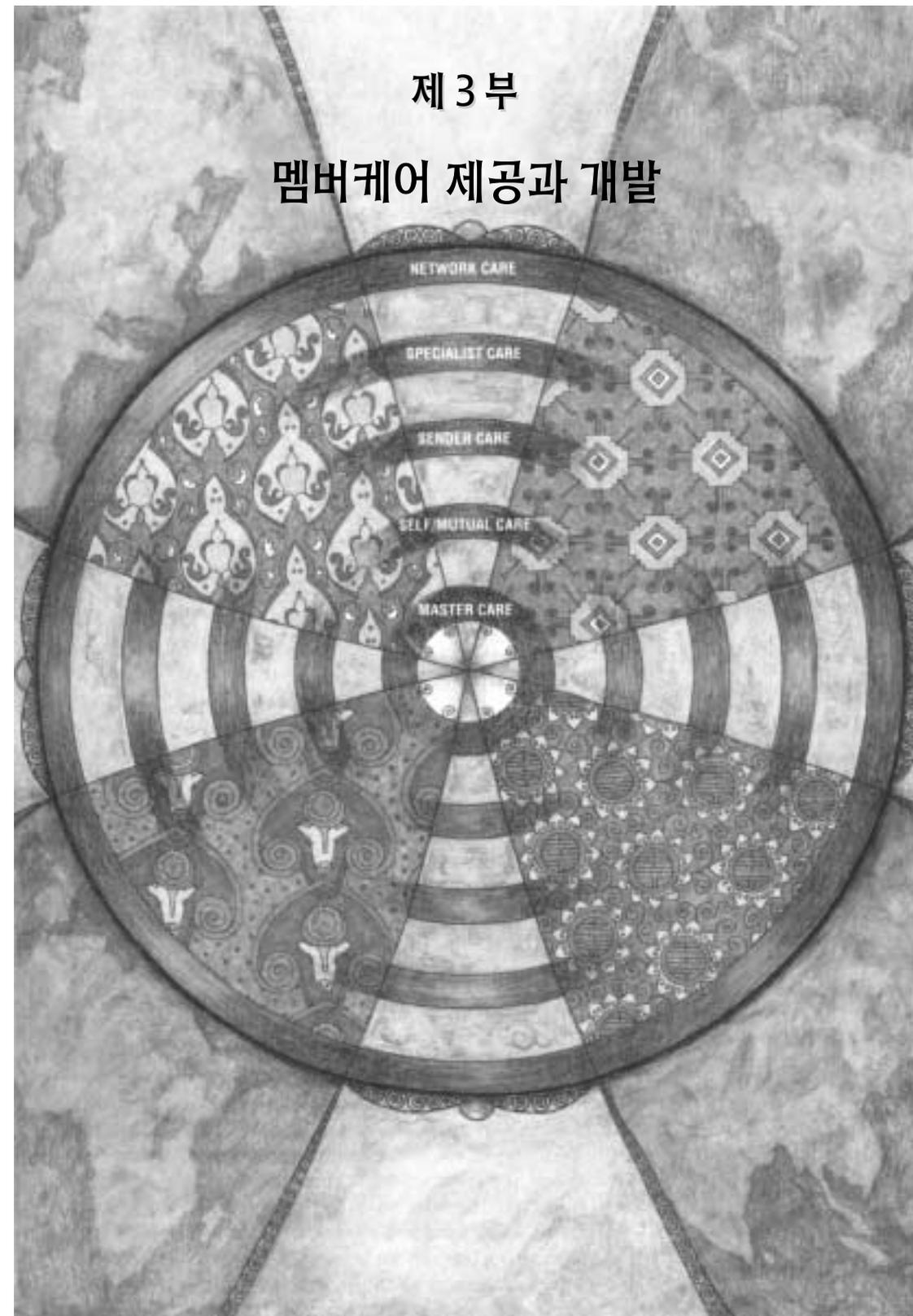
† 참고문헌 †

- Anderson, N., & Baumchen, H. (1999). *Finding hope again*. Ventura, CA :Regal Publishing.
- Carlson, E. (1997). *Trauma assessments: A clinician's guide*. New York, NY: Guilford.
- Erikson, C., Vande Kemp, H., Gorsuch, R., Hoke, S., & Foy, D. (2001). Trauma exposure and PTSD symptoms in international relief and development personnel. *Journal of Traumatic Studies, 14*, 205-212.

392 선교사 멤버케어

- Matsakis, S. (1996). *I can't get over it: A handbook for trauma survivors*. Oakla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 Otis, G., Jr. (1998). Recognizing and defeating the powers of dark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15, 183-192.
- Welch, E. (1997).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Philipsburg, NJ: P & R Publishing.
- Whitney, D. (1991). *Spiritual disciplines for the Christian life*.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 Williams, K. (2000). *Sharpening your interpersonal skills*. Colorado Springs, CO: Interpersonal Training Partners.

* 이 글에 도움을 준 베벌리 힉스, 폴과 해리에트 로랜스, 엘리야스 무사, 에디와 미라 페이트, 그리고 게리 볼카트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제 21 장

예수 그리스도: 멤버케어의 핵심

“**나**은 삶을 어떻게 살 계획입니까?” 1990년
□대 초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있을
때 한 은퇴 선교사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19년 동안 우리는 영국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교회
에서 목회를 했다. 사역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
을 느끼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이양하고
키프러스 섬에서 안식년을 보냈다. 그곳에서 우리
는 휴식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다음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당시 우리는 6주 동안 선교사
를 위한 연구센터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 센터는

* 데이빗 휴제트(David Huggett)와 조이스 휴제트(Joyce Huggett)는 1960년에 결혼했다. 그들은 두 자녀와 네 명의 손자를 두고 있다. 그들은 1993년에 인터서브와 동역하기 시작하여 중동 지역에서 6년간 사역하며 그 지역과 주



데이빗 휴제트
조이스 휴제트 *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지원이었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돌보신다. 예수님은
그의 각 제자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서 삶의 모범이
되어 주셨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지
보여 주셨다. 케어의
주인(the Master Carer)되신
예수님은 멤버케어 사역자들과
선교의 동역자들을 위해
많은 가르침을
예비하신다.

아름다운 섬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선교사들에게 휴식과 선교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도서관은 성경주석과 선교 관련 서적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한 서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또한 선교 동역자들이 듣고 배울 수 있는 강의 테이프들도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던 선교사는 우리가 그 센터에서 하고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장기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군요. 제가 속한 선교부의 국제 담당자에게 두 분을 소개해도 괜찮을까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1년 후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역을 위해 키프러스로 돌아왔다. 대부분의 선교 동역자들이 심한 피로로 연구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한 우리는 선교사들이 와서 검사를 받는 곳이 아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막 6:31)고 하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장소를 6년간 마련했다. 지금 우리는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선교사 멤버케어 사역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 속칭 “은신처”는 선교사들이 흔쾌히 오고 싶어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수 년 간의 해외사역을 평가하기도 하며 선교지로 처음 나가는 사람은 기도로 준비하기도 한다. 또한 이곳은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즐기며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수년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접근방식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시도했다.

변을 두루 여행했다. 그들의 역할은 인터서브 사역자들과 다른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지원과 목회적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들은 영국에 머물며 은신처인 더비셔(Derbyshire)와 그 외 지역에서 온 동역자들을 위한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다. 데이빗은 항공학과 우주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두 개 대학에서 강의한 후, 그는 전임사역자로 훈련 받았으며 1967년에는 성공회 신부로 안수를 받았다. 다양한 목회 경력 외에도 그는 상담과 수련회 인도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조이스는 사우스햄턴 대학에서 역사와 신학을 공부하여 1959년에 졸업했다. 후에 그녀는 맨체스터 청각장애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1970년대 초 그녀는 영성과 수련회 인도 뿐 아니라 결혼 상담 분야에서 훈련을 했다. 그녀는 28권의 책을 썼으며, 그 책들 가운데 다수가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었다.

Email: 100610.427@compuserve.com.

주님의 케어(Master Care)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갖는 영역이다. 주님의 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후 지속적으로 돌보아주시며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그의 백성들과 그의 사역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우리는 이 글에서 예수님이 그의 열두 제자를 훈련시키며 멘토가 되어 주시고, 자질을 구비케 하시며,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방법을 집중적으로 조망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교 동역자와 멤버케어 사역자들의 사역에 연관시키고자 한다.

1. 관계 중심의 멤버케어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 해 동안 연구하며 갖게 된 확신은 주님의 케어는 관계들—먼저 하나님과 케어 제공자들 간의 관계와 그리고 케어 제공자들과 케어를 받는 선교 동역자들 간의 관계—를 확립하고 발전시키며, 유지하는데 근거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와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영유하였다. 또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실로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감동적인 사역방법 중의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이다(막 3:14).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예를 볼 수 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요 1:37-38).

예수님은 당신이 살고 계신 곳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고 그들을 초청하셨다. 그들이 함께 하루를 보낸 결과 안드레와 예수님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안드레가 즉시로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할 만큼 힘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계에 대한 강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예수님은 기도를 깊이 하신 후에 많은 추종자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다. 예수님은 그들

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기 전에 돌보며 사랑하는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다. 복음서를 연구해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으며(요 15:9), 그들을 친구로 여기셨고(요 15:15), 가족으로 여기셨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며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함께 목욕했을 것이다. 열두 제자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도하며, 훈계하시고, 격려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함께 걷고 대화하며 고기잡이도 함께 했다. 그들은 예수님과 끈끈한 우정의 관계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열려 있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그들이 예수님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2. 적절한 휴식이 있는 멤버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에 동참시키신지 얼마 안 되어 마가는 수많은 무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막 6:31).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시고 감지하시며 행동하셨다. “이르시 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막 6:31)라고 예수님은 주장하셨다. 그분은 단순히 가서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와서 나와 함께 쉬자”는 것이었다. 다른 경우에 예수님은 비슷한 초대를 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8-30).

다시 예수님의 초청을 음미해 보라.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언어이다. 그것은 주님의 케어를 나타내는 최상의 언어이다.

마가렛 막달렌(Margaret Magdalene, 1987, p. 41)은 『기도의 사람 예수』(*Jesus Man of Prayer*)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예수님 주위에 무리들이 없던 적은 거의 없다. 예수님의 사적인 공간은 끊임없이 침범되었다. 단지 시간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는 몸싸움까지 해야 했다(막 5:31). 해변에 밀려오는 무리들을 피하기 위해 그는 배 위에서 설교해야 했다(마 13:2).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압력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몰려오는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은 자녀들을 위해 축복을 구하는 어머니들을 향한 그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다.”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필요를 강하게 느끼실 때 예수님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외침에 잠시 귀를 닫으시고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시기도 했다(마 5:1; 막 1:37).

삶은 우리에게 비슷한 선택의 기회를 많이 준다. 예수님은 너무 바쁘게 쫓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씀하신다. 그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이며 둘째는 제자들과의 관계이다. 예수님의 삶은 밀물과 썰물 같으며 일출과 일몰과도 같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때가 있었다. 홀로 있을 때가 있고 함께 있을 때가 있으며, 바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으며,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휴경할 때가 있으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가 하면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가던 제자들과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다.

삶은 우리에게 비슷한 선택의 기회를 많이 준다. 예수님은 너무 바쁘게 쫓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씀하신다. 그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이며 둘째는 제자들과의 관계이다. 예수님의 삶은 밀물과 썰물 같으며 일출과 일몰과도 같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때가 있었다. 홀로 있을 때가 있고 함께 있을 때가 있으며, 바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으며,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휴경할 때가 있으며,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가 하면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가던 제자들과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다.

3. 실제적 생활방식에 근거한 멤버케어

주님은 세 가지 주된 방법으로 제자들을 돌보셨다.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멘토가 되어주셨다. 이제 이 세 가지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예수님의 모범

(1) 예수님은 “긴박성의 횡포”를 거부하신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사역은 일에 압도당하고 사람들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 지나치게 자극을 받으며, 타문화권에 살며, 자주 먼 여행을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제시한다. 예수님이 아침 일찍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피하신 것에 대한 마가의 기록은 그 상황을 잘 요약해준다. 그 전날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을 피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다.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막 1:37). 예수님이 무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를 멈출 것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다른 곳으로 가자!” 그들은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 가버나움의 다른 곳으로 갔다. 다른 마을은 수십 마일 떨어져 있으므로 도중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여행은 그들에게 뒤를 돌아보며 생각하고 쉬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회만이 아니라 함께 필요로 했던 많은 시간을 주었다.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 마가렛 막달렌(1987, pp. 41-42)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예수님은 긴급성의 횡포를 거부하셨다. 예수님은 무리나 인간의 필요가 우선권을 차지하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적 자유를 갖고 계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으로 인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으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우선권과 아버지의 관점을 분별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셨다. 그분은 성취욕구에 매이지 않았으며 성공을 뒤쫓기 위해 예민해지지도 않으셨다. 또한 그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도 우월감에 빠지지 않았으며, 자유 그 자체였다.”

(2) 예수님은 내적 충전과 외적 소모의 조화를 확인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를 위한 균형 잡힌 삶에 대한 필요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다. 그 필요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요약된다.

$$\text{내적 충전(input)} = \text{외적 충전(output)} = \text{내적 충전(input)} = \text{외적 충전(output)}$$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주고자 한다면 소모한 만큼 충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멤버케어 사역자들에 대한 외적 소모는 선교사들을 방문하는 것,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의 근심과 고통을 들어주는 것, 멤버케어에 참여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도움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등을 의미한다. 선교 동역자들이 갖는

외적 소모는 언어학습과 같이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들과 낯선 기후와 음식,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 변화에 대처하는 것, 본국에서는 가능했던 도구들과 재정지원 없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해당된다.

멤버케어 사역자와 선교 동역자 모두를 위한 내적 충전으로는 쉬는 날과 휴일, 고국으로부터 온 편지나 이메일, 잘 계획된 대회가 포함된다. 잘 계획된 대회란 교육적인 강의와 토론, 그리고 내면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뿐 아니라 관계의 형성과 휴식, 기도의 시간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 모임을 의미한다. 내적 충전은 강의를 듣는 것 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개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둔 수련회의 형태에서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내적 충전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명확하게 들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예민하게 느껴지는 고요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3)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의 모범을 보이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 뿐 아니라 기도로 충만한 삶의 모범을 보이셨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확증을 받은(눅 3:21-22) 세례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바쁜 안식일 이후에 새벽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막 1:35). 예수님은 5,000여명을 먹이신 후, 밤새도록 기도하셨으며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앞서 가라고 하셨다(막 6:45-46).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기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회당이라는 기도의 집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찬송가 시편이 있었다. 그들은 구약이 낭독되는 것을 듣고 마음에 그 구절들을 새겼다. 그들은 아침에 깨어서 기도했으며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했다. 아침마다 깨우는 찬양,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 하세”와 같이 그들은 특별한 “축복”을 누리고 살았다.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를 드린 하나님은 멀리 있었고 뭔가를 요구하시며 그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거룩한 하나님이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입으로 읊기에는 너무 거룩하게 여겨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새로운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확고하게 안정된 분이셨다. 그것은 그의 기도의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친밀함과 따뜻함, 기쁨, 자발성은 아버지와의 그의 대화를 묘사하는 가장 좋은 말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한 제자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눅 11:1)라고 간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의 첫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는가?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아바-아빠”(눅 11:2)라고 부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은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에 열두 제자들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에 익숙해 있었을 것이다(시 103:13; 사 63:16; 64:8; 호 11:1-4).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1967)에 의하면, 유대 문서들 가운데 하나님을 호칭하는데 있어서 “아바”라고 부른 예는 그 어느 곳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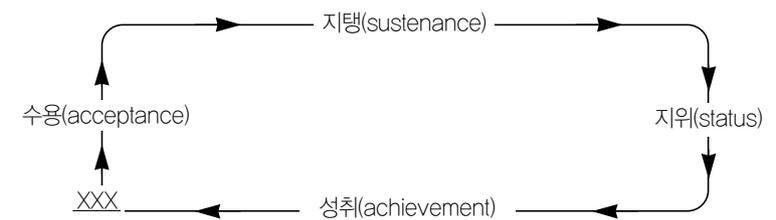
우리는 제자들이 기도학교에서 배우는 동안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심어주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이다. 중동 지방의 방식대로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마음에 와 닿는 진리를 전하려 하셨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의미 있는 세 이야기를 살펴보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중동 지방의 목자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목자는 양이 안전하게 자기 품에 돌아올 때까지 어느 곳이라도 찾아다닌다. 양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면 목자는 축하 잔치를 베푼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다. 예수님은 잃은 동전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집안을 샅샅이 쓸고 또 쓰는 중동 지방의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을 비유하신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중동지역의 한 아버지로 비유한 것이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아들은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하지만 아버지는 아들들을 오직 사랑으로 대한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심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공허 자체이시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셨던 메시지이다. 예수님은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개인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다. 조금씩 그의 친구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브레난 마

닝(Brennan Manning, 1994, p. 16)은 『아바의 자녀』(*Abba's Child*)라는 책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진보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한없이 인자하시며 연민의 정을 가지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허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이 힘들지라도 이러한 진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 그에게 능력을 부여했는지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는 영국인 정신과 전문의, 프랭크 레이크(Frank Lake, 1966, p. 205)가 개발한 존재(Being)와 행복(Well-Being)의 역동적 사이클을 사용하고자 한다.



존재와 행복의 역동적 사이클

레이크는 두 가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다이어그램을 사용했다. 첫 번째는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는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행복감이며,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데서 오는 예수님의 행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진리와 관련하여 레이크는 좋은 어머니는 자녀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뿐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줄 때, 이 세상에서 그 아이의 소속감은 확장된다. 수용과 환영과 지지는 아이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는 것

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좋은 어머니와 즐거워하는 아이의 관계와 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자주 무리를 떠나셨다. 아마 세례 요한을 잃은 후의 상실감 등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 아버지의 임재를 찾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아버지의 무릎에 쏟아놓았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의 고통뿐 아니라 슬픔도 받아들이셨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지지받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수님을 아버지와 묶은 친밀감은 그의 지위를 재확인시켰다.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을 선포하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막 1:11). 수용과 지지와 사랑받는 자녀 됨의 위치의 온전함에 대한 인식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속적인 사랑과 공활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위임하신 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할 때, 그와 대조되는 경우를 경험했다. 기도모임 후에 한 선교사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다른 많은 선교 동역자들이 이 말을 되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결핍되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경험한 순환 고리의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유혹을 받게 한다.



예수님의 방향과 반대 사이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는 우리들은 그러한 성취가 우리에게 지위를 수여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자신이 한 일로 인해 용납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사고에 의해 지탱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 더 많이 성취하려 한다. 그래서 결국 고갈되어 무너지거나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안돼!”라고 속삭이신다. “열매의 비밀은 일하고 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열매의 비밀은 나와 친밀감이다.” “내 안에 거하라. 너의 집을 내가 네 안에 지은 것과 같이 내 안에 지으라. 포도나무 가지도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혼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나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네가 나와 연합되어 있고 내가 너와 연합되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분리되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요 15:4-5).

선교 동역자들을 위한 멤버케어를 시작한 이래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것들 중 하나는 위에 설명된 개념들을 설명할 때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났던 역반응이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저의 긴 기도 제목을 보세요. 이러한 헌신을 하기에 제 생활은 너무 바쁩니다.” 한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특권이 되는 것들 중의 하나는 하이딩 플레이스(Hiding Place)를 찾아와 “예수님과 친밀감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글도 읽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친밀감을 어디서나 경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신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성령과의 관계가 주는 참신한 것들 중 하나는 고독과 침묵 속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 관계가 성숙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5,000명을 먹이려 하셨을 때, 아버지께 그것을 축복해 주십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시골길을 걸을 때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앉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 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

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마 6:26, 28)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 로렌스(Lawrence)는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기도라고 불렀다. 어떻게 그러한 기도를 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견고해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주 상기하며 하루 중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Blaiklock, 1981, pp. 11-12).

얼마 전에 한 선교사가 하이딩 플레이스를 찾아 왔다. 그녀는 많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다. 그녀는 “우리의 선교기도 모임은 너무나 지루해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교기도 모임에서 지루함을 경험한다. 그것은 기도회가 주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과제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도움이 필요하고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는 기도회는 결코 지루할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침묵하는 슬픔의 기도일 때 그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기도하기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기도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으며 강한 능력이 된다.

2) 예수님의 가르침

(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 여행 전후에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영적인 기반을 세우시며 제자들에게 그의 사역과 기도를 관찰하게 하신 후, 그들을 팀으로 나누어 선교 현장으로 보내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한 명씩 보낸 것이 아니라 두 명씩 보내셨다. 예수님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며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주의하신 후 그들을 현장으로 보내셨다. 또한 그들이 만나게 될 어려움과 모험에 대해 가능한 한 준비시키셨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의 준비를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눅 9:1-6).

그 광경을 상상해보라. 여러 달 동안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설교하

시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지켜보았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을 마을로 보내려고 준비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있었다.

그들은 선포하며 고치고,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신뢰하고 축복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깨달았다. 그들은 교훈과 지혜를 실천하며, 경청하고, 어려움들을 대처하기 위해 준비하며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교의 과제를 위해 능력을 부여하시고, 권위를 주셨으며, 개인적으로 그들을 위임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여행 짐과 거처에 대해서도 자세한 주의사항을 주셨다. 그들은 가볍게 여행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했으며 그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른 한편, 그들은 필요할 때에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했으며 때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도 사역의 일환으로 행해야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의 선교사역을 요약해 보자. “그들은 삶이 돌연히 변화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긴박감을 갖고 말씀을 전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마귀를 쫓아냈다. 그들은 아픈 사람의 몸에 기름을 붓고 그들의 영을 치유하며 기쁨을 가져다주었다”(막 6:12-13).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나 있는 동안 분명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예수님 주위에 모여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을 확증하시고 함께 기뻐하심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복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다른 선교지로 그들을 보내신다. 그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며 그들의 필요를 감지하시고 그들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케어는 공휴, 사역의 기회들, 열정적인 기도후원, 비전, 경청, 능력부여, 케어, 그리고 휴식을 제공한다.

(2) 예수님은 상호간의 도움의 필요를 강조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예수님은 짝을 지어 제자들을 보냈다. 그것은 구약성경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고 강조했다기 때문인가? 또한 이방인과 타향인, 과부, 고아를 보호하고 돌보며 가족 안에 거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있었지만 외로움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고독이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것이다. 로날드 롤하이저(Ronald Rolheiser, 1979)는 그의 책 『쉽 없는 마음』(*The restless heart*)에서 외로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친밀감은 파괴적이 될 수 있으며 소유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창조적인 고독(solitude)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 한다고 말한다. 외로움을 대면하여 갈등하지 않는다면, 고독은 우리를 경직되고 민감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은 고독의 미묘한 압력 가운데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제와 후원을 제공해 주시므로 고독의 괴로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비전과 특권을 허락하셨다.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열정과 비전을 고취하며 열정으로 가득 찼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학생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는 선생님이거나 그의 명령을 실행하고 그를 대변하도록 고도로 훈련된 감동된 대사를 보내는 왕과 같았다. 팀을 준비시키는 이러한 방식은 제자들에게 특권과 가치의 감각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실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였으며, 그 사실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임하고 영감을 불러 넣어주셨을 뿐 아니라 능력을 부여주셨다. 예수님이 첫 부활절 주일 다락방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영감을 주셨던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의 목록을 주지 않으셨으며 그들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만일 제자들이 그를 위해 성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그분은 너무 잘 알고 계셨다. 필요한 은혜는 그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개인으로 집단으로 주어지는 은혜이다.

3) 예수님의 멘토링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끝내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화하셨다. 제자화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화하셨다.

(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한 방법은 그의 영광을 보는 특권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낸 때는 지상 사역 초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였다. 요한은 예수님이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의 영광에 대한 이러한 계시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그들의 믿음을 두도록”(요 2:11) 설득한 것을 기억했다.

(2)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을 도와주셨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제자화 하는 다른 방법은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때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언급했던 갈릴리 바다로 이어지는 비탈진 언덕에서 5,000명 이외에 많은 여자와 아이들을 먹인 사건을 생각해 보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강조했다. ‘우리는 지금 교외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게 보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2 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불평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라’ 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취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마 14:13-19).

제자들이 물고기와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때, 그것들은 증식되었다. 만일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그 기적의 본질과 규모가 예수님의 친구들에게 준 충격을 상상해 보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리의

필요를 채우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돕는 특권을 부여하셔서 그의 팀을 제자화하셨다.

(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다른 경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셨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긍휼, 즉 가난한 자들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상하신 것에 대해 경청하도록 하셨다. 사도행전 3장에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향하는 베드로의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지 않는가? 그가 구걸하는 앓은뱅이를 만났을 때, 돈을 구걸하는 그 거지의 탄원에 응답하는 대신 그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취하셨을 행동을 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행 3:6).

(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혁명적인 관점들을 드러내셨다

예수님과 여행하면서 제자들은 금식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 용서, 예수님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죽음의 문제 등 예수님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팔복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으며, 무리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혁명적인 방법을 제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라고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가치가 있고 여자는 포도원 같은 소유물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소유물이라고 믿는, 오늘날에도 그것을 믿는 문화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대신에 도전하셨다. 아내는 재산의 일부분이 아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그 진리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무시되기 쉬우며 결혼 생활과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실제적인 가르침의 함의를 풀어내기 위한 멤버케어의 긴박한 필요가 제기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주장하신 결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기쁨 때에 좋은 시간을 가지며 변화의 시기나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를 지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모든 다른 관계들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서로의 관계를 깊게 하며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공간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간이 항상 주어지도록 다른 많은 요구들에서 떠나야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중한 선물을 그들에게 맡기신다면, 결혼한 부부가 하나님과 부부관계 다음으로 세 번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맡긴 자녀이다. 이 세 가지 우선순위가 잘 지켜질 때,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선교 동반자들과 다른 기독교 지도자들은 가정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럴 경우 한 가정은 위협에 빠지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독신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들이 독신으로 사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는다면 그 다음 우선순위는 일하고 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카르멘 칼타기론(Carmen Caltagirone, 1983, pp. xi, 5)은 『성례로서의 우정』(*friendship as sacrament*)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관계를 볼 수 있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그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푸근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의 일면이다”라고 우리를 상기시켜 준다.

(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걸을 때나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 제자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무리 중에서 따로 떼어 무리들에게 나누지 않았던 깊고 농축된 통찰력을 주셨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처음 말했다 때를 생각해 보라.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비유를 스스로 이해하게 하셨으나, 제자들과 있을 때에는 질문을 허락하셨다. 제자들은 “왜 그런 비유를 말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수용적인 통찰력을 갖도록 자극하기 위해서이다”(마 13:13)라고 말씀하신

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하여 첫 번째 비유의 숨겨진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신다.

(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변화를 준비시키셨다

가장 기억할만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몇 시간을 상기하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사전에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처하는 것이 힘들 것을 아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필요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좋은 관계의 근거에 대해 말씀하셨다. 제자들과 오랜 팀 생활을 하며 사역하던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긴 과정 동안, 예수님은 신뢰의 필요를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고 간청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계속하여 그들에게 상기시키셨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도 성령과의 관계에서 빛지고 있다는 것과 삼위일신 성령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지 온전히 깨달음으로 그들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 개방적이 되기를 원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 14:26; 15:26).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룹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자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중동의 군중들은 개인이나 부부, 전체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예수님은 관계와 개인적, 영적 성장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삶의 변혁을 그들에게 교환하셨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개인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부부들과 함께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활 후 첫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따라 걷고 계셨다. 이 여행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부부로 믿는 두 제자들을 만나셨다. 그들의 혼란스러워 하는 말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 구약에서 예언한 부분을 말씀하셨다. 그들의 마음은 불타고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되어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그를 알아보게 된다. 또 한 주 후에는 낙심한 제자들을 해변에서 만나 그들을 위해 식사준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

은 공적으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곁으로 가신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한 기억으로 아직도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사랑과 이해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를 신뢰하심으로 재위임을 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맡기고 계신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가 신실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멤버케어에 있어서 예수님이 개인(부부,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을 포함하여)의 회복에 대해 보여주시는 관심 뿐 아니라 세밀한 것 까지 돌보시는 예수님의 배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선교 동역자들이 대화, 강의, 세미나, 회의를 통한 전통적인 서구적 방식들로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일대일로 듣고, 케어를 받고, 이해되며,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입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4. 신비로 가득 찬 사역

1) 기다림의 능력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은 단순히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기다림의 능력”(Vanstone, 1982)에 관해 생각한다. 거듭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으로 돌진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존전에서 떠나 한 여인의 태중에서 세상에 태어나실 날을 기다리게 된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우선 애굽에서, 그리고 다음은 나사렛에서 살며 배우고 사랑하는 일에 만족해 하셨다.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것을 주장하시면서 더 기다리셨다. 무리들은 메시아를 만나는데 갈급해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애썼으나, 예수님은 진정하게 준비된 순간이 적절한 순간이라는 것을 아신다. 따라서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치유하는 대신 예수님은 성령의 지시를 좇아 사막에서 장시간 홀로 계셨다. 수 몽크 키드(Sue Monk Kidd, 1990, p. 14)는 예

수님의 지상 사역은 홀로 있는 시간에 의해 강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예수님에게 중대한 변화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기다림의 장소, 즉 광야와 겿세마네 동산, 무덤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다림의 열매를 표현하는 균형 잡힌 리듬이었다. 예수님이 왜 기다림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 예수님은 기다릴 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셨다. 그래도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잠잠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될 수 없다.”

선교 동역자들도 자주 기다리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는 비자를 기다려야 하며, 언어를 배우기 위해 기다려야 하며, 팀 멤버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기다려야 하며, 부름 받은 곳의 이웃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또한 고국에서 오는 뉴스를 기다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외에서 일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기다린다. 그러한 기다림은 끝이 없어 보일 수 있다. 많은 선교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할 때 계시된다. 만일 선교 동역자들이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기다림의 가치와 기다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다림은 지루하고 무익하며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실패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멤버케어에 있어서 우리의 과제는 세속적 사고에 익숙한 21세기 사역자들로 하여금 기다리시는 주님, 즉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기다림의 풍성한 보상을 발견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주님의 케어의 제공자의 낮은 성공담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다.

2) 무능력의 능력

예수님은 끝없는 기다림을 통해 인내하시고 성숙하셨을 뿐 아니라 무능력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이 독특한 힘이 겿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고통과 공포를 아버지께 쏟아놓은 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고틀을 체포하러 온 병사들에게 내주신다. 이 후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

시고 강력하게 설교하시며, 최후의 만찬을 주도하셨던 그 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는 그를 체포한 자들이 이끄는 대로 가신다. 그러나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한은 예수님의 무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고 [체포자들에게] 나아가 물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렸다”(요 18:4-6, 강조된 문구는 추가한 것임).

왜 그들이 땅에 엎드렸는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 아무 답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날 일어난 사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회개하는 강도가 예수님께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눅 23:42)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내신 후에 십자가 밑에서 있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 27:54)라고 소리쳤다. 백부장과 회개하는 강도가 예수님의 찢기고 깨어진 몸의 이면에 있는 영광을 본 것처럼, 겿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병정들도 예수님의 무저항의 모습에서 그의 빛나는 신성을 보지 않았겠는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땅에 엎드렸겠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시며 뺨을 맞으시고 비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 시간에 무저항을 통해 이루신 기적은 그의 3년 동안의 놀라운 사역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세계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주님의 케어이다.

많은 선교 동역자들 또한 무능력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험을 들어보자. 사역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직업에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며, 그들의 모국에서 그것을 입증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해외에서 일하게 될 때, 그들의 능력이 다 발휘될 수 없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사역자들은 결국 무능력뿐만 아니라 좌절감과 실패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멤버케어 사역자들의 역할은 동역자의 좌절감과 감정을 규명하는 것 그 이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

셨으며, 이러한 무능력의 상태를 이해하시고, 지지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신비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3) 사막의 가치

우리는 예수님이 “기다림의 능력”을 실천하셨던 장소 중 하나가 유대 사막에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우선, 예수님은 그 곳에 가기를 꺼려했던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 이유는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광야에 이끌렸던 것을 말할 때에 헬라어, “ekballo,” 떠밀다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례요한과 공적으로 동일시하셨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들으라고 증언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 들을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하나님 뿐 아니라 사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의 파장을 맞추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막 1:11)라는 아버지의 메시지는 길고 외로운 금식을 하는 동안 예수님을 유지시켜 주었던 양식이었다. 그 메시지는 그 시간에 특별한 능력이 되었다. 그 메시지는 공적인 사역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예수님에게 그가 이룬 일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인해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에 흠뻑 젖게 되면, 그것은 사랑의 반응을 불러온다.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좌우명, “아버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 좌우명은 분명 예수님이 원수들을 대항하여 영적 싸움을 하실 때 입을 갑옷이었다.

거의 분명하게,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시며 생각하였던 질문들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계시할 것인가?” 사단은 재빨리 설득력 있는 요구를 했다.

“유명해지라, 재물을 모으라, 능력을 행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시며 사단의 제안을 거부하셨다. 대신 예수님은 성령의 도움과 함께, 아버지의 방법으로 사명을 성취할 것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간구하는 군중들에게 돌아가고자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광야에서 새롭게 충전되며 능력을 얻으셨다.

예수님만이 광야에서 훈련된 사람은 아니다. 믿음의 거물들은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 광야로 나아갔던 경험이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와 미리암, 엘리야, 시편기자, 바울 등이 그러하다.

선교사들은 결코 물리적인 광야에서 땀을 흘릴 필요가 없지만, 성숙의 과정으로서 그들은 때때로 내면의 광야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면의 광야는 우리의 마음이 실제 사막의 불모상태와 황폐함으로 물드는 인생의 기간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불모의 상태를 우리의 모든 천부적인 능력이 고갈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시험을 받을 때에 경험할 수 있다. 이 때 우리는 깊은 공허감이나 외로움의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마른 땅과 같이 물을 갈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느끼는 감정과도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움과 감격으로 변할 수도 있다. 한나 허나드(Hannah Hurnard)의 흥미로운 이야기인 『고지의 암사슴의 발』(*Hinds' Feet on High Place*)에서, 무서움을 잘 타는 여주인공은 목자장을 섬기고 있다. 그녀는 여러 면에서 만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통해 타인에게 비쳐지는 목자장의 모습이 여러 이유들로 일그러져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그녀는 신체 장애자였으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목자장은 그녀에게 찾아오시며 그녀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의 긴, 치유의 여행을—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내면의 여행—하신다. 처음에 여주인공은 흥분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흥분은 목자장이 “높은 곳으로 향하는 나의 종들은 이 사막을 돌아가야 했다. 이 곳에서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그녀에게 경고할 때 실망으로 변한다.

주님의 케어는—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숙해 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사랑하는 자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에 관하여 호세아에게 말씀

하신 것과 같다.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호 2:14-15).

멤버케어 사역자들과 선교 동역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신비의 의미를 연구하고 이해할 책임을 갖는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다림의 능력과 무능력함의 능력 또는 사막의 가치를 하나님께로 배우고 있는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다. 이것을 행하는 한 방법은 멈추어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경우가 있는가? 어떻게 느꼈는가? 예수님의 기다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은 당신의 멤버케어 사역을 어떻게 돕는가?

■ 당신이 무기력하게 느꼈던 때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교훈하시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현재 무력한 상황에 처한 선교사를 지지하기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

■ 예수님의 삶의 좌우명은 그가 사막에 있는 동안 매우 분명해졌다. 당신의 삶의 좌우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신비를 묵상하기 위해 이제 잠깐 동안 멈추어 당신 자신을 위한 주님의 케어에 대한 생명력 있는 주제를 통찰할 수 있도록 다음의 질문들에 응답할 것을 권한다.

5. 토의 주제

1.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장의 첫 페이지를 다시 읽어보라. 당신이 팀의 지도자라면, 당신의 그룹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당신이 주님의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고 여기겠는가? 사람들이 당신은 프로젝트보다 사람에 더 관심을 둔다고 여기겠는가? 당신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 “내 밑에 있는 선교 동역자들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2. 당신은 사역 전과 사역 후에 당신 자신을 돌보기 위해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3. 고요함과 분주함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생활리듬을 당신 자신을 위해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홀로 보낸 시간(매일, 매주, 매달, 매년)과 그분을 섬기는 시간의 개념에서 볼 때 어떠한 모습을 갖는가?

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새롭게 이해시키셨다. 당신이 예수님의 기도 형식을 생각할 때 당신의 기도생활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가? 그렇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것을 당신의 삶의 방식과 비교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질문해 보라. 당신은 존재와 행복의 역동적인 순환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가?

† 참고문헌 †

- Blaiklock, E. (Trans.). (1981).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by Brother Lawrence*. London, UK Hodder & Stoughton.
- Caltagirone, C. (1983). *Friendship as sacrament*. Bombay, India: St Paul's.
- Hurnard, H. (1966). *Hinds' feet on high places*. London, UK: The Olive Press.
- Jeremias, J. (1967). *The prayers of Jesus*. London, UK: SCM.
- Kidd, S. Monk (1990). *when the heart waits: Spiritual direction for life's sacred questions*.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 Lake, F. (1966). *Clinical theology*. London, UK: Darton, Longman, & Todd.
- Magdalene, M. (1987). *Jesus man of prayer*. Guildford, UK: Eagle.
- Manning, B. (1994). *Abba's child: The cry of the heart for intimate belonging*.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 Rolheiser, R. (1979). *The restless heart*. London, UK: Hodder & Stoughton.
- Vanstone, W. (1982). *The sature of waiting*. London, UK: Darton, Longman, & Todd.



아지스 퍼난도 *

기쁨과 고난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씨줄과 날줄과 같다.

기쁨과 고난은

우리의 성숙과

선교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다.

제 22 장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희생

오늘날 행복은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로 간주되며, 그 권리는 고난과는 무관한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은 기독교 사역에 따르는 고난에 대해 그들을 적절하게 준비시키지 못한다. 나는 다음에 제시되는 문제를 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장은 내가 심각한 고갈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도 동역자들이 최근에 내게 표명했던 염려들에 응답하여 썼던 글들을 보완한 것이다.

* 아지스 퍼난도(Ajith Fernando)는 1976년부터 스리랑카에서 Youth for Christ를 이끌었다. 그의 책임은 동역자들을 가르치고 목회적으로 돌보는 것이다. 아지스와 그의 아내 벨룬은 대부분 타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로 구성된

선교사 멤버케어

1. 기쁨과 십자가에 대한 헌신

당신은 나를 “쾌락주의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모른다. 존 파이프(John Piper, 1986)에 의해 대중화 된 이 관용어를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은 나의 갈망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나는 삶의 극도로 중요한 경험으로서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나는 행복 추구자이다. 나는 매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일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조지 물리의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기쁨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비롯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기쁨을 소유하므로 우리의 기쁨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요 15:11). 그러나 이어서 예수님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12절).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13절)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쁨은 희생적인 섬김에서 나온다. 예수님은 샅꾼 목자와는 다르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0:11-15).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요 20:21)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한다. 최근에 나는 선교사의 모델인 예수님에 대해 깊이 연구한 바 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모델로 제시될 때마다 대부분 고난의 모습이 따른다는(요 15:12-13; 히 12:2; 13:12-13; 벧전 2:19-24; 4:1-2) 놀라운 발견을 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나는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기 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부르심을 받아 섬겨야 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을 추구하기를 원한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이 역설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명분을 위해 죽으면서 어떻

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 과정에서 바울의 삶과 사역은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주님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다(빌 4:4). 그는 감옥에서 고난 받는 동안 빌립보서를 기록했다. 사실,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 됨을 회복하므로 그의 기쁨을 완전하게 하라고 촉구했을 때, 그는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이 기쁨을 잃었음을 암시했다(빌 2:2; cf. 4:2). 바울이 주님 안에서 그의 기쁨을 보전한 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 상처를 받고 특정한 세상에서의 기쁨을 잃었다. 바울은 고집스러운 갈라디아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이 해산의 고통을 매일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다(갈 4:19).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매일 근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고후 11:28-29).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2, 16). 이 구절들은 오늘날의 사역의 열망들에 반해 얼마나 낮은 말씀인가?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디어 낼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피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있다.

나는 균형 잡힌 삶—적당한 수면과 안식일 준수, 가족과 보내는 별도의 시간, 연구, 운동, 오락의 시간을 갖는 것—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 외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 우리는 죽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거기에는 갈등과 긴장과 부담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YFC(Youth for Christ) 훈련 중에 내가 이끄는 동역자들의 연합함과 죄악으로 인한 나의 갈등에 대해 나는 적이 있다. 서구 선교사들은 나의 이러한 고백에 놀라며 내가 그러한 짐들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였다. 특별히 그 선교사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며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나는 그 일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 후 나는 그러한 부담을

감리교회에서 활발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풀러신학교에서 신약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가 저술한 아홉 권의 저서들은 NIV Application Commentary: Acts(Zondervan, 1998)와 같은 성경강해서와 The Supremacy of Christ(Crossway, 1995)와 같은 선교신학 서적이다.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에서 나오는 이러한 스트레스는 내 백성들을 위한 나의 죽음의 일부이다. 예레미야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문제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하였으며 그들의 죄를 놓고 울지 않았는가(렘 9:1-2; 단 10:2-3; 스 9:3-6; 느 1:1-2:3)?

해외에서 설교사역을 끝내고 집에 돌아올 때면 나는 갑작스러운 좌절감을 경험한다. 그것은 설교자에서 지도자로 돌아오는데 대한 좌절감이다. 설교자로서 나는 귀빈 대우를 받는다. 특히 서구세계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편안한 것들이 많다. 그러나 성경적인 지도자로서 나의 생활양식은 중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막 10:42-45). 나는 가족의 종이며 YFC 형제자매들의 종이다(“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야만 한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필요들은 나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때로는 가장 부적절한 때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것이다. 마가복음 6장 31절은 이렇게 말한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예수와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으로 계속된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이 경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원하는 휴식을 취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간과하기 쉽다. 사실 예수님은 조용한 곳까지 따라온 무리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했다. 예수님은 5,000여 명을 그곳에서 장시간 가르치셨으며 먹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한 곳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제자들에게 배를 타게 하시고 “당신은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막 6:45-46). 여기서 예수님은 균형 잡힌 중의 삶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불편하실 때에도 사람들을 섬기셨다. 그리고 고독의 훈련 같은 삶의 본질적인 훈련을 위한 시간을 얻기까지 인내하셨다.

1) 주님의 기쁨에 대한 정의

이제 나는 “주님의 기쁨”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적용할 때 나오는 태도라고 믿는다. 진리를 적용할 때 로마서 6장 11절에서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말씀에서 사용된 동사

“여기다”를 사용한다. 몇몇 새로운 번역에서는 동사인 *logizomai*를 “여기고”(count) “고려하는”(consider)것으로 표현된다.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우리가 우리자신들에 대해 간주하는 6가지의 것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죄의 짐은 우리가 용서받음과 함께 제거되었다(히 10:22). 깨끗해진 양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고후 5:19)를 사라진 것으로 간주하지(*logizomenos*) 않으시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것을 본다(롬 5:8).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큰 기쁨의 자극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므로(요 15:13) 그 사랑은 가장 큰 기쁨을 일으킨다(요 15:11).

셋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를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겨주신다(요일 3:1)는 사실을 인정하고 놀라게 된다.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히 13:3-5).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시며 우리 삶의 동기가 되신다(빌 1:21).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황홀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11).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왕국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다(고후 5:20)는 것을 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므로(고전 12:14-26) 우리는 삶의 기쁨을 상실케 하는 주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은(롬 8:32)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선함을 위하여 일하실 것(롬 8:32)임을 우리는 안다. 어떤 환경이나 사람도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왜곡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도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신다(창 50:20). 이 사실은 억울한 일에 대해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음

을 말해주므로 우리는 기쁨을 잃게 만드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섯째,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려 오던 영원한 약속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안다(빌 1:22-23).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좌절감은 하늘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구속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롬 8:20-24). 우리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며 그것은 큰 기쁨의 이유가 된다. 죽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며 그것은 기쁨의 더 큰 이유가 된다(빌 1:21).

이 진리를 인정함으로 진정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킴으로 기쁨을 앗아가는 힘을 제거한다. 이 여섯 가지는 영원한 진리이며 기쁨을 앗아가는 힘은 순간적인 것이다. 그러한 실재들에 근거한 기쁨은 슬픔이나 고통, 실망, 의로운 분노와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억울함이나 이기적인 분노, 낙담과는 공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섯 가지 진리와 모순 되는 태도들이기 때문이다.

2) 기쁨과 우울한 감정

나는 주님의 기쁨이 종종 생물학적 원인을 지닌 임상적 주요 우울증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우울감과 공존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선하고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타인을 돕는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인들은 종종 우울증을 경험한다. 피곤함과 병, 외로움, 자신의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실패감 등이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 여섯 가지 실재들은 우리의 감정보다 더 깊은 실재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 여섯 가지 실재들을 인식하는 것은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 우리가 고통을 참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면 우울증(느낌)은 좌절 상태(태도)로까지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도 빛은 비치며 그것은 우울함이 지나가기 까지 우리를 지탱해 준다.

나는 그러한 생각들이 내가 우울감에 빠져 고통당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 진리를 묵상하며 태도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건설적으로 우

울증을 다룰 수 있도록 동기화 될 수 있다. 우리는 잠을 더 자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이나 오락을 즐기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현재 있는 곳을 떠나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마음의 고통을 타인과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우리를 화나게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나는 극단적인 우울증의 경우에 전문적인 의사나 상담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나,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바울 같이 헌신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때로는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탄원”이 성경 문학양식의 주요형식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편에는 50개의 탄원시가 있으며, 그것은 시편의 여러 가지 양식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성경에서 탄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군이였다. 그러나 시편의 탄원시 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는 우리가 이 글에서 기쁨에 대해 정의했듯이, 탄원이 주님의 기쁨과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형태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진술이며(시 22:3-5)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약에서 나오는 것이다(시 22:22-26).

스리랑카는 전쟁과 고통, 폭력, 부패로 황폐화된 나라이다. 나는 탄원이 스리랑카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애통하지 않는 것은 우리 백성의 필요들에 대해 무감각하며 무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의 황폐함보다 가정의 황폐함은 탄원을 할 더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항해서 저항하며 살거나 고통 받는 것을 볼 때 괴로워하게 된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쇠약하게 하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한다.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뇨”(롬 8:32)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좌절감에 눌리는 세계에서 살고 있으므로(롬 8:20)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괴로워할 것이다. 26절에서 사용되는 명사인 *stenagmos*라는 단어를 23절에 사용한 동사인 “탄식하다”(groan)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인 *stenazo*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바울

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고 말한다. 하나님조차도 탄식하신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나쁜 감정들로 고통을 당할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한 기분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즐거운 오솔길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경험일 것이다. 그러한 생각들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상한 기분과 좌절감을 가져간다.

3) 기쁨의 추구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에 관한 성경적 진리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섯 가지 실재들을 그들의 중요한 신학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신학적 진리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게 해야 한다. 그 때 그 진리들은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예상만큼 쉽지는 않다. 최근에 스리랑카에서 내가 본 가장 슬픈 일들 가운데 하나는 분노한 그리스도인 노동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종종 그들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분노한다. 부패와 무법천지, 폭력, 동족이 주는 어려움이 가득 찬 곳에서도 필수불가결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나의 신념은 몇 년을 두고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억울하고 분노할만한 이유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쁨을 찬란하게 뿜어내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처음으로 기쁨에 대해 갈등하기 시작했던 것은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였다. 나의 마음은 사역에 가 있었지만 나는 학위를 위해 식물학과 동물학, 화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내 학점의 1/3은 실험실에서 되어진 실습에 의한 것이었다. 나는 손놀림이 무척 서투른 사람이었다. 열심히 실험에 임했지만 결과가 좋게 나온 적은 없었다. 나는 종종 깊은 좌절감을 경험했다. 이 때에 나는 장시간 산보하는 습관이 생겼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을 느낄 때까지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때로는 아무리해도 기쁨을 느낄 수 없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

는 주님의 기쁨이 돌아올 때까지 주님과 씨름하였다. 기쁨이 솟아오르면 나는 발길을 돌려 돌아오며 중보기도에 들어가곤 했다.

“전담”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나의 상처와 분노는 내가 사역하는 대상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상처는 더 깊어졌다. 그러나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과 씨름한다는 원리는 매우 효력이 있었다. 때때로 기쁨이 돌아오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주님과 해결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묻어 두었던 것들이 다시 떠올라 나를 괴롭힐 때도 있었다. 그것은 주님과의 기쁨을 갈구하는데 보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하는 일을 선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래서 분노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의심 없이 확신하기까지 승리는 대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1) 기쁨과 영적인 훈련

여러 해를 두고 나는 내게 도움을 준 생각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기도이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언급 하겠다. 그 다음은 성경읽기이다. 1989년은 우리나라의 가장 처절한 해였다. 혁명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6만 여명에 달했다. 내가 사는 도시 근처에 있는 강에 시체가 떠다니지 않은 때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섬기도록 부르신 젊은이들이었다. 학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자녀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떠났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스리랑카에 머무르길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다.

우리는 자녀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했다. 내 아내와 나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느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법적으로 분노할 필요가 있는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국가적인 암울함에 속에서도 나는 가정을 밝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내 기분은 그렇지 않았지만 말이다. 내 기분이 가라앉아 있던 어느 날 아내는 나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아내들은 그러한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아빠가 기분이 안 좋으시단다. 아빠가 성경을 읽으시도록 기도하자!” 그녀는 매우 중

요한 신학적 원리를 지적한 것이다. 우리가 일시적인 환경에 의해 압도되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삶의 실재들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삶을 보게 하는 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기자는 이렇게 고백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 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시 119:92).

나는 또한 찬송을 하는 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좋은 방법임을 알았다. 현재의 일들로 인해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상기하게 된다. 그러한 생각들은 마음의 언어인 찬양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진리가 전이되는 과정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한 사건을 볼 때(행 16:25), 그들은 낙담한 상태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다.

(2) 상담과 공동체로부터 오는 기쁨

그러나 나는 기쁨의 과정을 보다 힘들게 회복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치유되지 않은 종종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을 갖기 때문이다. 아물지 않은 그들의 상처가 드러날 때에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데이빗 씨맨즈(David Seamands)의 『상한 감정의 치유』를 읽고 과거의 상처의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책의 제목은 그러한 상처라도 치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남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문장에 사용된 동사 *logizomai*에서 우리는 “여기다”(reckoning)의 의미를 얻었다.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를 극복하게 함으로 우리가 받은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을 때 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은 오래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인내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치유할 때만이 완성될 것을 믿는다. 따라서 내가 설명한 6가지 진리를 묵상함으로 상처들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상처받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값진 그룹의 현신을 통해 수용을 경험할 수 있는, 민감하게 배려하는 공동체는 많은 치유사역을 할 수 있다. 종종 훈련받은 상담자들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는 이슈들을 능숙하게 다루므로 치유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자들의 사역은 멤버들에 대한 헌신적인 후원을 통해 크게 고양된다. 우리의 모든 사역 팀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공동체에서 살아 움직인다. 각 개인이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공동체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사역에서 받은 상처로 힘들어하고 그 상처로 괴로워 갈등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고통을 치유하신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들어 주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충고해 주었다. 나의 고통을 그들과 대화를 통해 나누는 행위는 내가 지고 가는 상처의 짐을 내려놓게 도움을 주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너무 화가 나서 우리의 분노를 모든 사람들에게 터뜨린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항상 실망시키므로 신뢰할 수 없고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태도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매우 많다. 우리의 친구들이 연민의 마음을 갖고 들어주며 우리를 사랑으로 대할 때 인간에 대해 화날 이유가 없어진다. 바울이 말했듯이(고전 12:26; 갈 6:2),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동료들이 함께 고통 받는 것을 느낀다. 그러한 동료애는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기쁨의 흔적을 소멸시키는 고독한 괴로움을 제거해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종 헌신된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동료들의 사랑이 넘치는 관심을 통해 그의 기쁨을 전달하신다. 기쁨에 대한 많은 성경적인 표현은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느 8:10)이라는 잘 알려진 구절과 같이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서 나타난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이 책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삶이나 동료들의 삶에 너무 자주 나타나는 것이므로 언급돼야만 한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기쁨을 잃는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은 성경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죄이다. 나는 그러한 현상을 많이 보았다. 과도하게 남을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화를 내는 동료들 볼 때, 내가 묻는 첫 질문은 그가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의

짐을 지고 있는가이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른 회복의 형태들과 연관되는 것 뿐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회복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본질적 형태들이다.

2. 비성경적인 스트레스

내가 지적했듯이 사역의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 실로 고통은 사역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스트레스와 긴장은 오늘날 사역자가 느끼는 고통이 흔하게 표현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스트레스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나는 알키발트 하트(Archibald Hart)의 스트레스에 관한 글에서 도움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경험하는 두 가지 비성경적인 스트레스인 그릇된 동기와 빈곤한 위임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믿는다.

1) 그릇된 동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형의 스트레스는 성공을 위한 죄악 된 야망들과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에서 온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나 조직이 성장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쓴 책이 해당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 원한다. 종종 이러한 열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목표들을 성취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일 중독증으로 몰고 간다.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통해 너무 많은 성공적인 성취를 이룩하고자 하므로 안식일에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런 삶은 많은 스트레스를 부여하며, 그러한 삶에서의 실패는 큰 짐이 된다.

나는 우리 중의 어떤 이들은 그들의 생애를 세속적인 열망들로 분투할 것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거룩한 야망이 세속적인 야망에 자리를 내어주는 때를 아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 민감한 문제가 된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불안과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서 얻어진 순수한 결심과 열망을 통해 리더자의 자리에 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위대한 간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한 그런 지도자들에게 성공을 통한 지나친 안정감과 정체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이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동기를 깨닫게 하고 찌꺼기를 걸러내시기 위해 실패와 초조함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이 비가 오거나 한 사람의 실수로 깨지는 경우도 있다. 설교를 힘들게 하고 나면 실수한 것만 생각나고 청중들이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나의 실수만 기억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영적인 자녀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기도 한다. 나는 종종 특정한 주제에 관해 책이나 글을 쓴 후에, 내가 지적했던 부분에서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실패들과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우리의 과민한 반응은 얼마나 심한 이기심과 육적인 동기가 우리 안에 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들을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한 우리의 씨름은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의 동기들을 순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다. 그러한 상황은 히브리서 12장 4-11절이 말하는 것과 같은 훈련이 된다. 11절은 이 구절의 절정이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물론 축복은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과도한 반응 때문에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훈련”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분노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다만 그들의 스트레스를 높일 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책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보다 더 순수한 동기를 갖기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들은 “의와 평강의 추수”를 경험한다. 물론 평강은 스트레스의 반대이다.

2) 빈곤한 위임에서 오는 스트레스

비성경적인 스트레스의 다른 유형은 위임하지 않으려는 데서 온다. 이드론은 이 문제를 그의 사위인 모세에게 지적했다(출 18). 모든 그리스도인들

은 은사를 소유하며,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불필요한 짐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병든 사람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해야 하는 모임에서 말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메시아 콤플렉스에서 시작된다. 중국에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지쳐버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역에서 성숙해지면서 직면하는 가장 복합적인 도전들 중 하나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며, 우리의 스케줄에 그러한 우선순위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소명 밖에 있는 많은 사역의 기회들을 거절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실제로 훈련시켜야만 한다. 실로 우리는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을 위해 죽기는 하나, 온 세상을 구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

성경의 명령 또한 우리가 생명을 바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범위를 제한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들(요 15:12-14)에 대해 말하며, 바울은 아내에 대해 말하고 있다(엡 5:25). 나는 그것들이 절대적인 제한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에게 섬기도록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느낀다. 그들은 우리가 집중해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자신이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죽일 수는 없다.

물론 이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보다 쉽다. 나는 우리의 일차적인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나에게서 그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위한 젊은이들에 대한 것이며, 나의 모교회와 순회 성경공부와 저술활동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내게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내 가족과 Youth for Christ와 내 교회의 동료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다. 앞에서 요약한 원리에 대한 나의 헌신에도 불

구하고 나는 해서는 안 될 것에 동의하는 내 자신을 종종 발견한다. 아마도 이것은 내 평생 감당해야 할 싸움이 될 것이다.

3. 탈진과 기도

비성경적인 스트레스는 피해야 하지만 스트레스와 긴장은 사역에서 불가피하다. 나는 바울 서신을 인용하여 그 내용을 서두에서 설명했다. 일반 대중 사역과 리더십에 있어서 활동적이며, 강연과 저술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한 가정의 가장인 나는 많은 스트레스 경험했다. 내 친구들은 내가 곧 탈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들의 경고를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며 사역을 계속할지 심사숙고 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낸 일상적인 시간(lingering)은 탈진과 스트레스의 부작용에 대한 좋은 해독제라고 믿는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하고자 한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루의 일정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실로 탈진을 일으킬 수 있는 불합리한 피로와 쫓기는 삶의 태도를 치유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쉼이 없는 삶을 치유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 매일 정해진 하나님과의 시간을 따로 정해 놓는다면, 우리는 일에 쫓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분주하던 한가하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은 분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이 넘치는 시간으로 변화하게 된다. 최근에 나는 우리 지도자들의 연약한 부분인 쫓김의 병폐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욱 더 확신하게 되었다. 속도를 늦추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활동은 우리를 쫓기게 만든다. 쫓기는 사람들은 피곤함과 끊임없는 성공의 추구 가운데 기독교의 원리를 파괴함으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의욕적인 지도자들로 하여금 쫓기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능하시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매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증폭시켜 주며(시 46:1-11) 만약 그러한 시간을 누리

지 못한다면 우리는 곧 탈진하게 될 것이다. 안정감과 함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 4:7)이 찾아올 것이며, 그것은 삶을 사는데 필요한 놀라운 보화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일에서 저 일로 쉼이 없이 옮겨 다니며,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일이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바랄 것이다. 사실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는 싱가포르 교회 지도자인 로버트 솔로몬 박사가 “우리는 침묵을 불편해 한다. 왜냐하면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닥날 때 까지 바쁜 일을 지속한다!

바울은 내가 묘사한 평안이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아뢰는 결과라고 말한다(빌 4:6).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벧전 5:7). 내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큰 해방감을 경험했던 것은 우리의 사역이 깊은 위기의 때를 겪고 있을 때였다. 나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염려로 압도되어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나는 그러한 짐들을 홀로 지고 있는 내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그 짐을 의도적인 해방의 행위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그 결과 나는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안 많은 시간이 중보기도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사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 능력을 고갈 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은 고갈되지 않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사랑이 기도를 통해 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의 삶의 안팎으로 퍼져 나가는 끊임없는 사랑의 흐름은 사랑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를 빛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신선함을 불어 넣어주는 주는 것이 된다. 그러한 신선함은 종종 우리의 귀중한 사역에 스트레스와 긴장을 일으키는 탈진의 원인들을 제거한다. 최근에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아마도 그 시간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는 열매를 가져올 것이다.

4. 공동체에 대한 헌신에서 희생으로

종종 내 서구 친구들은 전쟁의 상흔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들을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는 서구에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를 깨닫지 못한다.” 만일 내가 그러한 말에 응답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경험한 가장 큰 아픔이 우리나라의 전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대개 말한다. 그 고통은 우리나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세상 안에 있는 진실하고 성경적이며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실패한다. 그러나 때때로 그 고통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우리의 기준을 부적절하게 격하함으로 회피된다. 나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게 된다.

당신이 바울이 그의 서신들에서 말하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목록을 만든다면, 당신은 그가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 놀랄 것이다. 바울은 그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 말하며 때로는 그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고후 6:4-10; 11:23-27). 그러나 그가 가장 깊은 고통을 보여주는 경우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문제들을 묘사할 때이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드러난 반대에 대한 내적인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중요한 편지를 고린도에 전달하려 간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드로아에 있었다. 디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나 바울은 내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로 갔다(고후 2:12-13). 결국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바울은 그 사실에 전율할 정도로 기뻐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뉘우침을 생각하며 사역의 영광에 대한 열광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 내용은 고린도후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후 2:14-7:1). 그 후에 그는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고후 7:6)라고 설명한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얼마나 깊이 상처를 받았으며 또한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 얼마나 깊은 위로를 받았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깊이 상처를 받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상처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과 안전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깊은 내면을 보이지 않으며, 상처받는 것을 염려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는다. 다른 한편, 바울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했는데, 종종 그들의 거부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린도후서 6장 11-12절에서 표현하고 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살전 2:8도 보라).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그들에 대한 값진 헌신을 표현할 때, 우리는 쉽게 고통에 노출된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서신서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28-29절에서 그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4장 19-20절에서 그는 “나의 자녀들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고후 2:4, 12-13; 7:5-7; 12:15; 골 1:24; 2:1; 살전 3:5-7 참조)라고 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기준을 낮춤으로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로부터 오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행 4:32)이었다. 그것은 성취하기 매우 어렵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강권하여 그 일을 이루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빌 2:2; 4:2-3).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소유를 나누는 것을 발견한다(행 2:42-46; 4:32).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종류의 공동체 생활을 성취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생활은 그들의 사생활에 큰 위협을 주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다. 따라서 그들은 규칙들과 과제들에 의해 지배되는 공동체 생활의 모델을 정착시켰다. 발생되는 문제들은 공동체의 규칙이나 사람들이 맡은 과제에 따라 다루어진다.

만일 위기가 심각하면 질문이 제기되고 질문을 통해 얻은 결론을 근거로 행동이 취해진다. 그 문제는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적합한 성경적 방법인지는 의문이 된다.

나는 보다 성경적인 방법은 문제를 목회적으로 다루는 고통을 담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규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목회적 케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올 지라도 그것은 중요하다. 누군가가 규칙을 어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규칙을 어긴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훈련차원의 응징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과정에서 통전적으로 다루어진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접근을 채택하지 않는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목회적 응답들은 실제적이지 못하며 고통을 주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인가를 잘못된 사람은 지도자에 대해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목회적으로 다룰 때, 그 분노는 표면화될 것이다. 필요한 대화를 하는 데는 3시간 정도가 걸릴 것이다. 많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동역자들에게 할애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 같은 위대한 성경의 지도자들은 유용한 시간을 동역자들을 위해 사용했다(요 1:39; 행 20:7).

성경적인 접근보다는 세속적 관리의 실제들에서 나온 조직적인 문제들에 대한 접근들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세속적인 경영자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대한 헌신의 중요성에 대한 참신한 재발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12-14절) 원리를 이 세상이 채택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공동체 삶의 기독교적인 방법에서 지도자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일탈하거나 쓴 뿌리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깊은 차원에서 섬기며 그 사람들을 위해 “죽는다.” 이 과정의 불편함과 고통은 내가 말한 기독교 공동체의 삶의 고난의 일부이다.

실로 비록 요한복음 15장과 같은 공동체의 삶이 시간 낭비와 고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성취를 가져다준

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많은 것들을 말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에서 오는 기쁨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연합(4:2)을 변론하면서, 그의 기쁨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2:2) 때에 완전해 진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빌립보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4:1)로 묘사한다. 공동체의 삶은 깊은 고통의 삶이지만 동시에 깊은 성취의 삶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글에서 언급한 다른 고통의 형태들의 경우에서처럼 공동체의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 그 기쁨이 없이 우리는 공동체의 삶에 따르는 고통을 견디어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비록 어머니가 품안의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사 49:15)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근본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신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헌신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힘을 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자매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다룰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인간의 관계보다는 삶의 근본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에서 오기 때문이다.

나는 빌립보서 4장 1-4절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그의 기쁨이며 면류관으로 묘사하고 있다(1절). 빌립보 성도들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바울은 다투고 있는 두 파에게 하나가 될 것을 간청하고 있다(2-3절). 그것은 그의 고통을 묘사한 것이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교회 안의 연합의 결핍이 그의 기쁨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한다(빌 2:2).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두 번에 걸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진실한 기독교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고통의 때가 있는가 하면 서로 기쁨을 나눌 때가 있지만 항상 변치 않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다.

5. 쫓김의 해독제로서 공동체를 위한 희생

고난과 공동체의 주제와 연관된 또 한 영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보는 내몰리는 리더십의 문제와 상관성이 있다고 본다. 공동체는 기도와 같이 쫓김을 예방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한 동기를 갖고 있는 지도자들은 성취하고자 하는 위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의 원리를 깨뜨리며 그러한 목표들을 성취하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몰아붙일 때, 그들은 쫓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바른 동기를 가진 지도자들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대표로 그리스도의 몸에 복종한다면, 그들은 성공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을 만날 것이다. 그러한 태도는 때때로 매우 큰 희생으로 나타날 것이다.

공동체의 멤버는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런 사람을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계획의 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쫓기는 지도자는 반대자들을 무시하고 프로그램대로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바른 동기를 지닌,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는 반대자의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목표를 달성하고자 싸우는 열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지없이 상처를 받는다. 동기부여가 된 지도자들은 거대한 프로젝트로 인한 압력 때문에 긴장할 수 있으며, 그런 상태는 타인에게 다혈질적으로 표현되어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두 명의 팀원 사이에 오해가 생겨 어려움이 빚어질 수도 있다. 때로는 지도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는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가족에 대해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도자의 가정에서 긴장이 생기기도 한다. 쫓기는 지도자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목표만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시간을 낼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이 부상할 때, 지도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향한 전진을 중지해야 하는 것이 큰 희생을 치르는 일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방해물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최선의 자리에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

해 우리의 활동을 한걸음 늦추는 비싼 대가를 치른다. 한걸음 늦추는 결과로 공동체는 하나가 되며 구성원들은 더 효과적으로 일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단계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마지막 열매는 공동체(가족들을 포함하여)가 함께 그 열매를 즐기며 성공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므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된 지도자들은 쫓기는 지도자가 되는 함정을 피하게 된다. 그 지도자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 바쁜 활동을 멈추었던 것이다. 쫓김은 성경의 원리를 파괴하는 분주하고 야망이 넘치는 활동 가운데 나타난다.

6. 고난에 대한 예상과 수용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들이 갖는 고난에 대한 접근과 오늘날의 선교 방식은 선교현장의 삶을 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채 선교에 대한 열정을 언급한다. 서구 교회는 고난에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으나, 신약의 가르침에 명백히 나타나는 고난의 불가피함에 대해 선교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다.

만일 선교사들이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그들의 종이 되려고 한다면, 그들은 실패와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부딪치게 되며 심각한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현실에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고난의 아픔은 필요 이상으로 더 커질 것이다. 종종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환멸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참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에 대한 최상의 해독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나는 몇몇 선교사들이 고통과 아픔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섬기게 될 사람들과 온전히 동일시하지 않으려는 선택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생활양식이나 약해지는 것에 대한 거부는 그들을 현지인들과 멀어지게 한다. 그럴 경우 선교사들 주위의 현지인들은 선교사들의 물질적인 부유함을 보고 그릇된 동기로 협력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들은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며, 선교

사들은 그들에게 속는 것으로 끝나게 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많은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사실은 선교사들이 현지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정직한 많은 현지인들이 선교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오늘날 선교사들에 대한 고난의 가장 공통적인 표현은 심각한 좌절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좌절감에 직면할 때, 선교사들은 자신의 사역을 좀 더 가벼운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 신자들과 어려운 사역의 경험을 지속하는 대신 그들은 여러 집단에 대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자문을 하는 일 등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복음에 저항하는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부름 받은 사람은 복음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종족으로 전도대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복음전파의 열매가 없을 경우 어떤 선교사는 힘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중단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선택한다. 또 다른 선교사들은 그들이 직면한 고난을 이겨내도록 적절하게 준비시키지 않은 선교 동원가들에 대해 깊은 환멸과 분노를 품고 사역 도중이나 첫 임기 후 고국으로 돌아온다.

나는 내 마음에 품어진 모든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에게 고난이 제자도의 절대적인 요소임을 권면하길 원한다.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 그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며 고난에 대해 성경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한다면, 나도 그들이 받는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교회를 위해 고난당한 바울과는 달리(골 1:24) 나는 이러한 고난을 항상 즐겁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사실 종종 나는 자기연민에 빠져서 불평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며 신학화하는 작업에 시간을 투자하므로 나는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법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고민과 갈등의 열매이다.

7. 결론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근본적인 부름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고전 1:9). 기쁨과 고난은 이러한 부르심의 일부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도 매일 산재물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이와 같은 희생이 보다 심오한 기쁨으로 나가는 통로이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길임을 안다.

8. 토의 주제

1. 기쁨과 고난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를 당신의 삶에서 상기해 보라. 그러한 경험들 가운데서 무엇을 배웠는가?
2. 저자는 6가지로 “여기라”는 동사를 설명한다.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당신의 삶의 부분이 되며, 어떤 것들을 당신이 취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3.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성경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실례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상황을 바꾸도록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 저자에 의하면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타협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 공동체 생활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쁨은 당신의 삶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 참고문헌 †

- Anderson, B. (1983). *Out of the depths: The Psalms speak for us today*.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 Collins, G. (1976). *How to be a people helper*. Santa Ana, CA: Vision House.
- Fernando, A. (1994). *Reclaiming friendship: Relating to each other in a fallen world*. Harrisburg, PA: Herald Press.
- _____. (2000). Jesus: the message and model of mission. In W. Taylor (Ed.), *Global missiology for the 21st century: The Iguassudialogue* (pp.207-222).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 Piper, J. (1986). *Desiring God: Meditations of a Christian hedonist*. Portland, OR: Multnomah Press.
- Ryken, L. (1974). *The Literature of the Bible*.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 Seamands, D. (1981).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Wheaton, IL: Victor Books.

* 이 글은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1999, vol. 35, pp. 440-443), PO Box 794, Wheaton, IL 60189, USA)에 “선교사의 탈진에 관한 소고”라는 글을 개정한 것이다.

제 23 장

거인, 여우, 늑대, 그리고 파리: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돕기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시편 144:1

1939년에 나온 영화 “오즈의 마법사”를 본 적이 있는가? 이 영화는 무지개 너머에 있는 마술사의 나라에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애쓰는 어린 소녀의 모험을 그리고 있다. 한 장면에서 도로시와 친구들은 에메랄드 도시로 여행하는 중에 검은 숲을 지나게 된다. 그들은 불안해하며 그 숲에 야생동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며 노랫가락

* 켈리 오도넬(Kelly O' Donnell)과 미셸 루이스 오도넬(Michele Lewis O' Donnell)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리학자이다. 그들은 제네바 근처의 르 루셔(Le Rucher)에 있는 선교사 관리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자녀로는 에린(12



켈리 오도넬
미셸 루이스 오도넬 *

이 주제는
선교사들의 갈등과
성숙 분야에 초점을
맞춘 네 가지 짧은 글을
편집한 것이다.
이 글들을
개인의 목상을 위해
사용하거나 팀의 연합을
위해 모임에서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사자, 호랑이, 곰은 다 물러가라!”

타문화 사역자들은 빈번하게 이와 비슷한 위험에 둘러싸이게 된다. 그리고 같은 주문을 외운다. “거인, 여우, 늑대, 파리는 다 물러가라!” 이 피조물들은 누구이며 그것들은 우리의 삶과 사역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식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할 때 경험하는 갈등들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비유들이다.

여기 그 비유들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다.

■ 거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든다(삼하 21:15-22).

■ 여우들은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며 우리의 우선적 과업을 표류하게 만들려고 애쓴다(아 2:15).

■ 늑대들은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지게 함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애쓴다(마 10:16).

■ 파리들은 죄의 오염적인 효과로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한다(전 10:1).

원수는 이 네 피조물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명과 주님을 위한 사역을 궁극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우리를 밀처럼 까부르고 파괴한다. 이 피조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들을 다룰 방법들을 모색해 보자.

1. 싸우는 거인들, 연약함의 직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해 기다리는 거대한 방해꾼들이 우리 주위를 엿보고 있다. 우리의 사역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다루도록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겠는가? 다윗왕의 마지막 전쟁 경험은 몇몇 전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세)과 애셀링(8세)이 있다. 켈리와 미셸은 바이올라(Biola) 대학의 로즈미드(Rosemead) 상담대학원에서 임상 심리학과 신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들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으로는 위기관리, 팀 구축, 해외 체류자 가정생활, 개인 발전, 멤버케어 협력 개발 등이다.

Email: 102172.170@compuserve.com

사무엘하 21장 15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윗과 이스라엘 용사들은 곱(Gob)에서 싸우기 위해 길고 힘든 여행을 하여 두 나라간의 경계선에 잠복해 있었다. 이번에는 두 가지 다른 점들이 있었다. 첫째, 다윗은 젊은 시절의 강력한 힘이 없는 노인 이었다. 둘째, 이쉬비 베놈이라는 블레셋의 거인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 나섰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전쟁 중에 다윗은 지치게 되었다. 그 거인은 다윗이 취약점을 보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거인의 공격은 잘 짜여지고 미리 계획된 것과 같았다. 당신은 이쉬비 베놈이 다윗을 박살(shish-kebab) 내기를 원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쉬비 베놈은 허리에 허리띠인지 칼인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이야기에 그것이 포함된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그가 명예의 허리띠를 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블레셋 사람 중 으뜸가는 사람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가 새 칼을 차고 있다고 볼 때, 그와 관련된 가능성은 그 칼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바쳐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아버지새가 구원하러 왔다. 그는 다윗을 구원하러 와서(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인을 돌로 쳐서 죽인다.

이제 중요한 결말이 뒤따른다. 다윗의 용감한 용사들이 그에게로 몰려와 그에게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뭔가 더 중요한 것이 걸려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삼하 21:17) 하기 위해서이다.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성품을 반영하는 램프와 같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증인의 불을 소멸하는 것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공격과 같다.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닌가?

이와 같이 기독교 사역자들도 그들이 사역하는 특정한 대상들을 위한 등불들이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다(마 5:14). 다윗의 경우처럼 어두움의 세력들은 종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비치는 우리의 빛-우리의 증거-을 끄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고 있다. 그것은 오래

된 전략으로 그 유일한 해결책은 주님의 능력과 가까운 친구의 도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거인들과 싸우는 것이다.

1) 훈련을 위한 제안: 우리 마음을 지키기

우리는 훈련을 부가적인 목회 기술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힘과 연약함을 재평가하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다. 실로 전자는 종종 우리의 훈련 목표에서 가장 우선적인 반면, 후자는 주님 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일 수 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처럼 우리는 도전을 위해 일어나야 하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경계 영역으로 내려가서 거인을 직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모험을 해야 한다. 섭식 문제와 같은 원치 않는 습관들,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는 욕구, 자기혐오, 우울증,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갈등들은 결혼생활의 문제, 어린 시절 성적 학대 경험으로 인한 성 정체성의 갈등, 혹은 포르노 중독과 같은 여러 다른 갈등들과 같은 보다 심각하고도 만성적 형태의 우울증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은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며 적절한 선별과 선발 과정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대개 선별 과정은 훈련단계 전에 이루어지지만,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에서는 이 두 과정이 겹치기도 한다.

물론 우리의 갈등들을 나누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넓은 마음과 훌륭한 도움의 기술들을 갖고 있는 돌보는 사람들이 있으며, 비밀이 유지되고 약점들이 성장을 위한 기회들로 간주되는 훈련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은 가장 잘 다루어 질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면, 다른 장소를 찾아보라!

타문화 사역을 위한 기독교 훈련 프로그램들은 다음의 멤버케어 요소들을 포함한다.

-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고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가지므로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들을 갖는다.
- 지원자/훈련생들에게 개인적인 성장과 사역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한다.

- 연약함과 강함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는 트레이너들과 스텝들을 이용하라.
- 연약함을 허용하는 전반적인 조직의 정서(집단 문화)를 보여주고, 지지자들에게 적절한 자기 개방을 격려하며, 스텝들 간에 상호 케어의 기회들을 제공하라.

이러한 요소들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신약성경에 묘사된 몸의 각 지체들의 중요성을 반영한다(예를 들면, “서로의 짐을 지라<거인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 6:2>).

잠언 4장 23절은 우리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자기 인식과 책임과 의무를 깨닫는 것은 개인적 성장과 사역의 효율성의 열쇠이다. 우리는 사역의 훈련단계를 우리의 미래 사역자들을 위해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본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실제적인 일련의 방법은 다윗에 관한 내용이나 그와 비슷한 주제 구절들을 소그룹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여기 몇 가지 토의 주제들이 있다.

2) 적용

사무엘하 21장 15-17절을 읽고 스스로 탐구해 보라. 아래의 8가지 항목을 읽어보고 답해보라. 서로의 응답들에 대해 토론해 보라.

1. 다윗처럼 우리 모두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지도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위기로 인해 연약함을 드러낼 때까지 연약함을 자각하지 못한다. 당신의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2. 문자적인 해석을 떠나 “거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은 영적인 힘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인가, 연약함을 나타낸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
3. 이쉬비 베넵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애초부터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방해하려는 유사한 영적인 전략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4.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들을 드러내는

빛이었다. 당신도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당신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을 기록해 보라.

5. 사역자들의 상호간의 후원을 살펴보라. 이 구절은 팀 사역과 서로에 대한 필요,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타인의 말을 들을 자세 등에 대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6. 다윗의 전쟁경험은 거인 골리앗으로 시작해서 거인 이쉬비 베논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쉬비 베논이 마지막 거인은 아니었다. 사무엘하 21장 18-22절은 다른 거인들과의 대면에 대해 계속하여 언급하고 있다. 여러 거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어떤 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거인들은 궁극적으로 격파되었는가?

7. 이 거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사에 의해 힘 없이 당하기 위해 어느 날 전쟁터에 단순히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숨은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는 많은 유대 군대들이 거인들에 의해 해를 입는 불상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동역자들 간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가? 거인과의 싸움의 결과로 나타난 개인적인 상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기도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시간을 갖으라.

2. 여우잡기: 어수선한 삶을 위한 도움

당신은 책상이나 방, 집, 아니면 당신의 삶까지도 정돈하기를 원했던 때가 있었는가? 봄맞이 대청소를 기억하는가?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수많은 내적인 압력들과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외적인 요구들을 마술 같이 털어낼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러한 소망은 타문화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갈망이다. 정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과 우리 삶을 더 잘 형성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솔로몬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아 2:15)라고 말했다. 여우는 무엇인가? 타문화 사역의 상황에서 볼 때 우리는 여우들은 사역자들이 기본적인 과업

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상적인 산만함에 대한 메타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일상생활의 허드렛일일 수도 있으며 잦은 방해, 법적인 요식절차, 전문인 사역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비효율적 커뮤니케이션 등이다. 그것들은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 과거로부터의 자기 의심, 외로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비참함이 주는 충격, 미래에 대한 불안 등과 같은 우리의 집중을 요하는 내적인 관심사이다. 이 모든 것들은 사역자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갉아 먹으며, 그것들은 종종 사역하는 이유 자체를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산만한 과정을 “사역자의 표류”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삶의 “조류”가 우리의 초점을(시간, 활동, 자원, 마음의 관심사) 주변의 것들로 향하게 하여 이탈하게 만드는 자연적인 경향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역자들, 가족, 팀, 파송단체까지도 “소수보다는 다수”를 우위에 두는 불가피한 경향에 굴복한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관리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보다 도전적인 “표류 관리”에 대한 이슈이다. 타문화 사역자들이 직면하는 것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일곱 가지의 산만함이라는 여우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 **선행.** 선한 것은 가장 선한 것의 적이라는 말이 있다. 많은 좋은 일들이 타문화 사역자들의 주의를 요구한다. 손님을 초대하거나 방문객들의 여행 안내자 역할을 하거나 전도대상으로 삼지 않은 선교지민을 즐겁게 해주는 일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한 활동과(현지 문화와 관계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되는 부르심을 따르는 일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삶의 요구들.** 기본적인 생존의 현실들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어떤 주부 선교사들은 자녀들을 여러 학교에 데려다 주어야 하며 물건을 사고 요리하며 언어학교나 사역과 관계된 활동들을 위해서는 거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 전문인(자비량) 사역자들은 가정생활과 사회적 의무,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그들의 사역의 요구들이 혼합되므로 사역의 범위가 빈번히 확장되기도 한다. 문제는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 **발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경험하는 정상적인 내적 갈등들을 언급한다. 예를 들면, 중년 남성 사역자들은 일을 바꾸어 사역의 결과로 뭔가 구체적인 것이 나타나기를 원하게 된다. 또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

지에서 배우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해서 살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간다. 노부모를 돌봐야 하는 의무감으로 인해 고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기도 한다. 함께 살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여 중학교에 들어갈 때 고국에 남겨 놓아야 하는지의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내적, 외적 문제들이 있음을 우선 인정해야 하며 기도로 해결해야 한다.

■ **배치 이슈들.** 많은 사역자들은 “7년마다 오는 가려움증”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다른 곳으로 가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싶다는 것이다.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한주에 영어를 6시간 정도 가르친다면 불완전한 취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선교 현지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원하는 전업주부 사역자는 자신이 완전히 활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많은 업무들을 요구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역을 통해 개인적인 성취를 충족시키는 이슈와 씨름하며 희생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 **현상유지의 태만.** 우리 모두는 친근하고 편한 것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타문화권에서 이러한 성향은 심정을 표현하는 어려운 언어보다는 통사어를 배우고 말하고자 하는 욕구나, 현지인들과 관계를 갖기보다는 여행객들과 과외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현지인들과 접촉하는 시간보다는 컴퓨터 앞에서 끊임없는 사역 전략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로 표출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과 본질적인 동기, 책임감과 의무감, 어려운 사역의 과제들에 계속하여 초점을 맞추기 위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

■ **팀 멤버들 간의 차이점들.** 인간의 개인적인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탁월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그 다른 점들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탈로 나타날 수 있다. 사역의 기대들과 생활방식, 그리고 관계들의 차이들은 가능한 한 논의되고, 이해되며, 조화가 되어야만 한다. 차이점들이 숨겨지거나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지면,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

■ **낙담.** 앞의 여섯 가지 여우들은 낙담으로 귀결되며, 낙담은 가장 위협적인 것이다. 낙담하게 만드는 두 가지 이유는 사역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과 다른 지역으로 가는 동료 선교사를 떠나보내는 일이다. 상실감에 대해 애 통하는 것은 건전한 것이지만 억제되지 않은 낙심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약화시키는 비정상적인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낳는다.

그들 자신 안에 있으며 그들 자신에 대한 위의 일곱 가지 여우들은 잘못된 것이거나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교묘하게 우리의 사역을 성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인식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누적된 효과들이다(딤후 4:5). 내적인 압력과 외적인 산만함들은 비록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사단의 힘에 의해 부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단은 두려움을 주는 거인들이나, 굶주린 늑대들이나, 성가시게 하는 파리들만큼 산만하게 만드는 여우들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파괴하기를 즐겨한다.

1) 여우를 잡기 위한 전략

당신은 들에서 여우를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5년 전에 여우 세 마리를 집 근처 숲에서 본 적이 있다. 여우들은 갑자기 튀어 나와서 당신이 그것이 여우인지 알아차리기 전에 사라진다. 당신 생각에 여우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 마리 잡으려고 노력해 보라! 이와 마찬가지로 산만함은—아가서 2장 15절의 작은 여우들—확인하기 힘들며 이해하기는 더욱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피하는 여우들을 잡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여기 여우를 포획하는 입증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깨닫는 것이다.

(1) 자각

“쓰디쓴 진리는 달콤한 거짓말보다 낫다”는 중앙아시아 격언이 있다. 내면을 보는 일은 언제나 편하고 고통이 없는 일이 아니지만,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훨씬 나은 일이다. 시간을 갖고 조용히 사색해 보라.

종종 우리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려하는 친구와 함께하고, 상담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우

리 모두는 자아 성찰과 정직성을 강조하는 훈련된 헌신을 강조하는 성공적인 “회복” 프로그램들(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 습관들을 고치는)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고전적 기독교의 지혜(Foster & Smith 참조, 1993; Huggett, 1993)에 뿌리를 둔 일련의 중요한 영적 훈련이다.

일지나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Shepperson & Shepperson, 1992). 특히 보다 고립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다. 우리가 유용하게 여기는 일지를 쓰는 연습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기*(Connecting With Self and Others, Miller et al., 1988)라는 책에 의해 자극 되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심호흡을 하고 노트를 펴놓고 현재의 관심사를 기록해 보라. 글 쓴 주변에 큰 원을 그려보라. 다음에는 메모를 해가며 아래의 다섯 개의 질문에 답한다. 당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원 안에 기록한다. 당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기도하고 친구와 함께 당신이 발견한 것을 나눈다.

1. 내가 감지하는 것은 무엇인가?(근육과 위와 호흡의 물리적인 감각 등)
2.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감정)
3.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상황들 가운데서의 변화들)
4.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아이디어, 신념, 주제, 내용)
5.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행동들과 행위들)

(2) 책임감

“진실한 친구는 불로장생약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참된 친구를 얻는다”는 유대인의 격언이 있다. 서로 돕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이다. 함께 전략을 세우고 자연적인 표류 과정에 대한 해결을 통해 기도하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절친한 우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선시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종종 우리는 너무 바쁘거나 너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혹은 때때로 “바른” 사람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다. 후자의 경우에 우리는 절친한 친구들과 서신이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친구들은 우리 자신을 더 분명히 보도록 도우며 우리의 사역과 삶에 현실적인 경계선을 그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Cloud & Townsend, 1992 참조).

여기 당신이 좀 더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있다. 친구와 함께 이 글을 읽어 보고 다음의 5가지 항목에 관해 이야기해 보라. 당신은 이것을 당신의 팀이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당신의 “작은 여우들”에 대해 서로 책임을 지기를 원하는지를 토론하라. 달력이나 도표를 사용하는 것이 매일 당신의 행동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예를 들어, 배우자와 기도하는 시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여가의 사용, 원치 않는 습관들).

1. 어떤 면에서 지난 6개월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2. 7가지 여우 중 당신을 가장 산만하게 만들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어떤 여우인가? 그 여우를 사실적으로, 혹은 상징적이나 추상적으로 묘사하는 그림을 그려보라.
3. 당신의 여우들을 잡는 일이 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4. 당신이 사역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세 가지 실제적인 단계들을 제시해 보라.
5. “작은 여우들”에 대해 당신이 가진 어떤 다른 생각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들을 논의해 보라.

2) 결론

왜 봄맞이 대청소를 하지 않고 내적인 압력들과 외적인 요구들을 정돈하지 않는가? 당신 자신과 중요한 다른 이들의 연결을 시도해 보라. 고든 맥도날드(Gordon MacDonald, 1989)가 우리에게 격려하듯 “조용한 시간과 안전한 장소들, 특별한 친구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보도록 하라.

3. 늑대 앞에서의 신중함

선교 인력들은 선교 사역에 스트레스 만드는 늑대들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될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만 한다.

아무도 양갈비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양의 갈비를 일컫는 CHOPS 는 해외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10가지 범주를 기억하도록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이다-역자주). 그러나 만일 사역에 있어서 신중하게 처신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경고를 생각해 보자. “보라,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혹은 우리들)을 용감한 사자들로 보내지 않으시고 목자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양떼에 섞여 보내셨다. 왜 그러한 엄격한 경고를 하셨는가? 왜냐하면, 사역의 삶은 쉬운 것도 아니며 항상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심리학자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일어나는 주요 갈등이 타문화 적응 분야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데 인내하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했다.

실제적으로 시간이 없었으나, 우리는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나 선호하는 것들을 파송단체의 조직문화와 조화 하려는 노력이었다. 이 스트레스의 요인은 우리의 첫 삼년간의 해외사역 기간 동안 가장 큰 갈등으로 입증되었다. 많은 동료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곧 해결되지 않은 대인관계의 갈등이 주는 소모적인 영향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예리하게 깨닫게 되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선교현장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늑대들”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타문화 사역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의 요인들이었다.

우리는 곧 해외 사역의 일부인 여러 늑대들을 확인하고 다루는데 도움을 주는 개념적인 틀을 발전시킬 필요를 보았다. 양 갈비(lamb chops)라는 말 가운데 갈비라는 “CHOPS”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외 사역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0가지의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범주들을 발전시킨 머리

글자다. 우리는 아래의 목록을 포함했고(도표 1을 참조하라), 우리가 선교인력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정식 멤버케어 도구로 그것을 사용했다. 그것은 우리가 선교사의 삶에 스트레스를 만들에 내는 “늑대들”을 다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적용

열 개의 범주를 잘 읽고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의 요인을 적어 보라. 그것을 “갈등”이라고 이름 붙인 칸에 놓으라. 두 번째 칸 “성공”에는 지난 몇 달간 스트레스를 해결한 좋은 방법들을 적어보라. 마지막으로 “전략” 칸에는 미래에 스트레스를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을 기록하라.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의 말을 잘 들어줄 친구와 함께 당신의 반응들에 대해 토론해 보라.

가족, 팀, 부서, 지역, 그리고 전반적인 단체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확인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1년에 한번 조사목록이 완성되고 논의된다면, 그 조사목록은 사역 조직의 여러 차원들을 이해하고 최소화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스트레스의 요인들을 다룰 때,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나오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는 말씀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2) 토론을 위한 질문

스트레스는 우리가 경험하는 내적, 외적 요구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이다. 다음의 질문들은 스트레스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당신이 알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 질문들은 또한 당신이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보도록 도울 것이다. 아래의 다섯 개의 질문들에 각각 답하고 그룹으로 토론하라. 서로에게서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가?

1.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당신의 몸이나 행동, 감정으로부터 당신이 느끼는 현상들이 있는가?
2. 스트레스가 당신의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도표 1.
CHOPS 스트레스 요인 목록

범 주	내 용	갈 등	성 공	전 략
문화적(Cultural)	당신의 필요들을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충족시킨다: 언어습득, 문화충격, 재입국			
위기(Crises)	종종 예기치 않은 잠재적인 충격적 사건들: 자연재해, 전쟁, 사고, 정치적 불안정			
역사적(Historical)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개인적인 갈등들: 가족과 관계된 이슈들, 개인적인 약점			
인간(Human)	가족, 동료, 현지인들과의 관계: 자녀양육, 부부갈등, 팀 구성원들과의 갈등, 사회적 반대			
직업적(Occupational)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도전과 압력: 과도한 업무, 여행 계획, 문제있는 사람들에게 노출됨, 사역에 대한 만족, 더 많은 훈련, 정부의 관료주의			
조직적(Organizational)	배경과 조직의 정서와의 부조화: 정책, 일의 방식, 기대의 차이			
신체적(Physical)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건강과 요인들: 영양상태, 기후, 병, 노화, 환경			
심리적(Psychologica)	전반적인 감정적 안정감과 자존감: 외로움, 좌절, 우울증, 원하지 않는 습관, 발전에 관한 이슈들/삶의 각 단계들에 대한 이슈들			
후원(Support)	자신의 사역을 유지할 자원들: 재정, 주택, 목회적, 기술적 도움, 후원자와의 접촉			
영적(Spiritual)	주님과의 관계: 경건의 생활, 미묘한 유혹들, 성도들과의 시간, 영적 전쟁			

위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은(해당 대상에 ○표) 자신, 배우자, 자녀, 친구, 부서, 팀, 회사에 적용된다.

3. 당신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통과했던 마지막 때가 언제였는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간단히 묘사하라.

4.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방해하는 늑대들, 즉,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신 경우가 최소한 25회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몇 가지 경우를 당신의 경험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

5. 스트레스를 다루고, 당신의 삶을 유지시키며 늑대들을 가두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4. 파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내적 갈등들의 배후에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는 시도가 있다. 종종 개인적인 문제들은 합법적인 고난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노력들로부터 연유한다.

많은 타문화 사역자들은 파리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다. 파리가 찻잔에 빠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덥고 습도 높은 어느 날 내가 태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아마도 파리는 수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혹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잔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때 회의실에서 현지 거류 외국인 사역자들 40여명과 함께 여러 개의 책상에 앉아서 전략을 논의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 모임에 초대받은 것은 처음이었으므로 나는 뭔가 특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내 유리잔에 빠진 파리 한 마리 빼고는 모든 것이 좋았다.

1) 파리로부터의 오염

재빠르게 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파리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 위해 경건회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을 상기하려고 아침 경건회 시간을 떠올렸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전 10:1). 내게 그 구절의 적용은 분명했다.

나는 현재 “지도자”로 포함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특별한 사람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런 것 같다. 그러한 태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잘못된 걸음으로 시작하는 것에 관해 말해보라! 아니면 잘못 된 파리로 시작하는 것에 관해 말해보라! 더욱이 죽은 파리들이 값비싼 향유를 썩게 만들듯이 나는 나의 태도가 궁극적으로 나의 삶과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고후 2:15)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았다. 이 특사는 내 주의를 끌므로 그 임무를 다했다.

2) 파리의 특징

파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고의로 향유에 파리를 집어넣는 사람은 없다. 파리와 향유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삶을 오염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향유 속의 파리와 같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불타고 우리의 지혜와 명예와 사역에 무질서를 초래한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다(고전 5:6).

다른 것보다 더 위험한 어리석음이 있다. 예를 들면, 몇 마리의 집파리는 우리에게만 해를 끼칠 것이다. 파리는 성가신 존재들이다. 우리 삶에서 원하지 않는 습관들과 우리가 제거하려는 인격의 연약함과 비교해서 유비적으로 파리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많은 파리들, 특히 물어뜯기도 하고 찌르기도 병을 옮기는 파리들은 우리에게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 자백하지 않은 죄와 인정하지 않은 교만, 숨겨진 중독증, 불건전하고 거룩하지 못한 왜곡된 인격의 모습과 같은 심각한 어리석음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라.

당신은 그러한 심각한 어리석음—잘못된 행위들과 태도들—의 공적이거나 사적인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적 생활을 무력화시키며, 우리의 청렴성을 타협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주목해 본적이 있는가?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하느니라” (전 9:18). 이것은 죄인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이다!

파리로부터 연유하는 우둔함은 다양한 강도와 주파수를 띠고 있다. 그것은 단 한번의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볼 수 있으며 교훈을 빨리 배울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파리를 꽤 쉽게 없애버릴 수 있다. 어리석음은 간헐성을 지닐 수 있다.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우리 위에 기어오르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자아 통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징을 띠며 우리 삶에서 진행되는 사건들과 연관될 수 있다. 그것들은 우리 주위로 날아드는 파리 떼와 같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그 어리석음은 수치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강도가 약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우리 삶이 얼마나 덕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명예나 하나님의 영광에 흠을 낸다. 수치는 어리석음의 실질적인 내용들에서(예를 들면, 험한 말들, 의심스러운 재정관리, 육체적 혹은 감정적 불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적합한 행동의 여파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문제나 죄를 부인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환난 날에 돕기(히 4:16)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욕구를 거부하거나 최소화 한다. 그러한 거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치와 치욕”의 상태로 빠지는 것임을 생각하라.

3) 오점을 남기는 파리

우리의 삶의 파리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외부의 도움들, 즉 친한 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도움이 종종 필요하다. 가장 큰 어리석음의 원천들 가운데 하나는 세 종류의 “날아다니며 오점을 남기는” 원천들인 파리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더 흔하게 날아드는 파리의 이름들을 지어보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 2:15-16)과 같은 죄는 많은 날개의 형태를 띠고 있다.

■ **은밀한 중독(mosca compulsiva)**. 이것들은 우리의 시간과 판단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은밀한 강박관념이다. 그것들은 숨겨져 있지만 얼마 후에 당신은 악취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운동, 일광욕, 거식증이나 탐식증, 자신의 외모나 몸매에 대한 몰두, 미루는 습관, 후퇴, 쇼핑, TV 시청, 인터넷 사용 등과 연관된 과도한 행위들은 이 모든 것들의 일부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것을 피하고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로 우리 자신들을 안정시키거나 자극한다. 포르노나 도박, 마약 중독 같은 것은 우리를 보다 무능력하게 만들기조차 한다.

■ **억울함**(*mosca vinegari*). 헨리 나우웬은 우리 삶에서 “사랑과 상처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다. 비록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상처를 주고 용서로 해결하는 것은 상처를 숨기고 왜곡되고 굳어진 억울함으로 우리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보다는(히 12:15) 확실히 보다 바람직한 일이다. 특정한 공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사면하는 자비의 행동인 용서는 그런 괴로움을 해독하는 유일한 길이다.

■ **부적합한 말**(*mosca maximus moutha*). 우리의 입은 남을 높이기도 하고 당황하게도 하는 원천이 된다. 사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약 3:8). 말의 실수는 급하게, 부적합하게 하는 약속, 특히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잠 20:25; 전 5:1-7). 또 터무니없는 말이나 문제되는 이야기나 농담, 도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추한 농담(엡 4:3-4),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게 해를 끼치는 험담, 너무 가혹하거나 경우에 맞지 않는 비판 등이 포함된다.

■ **교만**(*mosca maximus rex*).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손아귀에 넣어 남의 주목을 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한다. 자신이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를 점유하고 주요 인물이 되고 싶은 유혹은 흔히 받는 것이다. 허풍 같은 자랑과 자신을 크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두 가지이다. 그것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그들의 성공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쁨부음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신 8:17) 사람들을 잠시 비상하게 하는 두 날개이다.

■ **개인적인 파리들**(*mosca mia perpetua*). 우리를 괴롭히는 파리들의 목록은 끝이 없다. 당신은 죽어있거나 살아있는 파리, 또는 당신의 영혼의 잔에 떠다니는 파리를 확인할 수 있는가?

4) 파리잡기

우리는 그릇된 험박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미묘한 것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일련의 과정이다. 우리는 일부를 잡고 일부를 놓친다.

방어의 첫 단추는 우리의 개인 성장에 힘쓰며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다. 즉, 주님께 가까이 머물며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며 주위 환경의 영향력을 감지하고 절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파리들이 날아들면 그 존재와 영향력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자백)과 그들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의미심장 변화들과 개심을 선택하는 것(회개/원상복구),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도록 돕는 다른 사람들의 지속적인 지원(신뢰 속의 나눔)을 통해 가장 잘 다루어질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신뢰하는 친구, 성경 묵상, 상담, 그리고 바람직한 후원 그룹이나 “12단계” 프로그램은 모두 중요한 도움의 원천이며, 특히 치명적인 파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백과 회개/원상복구, 책임과 의무는 잘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과 같다(전 4:12). 우리는 모기장과 같이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지켜주고, 안전한 그물과 같이 우리가 추락할 때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보호막을 짜는데 그 삼겹줄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생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옷 입기 위해 무엇인가를 더욱 갈망한다. 우리는 자신의 파리들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기를 열망한다. 이생의 삶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맛보았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완전함을 갈망하며 결코 헤치지 않을 옷을 입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래리 크랩(Larry Crabb, 1988)이 말하듯이, 고통하는 영혼은 감정적 문제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직면한다는 표시이다. 그것은 건강의 표시이다.

이 글을 끝내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자.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들(다수)을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개인)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 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32). 그것은 우선적으로 베드로의 신실함을 예언하신 것이지 그의 실패를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주목하라.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리석음을 갖고 씨름하는 것을 보실 때, 베드로를 보시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믿는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셨듯이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시며 그의 양을 치라고 하시며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신선하고 신실한 향기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신다(요 21).

† 참고 문헌 †

Cloud, H. (1992). *Changes that heal*.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Cloud, H., & Townsend, J. (1992). *Boundaries: When to say yes, when to say no*.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Crabb, L. (1988). *Inside out*.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Foster, R., & Smith, B. (1993). *Devotional classics: Selected readings for individuals and groups*. San Francisco, CA: Harper-Collins.

Hart, A. (1990). *Healing life's hidden addictions*. Ann Arbor, MI: Servant Publications.

Huggett, J. (1993). *Finding God in the fast lane*. Guilford, Surrey, UK: Eagle.

MacDonald, G. (1989). *Renewing your spiritual passion*. Nashville, TN: Thomas Nelson Publishers.

Miller, S., Wackman, D., Nunnally, E., & Miller, P. (1988). *Connecting with self and others*. Littleton, CO: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Programs.

Shepperson, V., & Shepperson, B. (1992). *Tracks in the sand: An interactive workbook (for recovery journaling)*. Nashville, TN: Thomas Nelson Publishers.

Wilson, S. (1993). *Hurt people hurt people*. Nashville, TN: Thomas Nelson Publishers.

* 이 글은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1995, 12권 185-188쪽)에 게재된 멤버케어 이슈에 관한 특집에 실린 글을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은 후에 다시 보충하여 네 편에 걸쳐 *Reaching Children at Risk*(1998, vol. 2, no. 1, pp. 28-29; no. 2, pp. 6-10; no. 3, pp. 11-14; and 1999, vol. 3, no. 2, pp. 26-29)에 게재되었다.

제 24 장

선교지에서의 성적 순결



켄 윌리엄스 *

건전한 성의식은
오늘날 어느 곳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선교사들이 분별력 있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딤후 2:11-15) 성경의 가르침
/훈계를 따르려할 때,
그들은 이 영역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선교지에서
순결하게 자신을 유지하고
약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4:3-4

우 리 모두는 선교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실패를 알고 있다. 그런 일이 가까운 동역자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 모두는 참으로 낙담하게 된다. 조잡하고 포르노성이 농후하거나 수치스러운 성적 자극으로 가득 찬 서구사회에서 교회는 이제 그러한 자극을 어느 정도는 “정상적”이고 용납

* 켄 윌리엄스(Ken Williams)는 페퍼다인(Pepperdine) 대학에서 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인간행동 분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켄과 아내 바비는 1957년 이래로 위클리프 성

할만한 것으로 여기는 상황이다. 왜곡된 성의식의 팽배는 일반적인 사람이거나 교회, 특히 선교지에서 우리 영혼의 적인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이다. 교묘한 유혹에는 제한이 없다. 사단은 몇 년 전만 해도 효과가 없이 보였던 방법인 부도덕의 문제로 우리를 노골적으로 유혹한다.

오늘날 성 문제에 대해 분별력을 갖기는 매우 힘들다. 우리 각자는 성적인 존재로서 책임감을 갖는다. 이것이 의미하바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사단의 성적인 유혹에 저항하는 싸움은 영적 싸움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성적인 문제나 갈등이 때때로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싸우도록 돕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장에서 나는 선교사 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죄에 대해 연약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나는 성적인 유혹의 역학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도덕적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고자 한다. 성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자기 평가의 도구 두 가지를 첨부했다.

이 글은 청소년 선교사 자녀들의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제 또한 중요하다. 부모 된 선교사들과 교사 선교사들은 청소년 선교사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성적인 문제를 성숙하게 다루도록 돕는데 이 글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1. 위험성을 자각하라

우리는 성에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이해하듯이 성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면을 이해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강력하

경번역 선교회와 국제 SIL에서 섬겨왔다. 그는 과테말라의 추(chuj)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했고 6년간 국제 위클리프의 원장으로 사역한 것을 포함하여 22년간 상담가로 섬겼다. 1992년부터 그는 국제 위클리프 인사 훈련 자문으로 일하며 선교사역을 했다. 그는 다양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40여개의 기관이 동역하는 ITP(International Training Partners)의 원장이다. ITP는 선교사들을 위해 국제적 대인관계기술을 위한 워크숍을 제공하기도 한다(www.RelationshipSkills.com).

Email: kenwilly@mindspring.com.

고 매력적인 선물이다. 성에 대한 일반적인 글은 우리 안에 있는 성적 감정이 악한 것이라는 그릇된 가정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성은 인간의 타락 전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구상이었음을 기억하자(창 2:18-25). 이 글에서는 부적절한 성적 표현과 유혹, 특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는 사단의 전략을 아는 것이다. 바울은 깨어있으라고 경고한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꾀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고후 2:11).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계획을 자각하자.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지을 만큼 타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성적인 유혹에 대해 매우 연약해지는 특별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당신이 저항할 수 없도록 당신의 능력을 저지하는 특별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생각해보라. 그 요소들은 외로움과 익명성, 충족되지 않는 감정의 필요, 성적으로 더 개방된 선교지 문화, 가족과 교회, 친구 같은 조직적 지원의 부재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장기간의 냉혹한 스트레스는 유혹을 이길 힘을 약화시킨다.

때때로 선교사들은 자신은 성적인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므로 유혹에 빠지기 쉽다. 죄를 범할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음이나 혼전 순결을 범한 선교사들을 상담해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부도덕한 죄에 대해 취약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당신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것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그 구절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전제 전에 이 엄한 경고를 먼저 주셨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아도 굳게 설 수 있다고 순진하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유혹받을 때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주할 수 없다.

우리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성적 유혹에 매우 연약

하다. 나이가 많은 적든 결혼을 했던 안했던 성숙도에 상관없이 연약한 것이다. 당신은 포르노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포르노는 선교사들, 특히 남자선교사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새로운 차원의 유혹이다. 얼마 전에 Focus on the Family는 목사 부부들이 도움을 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중독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해도 당신은 매력을 느끼는 사람과 실제적인 성적 문제는 일으키지 않더라도 “게임을 즐기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 게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말로 희롱하기, 특별한 관심 보여주기, 도에 지나치는 접촉, 필요 이상으로 시선을 맞추는 일,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 사랑을 주제로 농담하는 일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한 일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협으로 몰아갈 수 있다.

많은 선교사들은 간음과 혼전 성경험, 동성애, 근친상간, 어린이 성범죄 등에 연루되어 있다. 비극적인 것은 그들이 성적 유혹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사단의 도살장에서 어린양처럼 삶을 마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위험성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며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승리의 전투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2. 성적 유혹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

많은 선교사들은 성적 유혹의 강력한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이 그 역동성을 이해한다면 당신 안에서 진행되는 유혹의 힘을 감지하고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1. 우리는 한 순간에 죄를 범하지 않으며 부지중에 죄를 범한다. 누군가가 성적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갑자기 절벽위에서 죄의 심연 속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성적 죄가 행위로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기간동안 유혹에 자신을 내주며 죄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가운데 발을 담그고 있던 전과가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

에 의하면 성적인 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마 15:19). 간음의 불씨가 행동의 화염으로 나타나기까지 몇 달 또는 몇 년간 연기만 내며 타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 28절, 12장 35-36절, 잠언 4장 23절, 6장 18, 23절, 26-28절을 보라.

2. 부도덕의 시작은 종종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으므로 그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성으로 포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 TV프로그램이나 영화, 잡지, 인터넷의 포르노 등은 우리에게 부적합하고 강력하며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발전되는 성적욕구를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그 과정은 너무 느리고 미묘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적 죄에 대한 혐오심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우리 사회는 성적 유혹에 대한 노출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죄에 대한 혐오감이 발달되지 않았다. 개인적인 성적 범죄의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뿌려져 있는 것이다.

3. 자기 기만 능력은 실로 제어할 수 없다(렘 17:9).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자기 기만의 능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능력이 죄를 이긴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적 범죄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상담을 하면서 나는 성적인 영역만큼 자기기만이 강하게 일어나는 곳은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들은 대부분 비밀스러운 부도덕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해 섬기며 범죄가 드러난 후에야 “회개하는” 신자들을 알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갈라디아서 6장 7-8절, 에베소서 5장 6절, 야고보서 1장 22절, 요한1서 1장 8절을 보라.

4. 친밀한 개인 관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친밀감에 대한 정당한 필요와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러한 필요를 거부하는 것은 성적 유혹에 대해 자신을 더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나 독신이나 모두 다른 사람들과의 건전하고 거룩한 관계를 필요로 한다. 친밀감과 성적관심은 다른 것이다. 친밀감에 대한 건전한 성경적인 관점은 낭만적인 감정이나 성적인 욕구 없이도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를 맺도록 허용

한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까운 친구들에게 행하신 모델을 보라.

5. 친밀한 관계는 종종 심각한 죄의 유혹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밀감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의로운 동기로 시작한 관계로 인해 성적 범죄로 빠져 든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발전된다.

- 남자와 여자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것은 사역과 공통의 관심사와 일을 통해서이다.

-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특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 한쪽이나 쌍방이 깊은 감정적, 영적 필요가 그 관계 속에서 채워짐을 느끼게 된다.

-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그들은 서로 육체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때로는 그릇된 동기 없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점점 육체적 접촉은 의미 있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며 낭만적이고 성적인 느낌을 양산한다.

- 그들은 강력한 자기 기만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일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게 된다.

6. 일단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성적인 유혹은 어떤 힘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끄는 힘이 될 것이다. 그릇된 성적 욕구는 너무 강력해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배우자와 어린이, 가족, 사역, 명예, 친구 등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러한 능력에 저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

포르노에 빠져든 상태는 극복하기가 매우 힘들다. 한번 중독되면 머리에 서 포르노 영상이 떠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료나, 지지그룹이나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중독에서 회복되는 일을 혼자 이루어낼 수는 없다.

3. 수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음에 대해 말하기를 매우 꺼려한다. 터부시하는 주제이지만 중요한 것이므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그리스

도인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을 겪었거나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죄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수음이 항상 무죄라고 정당화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언제나 유죄라고 판단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내가 아는 한 성경은 죄악 된 성행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수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리처드 포스터는(Richard Foster, 1985) 그의 책 『돈, 섹스, 권력』(Money, Sex, Power)에서 5가지 “논란할 여지가 없는 사실”을 나열하며 수음의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다. “첫째, 수음은 육체적으로 해롭지는 않다. 둘째, 성경 어느 곳에서도 수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욕은 절제될 필요가 있다. 이 사실은 셋째 논조를 뒷받침한다. 절제되지 않은 수음은 강박과 집착을 넘어 상상승배로 나가게 된다. 넷째, 수음시의 성적 환상은 무시할 것이 아니라 혼란해야 할 인간 삶의 실제적인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수음은 짜릿함을 주지만 완전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 주제를 포스터가 더 완전하게 다룬 것을 살펴보자. 랜디 알콘(Randy Alcorn, 1985)도 『성 혁명 속의 그리스도인』(Christians in the Wake of the Sexual Revolution)에서 수음에 관해 조언하고 있다.

4. 지속적인 도덕적 순결을 위한 전략 구축

당신이 성적인 범죄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돕는 11가지 원리가 여기 있다.

1. 당신이 성적 유혹의 공격에 연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적 유혹의 역동성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이해하고 평가해 보라.

2. 결혼한 상태라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라. 스트레스로 인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잠 5:18-20).

3. 당신이 과거나 현재 관련되어 있는 죄악 된 성적 행위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보라. 그것은 당신을 성적으로 자극하고 만족시키지만 죄로 알고 있는 생각과 환상, 느낌, 행동 등이 될 것이다. 또한 그 목록에 당신이 자주하

는 생각이나 행동 가운데 해가 되지는 않지만 거룩한 삶에 기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추가해 보라. 그것은 먼저 기록한 목록보다 덜 분명한 생각이나 환상, 느낌이 될 것이다. 그것은 TV 프로그램이나 잡지같이 포르노는 아니지만 육체에 호소하는 힘을 가진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것들은 고린도 전서 6장 12절에 따르면 허락 할만한 것이지만 당신이 그것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로마서 8장 5절이 말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

4. 결혼했다면 성적 범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배우자에게 헌신하라.

당신의 헌신의 결심을 기록하고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놓으라. 그것은 새롭게 확인해야 하는 헌신이다. 때로는 순간순간 재확인해야 한다.

5. 성경 연구와 암송, 묵상, 적용에 대한 평생의 계획을 만들라. 시편 119편 9절을 보라. 이 영역에서 몇 개의 주요 구절은 잠언 5장, 6장 20-35절, 로마서 6장 1절, 고린도전서 6장 12-20절, 에베소서 5장 3-1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8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전략의 주요 부분이 되어야 한다.

6. 골로새서 3장 5절을 엄격하게 실천해 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도 보라. 3번 목록에 기록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구하라.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인간이므로 당신은 때때로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낙담하고 포기하지는 말라. 사단은 당신에게 그것은 소망이 없는 일이며 당신은 더 나아질 수 없다고 확신시키려 할 것이다.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먼저 유혹받고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사실을 재확인하라. 그리고 당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확인하라. 이 싸움에서는 몇 초라도 주저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승리와 패배의 차이를 가져온다(전 8:11).

7. 마음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라(골 3:10; 엡 4:23-24). 새롭게 하는 것은 자주 확인해야 하는 헌신을 포함한다. 특별히 당신이 유혹을 처음 자각할 때 헌신을 재확인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된 과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해하기 매우 쉽다. 그 과정을 말씀으로 연구하라. 로마서 8장 5-8절, 12장 1-3절, 빌립보서 4장 4-8절, 골로새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3-17절을 연구하라.

8. 내면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성의 기도 파트너를 만들라. 우리는 영적인 유혹을 혼자 효과적으로 다루기를 바랄 수 없다. 사실,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홀로 살아남도록 만드시지는 않으셨다. 히브리서 3장 12-13절은 우리는 “죄의 속임수로 강박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것”(약 5:16)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일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기도하는 친구와 함께 죄를 나누는 만큼 불륜과 관계된 환상이나 생각들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이 때 구체적인 사항을 다 나눌 필요는 없다.

9. 유혹의 첫 번 신호를 간파하기 위해 “초기 경고 시스템”을 개발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유혹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빠져 들어간다. 로마서 6장 12절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순종할 자유를 잃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다른 이성에게 유혹을 받거나 감성적으로 매력을 조금이라도 느낄 때 즉각적으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책임감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10. 당신의 위험지역을 알고 피하라.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유혹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피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앞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승리에 필요한 어떤 단계이든지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 가능한 위험지역의 예들이 있다.

- 홀로 해외여행을 할 경우
- 이성과 단 둘이 일할 경우
- 이성과 단 둘이 상담하거나 기도할 경우
- 아무도 보지 않는 방안에서 이성을 만날 경우
- 유혹에 저항할 힘이 고갈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

11. 문화에 따라 다른 암시를 이해하라. 당신이 다른 문화권에 있다면 어

편 암시가 부도덕하게 보이는 것인지 어느 암시가 도덕적으로 보이는 것인지 배우라. 여기 4개의 질문이 있다.

- 어떤 암시가 그 사람이 도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가?
- 어떤 암시가 그 사람이 이성으로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가?
- 어떤 암시가 그 사람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가?
- 어떤 암시가 그 사람이 이성으로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가?

부도덕한 암시를 피하라. 부도덕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암시를 연습하라.

5. 결론

성적인 부도덕은 용서되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다. 용서와 치유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능하다. 당신이 부도덕에 연루되어 있었거나 현재 그렇다면 당신은 회개와 자백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파괴적이며 고문 당하는 듯한 경험이 될 것이다. 한평생 당신 앞에 놓인 유혹과 싸워야 할 것을 알고 당신의 도덕적 삶의 전략을 오늘부터 세워보라.

6. 토의 주제

아래의 부록 1에 나오는 “나는 도덕적 순결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답해 보라. 그 결과를 친한 동성 친구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룹이나 배우자와 나누어보라. 부록 2도 비슷한 것으로서 개인이나 부부가 함께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부록 1

나는 도덕적 순결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당신의 반응을 나타내는 다음의 척도를 사용하라.

1 = 거의 안함 2 = 아주 가끔 3 = 가끔 4 = 자주 5 = 거의 언제나

- ___ 1. 나는 성적인 죄에 대한 나의 연약함을 의식적으로 깨닫고 있다.
- ___ 2. 나는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그 기준으로 살도록 주의하고 있다.
- ___ 3. 나는 이성과 육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 주의하고 있다.
- ___ 4. 나는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그룹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 ___ 5. 나의 행동은 어떤 문화권에 있어도 내가 도덕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___ 6. 어떤 사람에게 정욕을 품게 될 때 나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굴복시킨다.
- ___ 7. 나는 이성과 말장난하며 시시덕거리는 것을 조심한다.
- ___ 8.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흥을 돋우는 것을 거부한다.
- ___ 9.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면 나는 양편의 감성을 자제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애쓴다.
- ___ 10. 도덕적으로 위험 부담률이 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위험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 ___ 11. 내가 부도덕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는 순결의 안전지대로 돌아가기 위해 즉시 발걸음을 옮긴다.
- ___ 12. 나는 우리 문화권이나 다른 문화권에서 옷을 입을 때 서로의 도덕성을 보호해주는 배려를 하며 옷을 입는다.
- ___ 13. 나는 나의 정당한 감정적인 필요가 경건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있다.
- ___ 14. 나는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나를 격려하고 강건하게 하는 성구를 암송한다.
- ___ 15. 나는 그리스도와 매우 강력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므로 어떤 종류의 부도덕함에 빠지는 것도 혐오한다.

부록2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는 것: 성숙을 위한 기회

다음의 질문들은 묵상적인 성찰이다. 다음을 검토하고 행동계획을 세워보라.

개인 문제

-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 성적 유혹에 대한 연약함을 묘사하라.
 -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 순결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 나는 부도덕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 5년 전과 비교하여 나는 어떤 상태인가? 1년 전과 비교한다면? 6개월 전과 비교한다면?
 - 완전한 순결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 부도덕으로 향하는 다섯 단계에 나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가? (“성적 유혹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에서 5번을 참조하라.)
 - 그렇다면 누구인가?
 - 어떤 단계에 있는가?
 - 이 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언제 실천하겠는가?
- 현재 유용한 도덕적 순결을 위한 전략은 어떠한 것인가?
 - 나는 어떤 면을 실천하고 있는가?
 - 내가 해오던 것 중 단절할 것이 있는가?
 - 나의 전략에 새롭게 첨가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언제 나는 그것을 더할 것인가?
- 도덕적 순결을 위해 나는 어떤 성구를 암송하는가?
 - 얼마나 자주 그 구절을 떠올리는가?
 - 나의 영적 무기고에 첨가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영적전쟁 구절”은 무엇인가?
 - 다음의 성구를 암송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20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에베소서 5장 3-5절.

기혼 부부의 문제

- 당신의 배우자와 개인적인 문제를 나누라.
-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과 결혼생활에 일어나고 있는가?
- 도덕적 순결을 어렵게 만드는 어떠한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
- 성적인 유혹과 다른 도덕적 주제에 대해 배우자와 얼마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가? 이러한 유혹에 대해 성숙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의 순결을 보다 수월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어떤 식으로 부부의 사랑을 강화시킬 수 있겠는가?
-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감정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육체적 필요에 대해서는? 영적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 부부의 도덕적 순결을 위한 전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효과적인 전략이 되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순결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에게 말하거나 요구하고 싶은 것들로는 이외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참고문헌 †

- Alcorn, R. (1985). *Christians in the wake of the sexual revolution*. Portland, OR: Multnomah Press.
- Foster, R. (1985). *Money, sex, and power*.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 Hybels, B. (1989). *Christians in a sex-crazed culture*. Wheaton, IL: Victor Books.
- Stafford, T. (1989). *The sexual Christian*. Wheaton, IL: Victor Books.

* “나의 멘토이며 격려자이며 오랜 친구이며 이 글을 쓰도록 자극을 준 WBT의 짐 홀스클로(Jim Holsclaw)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제 25 장

케어 제공자의 생존 전쟁: 개인의 책임

비트에 있는 UN 빌딩 꼭대기의 발코니에 서서, 나는 10층 아래를 내려다보며 모든 것이 끝나 버릴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했다. 내안의 모든 것들은 그동안 내가 목격했던 공포와 고통, 좌절, 절망으로부터 탈출을 갈망하고 있었다.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안전한 곳, 평화와 안식을 갈망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았다. 다만 내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내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직 남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 파울라 오키프(Paula O'Keefe)는 1993년부터 이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역해 왔다. 러시아어와 심리학을 공부하고 교육학으로 자격증을 얻은 후, 그녀는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1999년 그녀는 기독교상담 분야에서 더 훈련받기 위해



파울라 오키프 *

이 글은 전쟁의 공포와
황폐함 속에서
저자가 다른 몇 그리스도인
동료들과 더불어
어떻게 그것을 참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내적 갈등, 특히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갈등은 생명을
잃는 외적 위협만큼
현실적이었다.
나라 안의 명칭들과
장소들은 신변의 이유로
변경되었다.

그날 아침, 나는 산을 올리는 천둥소리에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순간 내 몸을 휘감은 두려움과 공포는 그것이 폭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가라앉았다. 나는 잠자는 순간에도 내가 얼마나 긴장해 있었는지 깨달았다.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내 몸 안에 갑작스럽게 높아진 아드레날린의 수치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나는 몇 주 전에 강간을 당한 나의 친구, 아이샤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한 무장한 이웃이 내가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느 날 밤 그녀가 혼자 있을 때 강제로 침입하였다. 나는 무장 군인들에 의해 기차에서 강제로 하차 당해야 했던 찬양 인도자 발레라를 생각하며 극심한 무능력감으로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그를 찾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정부관리, 동료 선교사와 신자 중 아무도 없는 듯 했다. 크게는 이 비극적인 일로 교회가 갈라진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결국 잠은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아침 늦게, 한 선교 단체로부터의 이메일을 받기 위해 나는 UN 건물로 향했다. 외부 세계로부터의 소식은 흥분되는 일이다. 나는 그러한 불행이 찾아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내게 필요로 했던 정신적 지지를 받았더라면,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경험했던 그 끔찍한 일들이 내게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은 어떤 면에서 교회의 분열과 발레라의 행방불명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본국 교회 목사님의 이메일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가 된다. 나는 몇 주 동안 목사님과 개인적인 연락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그 지역의 다른 선교사로부터 나에게 관한 좋지 않은 소식만을 들었던 것이다. 이 선교사는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을 싫어했으며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당시에 내가 아는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선교사역은 가정교회의 인도; 구호사역과 난민촌, 고아원, 병원에서의 외상충격 상담; 난민을 위한 주택재건 기획이 포함된다. 그녀는 현재 전쟁으로 외상충격을 경험한 난민들을 위해 상담센터를 설립하는 중이다.

Email: paulaokeefe@hotmail.com

최선의 방식으로 처신했지만, 완전히 지친 상태였다. 그 순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며, 지지해주는 사람이었다.

당시 나는 20대 중반이었으며, 전쟁 지역에서 1년간 사역하고 있었다. 나는 현지인들과 함께 일하던 유일한 외국인이었다. 나는 본국 교회에 본부를 둔 신앙 선교단체에서 파송되었으므로 정기적인 수입이나 월급을 받지 못했다. 내가 받은 대부분의 돈은 모금된 적은 선교비와 함께, 친구나 후원자들로부터 온 헌금들이었다. 나는 언제까지 전쟁 지역에 있어야 하는지, 휴가나 안식년은 언제 가져야 하는지, 전혀 규정된 날자가 없었으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자유롭게 행하였다. 이러한 자유는 여러 면에서 좋았지만, 일중독 성향이 있는 나로서는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역으로 지나치게 일만하게 되었다.

전쟁이 한창일 때 다행히 나는 그 곳에 없었지만, 20세기 전쟁 지역에서 삶의 공포를 직접 경험하였다.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나는 그 지역에서 즉각 도피했다. 때로는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다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기도함과 기도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은 그들과 함께 그 곳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으며, 그분은 그 끔찍한 일로부터 나를 보호하셨다. 하지만 나는 폭력과 무법천지의 세상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나의 친구들은 강간과 폭력, 강도, 납치의 희생이 되었다. 나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했던 때만마다 나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치러야 할 값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전쟁의 부수적인 결과로 찾아온 박탈감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고갈시켰다. 오랜 기간동안 전기나 가스, 먹을 물이 없이 지냈으며, 먼 길에 물을 운반하며, 충분한 잠을 취하지 못하며, 따뜻한 집과 목욕이 불가하며, 전화선이 없으므로 외부세상과 단절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끊임없는 긴장감을 주었다.

나는 난파의 순간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나 스스로를 도울 수가 없었다. UN 건물 꼭대기에서 자포자기의 상태로 절망감에 휩싸여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내가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던 컴퓨터의 주인을 그 순간 내게 다가오게 하셔서 나의 사정을 묻게 하셨다. 나는 내가 느끼는 절망감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그녀는 나를 지지하며

격려했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며 함께 기도하였으며 자신의 아파트에서 며칠간 쉬지 않겠느냐며 나를 초대하였다. 그녀와 그의 남편은 다른 서양인들에 비해 매우 검소하게 사는 편이었지만, 나에게서는 최상의 수준의 호텔 같았다. 그들은 TV와 비디오가 있는 독방을 내게 주고 여왕처럼 대해주었다. 나는 아침마다 늦잠을 자고 쉬며 그들이 사무실에 나간 동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저녁마다 그들은 나를 위해 훌륭한 요리를 해주었으며, 나의 말을 들어주었으며,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마치 그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찬양 인도자였던 발레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그들과 함께 며칠을 보낸 후, 나는 정상궤도를 되찾게 되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보내심으로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와 안전과 쉼의 공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린다.

1. 내가 배운 것은? 다른 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나를 좌절감에 빠뜨린 것은 장기간 여러 요인들이 복합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경험과 그 경험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나눔으로, 전쟁지역의 선교사들이 대면하고 있는 압력들이 조금이나마 설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선교사들이 보다 적절하게 후원될 수 있는 방법과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보다 잘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바를 설명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많은 것들은 매우 기본적인 것들이다. 나는 그 대부분을 머리로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삶에서 구체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나의 영혼 깊은 곳을 향해 말씀해주시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1) 나의 인간성

나는 전쟁 지역에서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당신이 선교사일 경우, 사람들이 종종 당신을 초인이 되기를 바라는 현

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들은 선교사란 사람은 자신을 위한 필요도 느끼지 않으며 현지인들을 위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어야 하는 존재로 본다. 그러한 기대는 나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일들을 하게 하며, 나의 필요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감정을 계속하여 억누르게 하였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형제자매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나는 초인이 아니다. 나는 감성과 필요가 있는 여성이며 나의 마음을 나눌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2) 목사와 교회의 후원

왜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이메일로 인해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메일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도착하여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며, 이 세상에 혼자되었다고 느끼도록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 말한 것을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본국의 교회가 믿었다는 사실은 내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 듯 보였으며, 내가 얼마나 갈등하며 그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이 어떤 것인지 설명했다. 그에 대한 답장으로, 목사님은 그가 내 편에서 나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이메일을 내게 보내주셨다. 그와 같은 답장은 내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목사님이 내 편에서 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

3) 훌륭한 의사소통

전쟁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교사는 적합한 후원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 내가 이해하는 “보호”란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권위가 있으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역할은 우리를 파송한 사람들이 맡는 것이 좋다. 그들의 역할은 목회적이다. 목자가 양을 관리하듯 우리를 목회적으로 케어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

며 격려해야 한다. 상처받았을 때 싸매어주어야 하며, 길을 잃었을 때 집으로 인도해야 한다(겔 34장). 그들은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 같이”(히 13:17) 계속하여 우리를 돌보아야만 한다.

선교사들은 본국 교회에서 물리적으로 너무 먼 곳에 떨어져 있으므로, 편지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자신들이 지지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선교사들은 본국교회나 선교회가 그들을 100% 후원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행복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선교사 역시 본국 사람들에게 상황을 자주 알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전화나 이메일이 없이 오랫동안 생활했으므로, 이 부분에서 나의 책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책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해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한다는 생각의 부수적인 고통이 없이도, 선교사가 되는 것은 매우 외로운 입장이 될 수 있다.

4) 현지 사역 팀과 절친한 친구

내가 좌절감을 느낀 또 다른 이유는 나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당신 주위에 현지인이든지 외국인든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다. 당신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필요를 나누고 기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선교사들은 최소한 한 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어야 한다. 그 당시에 나는 어떤 현지인과도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없음을 느꼈다. 또 주위에 나와 같은 외국인은 아무도 없었다. 때때로 나는 선교지의 상황에서 외국인의 느낌을 진실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주님은 내가 처절함을 느끼는 순간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다. 주님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교사 부부를 만나도록 축복하셨던 것이다.

5) 디브리핑

우리가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신적 상처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일이 우리 자신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여기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기 쉽다. 참으로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낼 기회를 나중이라도 찾아야 한다. 나는 내 자신이 경험한 많은 일들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이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다. 물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한 이후 인간인 나에게는 그 후유증과 감정을 다룰 기회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기회는 필요했다. 하나님은 내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나의 이야기를 장시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상담가를 만나게 하심으로 나를 도우셨다.

2. 침입 그리고 더 큰 교훈

물론, 거기에는 나를 와해시키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었다. 전쟁 전 몇 달간 나는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첫 번째 전쟁은 공식적으로는 1년 전에 종료되었다. 적군은 탱크를 철수시켰으며 현지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였다. 그것은 대단히 기뻐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3년간은 무법천지로 변했으며 사태는 더 악화되었다. UN 건물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약 6개월 전 우리는 몇몇 구호 사역자들이 그들의 침대에서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대부분의 구호단체들은 그 이후로 철수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신자인 하바 자매와 함께 있었던 밤을 기억한다. 우리는 그날 새벽 2시까지 그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 전쟁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은 기도의 생활을 크게 고양시킨다. 가까이에서 들리는 총소리와 폭격 소리는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며, 아무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땅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된다. 다음날 아침 이웃들이 찾아와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깨었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처참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우리는 모두 TV 앞에 모여들었고, 전기가 들어 온 그 잠깐의 시간동안, 우리

모두는—현지인들(무슬림과 그리스도인들 모두)과 한 명의 영국 선교사—다 함께 주저앉아 울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일로 인해 경악하였다. 침략군의 대통령은 무법천지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탱크를 다시 보낼 것이라고 선포했다. 다시 전기가 나가고 우리는 외부 세계와 차단되었다.

나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지만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할 일을 계속했다. 하바와 나는 물을 길러 갔다. 우리는 그녀가 사는 4층까지 물을 길어 올려야 했다. 그리고 아침식사로 빵과 차, 설탕을 사러 갔다. 내가 그 전날 밤 하바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돈이 없고 돈이 생길만한 길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침식사 후에 우리는 음식물을 사서 도시 외곽의 난민촌에 들렀다.

매주일 나는 새신자들이 사는 작은 양철 헛간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줄라이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 세 아이들 앞에서 총살당했으며 그녀의 집과 모든 소유물은 불에 타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공부하고 그러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한 후에 우리는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져온 차와 음식을 나누었으며 나는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또 다른 양철집을 방문하러 나섰다. 차를 마시며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나는 그들이 기대어 울 수 있는 대상이었다. 난민촌을 찾는 것은 항상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고갈된 채 난민촌을 떠나곤 했다.

난민촌을 떠난 후 나는 친구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예수님을 알아 가는데 대해 흥미를 느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집에 없었으나 나는 그녀를 만날 필요가 있었으므로 기다렸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었으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통행 금지 시간 이전에 집까지 먼 길을 걸어오려면 나는 그때 출발해야 했다. 나는 그곳에서 자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과 용서의 능력에 대해 나누었다. 그것은 그녀와 가족들에게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피에 대해서는 피로 갚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회의 법칙 안에서 성장했다.

1)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두려움과 함께 하는 교제?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뉴스를 보았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거의 모든 구호단체들이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느 순간이라도 전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 같았다. 나는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 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전쟁이 그날 밤에 시작된다면 나에게서는 여러 가지 두려워 할 이유들이 있었다. 나는 당시 시내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폭격이 시작될 경우 함께하고 싶은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함께 있지 못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위장을 짓누르는 납덩이같은 무거운 공포감으로 잠들지 못했다.

나는 두 시간 동안 씨름을 했으며, 주님께서 내게 선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두려움에 머물러 두려움과 “동행”하든지 또는 그분과의 교제를 선택하든지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브룬디의 전쟁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던 한 여선교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간증한 내용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여선교사를 도우셨다면 나도 도우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러자 놀라운 평안이 나의 맘속에 스며들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으며, 거의 모든 외국 단체가 철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당신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울리는 총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며 마침내 잠들었다.

2) 하나님과의 시간

나는 하나님과 정기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전쟁 지역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선 혼자 있을 시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내가 사역한 곳은 외국인, 특히 여성일 경우는 혼자 사는 것은 매우 위험했으므로 현지인과 함께 살았다. 전쟁으로 집이 파괴되고 얽혀사는 피난민이 많아져 어느 집이나 북적거렸다. 혼자 한적하게 앉아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도시에도, 시골에도 없었다. 총소리를 뒤로하고 마음에 쉼을 얻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결국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과 시간을 갖기 위해 반드시 조용한 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발견했다. 나는 다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알게 되고 바른 시각과 초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은총이 필요하다. 나는 다만 주님의 품안에서 쉼을 누리며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한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그 날 하루 어떤 폭풍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닻이 되어주는 것이다.

3. 가정 교회 에피소드

빌트를 방문하기 며칠 전, 구호단체 사역자들이 피살된 지역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교회의 주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교회는 “지하교회”였으며,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여러 집에서 모였다. 나는 모임에 가기 전에는 시장에 들러 예배 후에 나눌 차와 설탕, 케이크 등을 사가곤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나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디아 자매를 만났다. 그녀는 양파를 다지고 있었으며, 난폭하게 칼질을 할 때마다, 그녀와 자신의 아들을 죽일 것을 말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돌이나 거친 과부였다. 그녀는 네 자녀를 데리고 혼자 집안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큰 딸은 임신 중이었다. 딸의 임신은 폭격이 심한 어느 날 밤, 야간근무를 하다가 동료 직원에게 강간을 당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가끔 그 집에 갈 때면 그 집에는 거의 먹을 것이 없었다. 어느 정도 평화가 찾아오자 나디아는 정유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몇 달간이나 월급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감자 두 개와 양파를 겨우 찾아내어 국을 만들고 있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아들과 다툰 이후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는 다른 교인들이 모임에 오기 전

에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녀는 결국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으며 칼을 내려놓았다. 사람들이 언제 다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지 혼란을 느끼기 시작함에 함에 따라, 그리고 나라가 또 다시 임박한 적의 침입의 위협을 받게 됨에 따라, 나는 어떤 것이 최악의 상태인지-가정의 긴장인지 아니면 나라의 긴장 상황인지-알 수 없었다. 모임에 도착한 첫 번째 사람들은 여러 달 동안 우울증에 빠져있던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몇 달 전 그들의 눈앞에서 아내는 무장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으며 그들은 심하게 매를 맞았다. 그 아내는 감히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되었으며 교회에도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도착한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 아이샤드였다. 그녀는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아파트를 함께 사용했던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비극으로 인해 더 불안해하며 안절부절못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3년 전에 살해당했으며 그녀는 몇 주 전에 강간당했다. 그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 들으면서 나는 그들의 두려움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는 모임의 반 정도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러 오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린다. 아이샤드가 강간을 당한 후 주일날 눈물로 자신의 아픈 비밀을 나눈 베라 자매는 그녀의 신뢰를 저버렸다. 베라는 아이샤드가 그녀를 강간한 남자와 불륜을 맺어왔다고 그녀를 공식적으로 질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간음을 저지른 지도자 아래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아이샤드는 울며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들었다. 베라는 회중의 절반을 데리고 나가 지금은 다른 곳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다. 나는 전쟁을 겪고 가혹한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잔인하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당시 정신적 상처의 본질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지 못했다.

4. 외상충격과 자기 케어에 대한 이해

전쟁 지역에서 어려운 일 중 하나는 관계에서 비롯된 고통을 다루는 것이다. 충격을 경험한 사람이나 충격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충격을 경험한

사람과 갖게 되는 충돌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 베라가 교회가 분리되도록 선동한 일이 있기 몇 주 전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탄 적이 있었다. 그 버스는 도시 한가운데를 지났는데 그곳은 최악의 상태였다. 어디에나 부서지고 깨어진 돌들이 널려있었으며 건물이라곤 하나도 제대로 서있는 것이 없었다. 그 지역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다. 나는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또한 그들이 겪은 것처럼 황폐해졌다는 것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외관상으로는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 도시를 과거의 모습으로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듯 사람들을 치유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깨달음은 사람들에게 대해 긍휼함을 갖게 했으며 어려운 상태에 빠진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공감대를 갖게 했다.

우리 모임에 충성스럽게 남아있기로 한 사람들이 금요일 모임에 다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들 역시 두려움과 긴장과 좌절감에 싸여 있었다. 좋은 소식은 아무것도 없는 듯 했다. 삶은 다만 악몽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 듯 했다. 어두움과 우울한 분위기는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해져갔다. “또 폭격을 한대요.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라고 한사람이 말하자, “폭탄이나 총알이 우리를 피해가도 우리 모두는 굶어 죽고 말거예요”라고 다른 사람이 소리쳤다. 또 다른 사람이 주제를 바꾸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발레라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잡혀간 사람들은 아마 고문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덧붙여 말했다. “죽이지 않았다면 그렇겠지요” 또 다른 사람이 마찬가지로 우울하게 만드는 다른 주제를 꺼내어 불평했다. “그 사람들은 왜 우리를 버리고 그 못된 여자와 함께 가버린거지?”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마음 속에 두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나는 두려움의 공포와 좌절감과 절망감이 나의 마음 한가운데에 꽂히던 그 아픔을 지금도 기억한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다 옳다.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소망은 전혀 없고 우리 모두는 다 살해당할 것이다.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1) 휴식

나는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좌절과 낙담의 구렁이에 빠지지 않도록 나에게 정기적인 휴식과 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심을 느꼈다. 전쟁 지역에서 실제로 내가 살 때에는 나는 격주로 이틀 정도 떠나있을 필요를 발견했다. 그것은 당시 전쟁이 없는 주변국가로 3시간 정도 여행하는 것을 포함했다. 나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저 단순히 긴장을 풀고 휴식하며, 전쟁으로 황폐화되지 않은 도시와 시골의 경치를 즐기며, 외부 세계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즐겼다.

나에게 그러한 휴식이 없었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좌절감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소망 가운데 새롭게 되며, 삶의 즐거움과 아름다움,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기 위해 나에게서는 새롭게 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에게서는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시간이 필요했다. 산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그 자체는 내게 회복이 되었다. 전쟁의 황폐함으로부터 벗어나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던 그 날 나는 최선을 다해 찬양을 인도했으며 주님은 당신의 임재와 평안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의 빛이 임하여 두려움과 낙담과 좌절감은 사라지고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며 지속할 힘을 주셨다. 주님이 역사하자 나디아 같이 힘겨운 상황에 있는 자매 또한 찬양시간에 들어와 한 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말씀을 나누었으며 우리는 모두 격려를 받고 기분이 고조되었다.

2) 예배

예배는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며 깨어있게 하는 생명선과 같다는 것을 발견한다. 때때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두

려움에 몸이 떨리고 얼어붙기 시작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찬양하며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셨다. 때로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워크맨을 귀에 꽂고 눈을 감고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며 경배에 몰입하곤 했다.

또한 공동예배는 매우 힘이 되었다. 좌절과 낙망으로 아무 의욕이 없을 때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은 당신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아이샤드와 나는 모든 것이 처절하게 느껴지고 더 이상 지속할 힘이 없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험으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영의 깊은 곳에서 넘치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주위에서 들려오는 폭격 소리도 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춤을 출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다른 에피소드와 교훈

모임 후에 우리는 기도제목을 낸 사람들 모두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는 함께 케이크와 차를 나누었다. 우리는 통행금지 시간 전에 집에 도착하기 위해 해지기 한 시간 전에 해산했다. 그날 밤 늦게 아이샤드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책을 읽고 아이샤드와 나는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나며 군인들이 밖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아이샤드는 문 열기를 거절하며 떠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이라고 소리치며 군화발로 문을 차며 총 머리로 문을 때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어떻게 빠져나가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때 그들은 웬지 하던 행동을 멈추고 떠나버렸다. 그들의 만행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던 아이샤드와 그녀의 어머니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했고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이 그 공포의 순간에 누릴 수 있었던 그 초자연적인 평안으로 인해 놀랐다.

다음날 아침, 나는 여러 날 동안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지친 몸을 끌고 전쟁 지역을 벗어나 빌트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그 곳에서 나는 외부세계와 접촉하기 원했으며 찬양 인도자 발레라에 대한 소식도 듣고 싶었다. 만원버스 속에서 나는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내 옆에 한 군인이 앉게 되었는데 그는 소총을 무릎에 놓고 있었다. 버스가 가는 길은 폭격으로 인한 잔재가 남아있었다. 나는 군인이 가진 소총이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도록 기도했다. 흔들거리는 버스의 동요는 너무 심해서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들쭉거렸다. 우리는 솟아올랐다가 다시 무사히 자리에 떨어진 후에 서로 보며 웃기도 했다.

1) 유머 감각

나는 그와 같은 위험상황 속에서 유머 감각을 갖고 즐기고 웃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내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웃는 것이다. 웃음은 참으로 긴장을 풀어준다. 좌절감과 고통의 시간이 많음으로 나에게서는 단순히 재미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긴장을 푸는 것이 필요했다. 친구들의 집이 육중한 대포에 의해 부수어졌을 때의 일이다. 그들은 식탁 밑에 들어가 녹음기를 틀고 있었다. 그들은 전쟁 지역으로 관광객을 끌기 위한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었다. 대포의 육중한 소리와 함께 한 소년의 음성이 태양이 작열하고 푸르름이 있고 파란 하늘이 있는 곳으로 초대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비극적 유머일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즐거운 면을 보고 당신 자신이나 삶을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때때로 나는 함께 어울리고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가정교회에나 수용소에서 재미있는 일들을 벌인다.

2) 취미

나는 취미를 갖거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

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림 그리거나 글쓰기, 악기 연주 등은 긴장을 풀 뿐 아니라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영혼과 정신을 치유하기 위해 이러한 창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신다. 나는 피아노와 기타 연주 외에 그림 그리기를 즐긴다. 나는 그러한 시도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긴장을 풀어주며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3) 개인적인 성장과 과거에 대한 치유

나를 파산 지경까지 몰고 간 여러 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깊은 곳에서 역사하기 원하시며 나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미친 비성경적인 영향력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셨으며,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다. 나의 어머니는 삶을 힘들게 여기셨으며 많은 도움과 지지를 필요로 하셨다. 친척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다.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와 어려움도 많았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로서 나는 가족의 삶을 위한 그릇된 책임감을 갖고 자랐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성향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해 기분 좋은 감정과 삶의 이유를 주었으므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부드럽고 인자하게 내게 보여주셨다. 또한 나는 어릴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이기고 도피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셨으며 나를 바른 궤도에 올려놓으시고 나의 삶과 사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셨다.

이러한 것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내가 신앙선교를 하는 선교사로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뜻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는 영국의 동남부에서 자랐다. 그곳은 청교도적 윤리가 깊이 배어 있는 지역이므로 한

개인으로서 용납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서 유익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나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갈등이었다. 그런 생각은 다른 이들의 후원을 받으며 더 강해졌다. 나는 사람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받은 후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큰 압력을 받았다.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유용한 사람이며 게으르지 않고 시간이나 돈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이려는 압력은 나의 능력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서신에 쓸만한 내용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하려는 부자유함이 있었다. 휴식을 취한다거나 휴가를 갖는다는 것을 기도서신에 쓰는 것은 내게 죄의식을 갖게 했다. 휴식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 일하는 것이 더 쉬워 보였다.

4)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내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떠밀려가지 않는 것이었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항상 둘러싸여 있을 때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모른 체하는 것은 내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24시간 쉬지 않고 도와주어도 그들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거절하신 것을 보며 놀라게 되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으셨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다른 병자들은 그대로 남겨놓으신 채 떠나셨다(요 5:1-15).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다(요 12:8).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만 행하는 것이다(요 5:19). 나는 선교지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신 일만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책임이다. 나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이 아닌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릇된 책임감의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5) 육체적 필요: 내 자신 아니면 타인?

나에게 또 다른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문화충격이었다. 나는 서구인이라는 이유로 선교지 사람들보다 사치스럽게 산다는 사실이 나에게 죄의식을 갖게 했다. 그들은 긴장을 풀 시간이 없으므로 공휴일도 물론 없었다. 먹을 것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다. 공휴일을 갖거나 잘 먹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이기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런 것들은 사실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았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 자신만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나는 가끔 나에 대한 특별 대우로 우유를 사곤 했다. 유제품은 비싸고 흔하지 않아서 자주 사지 못했었다. 그런데 오랜만에 우유를 샀을 때 나는 오랫동안 우유를 먹지 못한 어린 아이를 보게 되곤 했다. 잠시 갈등하다가 우유를 아이에게 주곤 했다. 어린 아이가 우유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일은 즐거운 일이었지만 나도 사실은 우유가 먹고 싶었다. 또 후원자들이 비타민을 보내주면 며칠간 갖고 있다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곤 했다. 전쟁 상황에서는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나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나는 장기전에 임할 수 없을 것이다.

6) 안식년

주님은 또한 내가 적합한 휴식을 취해야 할 필요를 가르치셔야 했다. 평생 나는 매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안식년에 대한 개념을 모델로 보여준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성경에서 안식년을 주제로 공부할 때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 놀라게 된다. 나는 이전에 그 내용을 여러 번 읽었지만 실천해본 적은 거의 없다.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제7일에 안식하셨다면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은 쉬실 뿐 아니라 안식의 날을 축복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다고 하셨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이 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창 2:2-3). 그와 같이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므로 거룩한 날이다. 나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은 죽음에 처할 것이라는 모세의 명령(출 35:2)을 읽으며 깊이 죄를 깨닫게 되었다. 사형은 살인죄나 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범한데 대한 벌로는 다소 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므로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

안식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에게는 살인이나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것이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이 쉴 시간을 갖고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다. 안식은 재고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시는 명령이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일에도 교회 일 때문에 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사단에게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병과 우울증과 고갈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다. 내가 지치고 자멸의 상태까지 가게 되었던 것은 쉬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다. 전쟁지역에서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쉼과 회복의 시간이 필수적인 것이었다.

7) 사역을 위한 동기

최근에 하나님은 나의 사역의 동기에 대해 도전하셨다. 또 내가 사역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다. 그것은 매우 쉬운 일 같았다(편한 삶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 중 가장 대답하기 힘든 것 중 하나였다. 나는 사실 일을 좋아한다. 나의 삶은 곧 나의 사역이었으며 사역은 내게 우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셨을 때 나는 많은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 한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게 할 것이며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실 때까지, 사역이 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주님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교만도 보여주셨다. 나는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전쟁지역에서 사역하며 나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며,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의 삶에 대한 부르심을 재확인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드리며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이제 나는 사역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에 그 사역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6. 결론

전쟁 지역에서 주님이 지난 몇 년간 나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질적인 시간의 중요성과, 예배의 가치, 적당한 휴식의 중요성, 자신을 돌보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내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홀로 할 수 없으며, 마음을 나누고 연약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본국의 파송교회로부터 적당한 지지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마음 속에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주었던 불경건한 동기와 영향력을 정결하게 하셨다. 주님은 치유하시고 정제하셨으며 단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즐길 수 있게 하셨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존감을 얻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 변화는 밤새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변화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빌 1:6). 하나님은 나를 정제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실제로 전쟁지역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그 지역 가까이에 치유상담센터를 설립하려고 추진 중이다. 그곳은 피난과 안전과 치유를 위한 장소가 될 것이다.

많은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나와 우리 형제자매들의 사건들은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3개월 동안의 수색 끝에 발레라를 찾았으며, 우리는 그가 속결 재판을 받고 석방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상황을 신묘막측하게 변화시키신다. 우리가 발레라를 찾고 있는 동안

그의 할머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감옥에서 함께 있던 죄수들도 믿게 되었다. 그가 재판받는 동안 아이샤드는 법정에서 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은 그의 안전에 대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3개월간 그는 한번도 맞거나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죄수들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교회의 분열 문제도 해결되었다. 베라가 교회를 분열 시킨 지 1년 반 만에 자신의 행동을 회개했으며 아이샤드에게 용서를 구했다. 분열된 두 교회는 아이샤드의 리더십 아래 하나가 되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전쟁은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나디아, 줄라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새집을 살 돈도 공급 해주셨다. 영원한 휴전의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상황을 호전시켜 주셨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며, 교회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

7. 토의 주제

- 어떤 상황에 선교사들이 위험한 지역에 파송되어야만 하는가? 독신 여성선교사와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는 다르다고 보는가?
- “견딜 만큼 견딘 때”라고 볼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즉, 위험률이 너무 높아 철수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 저자가 전쟁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운 것들은 무엇인가? 당신의 경우라면 저자와 다르게 행할 수 있는가?
- 선교사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사역하고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다음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누어보라.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지만 전쟁의 포악함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보호하시는 것은 아니다.”

제 26장

최상의 실천 지침

1. 글로벌 커넥션(Global Connections) 영국

단기선교에 대한 글로벌 커넥션의 최상의 실천 규약은 UK선교회와 교회 등에 의해 조직된 것으로 모든 방문, 경험, 팀 그리고 2년간의 단기사역의 배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지침은 타 문화 상황을 일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만들었지만 UK와 해외 상황, 즉, 동일 문화와 타문화 양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규약은 최상의 실천 규약이다.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영광받기를 바라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모든 참가자들과 동역자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며 가능한 최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섬긴다. 그 규약은 현재의 성취를 필히 나타



최상의 실천 지침들은
선교단체가 선교사들을
잘 돌보고 섬기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선교 단체와 인권단체는
수많은 지침들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 두 가지 예는
많은 단체들의 의견
개진으로 발전된 것이다.
첫 번째 것은 영국에서,
두 번째 것은 캐나다에서
설정된 것이다.
두 가지 다
타문화권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내가 보다는 단기 선교 실천의 높은 기준들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나타낸다. 그러나 최소한의 성취들은 그 규약 내에 반영된다.

모든 상황이 규약의 모든 내용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파송 교회의 참여가 항상 실제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희망사항이 되며, 따라서 최상의 실천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학에 배치될 경우, 파송 지역교회의 책임은 대학에 속한다. 문자적인 적용이 불가능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누가 이에 동등한 책임을 갖는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항: 목적과 목표

1.1. 단기 선교 프로그램은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프로그램의 생존력과 유지력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파송기관과 협력기관이나 교회의 장기 목표에 도움을 줄 것인지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기독교 선교 내에서 분명한 위치를 가져야 할 것이다.

1.2. 단기선교 참여자와 파송기관, 현지 선교단체, 현지 지역교회, 파송 지역교회의 책임과 유익에 관심을 둔다.

1.3. 현지 교회 및 공동체와 함께 가능한 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 주도권과 지속성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인다.

1.4. 적절한 파송교회의 참여를 추구한다. 선교단체/참여자/교회 파트너십을 이해가능한 면에서 발전시킨다.

1.5.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인의 성장을 포함하여, 경험을 통한 참가자들의 발전을 위해 헌신된다.

2항: 홍보, 선발, 오리엔테이션

2.1. 홍보 자료는 정확하고 사실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적합한 목표를 지니며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2.2. 홍보는 파송기관의 철학과 이상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섬김과 제자도와 소명의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목적을 정의한다.

2.3. 시간의 척도와 재정적인 책임을 포함하여 지원 과정은 분명하고 철저해야 한다.

2.4. 선발 기준들과 선별을 포함하여 적합한 선발 과정이 확립되어야 한다. 선발의 결과와 무관하게 목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2.5. 선발 과정에서 적합한 파송교회의 참여가 요구된다.

2.6. 출발 전과 도착 후에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진다. 팀 지도자들과 현지 관리자, 현지 목회적 케어 사역자들은 필요한 안내지침을 받는다.

2.7. 사전 정보(선발과 공식적인 오리엔테이션 사이의)는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하게 제공된다.

2.8. 사역지 배치에 대한 결정은 분명하고 투명해야 하며,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관련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변화가 있을 때를 포함해서).

3항: 현지 관리와 목회적 케어

3.1. 분명한 과업의 목적과 목표와 적합한 업무 부담이 주어진다.

3.2. 권위와 관리, 의사소통, 책임과 신뢰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제공된다. 의사소통과 보고는 정기적이어야 한다.

3.3. 목회적 관리와 후원 조직이 형성되어야 한다. 파송 교회와 파송 단체, 선교지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팀 리더와 업무 관리자, 배치 담당자, 목회 관리자, 멘토의 책임은 모든 부분에서 분명하게 제시된다.

3.4. 개인적, 영적 발전이 제공된다.

3.5. 단기 선교사들은 행위와 관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 받는다.

3.6. 3.1-3.5 조항을 참조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성취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추구한다.

3.7. 건강관리와 보험, 의료사고 조치, 안전과 대피, 스트레스 관리, 갈등 해결, 훈련, 위법행위, 불만 원인을 포괄하는 절차들을 적절하게 확립하고, 의사소통하며, 실행한다.

4항: 재입국 지원, 평가, 프로그램 개발

4.1. 재입국 디브리핑과 후원은 오리엔테이션과 업무 관리, 목회적 관리와 함께 단기 선교 “패키지”로 통합하며 참가자와 현지 관리자와 파송교회에 의사소통 된다.

4.2. 배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재입국 준비는 귀환 전에 시작된다.

4.3. 해결되지 않은 개인적 이슈들을 포함하여 선교단체는 재입국을 통해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고려하며 제자화와 봉사에 있어서 미래의 기회와 방향을 고려한다.

4.4. 파송교회는 재입국에 관련된 보고를 받으며 파송기관의 책임과 기대에 관해 보고받는다.

4.5. 참가자와 파송교회, 선교단체/지역교회를 포함하여 선교단체의 평가과정이 수행된다.

4.6. 현지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의(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책임에 대해 평가한다. 선교지의 필요와 목표 성취에 대해 평가한다. 문화적으로 적합한 피드백의 방식들을 찾는다.

4.7. 미래 프로젝트의 개선을 위해 관련자와 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2. 규약 채택

선교단체와 교회가 최상의 실천 규약 없이 그들의 프로그램을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규약은 탁월함에 대한 지침과 수단을 제공한다. 실행 과정의 목표는 규약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과 질, 높은 기준, 탁월함을 향한 목표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실행은 규약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단순한 말뿐인 봉사를 피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단기선교에 있어서 글로벌 커넥션을 위한 공식적 채택과 실행과정이 따르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선교단체와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 규약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며 그 효

과에 대해 글로벌 커넥션에 조언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서식이 마련된다.

2. 규약을 위해 두 사람이 서명하며 그들은 단기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책임자와 교회나 선교단체의 실행위원이다(예를 들면, 의장이나 대표, 담임목사 등).

3. 규약을 채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와 대중매체에 그 규약을 명시하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4. 실행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서약이 포함된다.

a. 규약을 채택한 자들은 2년에 한번씩 열리는 모든 글로벌 커넥션 단기선교 포럼에 참여한다.

b. 규약에 서명하기 전에 현재 선교단체/교회에 의해 언급되고 있는 규약의 각 조항과 요소를 고려한다.

c. 규약의 모든 영역에 나타난 기준에 대해 적극 헌신한다. 글로벌 커넥션의 단기선교 운영그룹은 다른 적합한 선교단체/교회들과의 섭외와 벤치마킹에 있어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d. 현재 실행되는 기준들의 제출과 더불어 그 규약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묘사하는 간략한 보고서가 글로벌 커넥션 단기선교 운영그룹에 매년 제출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글로벌 커넥션에 의해 견본이 제공된다.

선교단체와 교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단기선교 프로그램이 있다. 위에 나오는 최상의 실천 규약과 실행과정은 가능한 한 융통성 있게 구성된다. 벤치마킹은 여러 기준들이 여러 다른 상황들을 위해 발전되는 것처럼 다양성이 고려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여러 이유들로 어떤 선교단체와 교회들에서는 글로벌 커넥션의 최상의 실천 규약이 원하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 자체의 내부 실천규약을 발전시켜야만 하는가?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규약에 “단기선교를 위한 글로벌 커넥션의 최상의 실천 규약에 근거한” 문구 승인을 위해 글로벌 커넥션 단기선교 운영그룹에 요청할 수 있다.

단기선교를 위한 글로벌 커넥션의 최상의 실천 규약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원한다면 다음의 주소로 연락하라. *Global Connections, White field House, 186 Kennington Park Road, London SE11 4BT, UK; tel. 44 20 7207 2156; fax 44 20 7207 2159; Email: info@globalconnections.co.uk*

3. 캐나다의 복음주의 협회

멤버케어를 위한 캐나다 복음주의 협회의 최상의 실천 규약은 타문화 기독교 사역자들의 케어와 발전에 연관된 조직의 정책과 실천을 안내하기 위한 기준 문서로 고안되었다. 비록 그것은 캐나다의 단체들을 위해 기록되었지만, 국제적 공동체의 다른 단체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후원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은 존재하지 않거나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야만 한다.

이 규약은 반드시 현재의 실천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에 대한 열망을 불러넣는다. 그 규약은 법적 기준이나 의무의 확립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규약의 발전을 위한 동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경건한 청지기직의 신학적 기초에 있다. 적합한 멤버케어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며 그들이 예수께 속한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확실한 숙고이다.

이 규약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선교회와 교회 대표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2000년 3월 토론토 온타리오에서 열린 멤버케어에 대한 논의에서 어빙 휘트(Irving Whitt) 박사와 밥 모리스(Bob Morris)에 의해 초고가 완성되었다. 그 회의는 선교사 건강 협회, MissionPrep, 틴데일 타문화 사역센터(TIM)와 캐나다 복음주의 협회의 글로벌 선교를 위한 태스크 포스의 후원하에 소집되었다. 문서의 수정을 위한 제안은 ACTS 타문화 사역센터(AIM)와 글로벌 선교를 위한 태스크 포스, EFC에 의해 후원을 받아 이루어진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 랭글리 회의 참가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규약의 현재 형태는 후원 단체들의 멤버들과 함께 AIM 센터의 로렐 맥엘리스터(Laurel McAllister) 박사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 규약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 가치들은 다음과 같다:

- 멤버케어의 모든 양상들에 있어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위해 하나님께 의존한다.
- 타문화 사역자들의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헌신-타문화에서의 삶과 사역에 나타나는 위험과 스트레스와 희생을 인정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사역자들을 돕는다.

- 교회와 선교단체, 다른 협력단체를 통해, 함께 사역하는 그리스도의 몸체에 대한 성경적 이상에 헌신한다.

- 가능한 모든 자원들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헌신한다.
- 지속성과 탁월함, 윤리적, 영적, 도덕적 책임감으로 선교단체들이 멤버케어를 실천하도록 격려하며 헌신한다.

그 규약이 포함하는 주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 원리-목적에 대한 광범위한 진술.
- 핵심 지침-원리에 연관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결과.
- 멤버-선교사나 자비량 선교사 등과 같은 타문화 사역자.

❖ 1부: 조직의 정책과 실천 ❖

1) 원리 1

본국과 해외 또는 이동 중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위한 멤버케어 정책들은 효과적이며, 효율성이 있으며, 동의되며, 투명하다.

핵심 지침

- 조직에 속한 지도자들은 효과적으로 멤버케어의 모범을 보인다.
- 본국이나 해외에서 인적자원을 담당하는 스텝들은 인력관리 기술을 고려하여 모집되고 멤버케어 제공을 위해 적합하게 훈련된다.
- 조직은 멤버케어 정책의 목적이 성취되는지 점검한다.
- 멤버들은 명확한 사역 목적과 수행 기준을 가지며 보고의 대상을 파악하고 조직이 후원하는 내용을 인지한다.
- 적합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관리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며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2) 원리 2

멤버들은 멤버케어의 정책발전에 참여한다.

핵심 지침

- 조직의 인적자원부(혹은 이와 동등한 부서)의 모임은 정기적으로 계획된다.
- 정책에 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멤버들에게 제공되며 그들의 피드백을 받는다.
- 기존 정책들과 실천에 대한 정기적인 재평가는 조직과 멤버들에 의해 주도되고 촉진된다.
- 조직과 멤버들 간의 상호의무가 장려되고 실천된다.

3) 원리3

함의된 개인적, 조직적 신념들과 행위는 효과적인 멤버케어에 필수적이다.

핵심 지침

- 조직은 수용 가능한 개인적, 조직적 신념과 행위에 관련된 정책들을 분명하게 명시한다.
- 정책을 전달하는 수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사용된다.
-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 특정한 수용 불가능한 행위의 결과들이 규명된다.
- 비본질적인 차이들을 수용하는 능력이 설명되며 명확하게 제시된다.

4) 원리4

조직은 하나님의 왕국 사역을 촉진하는 멤버케어의 가치들을 발전시키는 데 헌신한다.

핵심 지침

- 영적,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차원의 멤버의 복지에 대해 명시화한다.
- 멤버케어를 위한 핵심 가치들은 문서화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 입증된 하부구조가 명백한 케어를 위해 존재한다.
- 충분한 재정적, 인적 자원이 멤버케어를 위해 분배된다.
- 신뢰와 비밀보장의 상황 내에서, 투명성이 케어에 대한 조직의 케어 문화로서 장려된다.
- 조직이 케어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슈들이 확인된다.

❖ 2부: 선발, 훈련, 경력 케어 ❖

1) 원리5

후보자 선발은 공정하고 철저하며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고려한다.

핵심 지침

- 조직은 가장 유용한 자원을 사용하여 철저하고 객관적인 후보생 선발 과정을 구상하고 실행한다.
- 결혼과 가정에 대한 문제는 물론 독신에 관련된 이슈들이 논의된다.
- 선발 과정은 가능한 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 과정은 분명하게 문서화되며, 처음부터 후보생에게 제공되고, 정기적으로 그들과 재검토된다.
- 과정은 후보생의 파송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착수된다.
- 선발 과정을 통한 결정들은 모든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 하심을 증거한다.

2) 원리6

임무는 불확실한 결과와 제한된 자원 환경 속에 있는 사역자들에 대한 필요와 하나님의 소명을 인식하는 동시에 가능한 대로 멤버들의 전문성, 은사, 발달 단계, 장점, 한계들을 반영한다.

핵심 지침

- 멤버들에게는 사역의 상황과 관련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들이 주어지며 처음에 임무 “동의서”가 제공된다.
- 부부의 경우 임무는 남편과 아내의 은사와 기술을 반영한다.
- 효율성 평가와 발전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평가 도구들이 실행된다.
- 팀 구축 활동들은 적용 가능한 선에서 실행된다.
- 훈련과 멘토링은 전문기술을 추가로 요하는 과제들을 위해 제공된다.

3) 원리7

멤버들을 위한 적합한 훈련과 전문적인 후원은 효과적인 멤버케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핵심 지침

- 조직은 선교현지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과 수행하는 동안 적절한 타문화 훈련과 언어훈련을 제공한다.
- 조직은 전문적인 회의의 참여, 전문적인 갱신, 전문 단체의 멤버십, 특정한 직업훈련과 연구 기회와 같은 전문적인 후원의 기회를 적절히 제공한다.
- 조직 내에 자질 있는 지도자 개발의 중요성이 인식되며 제공된다.

4) 원리8

사역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개인적인 갱신, 지속적인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제공된다.

핵심 지침

- 근무규정이 제시되며 연간 평가에 포함된다.
- 장기효과를 위한 전략이 정기적으로 계획된다.
- 가능하다면 자원을 제공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를 현지 교회들과 현지 공동체 내에서 찾는다.

- 독신과 결혼한 멤버들의 특별한 필요들이 적절하게 고려된다.
- 멤버들은 계획에 따라 본국사역(안식년)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갖는다.

5) 원리9

조직의 책임은 현지 사역을 넘어 본국사역(안식년)과 재입국, 은퇴, 필요한 경우의 재배치까지 확장된다.

핵심 지침

- 신체적, 심리적, 목회적 관심들을 포함하는 디브리핑이 요구되며 제공된다.
- 휴식과 회복, 개인과 사역 평가 기회는 본국 사역(안식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된다.
- 멤버들은 상호간의 성장을 추구하며 교회를 후원한다.
- 문화적 이슈들과 재배치, 재입국, 은퇴에 관련된 이슈들을 포함하는 이동에 대한 기회 및 세미나가 제공된다.
- 자원들(인적, 재정적)은 재입국이나 재배치 기간 동안 후속적인 케어를 위해 분배된다.

❖ 3부: 공동체 생활 ❖

1) 원리10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는 사역의 효율성 뿐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향상시킨다.

핵심 지침

- 공동체 내에서 자기 케어를 위한 책임이 리더십에 의해 모범이 되며 장려된다.

- 상호 케어는 명확하게 규정되고, 계획되며, 그 중요성이 의사소통된다.
- 멤버 개개인의 독특한 필요들이 고려되고 공급된다.
- 멤버들은 현지 공동체 내에서 여러 사람들과 상호 관계를 발전시킨다.
- 개인, 팀, 조직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요구된다.

2) 원리 11

멤버케어에 대한 책임은 개인적이며 상호적이고 조직적이다.

핵심 지침

- 훈련된 케어 제공자들이 세워지며 필요할 때에 멤버들을 위해 가능하다.
- 멤버들의 상호 교제와 상호 케어의 기회가 주어진다.
- 각 조직의 케어 영역을 위한 책임자들이 지정된다.
- 멤버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책임을 갖는다.

❖ 4부: 가족과 선교사 자녀(MKs) 케어 ❖

1) 원리 12

기독교 사역자의 효율성은 적합하고 균형 잡힌 삶의 단계를 고려하는 가족에 대한 통전적 케어에 관련된다.

핵심 지침

- 삶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자녀들이 성장해감에 따라 부모들의 임무의 재조정이 마련된다.
- 현장 사역과 본국 사역(안식년) 기간 동안 결혼성장과 부부 훈련을 위한 기회들이 제공되며 장려된다.
- 경제적 준비와 상담은 사임이나 은퇴를 포함한 변화를 경험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다.
- 조직은 재입국하는 선교사 가족과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후속 케어를

공급한다.

- 전문적, 개인적, 영적 평가는 모든 멤버의 가족원들을 위해 제공된다.
- 가족 케어는 대가족 구성원들을 포함할 수 있다.

❖ 5부: 교회와의 관계 ❖

1) 원리 13

지역 파송 교회는 지속적인 케어에 포함된다.

핵심 지침

- 지역 파송교회와 선교단체와 그 멤버들 간에 공유된 신뢰가 이루어져야 한다.
- 멤버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지역 파송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 조직은 초기 사역 임무, 재입국, 재배치, 은퇴를 위한 멤버의 준비를 위해 지역교회와 협력한다.
- 동반자 협력관계는 현실적인 기대와 상호의 유익을 보여준다.
- 멤버에 대한 훈련은 가능하며 상호 유익한 곳에서 파송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한다.

❖ 6부: 위기/우발사고에 대한 케어 ❖

1) 원리 14

타문화에서의 삶과 사역은 개인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므로 각 과정들은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우발사고에 처한 멤버들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핵심 지침

- 멤버들은 무엇이 위기를 구성하는가에 동의한다..¹⁾
- 위기 정책은 문서화되며 모든 멤버들에게 의사소통 된다.
- 다양한 우발사고를 포함하는 정책들은 각 사고에 대해 명백한 정보를 갖는다.
- 정책은 융통성과 민감성을 갖는다.
- 외상후 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 케어와 상담 같은 필요한 케어가 마련된다..²⁾

2) 원리 15

도덕적 실수의 문제를 다루고 발견하기 위한 과정과 자원이 준비된다. 훈련 과정이 규정되며 회복 과정이 제시된다.

핵심 지침

- 예방 이슈들과 전략들이 파송 전 훈련에서 제시된다.
- 선교단체와 파송교회, 후원자, 다른 멤버들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며 책임 있는 균형이 이루어진다.
- 비밀과 연관된 모든 이슈들은 명확하게 규정되며 연관된 모든 부서들에게 제공된다.
- 회복 운동은 가능할 때마다 일어난다.

1) 위기에 대한 정의: 개인이나 가족에게 정신적 외상(trauma)을 남길 잠재적 상황과 예를 들어, 선교지 이슈로서는 재난이나 정치적인 납치, 사망, 사고 등과 같은 우발사고와 연관된 이슈들이 있으며, 개인과 가족 이슈(청소년 자녀양육을 포함)와 도덕적 이슈, 주요 의료 이슈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 자살기도 등과 같은 지도자 편에서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

2) 영적 어둠의 실재와 기독교 사역상황에 내재된 갈등은 사역자들에게 복합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신적 상처의 방식들로 영향을 미친다. 위기는 사역자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케어 제공자들은 그러한 영적 차원을 깨닫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아야 한다.

© 2001 캐나다 복음주의 협회의 승인 하에 사용함.

4. 토의 주제

1. 최상의 실천은 당신의 상황에 상관적인 개념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조직 문화와 인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가?(1장 참조)
2. 선교사들이 해외, 특히 격리되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 자신을 케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 최상의 실천 지침들은 어떤 것인가?
3. 팀 리더들을 지도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교사들의 상호케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준비시켜야 하는가? 선교사가 일반적으로는 현지인들과, 특별하게는 현지 교회와 상호후원 관계를 추구하도록 돕기 위한 몇 가지 최상의 실천 원리들은 무엇인가?
4. 기존 파송국가가 보호적이거나 간섭적이 되지 않고도 신생 파송국가들에 멤버케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가? 신생 파송국가가 문화적으로 적합한 그들 자신의 케어 모델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리들이 있는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추천할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기 위해 멤버케어 네트워크를 “심사”할 방법과 그러한 것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돕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47장 참조)
5.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상황 내에서, 특히 기존 파송국가들의 영향 아래서 어떻게 멤버케어를 국제화 할 수 있는가? 멤버케어 운동의 전 세계적 발전을 위해 최상의 실천지침들이 공식화되어야 하는가?

* 영국 글로벌 커넥션과 유럽 멤버케어의 마리온 넬(Marion Knell)이 토의 주제를 제공해 준데 대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 27 장

기독교 인도주의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케어와 지원

국 제 선명회(World Vision International, WVI)는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이다. 이 기관에는 500여명의 국제 스텝이 있으며 100개국에 11,000여명의 현지 스텝들이 일하고 있다. 기금은 개인으로부터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처를 통해 모금된다. 2000년 국제 선명회의 총수입은 미화 8억불에 이르렀다.

선명회는 복음적인 기독교 단체이며 현지에 파송된 직원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많은 현지 사무실들이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은 곳이거나 그리스도인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 어

* 존 화셋(John Fawcett)은 선명회의 직원 지원서비스/스트레스 및 외상 관리의 책임자이다. 그는 뉴질랜드와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와 일반 사회봉사에 힘쓴 뉴질랜드인이다. 1990년 이래 뉴질랜드와 캄보디아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미



존 화셋 *

자국 및 현지 사역자들은 어떤 유형의 멤버케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의 필요는 외국 이주민들이 갖는 필요와 어떻게 다른가? 선교기관들이 상대 외국 이주민들의 멤버케어 유형과 상응하는 멤버케어를 현지/자국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멤버케어 사역을 보다 잘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국제 선명회와 인도주의 구호단체에서 사역했던 저자에 의해 제시 된다.

려운 나라들에 소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후원하는 것은 복잡하고 도전적인 일이다. 고용 정책은 직원들에 대해 그 나라와 국제 고용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그 나라의 종교와 사회적 관습을 거스르지 않는 적절한 정책이 보장되어야 한다. 직원의 관심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그 실현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은 개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 인도주의 사역의 본질과 복잡성은 지난 20년 동안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많은 단체들이 설립자들이 뜻한 방침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 선명회는 한국전쟁의 결과로 고아가 된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해 1950년에 시작되었다. 선명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옹호, 지역사회 개발, 긴급 구호, 전문 건강 및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선명회는 현지 교회와 계속적으로 동역하는 동안, 현지정부와 본국 정부 모두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늘날, 규모가 큰 인도주의 단체들은 UN이나 세계건강기구, 세계은행, UAISD, EU, 그 밖의 국제 주요 기구들과 관계를 갖지 않을 경우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실질적인 원조가 이루어지는 최종 연결점이 여전히 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사역이 수행되는 현장의 측면에서, 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그 도움이 음식, 의류, 주택, 성경의 형태든지 혹은 지식이든지, 그 돌봄의 중추적인 지점은 새롭게 형성된 인간관계에 있으며, 선명회의 경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위에 존재한다.

국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전방 구호 사역을 위해 정규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또한 그는 장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훈련 워크숍 개발을 위해 장시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mail: John_Fawcett@wvi.org

1. 케어와 케어 제공자의 변화

선명회가 50년 전에 구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일차적인 케어를 제공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로서,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원조하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날 대부분의 인도주의적 행위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용된 사람들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 후원, 자선, 가난한 사람들을 무능력하게 보는 사고들은 거부감과 함께 비 건설적인 것으로서 거부되어 왔다. 오늘날 우리는 적합한 자원과 자유가 주어진다면 자기 자신과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지난 20년에 걸쳐 증가된 직접적인 인도주의 원조는 유일한 선진국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기관들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지역 사회와 현지 지도부를 통한 유력한 협력 관계가 없이는 그 어떤 현실적인 도움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인도주의 사역에 종사하는 현지 구성원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마련하는 문제는 모든 구호 및 선교 단체들에게 점차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1) “본국”의 후원

국제적인 단체들은 직원에 대한 지원을 그들의 본국 환경의 관점에서 보아 왔다. 역사적으로, “후원”은 이주자와 함께 시작되었다. 구호단체들은 “외국”의 환경에 맞도록 적용하여 원초적인 필요들을 간이 책자로 옮기며 국제 직원들의 필요에 따른 후원 체계를 개발하였다. 국제 고용인들의 실제적인 필요는 그들 출신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적 규범과 근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무의식적으로 규정되었다. “후원”은 가능한 한 “본국”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조건을 재창출하는 노력으로서 종종 정의되었다. 후원의 가능 범위는 어떤 이상적인 개념보다는 사용 가능한 자원에 주로 의존하였다. 가장 열악한 선교 기관조차도 그들의 선교사들에게 “본국”의 정취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그러한 시도는 열렬하게 환영되었다. 극히 적은 사람들만 현지인들의 관습을 적용했으며, 그러할 경우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상사로부터

“원주민과 같이 미개해진” 것으로, 혹은 점잖은 표현으로 이성을 잃은 것으로 거부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배타적 국제 공동체인 이주민들의 주택지와 “본국”의 수입 상품만을 파는 상가들을 보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의 잔재를 볼 수 있다. UN과 같은 세계적인 단체나 군사적 평화를 유지하는 조직은 본국의 값비싼 물건을 가득 쌓아 놓은 물류창고를 세계 곳곳에 운영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은 항상 본국의 물건들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늘날 역시, 매우 다양한 다국적 노동력과 함께, 인도주의 및 선교 사역의 직원 후원 체계가 선진국들의 요구라는 편견이 존재한다.

2) “현지”의 후원 체제로

국제적인 인도주의 구호사역은 외국인 직원들이 보다 늘어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국제 고용인 원조 전문가들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주민 사역자들을 위해 헌신된 단체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났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훌륭한 후원 사역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것 또한 인도주의 사역이 “외국”으로 재 파견된 선진국 이주민들에 의해 일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들과 현지 직원에 대한 고용 조건의 불균형은 보다 분명해졌다. 외국인 직원의 “후원”을 위해 어떤 경우에는 살림살이 전부를 옮겨오거나, 냉장고, TV, 가구, 자동차 같이 큰 물건들을 이동하는 능력은 이국 생활에의 적응이 대체로 물질적인 자원에 달려 있다는 신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현지인 직원들이 빈곤 지역에 거주할 경우 확인해지며, 그와 같은 상황은 분노와 좌절, 심지어 외국인 직원들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구호 단체들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했다. 대체로 많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과 현지 직원들 사이의 부의 격차는 사역을 위한 대가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합당한 급여와 주택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적합하게 숙련된 외국인 직원들은 사역지로 이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제한된 자원을 지닌 다른 단체들은 “검소한 삶”의 모델을 고수한다. 그들은 외국인 직원이 현지인들과 같은 수준의 집에 살며 같은 수준의

음식을 먹으며 사역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와 같이 현지 수준에 맞추어 사는 삶은 빈부의 격차를 좁혀주는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더 나아가 외국인 직원들은 스트레스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벗어나는 한 방식으로 언제든지 여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지 직원들에게는 선택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2. 현지 스텝들에 대한 지원

기독교 인도주의 사역에 있어서 현지 직원에 대한 후원은 많은 요소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고용법 실행의 투명성
- 생산자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대우
- 신체적 정신적 건강
- 기술 함양과 경력 기획

1) 지속적인 고용법 실행의 중요성

많은 국제 인도주의 기독교 단체들은 국제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 보수가 없는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은 저조해졌다. 지불 방식은 다양해졌지만, 대부분의 국제 케어 제공자들은 그들의 일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그 범위는 높은 급여와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UN으로부터 기본적인 경비와 주택만을 제공하는 영세 기독교 선교기관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이다.

현지의 경제는 점차적으로 산업 활동에 기초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의 삶이나 직장 통로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지 직원의 고용은 종종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다. 점차적으로 근로 법, 정책, 실행의 문제들은 가장 빈곤한 나라들에서 조차 일반화 되고 있다. 모든 구호 기관들에게는 현지 직원들에 대해 합법적으로 그리고 현지와 국제 노동 정책과 합의에 상응하여 고용할 의무가 주어진다.

선명회는 국제 고용과 현지 고용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것은 모든 직원이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비교적 국제 직원은 현지 직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편이다. 급여 수준은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상대 급여 조사는 현지와 국제 직원을 위한 일정 기준에 의해 행해지며, 선명회는 노동시장의 일반적 임금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정하고 있다. 국제적인 인도주의 사역은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는 임금율과 혜택을 세계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도주의 단체들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특정 그룹의 단체들과 고용 조건들을 비교한다. 이러한 과정은 국제적인 단체 뿐 아니라 현지 단체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고용 조건의 범위는 모든 직원에 대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인도주의 단체들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것은 필수적이다. 원조 수혜자들은 현지 직원들에 대한 고용 방식을 통해 그 기관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부분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이 제공된다면, 가능하다면 현지 직원들에게도 역시 제공되어야만 한다. 모든 영역의 혜택이 제공될 수는 없을지라도, 현지 책임자는 광범위한 영역의 지원 공급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것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 연차, 여가, 가족, 의료, 긴급, 사별 휴가를 포함하는 예비비 구성.
- 은퇴비
- 비고용 보상비
- 초과근무 수당과 보상 시간
- 친척의 고용
- 신체장애 보험
- 불만과 논쟁 해결 절차
- 사내 전근과 승진
- 성과 인종 문제 정책

2) 노동자 역시 인간이다

중요한 것은 현지 고용인들은 또한 그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다. 이것은 표면상 그러할 뿐, 많은 구호 기관들의 실제적인 행위들은 그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서양의 “일” 개념의 영향이다. 또 부분적으로는 인도주의 구호사업이 최근 들어 발달하게 된 급속도의 성장률에 관련된다. 여기에는 인도주의 구호사업이 마치 산출자들로부터 분리된 산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고용인들은 그들이 받는 임금만큼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될 수 있다. 이 과정은 정부 기부금을 얻는 방식으로 장려된다. 근본적으로 인도주의 단체들은 기부자들과 사전 약정된 후원금을 위한 별개의, 중대 과제를 수행한다는 계약을 맺는다. 이러한 인도주의 구호사업의 “청부 사업” 접근방식은 선임 책임자들과 현지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근무 활동을 생산 과정의 하나로서 보도록 만든다. 이러한 방식의 단점은 근무자들이 성과와 과정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기계는 제거되고 바뀔 수 있다. 인도주의 사역에 그러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지 “수행” 불능의 근무자는 불필요하게 여겨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국제 구호사업과 선교사역에 있어서 사역자와 일은 분리할 수 없다. 사역(사업)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사실, 직원들(사역자들)이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장기간의, 유지 가능한 결과는 없다. 주요 구호 기관들 가운데, 직원들은 엄청난 규모의 화물 항공에 의해 운반되는 음식 상자와 의료 공급품 뒤에 얼마간 가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구호품이 분배되면, 현지 지역사회의 복지와 기능의 회복을 위해 현지 사역자들이 행한 그 중대한 역할은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대규모 단체들은 현지 직원들이 생산의 도구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인간으로서 간주되는지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신체적, 정신적 건강

선교 단체들은 해외 사역이 잠재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 의학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선교회와 인도주의 단체들은 국제 고용인들이 해외 사역을 준비하는 방법을 현저하게 향상시켰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해외 배치 전에 병력을 취하고 적합한 처방과 예방주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그러나 현지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는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부분적으로는 현지에는 적당한 의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또한 상황을 가중시켰다. 최근에 선명회는 의도적으로 현지 건강 보험 정책의 발전을 피함으로 그러한 취약점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은 대규모 단체의 경우 보다 쉽게 성취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성취된 것은 현지 직원들을 위해 그와 같은 서비스를 마련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선교단체와 구호단체가 협력하여 보험회사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접근할 때이다.

직원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를 위한 적절한 권고가 주어지게 된다. 말라리아와 결핵에 대한 염려가 지속되는 반면, 모든 구호와 개발 사역을 위협하는 주된 전염병은 HIV/AIDS이다. 선명회는 직원들이 AIDS로 사망하는 일이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양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의도적(AIDS와 성적 행위의 연관성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쾌하게 받아들여짐) 그리고 비의도적 오진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불분명하지만, 현재 AIDS는 현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비율만큼이나 현지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HIV/AIDS의 발병률이 높은 지역에서 현지 사역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그것은 프로그램 뿐 아니라 고용인과 가족 구성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다.¹⁾

정신 건강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정신 건강에 대한 주제는 국제 원조의 중심 주제가 되었으며, 비교적 빠르게 발달했다.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특별히 구호 환경 속에서 성장함에 따라, 인구가 밀집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현지 직원들 또한 정신 건강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되었다.

1) 국제 선명회는 최근에 HIV/AIDS가 만연한 지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People In Aid Code/Interhealth는 유용한 지침을 세웠다.

이러한 과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분명히 르완다인들의 경험은 종족 집단 학살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현저히 나타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학살 현장의 캄보디아 생존자들은 서구 정신 건강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또 그 이전에는 공산주의의 몰락 후에 정신병동에 버려진 루마니아 고아들의 비참함이 세계의 눈길을 모았다. 발칸반도에서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한 무렵에는, 정신 건강관리는 원조 제공의 한 주요한 부분이 되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거론되기 전에 먼저 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 반면, 우리는 정신적 상처가 생존 공동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전방 구호 사역자들은 종종 그들의 현장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아직 요구되고 있지만, 극단적인 구호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부작용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애틀랜타의 질병 관리 센터(Disease Control Center)에서 코소보의 상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 직원과 현지 직원의 17%가 우울증을 경험했으며 현지 직원의 6%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Salama, 2001)를 경험했다. 한 나라의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울증은 54%였으며 PTSD는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명회, 2000).

이 연구가 인도주의 구호 공동체에 준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국제 직원의 정신건강이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고려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연구는 재난을 당했을 때 현지 직원이 경험하는 정신적 충격이 외국 직원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직관적으로, 이것은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구호 단체와 선교 단체는 이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선명회 내에서도,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택한 주요 반응은 정제된 선발을 통해 직원들에게 정신적 충격 사건을 극소화하는 방식을 추구해 왔다. 불행하게도 심리검사사 정신적 충격의 발병률을 예측하는 확률은 높지 않다. 과거에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기 쉽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다른 유형의 성격 검사는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다(Salama, 2001).

선명회 같은 대규모의 단체에 대해서는 위의 상황들은 널리 피부에 와 닿는다. 현지 직원의 우울증 비율이 17%~50%에 이른다면(조사된 결과를 근거로) 선명회 직원으로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각처에서 1500~500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실제적인 수가 낮다고 해도 현지 수준에서 심리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을 것이다.

심리학적인 토론과는 별개로, 현지 직원들을 위한 정신 건강 문제의 출현은 그들의 고용 범주에도 불구하고, 현지 직원들은 이미 사회에서 일어났던 재난이나 위기를 극복한 생존자들이라는, 변할 수 없는 결론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인도주의적인 필요가 없었다면 인도주의 단체의 존재는 불필요했을 것이다. 현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지 직원이 필요하다면, 인도주의 단체가 최소한 어떤 면에서 정신적 충격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영성, 지도력, 기술 향상

선명회 같은 기독교 단체에서는 영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성 있는 현지인을 채용하기 쉽지 않다. 기독교 사역에서 지도력은 선명회의 역사와 복잡하게 얽혀있다. 현지 경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선명회의 정책은 비그리스도인이 주요 경영인이 되는 것을 배제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책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선명회가 종교적 신앙을 근거로 차별을 두는 것은 조직의 어떤 부분에서는 잠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선명회는 당당한 기독교 단체이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독교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선명회는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경험을 골자로 하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것은 비교적 새로운 시도이며 완전히 마칠때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다. 전반적인 목표는 지도자들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요소들은 미래를 위한 지도자를 창출할 것이다.

선명회와 같은 규모의 단체에서 그러한 노력은 기독교의 일관성을 유지

하는데 효율적이 될 것이다. 광범위한 영역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기독교인의 행동양식과 신념, 신학은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러한 긴장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또한 현저한 숫자의 무슬림과 힌두교도와 불교도인 책임자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단체 내에서 경력을 쌓아가며 승진을 기대한다. 그러한 노력을 저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선명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두 개의 사역그룹을 형성하였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도인”으로 정의될 수 있는 행동양식과 신념과 생활양식을 규명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선명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다. 영적 양육에 초점을 맞춘 다른 하나는 직원들이 선명회와 사역을 계속함에 따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규명하도록 추구하는 것이다. 이 두 개 그룹의 주요 초점은 현지 직원이다. 외국인 직원도 고려하지만 선명회의 주요 목표는 현지 수준에서 기독교 사역의 성숙과 발전이다. 국제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와 선교회의 지속적인 성공은 기술이 발달한 외국인 직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직원과 가정에 대해 합당한 지원을 하며, 그들로 하여금 사역에 매력을 느끼게 하며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현지 직원에 대한 지원: 온두라스 사례연구

현지 직원의 필요가 적절하고 안전하게 요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명회는 현지 직원에 대한 평가과정을 만들었다. 그 과정은 기계의 도움이 아닌 대화를 근거로 이루어지므로 비용이 저렴하고 이동가능하며 모든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조직적인 수준에서 지원할 경우 그것은 개인의 복지와 조직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그것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기도 하며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다. 온두라스에서 적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1) 1 단계: 원조 요청

1998년 말엽 허리케인 미치의 영향으로 황폐화된 온두라스에서 선명회의 사역은 주요한 변화를 초래했다. 광범위한 영역의 피해는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지원을 통해 농업개발에서부터 구호사업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단체의 요구는 보고된 직원들의 스트레스 정도에서와 같이, 비례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1999년에는 가능한 장기 심리적 상해(long-term psychological damage)를 우려한 직원들 사이에서 온두라스 선명회 직원들을 위한 “스트레스 평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후원 요청이 현지 책임부에서 먼저 시도되는,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현지 직원에 대한 후원 시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2) 2 단계: “스트레스 평가”

평가 과정은 현지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이 걸린다. 온두라스의 경우에는 5일이 걸렸다. 현지 지도자와 경영진들은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사실은 모든 그룹이 현지 직원이다). 우선적인 요구가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에 관한 것이므로 처음 이들은 개인의 스트레스와 탈진, 정신적 충격 대응법에 관한 교육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에 제기된 주요 질문들은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정신적 충격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은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이튿날에는 조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의 중요성과 조직과 개인의 스트레스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토론이 있었다.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는 그들이 현재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룹에서 사용되었다. 사용된 검사도구는 타문화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번역되고 검증된 것이었다. 선명회의 모든 지부에서 사용되지는 않지만(어떤 도구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함) 검사 내용에는 IES(Impact of Event Scale), GHQ28(General Health Questionnaire), HSCC(Hopkins Symptoms Checklist, Holmes and Ra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HTQ(Havard Trauma Questionnaire) 등이 있다. 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검사도 추천되고 있다. 주요 질문은 “당신은 오늘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니까?”이다.

셋째 날 첫 시간으로, 온두라스 문화권 내의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한 검토와 그러한 스트레스가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토론하였다.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스트레스”를 직접 번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어 단어를 사용한다. 그럴 경우 다른 용어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토론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한 확신이 생길 때에서야 비로소 합당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스트레스”에 관련된, 그러나 유럽의 개념으로 제한되지 않는 문화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상관성 있는 개념 정의를 낳는다. 토론하는 동안 주요 질문은 “온두라스에서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스트레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이다.

민족지학적 과정(ethnographic process)은 4일째 계속된다. 이 날에는 현지 문화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며 대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과정의 목적은 밝혀진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던 지역적으로 가능한 자원들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그 과정은 이중적 형태로서 규명된 필요와 자원들 사이를 오가며 이루어진다. 현지 문화가 정보와 해석을 제공함에 따라, 그 전날의 토론이 다시 거론되며 첫날의 훈련 내용은 다시 재고되고 도전받게 된다. 주요 질문은 “통례적으로, 온두라스인들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다루고, 대처하며, 제거하기 위해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넷째 날 마지막 목표는 2개의 상세 목록을 갖는 것이다. 첫 목록은 불안과 스트레스 혹은 고통(그러나 이것들은 지역 언어로 정의된다)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목록이다. 두 번째 목록은 통상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활동과 치료법, 자원, 또는 실천에 대한 목록이다.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두 목록은 2개의 하부 제목으로 나누어진다. 스트레스 요인 목록은 보다 큰 공동체의 사람들을 포함하며 마찬가지로 조직 내의 구체적인 사람들을 포함하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원 목록도 두 부류로 분류된다. 분류에 따른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어떤 요인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가? 어떤 치료법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가? 일반적인 요인들은 무엇인가? 우리 단체에 해당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다섯째 날은 스트레스 관리와 밝혀진 필요를 충족시킬 개발 계획에 대한 단체의 책임 범위를 결정함으로 그 과정을 종결하였다. 온두라스의 선명회 팀은 5가지 필요영역을 밝혔다. 그것은 인력자원 관리, 사무 행정, 조직 문화, 다른 선명회와의 관계, 직원의 건강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주요 주제는 이에 따른 수많은 구체적인 항목들을 포함 한다. 그것들은 지면의 부족과 비밀보장의 이유로 여기에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이 논의된다 해도, 사람들이 경험하는 “체감” 스트레스는 빈곤과 대중의 폭력 또는 교육 기회의 부재와 같은 조건들보다는 근로 요인에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이 흥미롭게 주목된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개인의 상실을 보고한 직원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고 있다는 것이 규명될지라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어떤 주된 관심도 표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직원들을 위해, 현지의 목회적, 건강의, 심리적 치료 통로의 향상은 단체가 마땅히 취해야 할 대응으로 인식되었다. 이를 위해 제기된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고용 기관에 의해 제시되어야 하는 관심이나 문제들은 무엇인가? 개인이 책임져야 할 관심이나 문제들은 무엇인가?”

이 과정의 최종 부분은 평가 과정에 대한 단체의 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대중화하고 창안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전체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변동사항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선임 경영진에게 충분한 시간과 재정 자원을 공급할 것을 요청한다. 이 단계가 없이는, 그 과정은 비효율적이거나 참가자나 다른 직원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온두라스 선명회의 경우, 선임 지도부의 전적인 후원이 처음부터 명백히 이루어졌다. 마지막 날, 3개년 세부 계획이 구상되었으며 그 주간 규명된 각각의 이슈들에 대해 다룰 것을 동의하였다. 더 나아가, 각각의 제시된 과제

들은 주의를 위해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운영 팀에게 임무가 주어졌다. 각 과제를 위해 얼마간의 시간이 예상될지에 따라 시간 계획이 결정되었으며, 각 과제는 연중계획에서 향후 3년간 4분기로 지정되었다. 또한 각 과제와 연관된 예비비가 책정되었으며, 초기의 잠정적인 모금 출처가 확인되었다.

이들 전략의 전반적인 효과는 현저했으며 즉각적이었다. 우선 계획을 실행하고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구상하였다. 외부의 도움이 제공되었지만, 현지 직원들이 수행하였다. 둘째, 어떤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며 사역은 언제 시작할지 명백하고 정확한 규정이 이루어졌다. 셋째, 선임 지도부는 전 과정에 전적으로 헌신 했다.

3) 3 단계: 실행과 평가

이 단계는 지속적이며 내부 및 외부 평가자들에 의해 쉽게 평가된다. 현지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온두라스 선명회의 향후 3년간의 실행 기획의 총 전략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자원 평가와 획득에 대한 일부가 되었다. 모든 활동들이 그들이 계획한 대로 행해지지 않으며 어떤 일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으나, 다른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인도주의 구호 및 개발 기관들의 전반적인 상황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다.

4. 결론

현지 직원을 위한 후원 서비스의 형태, 구조, 일반적인 조건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현지 문화 그 자체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상황 속에서 지원은 어떻게 제공되는지, 기독교 사역이 환영 받으며 비난 받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소개 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합한 케어는 사회에서 가족의 위치, 그룹에서 개인의 위치, 공동체 지도자들의 역할, 치유의 과정, 성공에 대한 개념과 인식에 대해 고려할 것이다. 극심한 빈곤과 기준 이하의 영양결핍의 환경에서, 현지 직원들의 필요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보다는 사람들의 먹을거리와 연관될 수 있다. 만약 직원들의 가

족이 누옥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 직원은 근무 시간 동안 기대 이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완전한 현지 직원 지원 프로그램은 음식, 주택, 직업의 보장, 교육, 건강, 보험 등의 삶의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신적인 후원이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현지 문화에 근거한 상담 사역은 거의 확실하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인간의 필요성, 즉 영성은 과거의 종교 경험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함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그들 자신의 정의에 맞지 않는 영적 경험을 약화시킴으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희생시킨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것을 나아가 초대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각각의 나라와 문화에 맞는 그들 자신의 유일한 형태의 현지 직원 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명회의 현지 직원 관리와 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초기 단계에 있다. 이 시점에서, 소수의 현지 국가들만이 포괄적인 스텝 케어를 실행해 왔다. 이러한 유형의 시도들을 위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고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 선명회 현지 사무실들은 현재 전임 인력자원 책임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적합한 직원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는 책임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들 책임자들을 위한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모임이 매년 한번씩 열리고 있으며 훈련의 기회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의 기독교 선교단체와 다른 NGO들과 세계 멤버케어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앞으로의 전진을 위해 창출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향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선명회는 기꺼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5. 토의 주제

1. 스트레스와 케어에 대한 개념 이해에 있어서 당신의 문화적 배경은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2. 온두라스 사례연구에서 사용된 접근들은 당신 기관의 직원 케어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3. 당신의 선교단체나 기관은 지역의 케어 자원을 기존의 지원 서비스에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가?

4. 유용 기금과 같은 요소들에 의존하는 현지 파트너들에 대한 케어는 선택적 행위인가? 자원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5. 매우 실제적인 면에서, 현지 파트너 직원들을 위해 제공된 지원은 외국인 직원들에게 제공된 것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부록

현지 인도주의 사역자들을 위한 삶²⁾

바이올라 무카사(Viola R. N. Mukasa), 우간다

긴급 및 개발 사역은 국내외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는 친근하지 않은 분야이다. 이들은 도움을 구하는 타국의 부르짖음에, 때로는 그들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도우미(Helper-workers, HPWs)라고 부르곤 한다. 그들은 이 지구상의 특정한 지역을 돕기 위해 심지어 “구원”하기 위해 그들 자신을 헌신한 이들이다. 종종 그들의 사적 관계를 포함하여 이 일은 그들의 안전과 다른 부유한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대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의해 규정되는 선교과제를 위해 이타주의의 이름으로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른다.

나는 도움과 선교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도우미이다. 나는 여러 선교 프로그램에서 일하며 많은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내가 경험했던 가장 지속적인 긴장은 긴급 상황과 연관되었으

2) 이 부록은 the Antares Foundation and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후원하에 2001년 9월 6-8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인도주의 구호단체 직원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Managing Stress for Humanitarian Aid Workers)에 대한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에 기초한 것이다.

며 감정적으로 격변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서 내가 수행해야 했던 사역의 분량에 관련되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긴장과 때로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기대된 결과를 속히 성취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나와 가까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끊임없이 염려해야 하는 것이다.

인도주의 현장과 그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으로 인해 긴장감을 가질 수 있다. 나는 공동체 내의 위협과 문제와 태도, 그리고 도움을 청할 경우 정치인의 변덕스러움을 종종 경험한다.

나는 소속과 비소속에서 오는 다른 종류의 지속적인 긴장을 느낀다. 나는 돕는 자들에 속해 있기도 하며 도움을 받는 자들에 속해있기도 하지만, 나는 외국인도 아니며 수혜자도 아니다. 마치 무엇에라도 홀린 듯이 내게 계속 떠오르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예를 들어, 임시 캠프에서 떠나야 될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와 밀접하게 연관된 생사의 경험들을 간증할 때, 그 곳에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운명을 분명히 상기시키는 온갖 종류의 생각들이 존재한다.

응급 구호 사역은 갈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신에 그것들이 이야기하는 정신적 소모는 현지 도우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열정에 한계를 가져오며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갈등의 결과는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까닭은 우리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 뿐 아니라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국내 도우미들과 국제 도우미들 모두는 개인적인 경험을 다루고 스트레스 상황과 문제들을 처리하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하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일의 신속성에 대해 기쁨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타인에게 재빠르게 응답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불안을 잊게 해 주며 강해질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불안은 도우미들을 압도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지속할 수 있기 위하여 감정의 무기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나는 내 자신과 동료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조종

하는 것은 아닌지 종종 의아해 한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일종의 구세주로 볼 수 있다. 어리석은 현실은 참된 주님의 친밀함과 참된 구주시며 목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 분이시라는 사실을 모호하게 한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생존 전략의 주요 부분은 그분과의 대화와 그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타인을 사랑하고 돕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한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의 고통을 대할 때 우리는 교만과 분노, 악의, 신성모독, 세속적 언어에 부지 간에 빠져들기 쉽다.

또한 하나님이 왜 전쟁과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회의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염세적이 되기 쉽다. 건전한 정신을 갖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며, 성경 말씀에 의지하며,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내게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내가 일하는 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나는 국내 사역자들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현실들을 나누고자 한다. 다음은 EXACT라는 가상 단체에서 병참지원 담당자로 사역하고 있는 마코에 대한 가상 사례연구이다.

마코의 세계

나는 마코라고 불린다. 그것은 나의 길고, “우스운 발음”의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현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름 전체와 같은 개인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나는 Express Action(EXACT)에서 병참지원 담당자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북쪽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부터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 나는 마케팅과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필수품 조달과 보유, 구호물자 수송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었다. 나는 EXACT의 일을 통해, 그리고 또한 밀란에 있는 본부에 의해 정기적으로 파송된 “응급 전문

가들”로부터 익히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 전문가들 중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너무 바쁜 탓에 사귄만한 시간이 없다. 그들은 항상 바쁜 듯 보이며 밀란과 현장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말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외국인들을 위해 뛰어난 철수 방침을 개발하였다.

나는 나의 직업을 만족하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볼 때, 보수는 적절하다. 하지만 북쪽 지역에서 취급되는 “값싼” 삶에 충격을 받게 된다. 인간의 생명은 지뢰와 전투기와 반역자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배고픔과 병과 죽음도 늘 상존해 있다. 나는 나의 삼촌과 할머니가 안전한지 추적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의 마을은 지난달 폭격을 받은 후 텅 비게 되었다. 생존자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어서 나는 그들의 이름을 적십자 사무실에 있는 나의 친구에게 주었다. 나의 어머니는 수색의 결과로 반가운 소식이 있기만을 날마다 고대하고 있다.

나는 근본적으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속도와 긴박성을 즐긴다. 나는 전쟁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 요즘은 국내의 운전기사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모험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그들은 차를 마시거나 트럭에 짐을 실으며 가볍게 이에 대해 이야기 한다. 우리 모두는 염려하지만, 우리의 과제에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때때로 비서와 요리사가 우리의 여행에 대해 묻는다. 그들은 우리가 전쟁터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저 모호하게 알 뿐이다.

나의 가족들은 내가 여행할 때 우리가 취하는 안전 조치의 철저함에 대해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염려한다. 때로 나는 가족들을 참으로 그리워 할 때가 있다. 요즘에 나는 가족들에게 전투지에 갈 것이라는 말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때때로 나는 내 자신에 관한 일에 확신이 없다. 정치가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을 처리할 뿐 사람들에게 미칠 최선의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의 염려를 나누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모험은 구호 사역자로서 그 영역에 수반되는 것이다. 힘든 일 이후에는 맥주를 마시며 농담을 나누는 것으로 충분하다. 때때로 나는 두려움에 싸인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더 두렵게 만드는 것 같다. 나의 두려움이 절

정에 이를 때 나는 미래를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잠시 멈추어서 생각한다. 내가 지뢰를 밟아 죽거나 장애인이 된다면, 그리고 전쟁이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옮겨 온다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한다. 때로 나는 동맥에 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혈을 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가 들 때도 있다. 나는 다른 직업을 찾고 있는 중이다.

† 참고문헌 †

- Danieli, Y. (2001). *Sharing the front line and the back hills: International protectors and providers, peacekeepers, humanitarian aid workers, and the media in the midst*. Amityville, NY: Baywood Publishing Company.
- Danieli, Y., Rodley, N., & Weisaeth, L. (Eds.). (1996). *International responses to traumatic stress*. Amityville, NY: Baywood Publishing Company.
- Janz, M., & Sleed, J. (2000). *Complex humanitarian emergencies: Lessons from practitioners*. Monrovia, CA: World Vision.
- Robben, C., & Suarez-Orozco, M. (Eds.). (2000). *Culture under siege, collective violence and trauma*.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lama, P. (2001, May). *Mental health outcomes among relief workers in Kosovo*. Presentation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Edinburgh, Scotland.
- Shepherd, B. (2001). *A war of nerves: Soldiers and psychiatrists in the 20th century*. Bost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an Brabant, K. (2000). *Operational security management in violent environment: A field manual for aid agencies*. London, UK: Human Practice Network,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 World Vision International. (2000). *Stress and trauma incidences among*